

『권역별 국제문화교류 전략수립에 관한 연구』

연구책임자: 김종법(연세대 EU 센터)

공동연구원: 이성형(서울대)

서정민(한국외대)

이동윤(신라대)

한국국제정치학회

개 요

제1장 연구 제안

1. 연구 배경

- 문화교류협력의 중요성 증대로 국가 간 교류협력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임.
- 일부 국가의 경우 문화원을 개설하고 특정 국가의 해를 지정하는 등의 노력을 공격적으로 취해오고 있음.
- 그동안 문화부에서는 문화원 개설, 수교기념 문화행사 등을 비롯한 각종 문화교류행사를 실시하여왔음.
-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문화교류는 대체로 수교기념 행사 혹은 상대방국의 요청에 의한 수동적 교류의 특성을 지녔음.
-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글로벌 문화정책의 부재로 권역별 불균형적인 정책이거나 소수 국가에 집중하는 문제점이 반복되고 있음
- 문화원이나 지속적인 교류 정책 외에도 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역사적 수준에서의 새로운 기반과 전략의 필요성 대두
- 상호지속적이고 효율적인 권역별 문화전략과 정책의 필요성과 상호보완적이고 복합적인 요소들을 결합한 다각적이고 능동적인 전략과 기준 제시

2. 연구 목적과 필요성

- 권역별 또는 국가별로 한국과의 정치, 경제 및 문화교류의 현황에 따른 중요성과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에 따라 각 권역/국가의 문화적 특성, 한국문화의 수용성, 차별화된 프로그램 구성방향 등을 분석하는 일이 필요함.

- 글로벌 문화교류정책과 한류 정책 확산의 접목

- 관광 외에도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등의 다각적인 차원에서의 상호 교류를 정책의 기조로 채택함과 동시에 소수에 집중된 국가 중심 전략에서 문화와 민족 등을 고려한 새로운 권역의 설정과 그에 적절한 전략과 정책의 필요

- 문화원 개설뿐만이 아니라 보다 정확하고 세부적인 권역별 기반연구를 통한 맞춤형 교류정책을 도출하고 획일적인 정책적 접근이 아니 차별화되고 특화된 정책과 내용을 통해 문화교류정책의 지속성 담보

3. 국제문화교류의 현황 및 문제점

- 그동안의 문화교류사업 및 문화원 운영의 효과성을 중심으로 우리 정부의 기존의 국제문화교류정책에 나타난 문제점 분석

- 해당 권역에 대한 주요국가의 문화교류정책을 우리의 기존 정책과 비교: 문화교류정책의 방향, 프로그램, 문화원 개설 현황 등

제 2장 권역별 연구: 지중해 권역

1. 개요

- 대한민국의 근대화와 산업화 발전경로 속에서 대표적 성공 모델 국가였던 서구 유럽과의 접촉과 교류 역시 활발하게 진행되었음.

- 초기 한국과 서유럽 국가들의 문화교류는 한국의 문화적 정체성과 한국의 문

화정책 수립에 주요한 기준과 방향을 제시.

- 결정적으로 질적인 전환을 가져오게 된 계기는 문화가 갖는 시각성과 이벤트 성에서 탈피하고 지속적으로 전개해야할 정책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던 인식전환기였음.

2. 문화교류의 일반적 특징

- 단순한 공연이나 전시보다는 보다 효과가 큰 보이지 않는 문화의 내용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기초가 변화되었음.

- 한국문화예술단이나 전통공예단과 같은 형식을 빌리지 않더라도 서구 유럽인들에 보다 분명한 인식의 전환과 한국을 각인하는데 더욱 효과적인 정책이 어떤 것인지를 인식하기 시작하였고, 한국 문화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역사, 문학, 영화, 전통에 대한 인식론적 교류와 지속적인 홍보 정책이 기획되고 시행되었음.

- 한국 소설이나 시의 해당국 언어로의 번역 사업의 시행, 한국 역사와 전통문화를 소개하는 책자와 저서의 지원 사업, 다양한 장르의 영화제 참여, 한국과 상대방 국가와의 지속적인 문화교류 정책의 확산 실시 등은 이러한 변화된 문화정책의 기초를 반영한 것이었음.

3. 본문

- 서유럽 주요 국가들의 문화적 특징에 대하여 서술.

- 동유럽 지역의 특징과 문화교류의 주요 현황을 파악하고 주요 특징을 통한 문화교류정책 수립의 기준으로 삼음.

- 아프리카 지역의 특징과 문화교류 현황을 파악하고, 사례 연구 국가로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대한 소개 및 문화교류정책의 의미 서술.

4. 문화교류 정책의 정책적 특징과 내용

- 국제문화교류의 기본 방향으로 ‘문화한국’과 ‘관광한국’의 방향을 설정하고,

문화교류의 목표를 세 가지로 나눔.

- 주요 전략으로 해외 한국문화원 설립, 주요 문화상품 해외진출 개발 지원, 한국문화 이미지(C.I.) 홍보를 통한 국가이미지 제고, 문화산업 현지 진출, 주요 국제 행사 참가, 해외 주요 문화예술계 인사 방한 초청 등의 다양한 전략 수립

5.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한국문화의 유럽 소개

-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한국문화를 해외에 소개하는 노력을 병행하며, 전략과 시행 기준으로 다음의 세 가지 방법 제시

- 첫째 올림픽이나 월드컵과 같은 스포츠 행사의 유치 및 신청 등의 방법. 둘째, 주요 국제행사의 활용. 셋째 ‘한국문화주간’ 또는 ‘한국문화의 달’ 행사 등의 개최하는 경향이 두드러짐.

- ASEM 정상회의의 적극적 활용과 유럽 주요 박물관에 「한국실」의 설치를 제안.

6. 한국과의 상호문화교류정책의 방향과 내용

- 양국간 문화협정이 체결·발효된 이후 일반적으로 문화교류계획서(Cultural Exchange Programme)를 체결하여 2-3년 단위로 향후 문화교류·협력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에 따라 문화교류를 시행함.

- 문화협정이 체결·발효된 이후 문화협정상의 규정이나 양국 간 별도합의에 따라 문화외교국장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 간 문화공동위원회를 설치, 운영함.

7. 지중해 권역과의 문화교류정책을 위한 제언

- 지역 대 지역의 문화교류 정책을 제안하면서 축제를 중심으로 하는 문화교류 정책 수립 제안

제 3장 권역별 연구: 중동 권역

1. 사례 연구

- 사례 1: T-50 고등 훈련기 수주 실패
- 사례 2: “한국인에 대해 왜 이슬람권이 구명운동을 벌여야하는가?”
- 사례 3: 실패로 돌아간 사우디아라비아 내 한국문화원 설치

2. 중동권 문화교류 현황과 정책

1) 대중동 문화교류 활동 현황의 평가

○ 문화 교류의 양적 증가:

- 미주, 유럽, 아시아 등 타지역에 비해서는 아직 크게 부족하나 2000년 이후 한국의 대중동 문화교류는 크게 늘고 있음.

○ 양방향 교류의 시작:

- 한국의 적극적인 대중동 교류 노력에 영향을 받아 중동국가들도 한국에 대한 중동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소 노력하고 있음.

○ 반한 인사들의 등장 시작:

- 일부 지식인들의 반한적 발언이나 지적도 새롭게 등장하고 있음. 과거 한국이 중동과 학술 및 문화교류가 적었을 경우와는 달리 약간의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음.

○ 기업의 참여 확대 조짐

- 현지 진출 한국기업의 인도적 봉사활동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긍정적인 현상도 있음. 일부 기업은 이윤의 일부를 현지 복지서비스에 기부하여 현지인들로부터 큰 반응을 얻고 있음.

2) 대중동 문화교류의 구조적 문제점

○ 일방적 문화교류

- 2000년 이후 중동과의 문화교류가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였으나 한국이 주도하는 일방성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음. 한국의 대중동 문화행사 빈도가 중동의 한국 내 문화행사의 빈도를 크게 앞지르고 있음.

○ 산발적인 단시안적 정책

- 특히 문화적 측면에 있어서는 중동에 대한 장기적인 전략이나 정책이 아쉬운 상황임. 장기적인 전략이 아닌 필요에 의한 논의만 그동안 지속되어 왔음. 파병과 더불어 문화외교가 언급되었지만 결과물은 없었음. 문화공연단, 전시회, 드라마 수출 등만 산발적으로 현지에서 개최되었을 뿐임.

○ 인력 구조와 운용의 한계점

- 장기전략 부재를 언급하면서 매번 지적되는 사항이 전문인력의 부재였음. 여러 학술진흥사업, 전문가 육성 프로그램이 간간히 있어왔으나 이마저도 주로 경제와 교역을 위한 사업들이 대다수였음. 결국 문화사업 혹은 문화교류 방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학문적 연구 기반이 결여되어 있는 상황임.

3. 한국과의 상호문화교류정책의 방향과 내용

○ 정부 내 혹은 범정부적 담당부처 신설 혹은 정비

- 중동과 문화 협력 및 교류 확대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정부의 전담 부서나 통합기구가 설치되어야 함.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마련 및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필수적임.

○ 국내 유관기관의 협력 강화

- 정부의 부처 신설 및 정비와 더불어 국내 중동 관련 유관기관 간 협력도 보다 긴밀히 추진되어야 함.

○ 양방향 교류 유도

- 정례화 된 문화사업, 연례 포럼, 국내의 중동문화원 그리고 현지의 한국문화원 개원 등의 사업이 자리를 잡게 되면 상대방의 호혜적인 조치를 적극 요구해야 함. 문화 교류는 한 방향이 아니라 양방향이어야 함.

4. 소결: 세부 방안은

○ 대외의존형 경제구조를 가진 우리로서는 한국의 이미지를 전세계에 최대한 알려야 하는 시대적, 경제적 과제를 가지고 있음.

○ 최근 양측간의 문화교류가 양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으나, 한국의 일방적인 문화적 접근인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경제우선주의적 시각을 뛰어넘어 문화적으로 상호이해하려는 진정한 노력이 결실을 거두어야 중동권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보임.

5. 세부 방안 제언

○ 앞 절에서 정책방향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데 이어 소결에서는 단기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세부 방안을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함. 일부 사안의 우리와 중동 측과의, 국가 혹은 기구, 사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 될 수도 있어 장기적인 사업이 될 수도 있음.

○ 상징물을 세우자:

- 일개 국가가 될 수도 있지만 중동인들의 왕래가 많은 곳에 한국의 중동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는 상징적인 건축물 혹은 조형물이 필요함.

○ 문화사업을 정례화하자:

- 중동의 역내 국제기구와의 공동위원회 설치 방안, 국내의 중동국 공관과 정부의 통합기구 혹은 KAS와 같은 민간기구간 협력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 번역된 자료를 공급하자:

- 한국의 문화에 대한 중동 언어 번역본을 제작하고 한국 관련 각종 외국어 사이트에 올려놓는 것도 바람직함. 현재 외교통상부와 지식경제부는 아랍어 사이트를 만들어 중동 국가 및 중동인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음.

○ 최대 경쟁력은 태권도다:

- 특히 군부 독재와 경찰국가로 분류되는 중동의 경우 정부 관련 기관에 대한 태권도 교육은 큰 효과를 볼 수 있음. 상류층 혹은 권력층에 대한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권력 혹은 정부의 중심에 한국을 사랑하는 인사들을 양성할 수 있음.

○ 선교단체를 활용하자:

- 현실적으로 한국의 선교활동을 막거나 제한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임. 현재의 활동을 선교보다는 장기적인 차원의 선교라는 접근법으로 일단 인도적 구호활동, 교육 활동, 기타 문화 활동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임.

○ ‘코리아 센터’를 만들자:

- 다목적 그리고 다기능의 성격을 가진 ‘코리아 센터’를 건립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고 효과적일 것이라고 판단됨. 이미 상당수 중동국가에 코이카, 코트라, 재정관, 재무관 등이 파견되어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외교통상부의 공관은 국방, 정보, 정무, 그리고 영사업무를 담당하고 문화와 경제협력 및 ODA를 통합하는 코리아 센터의 개설이 바람직함.

○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자:

- 국내에서도 기부문화가 활성화되고 있는 만큼,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문화투자’ 캠페인을 시작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수주액의 1% 문화투자’하기 혹은 ‘수주액의 0.1% 문화기금 조성하기’ 등의 사업을 구체화하여 협력을 구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만함.

제 3장 권역별 연구: 러시아 중앙아시아 권역

1. 러시아 중앙아시아의 지정학적 조건과 대내외적 발전 노선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지역은 지정학적으로 다른 구 공산권 국가에 비해 서구와의 연결성이 낮음.

-이로 인해 타 탈공산 국가에 비해 서구지향성이 약하며 분명한 대내외적 발전 노선이 부재함.

2. 미국에 대항하는 러시아의 부상

-2000년 이후 러시아는 경제성장과 정치안정을 달성하면서 지역 강국의 위상을 회복.

-푸틴정부는 중앙아시아 정부에 대한 보다 강도 높은 개입정책을 구사.

3. 중앙아시아의 외교노선: 세력균형을 통한 외교노선

-중앙아시아는 편승의 전략이 아닌 세력균형의 전략을 펼침.

-동유럽의 탈공산 국가와 달리 뚜렷한 대외 정책노선이 부재함.

-동유럽 국가들이 유럽연합에 편승하는 전략과 달리 세력균형을 적절히 이용하면서 다양한 국가와 양자관계를 형성하여 대내외적으로 정치적 자율성과 협상력을 제고하고자 함.

-미국, 러시아, 중국, 유럽, 터키 등이 각축을 벌이고 있음

4. 중앙아시아의 지역현안

-모든 국가가 권위주의 국가에 속함.

-키르기즈스탄을 제외하고 권위주의 정권이 안정화되고 있음.

-여전히 국가의 통치능력은 허약한 상태.

-권위주의가 악화될 경우 허약한 국가통치력이 더욱 악화될 수 있음.

5. 중앙아시아 국가의 문화와 문화정책

-중앙아시아는 무슬림, 러시아는 그리스 정교.

-언어정책 등을 통해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적극적으로 탈러시아화를 추진.

-중앙아시아 모든 국가가 토착어를 국가 공용어로 채택.

6. 문화교류의 실효성에 대한 전망

-이 지역은 한국 정부의 문화교류 노력에 대한 수용성이 높은 정치적 조건을 지니고 있음.

-이 지역은 정치, 군사, 경제적으로 서구와 분리되어 있어 서구 편향성이 약하고 대내외적 발전노선이 아직 유동적임.

7. 전략적 방침

-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에 대한 독자적 접근 필요

- 한국 대기업과의 긴밀한 협조

- 당정 고위관료와의 협조

- 중앙아시아에 대한 선택과 집중: 우즈베키스탄

제 5장 권역별 연구: 아시아 권역

1. 개요

○ 오늘날 국제사회는 문화외교를 중심으로 한 국가 간 문화교류와 협력 사업들이 크게 증대되고 있으며, 한국 정부 또한 전략적 차원에서 다양한 국제문화교류 행사와 사업을 추진

- 한국의 국제문화교류는 문화체육관광부, 외교통상부, 교육과학기술부 등과 산하 기관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 추진

- 그러나 그 동안 추진되어 온 한국의 국제문화교류 사업은 거시적 차원의 정책 방향

을 제대로 수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시적 차원에서 일정한 한계와 문제점 표출

2. 본문

- 이에 따라 이 보고서는 동북아, 동남아, 남아시아, 그리고 대양주를 포괄하는 아시아권 국가들에 대한 한국의 국제문화교류 현황과 정책들을 살펴보고, 제반 문제점과 해결방안 점검
- 동북아 지역은 국제문화교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집중적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전략적 요충지이자, 정책적으로 국제문화교류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가장 어려움이 많은 지역
 - 동북아 지역에서 중국, 일본과의 집중적 문화교류는 타 국가, 지역에 비하여 편중성 초래하였으며, 한·중·일 3국의 과거사와 민족주의 감정에 기인하는 정책의 효과성 약화 초래
 - 동북아 지역에서 국제문화교류 사업의 정책적 노력과 투자가 미약한 국가는 대만과 몽골이며, 특히 1992년 국교 단절 이후 새로운 교류관계의 발전적 전략 요망
 - 몽골의 경우에도 최근 민간 차원의 투자와 교류가 활성화되고 있으나, 정부 차원의 지원은 상대적으로 미약한 수준
- 동남아 지역은 동북아 지역 다음으로 한국의 투자와 진출이 가장 심화되어 있는 지역이나, 동북아와 비교하여 문화교류가 상대적으로 미약한 수준
 - ‘아세안 5’(ASEAN 5: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의 경우 한국과 전통적 수교국이며, 동남아 지역에서도 경제적 지위가 비교적 상위인 국가들로서 보다 활발한 문화교류의 필요성 증대
 - ‘CLMV’(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를 비롯하여 브루나이, 동티모르 등은 풍부한 천연자원을 지니고 있거나 최근 경제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국가들로서 전략적 접근 요망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동남아에 대한 인식과 이해 수준은 일천한 수준이며, 단순히 경제적 후진국 정도로 인식하는 태도가 문제
- 지난 2009년 한·아세안 정상회담의 대통령 연설을 토대로 ① 무역·투자의 확대, ② 문화·관광 교류의 확대, 그리고 ③ 녹색성장 분야의 협력 부문에서 문화교류를 통한 적극적 협력과 교류의 필요성 강조
- 남아시아 지역의 경우 아직도 한국에 있어서 생소한 지역이며, 국가 간 문화교류도 상대적으로 저조한 수준
- 2002년 이후 아프가니스탄 파병과 2004년 쓰나미 피해복구 활동 등을 통해 최근 들어 인적 교류와 문화교류가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상황
- 남아시아 지역의 인적 자원이나 시장성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인적 교류와 국제문화교류를 늘려 나가야 할 필요성 증대
- 더욱이 최근 들어 남아시아 지역의 주민들이 한국으로 유입됨으로써 문화적 이질성에 기인하는 새로운 문제점 발생에 대비하는 문화적 이해 요망
- 대양주 지역은 남태평양 지역의 토착 원주민 문화와 식민지배에 따른 서구문화가 복합적으로 결합된 독특한 문화 양식을 표출하고 있으며, 호주, 뉴질랜드를 중심으로 한국 교민의 진출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지역
- 호주와 뉴질랜드의 경우 한국 교민들이 많이 진출해 있다는 사실 이외에도 정책적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상호 간 문화교류를 늘려 나가야 할 국가
- 대양주 지역에 대한 문화교류의 상징적 차원으로 현재 호주 시드니의 한국문화홍보관을 한국문화원으로 승격하여 운영할 필요성 증대
- 그 동안 한국과 아시아권 국제문화교류의 문제점은 양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질적 향상을 위한 재도약이 필요한 시점
- 한국의 아시아권 국제문화교류는 중국과 일본 등 특정 지역이나 국가에 대한 정책

적 편중성 유발

- 한국의 아시아권 국제문화교류는 보다 장기적 차원에서 중복성을 탈피하여 체계적인 접근과 전문성 필요
- 한국의 아시아권 국제문화교류는 선진국들과 비교하여 정책적 차원에서의 지원이나 사업이 양적·질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
- 한국의 아시아권 국제문화교류는 그 동안 양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질적인 차원에서 ‘한류’에만 편중되어 문화 콘텐츠 개발의 취약성 내재
- 한국의 아시아권 국제문화교류는 장기적 차원에서 쌍방향적 국제문화교류와 문화적 다양성을 중심으로 한 정책적 전략의 재편성 요망

3. 제언 및 소결

- 그렇다면 한국의 국제문화교류, 특히 아시아권 국제문화교류에서 나타나는 제반 문제점을 해결하고, 이들 국가들과 문화교류를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은 무엇인가?
- 한국의 아시아권 국제문화교류는 각 지역과 국가에 부응하는 보다 체계적 정책과 전략 수립 요망
 - 아시아·대양주 지역에서 주로 동북아 지역의 중국, 일본에 치중되어 있는 문화교류 정책을 지양하고, 다른 지역에 대한 정책적 지원 제고
 - 아시아·대양주 국가들의 투자·교역 현황과 재외국민 숫자를 고려하되, 한국문화에 대한 수요를 함께 고려
 - 동남아나 남아시아, 대양주 지역에 대한 국제문화교류는 그들 지역과 국가들의 문화적 특성에 맞는 맞춤형 문화교류정책 필요
-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국제문화교류 사업은 보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체계적인 접근과 통합적인 기획 요망
 - 정책의 분산성을 초래하는 부처·산하 기관 간 경쟁을 지양하고 국제문화교류를 총괄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권한 강화
 - 정책·사업의 중복성을 탈피하고 통합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모범 사례로서 ‘코리아

센터'(Korea Center)와 같은 통합성 제안

·정부 차원에서 각 부처 및 해외 파견부서의 국제문화교류 사업을 종합, 주관할 수 있는 유기체적 네트워크와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아시아권 국제문화교류와 공적개발원조(ODA)를 유기적으로 결합한 문화교류 프로그램 개발하여 확충

·국제문화교류 사업의 기획과 준비, 추진과정에서 외교, 문화 전문가뿐만 아니라 지역전문가를 참여시켜 지역별, 국가별 문화 환경에 걸맞는 정책 및 사업의 전문성 제고

- 국제문화교류를 추진함에 있어서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적 지원이나 해외 시설기관 확충

·지역과 국가의 '선택과 집중'에 따른 문화교류 사업의 국제적 역량 강화를 위해 중국, 일본 등 동북아뿐만 아니라 보다 확대된 차원에서 한국문화원과 문화홍보관을 다른 지역과 국가들로도 확충

·동남아 지역의 경우 아세안(ASEAN) 내에서 정치적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태국과 인도네시아 등에 대한 전략적 접근 요망

·남아시아 지역의 경우 종교적으로 인도와 더불어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불편한 관계인 파키스탄도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주요 국가

·대양주 지역의 경우 호주와 더불어 한국인들과 인적 교류가 잦은 뉴질랜드도 문화교류가 강화될 국가로 지목

- 전통 민족문화 및 한류 중심의 대중문화 공연을 지양하고, 보다 다양한 문화교류 프로그램과 문화 콘텐츠 개발

·그 동안 관행적으로 프로그램이 기획되거나 단기간 내 정책적 효과나 경제적 이득을 얻으려는 문화적 상업주의 배제

·한류 열풍이 지니는 대중적 효과성을 인정하더라도 '반한류', '혐한류' 등 부정적인 현상도 함께 고려

·한국의 국제문화교류에 대해 부정적 이미지를 부여하고 있는 해외 언론에 대한 보다 적극적 대응과 개선의 노력 추진(한국국제교류재단이 운영하는 해외인사 프로그램 등을 적극 활용)

- 아시아·대양주 저개발 국가들과의 문화교류를 추진함에 있어서 다문화정책과 연계된 쌍방향적 문화교류와 소통 확대

- 한국 문화에 대한 수요와 공적개발원조 등과 연계된 경제적 후진국들에 대한 쌍방향적 문화교류 추진
 - 한국 문화를 일방적으로 전수하고 보급하려는 태도를 버리고 그들 국가의 수요에 맞추어 상호 교류와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쌍방향 교류 추구
 - 한국학이나 한국어 교육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문 영역에서 장학제도와 펠로우십 운영
 - 국제문화교류를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국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다문화정책도 적극적으로 활용·지원·확대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민간 부문에서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국제문화교류 사업을 통합, 점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네트워크 확립
- 국제문화교류 사업의 중복성과 무책임성을 탈피하기 위해서도 지방정부 및 민간 부문의 국제문화교류를 점검하고 보조·관리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시스템 개발
 - 이러한 관리시스템은 관리·감독이 목적이 아니라 각 기관의 국제문화교류 사업을 점검, 자문, 보조해 줄 수 있는 행정서비스 개념이어야 함

제 6장 권역별 연구: 미주 권역

○ 글로벌 경제위기가 진행되는 가운데 강대국들 사이의 국제질서는 과거와 달리 다극화되어 가는 경향을 보임. 그동안 달러화의 독주에 유로화가 도전장을 내밀었고, 그 틈새에 엔화와 위안화도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중임. 아직은 달러의 주도력이 유지되고 있지만 과거와 달리 그 강도는 훨씬 약화되었음.

○ 다른 한편, 그동안 진행된 세계화의 결과로 중국과 인도 등 신흥경제권도 두각을 드러내면서 다자외교에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킴. IBSA 참여국인 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남남협력의 차원에서 매년 정상회담을 갖고,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브라질과 인도가 주도한 G-20는 도하 라운드에서 제3세계의 결집이 가능함을 보여주었음. 이들은 선진국에게 농업 보조금과 시장 접근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적재산권이나 서비스 무역 등에서 양보할 수 없다고 각을 세우고 있음.

○ 과거의 권력구도가 흔들리면서 국제정치의 무대는 백가쟁명의 시대에 돌입함. 이 가운데 하드파워의 경쟁은 나름대로 치열하게 전개됨. 남미에서 미국의 헤게모니에 도전세력이 생기자 미국은 2차 대전 후 해체를 했던 항공모함 제4함대를 다시 띄움.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최근 들어 군비경쟁이 강화되고 있음. '신냉전 II'란 조어가 생길 정도로 러시아, 프랑스, 중국 모두 남미 국가들의 군 장비 개선 사업에 뛰어 들어 미국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음.

○ 하지만 오늘날 외교에서 하드파워와 더불어 소프트파워의 중요성도 크게 부각됨. 다른 나라에게 매력적으로 어필하고, 그것이 중장기적으로 국가이익을 부드럽게 실현하기 때문임. 이런 연유로 오늘날 공공외교(public diplomacy)가 각광을 받고 있음(Cowan and Cull, 2008). 이미 냉전기에 미국은 미국문화원(USIA)을 설치하여 프로파간다에서 공공외교로 전환하여 그 효능성을 입증한 바가 있음. 미국적 가치는 미국문화원,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풀브라이트 프로그램을 통해 자연스럽게 상대국 공중과 엘리트층에 흡수됨.

○ 문화외교의 대국이라 할 프랑스 역시 프랑스문화원, 알리앙스 프랑세즈, 쿼튀르 프랑스 (Culturefrance)등의 기구를 통해 프랑스어와 문화 예술을 자연스럽게 전파함. 독일은 괴테 인스티투트, 스페인은 세르반테스 문화원, 이탈리아는 이탈리아문화원을 통해 자국의 언어와 문화를 자연스럽게 전파해 왔고, 또 전파하고 있음.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공공외교, 좁혀 말하면 문화외교의 선진국임.

○ 문화외교도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음. 이제 세계화와 정보화의 진전으로 공중에게 직접 다가가는 다양한 이미지와 정보의 양이 많아졌고, 이런 매개물을 통해 한 나라의 국력이나 이미지 그리고 문화가 전달됨. 또 과거보다 훨씬 많은 인구가 여행이나 디아스포라를 통해 타국과 타 지역 문화를 경험하고 있음. 이에 따라 장소 브랜드(place brand)인 국가 브랜드 만들기가 나라마다 유행이고, 문화교류를 통한 상호이해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음.

○ 대체로 공공외교는 (1) 청취(listening), (2) 옹호(advocacy), (3) 문화외교(cultural diplomacy), (4) 교류외교(exchange diplomacy), (5) 국제 뉴스 방송(international news broadcasting)의 다섯 차원으로 나뉨(Cull 2008: 32-6). 청취는 현지의 공중과 그들의 의견에 관한 데이터를 모으고 정리하여 정책을 수정하거나 보다 광범하게 공공정책의 접근법을 재편하는 것을 말함. 옹호는 행위자가 특정

한 정책, 아이디어, 일반적인 이해를 외국 공중의 마음속에 심기 위하여 국제적 커뮤니케이션 행위를 하고, 이를 통해 국제 환경을 관리하는 활동을 가리킴. 가장 비근한 예로 대사관의 언론 홍보 활동을 들 수 있음. 문화외교는 한 나라의 문화적 자산과 성과물을 외국에 알리고 문화적 전파를 촉진하여 국제 환경을 관리하는 행위자의 활동임. 정부가 보조하는 국제예술 교류전이 이에 해당함. 교류외교는 연구 기간 또는 문화습득 기간 동안 시민을 파견하거나 외국 시민을 받아들여 상호교류를 하는 활동을 말함. 국가 간 학술교류 활동이 여기에 해당함. 국제 뉴스 방송은 라디오, TV, 인터넷을 통해 외국 공중과 접촉하는 활동을 말함. 오늘날 정보혁명으로 인해 사이트나 블로그를 통한 외교활동도 무시하지 못할 수준이 되었음.

○ 공공외교의 시간대, 정보 흐름, 인프라

공공외교의 유형	시간대	정보의 흐름	전형적인 인프라	한국의 경우
청취	단기와 장기	분석가와 정책과정으로 환류	모니터링 기술과 외국어에 능통한 스태프	외통부와 대사관, 국정원
옹호	단기	대외용	대사관 홍보직, 외교부처 전략기획팀	외통부, 대사관 홍보 담당
문화외교	장기	대외용	문화원 또는 도서관	문화관광체육부 산하 문화원,
교류외교	대단히 긴 장기	대외 및 내부	교류기구, 교육부처	국제교류재단(KF)
국제방송	중기	뉴스 송출자에서 대외로	뉴스국, 스튜디오, 편집국, 송출설비	아리랑 TV, KBS

출전: Cull(2008: 35). 한국의 경우는 필자가 추가함.

○ 공공외교의 다섯 차원은 대체로 정부나 산하 기구의 영향 아래 있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음. 종종 프랑스처럼 대단히 비대하게 팽창한 기구들 사이에 조정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직 충분히 발전한 단계가 아니므로 그런 걱정은 없음. 다만 선진적인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걱정해야 할 것임.

○ 이 글은 주로 라틴아메리카와 우리의 문화 교류의 실상을 파악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알아보기 위해 작성된 것임. 한국의 대 중남미 교류의 역사는 짧고, 성과도 제한적임. 이제 걸음마 수준의 문화교류가 시작된 수준이니 선진국의 경험과 교훈을 잘 새긴다면, 시행착오의 비용을 줄일 수도 있을 것임. 제2장에서는 주로

한국과 라틴아메리카가 서로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는 지 살펴봄.. 상대방의 인식과 기대수준을 이해해야 성공적인 문화교류와 교류외교가 이뤄지기 때문임. 제3장에서는 문화외교와 교류외교의 인프라와 현황을 살펴보고, 우리가 이제까지 도달한 수준에 대해 평가를 할 것임. 이어 문화교류의 대표적 사례를 필자가 경험한 예를 살펴보고 문제점을 지적할 것임. 제4장에서는 향후 개선되어야 할 점들을 포괄적으로 제시할 것임.

목차

제1장 연구 제안 개요

1. 연구 배경

1) 문화교류협력의 중요성 증대

- 문화를 통한 국가 간 교류협력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임.
- 일부 국가의 경우 문화원을 개설하고 특정 국가의 해를 지정하는 등의 노력을 공격적으로 취해오고 있음.
- 이러한 국가별 노력의 이면에는 국제사회에서 자국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익의 실현을 보다 용이하게 하려는 목적이 존재함.

2) 기존 문화교류의 문제점

- 그동안 문화부에서는 문화원 개설, 수교기념 문화행사 등을 비롯한 각종 문화교류행사를 실시하여왔음.
- 그러나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문화교류는 대체로 수교기념 행사 혹은 상대국의 요청에 의한 수동적 교류의 특성을 지녔음.
- 해당권역이나 국가에 대한 면밀한 검토에 기반한 체계적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그 효과도 미미하였음.
- 또한 주요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문화원 수, 전통공연 중심의 획일적 프로그램 편성 등으로 권역별 문화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교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음.

3) 문화교류 형태와 방법에 따른 구체적 문제점

-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글로벌 문화정책의 부재로 권역별 불균형적인 정책이거나 소수 국가에 집중하는 문제점이 반복되고 있음
- 2009년 1월에 발표된 해외 관광객 내방 현황을 보면 이와 같은 불균형과 소수 국가에 지나치게 집중된 기형적인 문제점이 노출
- 일률적이고 획일적인 문화교류정책으로는 변화하는 세계와의 소통과 교류에 한계를 노출시킬 수밖에 없음

○ 문화원이나 지속적인 교류 정책 외에도 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역사적 수준에서의 새로운 기반과 전략의 필요성 대두

○ 상호지속적이고 효율적인 권역별 문화전략과 정책의 필요성과 상호보완적이고 복합적인 요소들을 결합한 다각적이고 능동적인 전략과 기준 제시

2. 연구 목적과 필요성

1) 권역별 맞춤형 문화교류 전략의 필요성

○ 권역별 또는 국가별로 한국과의 정치, 경제 및 문화교류의 현황에 따른 중요성과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에 따라 각 권역/국가의 문화적 특성, 한국문화의 수용성, 차별화된 프로그램 구성방향 등을 분석하는 일이 필요함.

○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문화원 개설 및 문화교류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를 통해 문화교류를 통한 국가이미지 개선, 브랜드 창출로 타국과의 우호협력 증진의 문화적 토대를 마련하고, 나아가 기업의 대외활동에 긍정적 여건을 조성할 수 있을 것임.

2) 글로벌 문화교류정책과 한류 정책 확산의 접목

○ 세계 속의 한국에 대한 위상과 인식이 증가하면서 한국을 방문하는 해외 관광객의 수와 출신 국가의 다변화

○ 관광 외에도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등의 다각적인 차원에서의 상호 교류를 정책의 기조로 채택함과 동시에 소수에 집중된 국가 중심 전략에서 문화와 민족 등을 고려한 새로운 권역의 설정과 그에 적절한 전략과 정책의 필요

○ 2008년 말부터 시작된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경제적인 이유로 인한 해외관광객의 수가 급감하고 있으며, 문화교류 역시 축소하는 추세이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의 문화교류정책을 통한 한국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적 틀과 내용이 필요한 시기의 도래

○ 문화원 개설뿐만이 아니라 보다 정확하고 세부적인 권역별 기반연구를 통한 맞춤형 교류정책을 도출하고 획일적인 정책적 접근이 아니 차별화되고 특화된 정책과 내용을 통해 문화교류정책의 지속성 담보

3. 연구 내용

1) 국제문화교류의 현황 및 문제점

○ 그동안의 문화교류사업 및 문화원 운영의 효과성을 중심으로 우리 정부의 기존의 국제문화교류정책에 나타난 문제점 분석

○ 해당 권역에 대한 주요국가의 문화교류정책을 우리의 기존 정책과 비교: 문화교류정책의 방향, 프로그램, 문화원 개설 현황 등

○ 주요 문제점에 대한 원인 분석

- 예를 들어 상대국의 문화적 수용성에 대한 검토 없는 일방향적 문화교류의 문제점

- 권역별·국가별 우선순위 고려 부재 등의 문제점

- 가급적 구체적 통계수치 제시를 통한 분석

2) 권역별 문화적 특성 분석

○ 권역별 문화교류의 현황, 문화적 특성, 한국문화 선호도, 국제사회에서의 정치경제적 중요성 분석

○ 권역별 거점국가의 문화적 특성, 한국문화 선호도, 우리문화의 현지 수용성 및 호감도 분석

○ 우리기업의 주요 거점 현황 및 문화교류를 통한 기업이미지 제고 가능성 검토

3) 권역별 맞춤형 문화교류전략의 방향 제시

○ 문화교류의 선택과 집중을 위한 권역별, 국가별 우선순위 도출

○ 이에 근거하여 향후 5년간 문화교류 집중대상, 문화원 개설 대상지역 단계별 도출

○ 향후 문화교류에 있어서 권역별 중점사항, 주요 수요 목표층, 적절한 문화교류 프로그램의 예를 제안

○ 이러한 과제에 도움이 될 만한 주요 계기, 네트워크 연계 가능 기관 분석 등

4) 권역에 기초한 새로운 문화교류정책과 방법의 모색

- 미일이 중심이 된 기존 문화교류정책과 확장된 개념으로서 권역 중심의 문화교류정책 수립의 기반 제공
- 권역별 분류의 적절성에 대한 예시를 제시하고, 연구 대상 지역 이외 권역과의 관계와 경계 설정
- 한국의 문화교류정책의 근본적인 반성과 성찰을 통해 새로운 문화교류정책과 방법을 모색하고, 개발 가능한 프로그램 개발 추진

4. 연구 방법

1) 효과적 역할 분담을 통한 연구 추진

- 책임 연구자 및 공동연구진이 연구의 전 과정에 참여하나 영역별로 역할 분담을 하여 효율적 진행을 할 수 있는 유기적 연구체계 운영

2)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3) 외부 인적자원의 효과적 활용

- 연구에서 방향 설정을 통한 비전과 목표 도출, 정책 과제 제시 등이 이뤄지므로 자문회의, 워크숍 등을 수시로 마련하여 외부 전문 인력을 적극 활용

4) 연구방법

- 문헌조사 및 현지 조사·면접
- 문화관광정책연구원과의 세미나 개최를 통한 자문회의
- 주한 재외공관 문화담당 공보관에게 설문지 작성을 통한 이메일 작성
- 재외 한국주재 공관과 대사관 등을 통한 현지의 사정을 고려한 설문지 작성

5. 연구의 기대효과

1) 중장기적 관점에서 문화교류 방향 수립, 문화원 개설 계획·근거 도출

2) 권역별, 국가별 특성을 감안한 교류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3) 문화를 통한 상대국과의 여타 분야에서의 협력증진 가능성 검토

4) 다각적인 연구를 통한 비전 제시

○ 문화교류정책의 선도적 역할을 하는 국가의 정책을 모범사례로 선정하여 비교 연구함으로써 한국적 상황에 걸 맞는 새로운 정책의 접목

○ 해외지역 전문가, 해당 지역 예술가 등을 활용한 상시적인 자문회의와 해당 국가의 동포, 한국에 관심이 있는 주민 등을 대상으로 모니터링과 인터뷰 등을 병행함으로써 추진방향 및 체계수립 방향설정 지원

제2장 권역별 연구: 지중해 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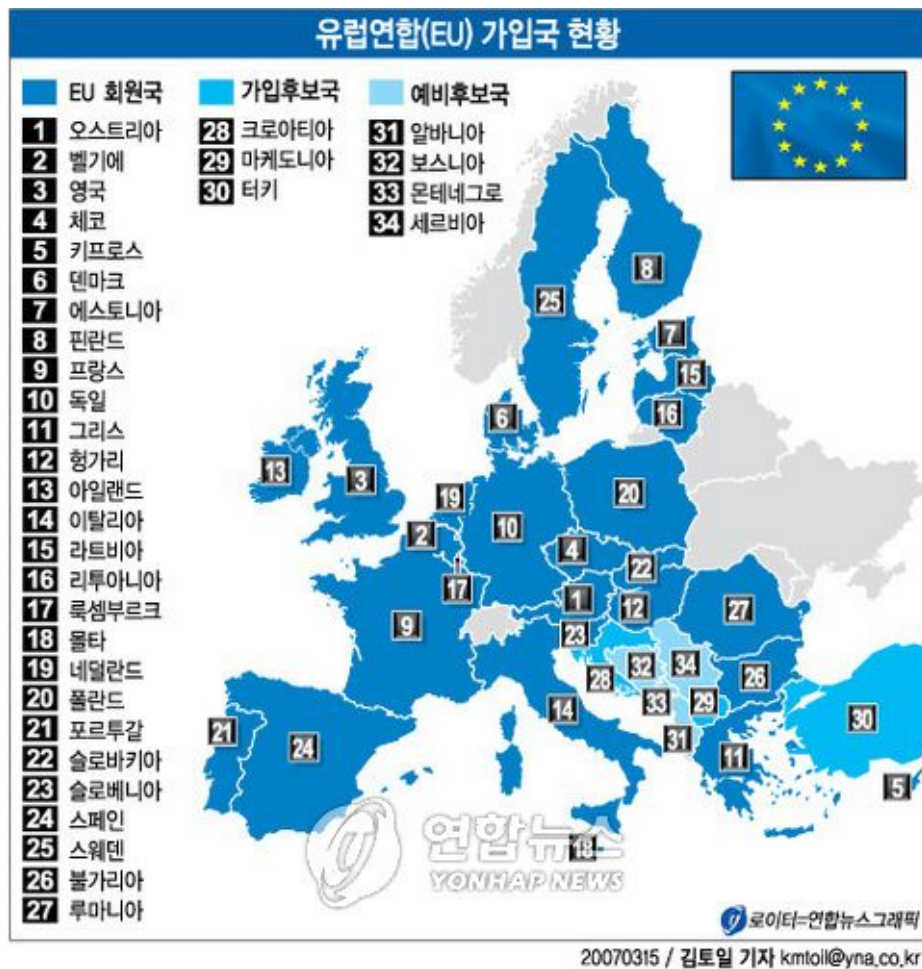
제1절 지중해권 문화교류 현황과 정책

I. 서유럽 지역의 문화 교류 현황과 내용

1. 지역적 특징과 문화교류의 주요 현황

1) 지역적 특징

<그림 2-1> 서유럽을 비롯한 유럽연합 지역의 지도



- 서유럽 지역은 유럽의 여러 지역 중에서도 한국과 근대적 교류를 가장 먼저 시작했고, 한국(실제로는 조선 시대에)에 서양 문물과 종교를 처음으로 전달해 주었던 서양 국가들이 밀집 있다.
- 한국과의 문화교류 역사가 가장 오래된 지역의 하나이며, 오랜 역사와 문화적 전통에 대한 평가 역시 비교적 공정하고 높은 점수를 주는 국가들이 많음.
- 한국에 대한 무지와 외교적 필요성에 의해 시작된 이들 지역과의 국제관계의 시작은 전적으로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필요에 의한 것이었음.
- 한국과 서유럽 국가 간의 국제관계의 출발은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동기가 가장 중요한 이슈였음.
- 문화적이거나 사회적인 수준에서의 교류나 정책의 입안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지만, 서양의 근대 문물과 문화적 산물을 한국 사회에 전달해줌으로써 한국의 봉건적 사회질서에 커다란 충격과 함께 근대 문명에 대한 이해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서유럽 국가들은 한국 근대 문화 정책 수립의 주요한 근거를 제공.
- 두 번에 걸친 세계 전쟁 이후 대한민국 정부와 서유럽의 보다 근대적이고 공식적인 교류가 시작되었음.
- 대한민국의 근대화와 산업화 발전경로 속에서 대표적 성공 모델 국가였던 서구 유럽과의 접촉과 교류 역시 활발하게 진행되었음.
- 초기 한국과 서유럽 국가들의 문화교류는 한국의 문화적 정체성과 한국의 문화정책 수립에 주요한 기준과 방향을 제시.

2) 문화 교류의 일반적 특징

- 김대중 정부에서 유럽 순방외교를 통해 좀 더 본격적으로 시작된 서유럽 국가들과의 문화교류 정책은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특징을 통해 전개.
- 첫째,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소개를 중심으로 한 문화교류 정책이 일반적인 방향이었다. 따라서 전통적인 한국 문화에 대한 소개에 치중하였고, 한국적인 것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 위주의 교류 정책이 시행되었다. 그러나 정치사회적 여건이 충분하지 않았던 한국의 입장에서 서유럽 국가와의 경제적 협력 유지에도 벅찬 상황은 한국의 문화정책이나 문화교류에 커다란 역점을 둘 수 없었으며, 고작해야 외교 사절단이나 기타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한 이들을 위한 공연 중심의 소개였고, 해외에 파견된 문화예술단 역시 한국 문화의 체계적인 소개보다는 이벤트 중심의 공연이나 전시에 국한한 활동이 주를 이루었다.
- 둘째, 일반적인 경우 상호 문화교류보다는 한국이나 상대국이 일방적으로 진

행하는 일방통행적 교류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 상호교류를 통한 해당 당사국과 한국의 전반적인 이해와 협력을 증진하는 것보다는 상호 이해의 보조적 수단에 머무르고 있었으며, 여전히 문화에 대한 인식은 아직 낮은 수준이었다.

- 셋째, 문화정책의 일정한 방향이나 시행은 거의 부재하였다. 특정한 정치사회적 사안에 따라 급조되고 즉흥적인 정책과 교류 형태가 결정되었을 뿐 장기적인 관점이나 항구적인 연속성을 갖는 문화교류 정책이 부재하였다. 따라서 일회성 행사나 이벤트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고, 상황이 그러다 보니 한국적 입장에서의 문화정책이란 행사의 증가나 이벤트의 활성화를 어떤 방식으로 어떤 단체나 내용으로 실시하는가가 가장 중요한 중점 사항이었고 목표였다.

- 이와 같은 초기 문화교류 정책은 한국사회가 경제적인 수준뿐만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성장하면서 좀 더 다양하고 발전적인 문화교류의 방향성과 정책들이 계획되고 실행되었음.

- 결정적으로 질적인 전환을 가져오게 된 계기는 문화가 갖는 시각성과 이벤트성에서 탈피하고 지속적으로 전개해야할 정책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던 인식전환기였음.

- 단순한 공연이나 전시보다는 보다 효과가 큰 보이지 않는 문화의 내용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기조가 변화되었음.

- 한국문화예술단이나 전통공예단과 같은 형식을 빌리지 않더라도 서구 유럽인들에 보다 분명한 인식의 전환과 한국을 각인하는데 더욱 효과적인 정책이 어떤 것인지 인식하기 시작하였고, 한국 문화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역사, 문학, 영화, 전통에 대한 인식론적 교류와 지속적인 홍보 정책이 기획되고 시행되었음.

- 한국 소설이나 시의 해당국 언어로의 번역 사업의 시행, 한국 역사와 전통문화를 소개하는 책자와 저서의 지원 사업, 다양한 장르의 영화제 참여, 한국과 상대방 국가와의 지속적인 문화교류 정책의 확산 실시 등은 이러한 변화된 문화정책의 기조를 반영한 것이었음.

- 탈냉전 이후 국제정치질서의 변화에 맞추어 이념이나 사상에 제한을 두지 않고 다양한 국가에서 다양한 문화 수단과 내용을 소개하는 등 문화정책의 개방성이 가장 돋보였던 지역 역시 서유럽 국가들이었음.

- 이들 지역의 주요 국가들은 다음과 같은 문화적 특징이 존재함.

- 자유·평등·박애의 민주주의 이념의 전파와 그러한 민주주의의 이념을 상징화한 문화적 전통을 간직하고 있음.

- 자본주의적 전통에 의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개화한 최초의 지역답게 현대 서구 문명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있음.

- 존중하고 수용하는 열린 마음을 가진 문화적 전통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질적이거나 이국적인 문화를 문명 수준의 고하로 평가하지 않고, 문화적인 순수성을 간직하고 있음.

2. 서유럽 주요 국가들의 문화적 특징

1) 영국

- 오늘날 서구의 여러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의회민주주의를 꽃피운 국가인 영국은 스페인으로부터 대서양 패권을 쟁취한 뒤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불리면서 세계 정치와 경제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

- 이러한 오래된 전통은 왕실 문화, 차 문화, 신사의 나라, 골프의 발상지, 산업혁명을 이끌었던 양모 산업의 중심지라는 특징을 지님.

- 제 2차 세계 대전이 종결된 뒤에도 핵 반대 운동의 선구자로서 신좌파 문화를 주도했고, 정치사상가와 발군의 소설가들을 배출한 문화 강국.

-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G-8 및 최근 시작된 G-20의 2009년도 의장국을 지내기도 할 만큼 세계 여론과 국제질서를 이끌어 가는 국가임.

- 세계 5~6위의 무역대국일 뿐만 아니라, 런던은 국제 금융센터로서 세계경제의 거점으로 인식.

- 베버리지 보고서 채택에 의해 시작된 복지국가 모델의 유럽적 전형을 갖고 있던 국가로 국제적으로 유명한 프리미어 리그를 운영하는 스포츠 강국.

2) 독일

- 분단국가의 이미지가 강했던 독일은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통일되면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문화국가로 인정받고 있음.

- 연방주의라는 정치 구조 아래 지역적 특색을 강조하는 다양한 문화재와 독특한 지방색을 나타내고 있는데, 문화적 전통에서는 음악과 미술 부문에서 특히 뛰어난 역사적 경험과 문화적 역량을 발휘하고 있는 국가임.

- 정치경제적 차원에서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이른바 ‘라인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경제부흥기를 거쳐 오늘날의 경제 대국의 이미지를 구축.

- BMW, 폭스바겐, 벤츠 등으로 대표되는 자동차 산업과 기계 산업, 그리고 다양하고 토속성 짙은 유명한 맥주의 나라이자 분데스리가로 불리는 프로리그가 존재

하며, 스포츠 강국이기도 함.

- 의학과 자연과학이 매우 발달한 전통적인 산업 강국이며, 천혜의 자연환경과 아름다운 성들이 즐비한 환경 강국이기도 함.

3) 프랑스

- 예술과 패션의 나라로 모든 국가들에게 인정받고 있는 프랑스는 문화 강국이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서유럽 국가.

- 풍부한 감성을 바탕으로 예술적 소양이 뒷받침 된 뛰어난 과학기술과 스포츠 강국으로도 세계에서 위상을 높이고 있는 프랑스는 미국의 북미 문화와 차별되는 특징을 가진 국가임.

- 예술의 나라라는 표현에 걸맞게 미술, 음악, 문학, 사진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문화적 역량을 갖고 있으며, 프랑스를 대표하는 분야인 패션을 통해 프랑스 여성들은 세계 패션을 리드해 가고 있고, 그에 걸 맞는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들, 코코 샤넬(Coco Chanel), 이브생로랑(Yves Saint Laurant), 크리스티앙디오르(Christian Dior) 등을 소유하고 있는 국가

- 와인 천국인 프랑스는 고급 와인의 생산지로 생산되는 와인은 품질이 세계에서 으뜸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보르도, 부르고뉴 지방에서 생산되는 레드 와인이 특히 유명함.

- 프랑스 영화는 미국의 할리우드 영화와 차별되는 독특한 특징이 있는 국가로 평가받고 있으며, 그에 걸맞게 수많은 영화제가 개최되는 동시에 영화산업에 대한 국가적 투자 역시 세계 2위에 해당할 정도로 문화에 대한 조예와 인식이 깊고 문화적 소양이 상당한 국가임.

4) 스웨덴

- 스웨덴은 전통적인 사회복지의 강국이며, 남녀평등이 가장 잘 실현되고 있는 나라로 유명.

- 창의성이 강한 국민적 특성으로도 다이너마이트, 지퍼, 우유포장지, 프로펠러, 인공심장박동기 등 실용적 발명품을 개발하여 ‘발명의 나라’로 불리기도 함.

- 문화적 차원에서 스웨덴은 조직적인 정부지원을 통해 음악을 주요한 문화적 수단으로 삼고 있으며, 대중음악에도 상당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국가임.

- 경제적인 측면에서 스웨덴은 노벨상으로 대표되는 과학 진흥국으로 볼보와

SAAB 등의 세계 유수의 자동차 회사와 항공기 회사 등을 보유하고 있음.

5) 아이슬란드

- 얼음의 나라로 알려진 아이슬란드는 유럽에서는 비교적 비개방적인 국가로 이민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으며, 거주 외국인의 대부분은 임시 근로자이거나 아이슬란드인과 결혼한 사람들이 주를 이루고 있음.

- 얼음의 나라라는 애칭과는 달리 섬의 남서쪽으로 멕시코 만류가 흘러 의외로 춥지 않은 해양성 기후를 가진 국가로, 저기압의 발생지인 까닭에 기상이 극히 불안정하고, 화산섬의 토양 조건과 한랭한 기후로 농업이 거의 전무하고 어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바이킹의 축소판이자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로서, 관광객으로부터 많은 수입을 얻고 있을 정도로 관광산업이 주요 산업적 기반이며, 북극에 가장 가까운 유럽 지역으로 볼 수 있음.

6) 노르웨이

- 2만km가 넘는 해안선과 남단에서 북단까지 일직선으로 1,750km나 되는 피요르드로 유명한 국가로 국토의 30%가 북극권에 속해 있으며,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2,000여개의 섬을 포함하여 약 15만개의 섬을 가진 다도해 국가임.

- 전체적으로 겨울이 길고 여름이 짧고 서해안은 Gulf Stream의 영향으로 겨울은 평균 기온 -1~-2도로 온화하며, 여름은 평균기온 9~17도임. 내륙 산악지역과 북부는 대체로 서해안 보다 한랭하고 바람이 강한 편임.

- 매우 다양하고 방면에 뛰어난 예술가들이 많은 노르웨이는 국제적인 명성에 걸맞게 연극, 영화, 그림, 민속무용, 문학 등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자연을 사랑하는 국민으로서 자연환경에 대한 보존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음.

7) 핀란드

- 호수가 전국토의 약 9%를 차지할 정도로 호수 천국인 국가로, 주변 100km가 넘는 호수가 60개 정도 있을 정도이며, 멕시코 만류와 발트 해의 영향으로 연중 평균기온은 같은 위도에 있는 다른 나라보다도 온화한 편임.

- 숲과 호수의 나라라 할 만큼 삼림이 중요한 자원이며 육지의 71%를 삼림이

뒹고 있으며, 우리나라에 잘 알려진 자일리톨을 생산하는 국가로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국가임.

- 다양한 외국 지배의 역사를 갖고 있는데, 스웨덴시대와 러시아시대 및 독립시대를 거쳐 제 2차 세계대전 때에는 소련과의 관계로 인해 독일군에 가담하였으며, 이로 인해 소련에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하기도 했던 역사적 부침이 많았던 국가임.

- 대통령과 총리 모두 여성이 맡고 있는 국가로도 유명하며, 대학까지 의무교육 시스템을 가졌음에도 국가경쟁력 1위인 국가로 유명함.

- 중립국인 핀란드는 사회주의와 자유시장 경제가 혼합된 선진경제 강국이며, 특히 풍부한 삼림자원으로 목재 및 종이제품의 생산과 수출에서는 세계 유수의 국가로 금속공업, 토목·건축 산업 등이 두드러지게 발전한 국가임.

- 핀란드는 유럽 펄프의 19%, 종이 32%, 목재 22%, 합판 42%를 생산하며, 특히 종이 산업과 관련하여 목재가공기계의 생산은 세계적이며, 조선업에서는 쇠빙선·호화객선·화물선·카페리·석유채굴장치 등을 만들기도 하고, 독특한 핀란드의 디자인은 세계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음.

- 2000년대 들어서는 정보기술 산업이 크게 발달하였는데, 특히 ‘노키아’로 대표되는 휴대폰 생산은 2003년도 핀란드 전체 수출액의 20% 이상을 차지할 정도임.

- 핀란드의 가장 주요한 사회적 특징인 사회보장제도는 사회보험·사회보조·사회복지의 3종류이며 이로 인한 지출은 국민소득의 1/5을 차지할 정도이며, 이민제한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임.

8) 스페인

- 플라멩고와 투우의 나라로 알려진 스페인은 다양한 지역 색과 문화가 다채로운 국가로 지방에 따라 문화적 격차가 두드러진 독특한 문화 강국임.

- 역사적으로 남미 신대륙 발견과 은과 금을 유입하면서 유럽 자본주의 체제를 출범시키는데 많은 공헌을 한 국가로 이질적이고 다양한 문화에 대해 개방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음.

- 오랫동안 독재체제를 겪었던 역사적 경험 때문에 유럽연합 회원국들 중에서도 정치체제의 불균등한 측면이 나타나긴 하지만, 다양한 지역을 기반으로 최근 경제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국가임.

- 프로 축구리그로 유명하기도 한 스페인은 관광 산업을 기반으로 자동차, 화학, 기계, 식품 등의 산업을 집중적으로 성장시키고 있으며, 피카소, 달리, 가우디와

같은 위대한 예술가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문화 강국이기도 함.

9) 이탈리아

- 역사적으로나 지정학적으로 한국과 유사한 측면이 많은 지중해 중심 국가임.
- 중소기업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산업구조, 가톨릭이 사회 운영의 주요 규범이자 원칙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무역 중심의 경제 시스템, 지역 색이 뚜렷하여 남과 북의 격차가 두드러진 점 등도 사회적으로 한국과 유사한 점.
- 문화적으로 이미 잘 알려진 로마제국과 르네상스 문화, 그리고 가톨릭 문명의 발상지라는 측면에서 문화정책의 모범을 보이는 국가이기도 함.
- 전통적으로 디자인과 연계된 산업이 특히 발달하였는데, 섬유, 의류, 가구, 기계, 건축 자재 등등의 다양하고 중소기업형 공산품 생산에 탁월한 재능과 우위를 점하고 있는 국가임.
- 세리아 A라고 하는 프로축구 리그뿐만이 아니라 유럽의 프로 스포츠 메카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언론 재벌 출신의 총리 베를루스코니로 인해 끊임없이 해외 토픽에 기사거리를 제공하고 있는 국가임.

10) 아일랜드

- 북아일랜드의 독립문제로도 유명한 국가로, 영국과도 역사적인 대립과 갈등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음.
- 민요와 포크 음악으로 유명한 특징이 있고, 럭비를 비롯한 축구 역시 아일랜드를 대표하는 문화 수단임.
- 1990년대 후반 IT 산업의 비약적인 성장으로 2007년까지만 해도 1인당 국민소득이 유럽에서 가장 높은 국가이기도 했으나, 외자 유치에 의한 거품 성장이라는 것이 2008년 세계경제 위기 이후 대두되었던 경제위기로 인한 국가부도 직전의 국가임.
- 주요 산업은 목축업이었으나, 최근 IT 중심의 제조업으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졌으며, 양조업과 축산물 가공업이 매우 활발하며 기계 및 금속 공업도 발달.

11) 그리스

- 신화의 나라로 알려진 그리스는 세계적인 문화유산과 지중해성 기후를 간직

한 대표적인 지중해 연안 국가임.

- 오래 역사적 전통만큼 찬란한 문화유산과 고대 그리스 시대의 유적이 많으며, 해안의 다채로움과 온화한 기후로 유럽의 휴양지로 각광을 받고 있음.

- 2001년 유로 존에 가입한 그리스는 유럽연합 내에서 비교적 경제 성장률이 높은 국가로, 관광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서비스업과 선박제조업이 국가의 주축인 국가임.

- 관광업이 외화 수입의 주요 원천이며, 그리스 총 GDP의 15%를 차지할 정도이며, 총 노동 인구의 16.5%가 관광업에 종사할 정도로 문화적 소양과 기반이 강한 국가임.

- 주요 산업적 기반으로는 첨단 기술 장비 생산과 섬유, 건축 자재, 기계, 운송 장비, 전자 제품 등이 있으며, 2004년 아테네 올림픽으로 건설 붐이 일어났지만, 국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투자와 비중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

12) 오스트리아

- 에델바이스의 나라 오스트리아는 중립국으로 음악과 문화의 중심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임.

- 오스트리아의 주요산업은 제철업, 금속가공업, 관광산업인데, 두드러진 특징은 자유민주주의 경제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주요 기간산업의 국유화·국영화 추진되고 있다는 점.

- 석유화학·제철·자동차 등 중화학공업 분야에는 국영 대기업이 많이 진출하여 세계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수공예 제품 생산에도 전문화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

- 관광업은 오스트리아 주요 외화 획득이자 기반 산업인데, 무역수지적자의 대부분을 상쇄시켜줌으로서 경상수지의 균형을 이루는데 크게 기여해왔으며, 특히 알프스산맥이 동서로 국토를 길게 관통하고 있어 예로부터 산악관광이 발달하여왔음.

13) 포르투갈

- 전통 노래 양식인 '파두'와 축구로 유명한 포르투갈은 정의의 동물로 알려진 '수탉'이 상징인 국가이며, 자연과 전통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국가임.

- 유럽의 다른 나라들과 다르게 물이 매우 맑으며 상수도 설비가 특히 잘 되어 있어서 어느 곳에서든지 수돗물을 생수로 사용하는 유럽의 유일한 국가 중 하나임

(수도인 리스본은 '리스보아'라는 '좋은 물'이라는 의미에서 명명되어진 도시임).

- 문화 예절이 바른 편이고, 생활은 매우 느긋하며 낙천적이지만, 유럽연합 국가들 중에서는 비교적 저개발되고 산업적 기반이 약한 국가임.

14) 룩셈부르크

- 베네룩스 삼국으로 불리는 소국의 하나로 국가의 주요 산업적 기반이 서비스업(2005년 기준 86%)일 정도이며, 특히 금융업에 대한 국가적 규제가 없는 편이어서 유럽의 부호들이 예금이나 동산을 예치하는 국가로도 유명함.

- 금융 분야는 룩셈부르크 경제의 약 30%를 차지하는 경제의 핵심(정부수입의 46%)으로, 장기간의 정치적 안정, 통신의 발달, 유럽 내 지리적 이점, 다언어 구사, 금융비밀(banking secrecy)의 보장 등에 힘입어 급속히 성장하였으며, 전 세계 160여 개의 은행이 소재하고 있음.

- 실업률이 EU 국가 중 최저(2005년 4.5%)이며, 1인당 국내총생산은 6만 8천 달러로 세계 최고수준이기도 함.

15) 덴마크

- 낙농의 나라로 알려진 덴마크는 황폐한 국토를 낙농을 통해 부흥에 성공 사례로도 유명함.

- 제조업이 중심이며, 관광이나 다른 산업적 기반은 비교적 약한 편이지만, 국민들은 높은 소득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작은 국가임에도 구기 종목을 중심으로 강한 경쟁력이 있는 스포츠 강국이기도 함.

16) 벨기에

- 유럽연합의 수도 국가라 할 수 있는 벨기에는 무역업이 중심인 국가로 전통적으로 자유무역, 가공공업, 중계무역(총무역의 68%)이 발달하였음.

- 그러나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음으로써 대외경제 환경에 따른 취약한 경제구조를 갖고 있으며, 최근 높은 사회보장비 지출 부담과 다국어 사용에 따른 행정비용 과다 지출이 주요 원인이 되어 EU국가 중 재정상태가 가장 불건전한 국가의 하나임.

- 플랑드르 지방을 중심으로 유명한 모직물 공업은 영국에 이어 유럽에서 두

번째로 산업혁명이 이를 만큼 산업화를 일찍 시작한 국가이기도 함.

- 벨기에는 인구밀도가 유럽에서 가장 높은 국가의 하나이며, 도시와 도시 간 문화가 발달되어 있는 운하 국가이기도 함.

- 유럽연합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벨기에의 수도 브뤼셀에 대한 관심과 역할이 부각되고 있으며, 다양한 인종과 민족이 어우러져 살고 있는 다민족 국가임.

17) 네덜란드

- 역사적으로 스페인과 함께 해상 무역을 독점하면서 무역 강대국의 경험을 갖고 있는 네덜란드는 부족한 환경 요인을 인간 친화적인 방식으로 개발한 국가임.

- 히딩크의 나라로 유명한 네덜란드는 축구 강국이기도 하지만, 비교적 소국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스포츠에도 국가적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임.

- 관광 자원은 부족하지만,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금융, 도소매업, 제조업 등을 적절하게 발전시키고 있으며, 가공무역과 중계무역이 발달하였음.

- 유럽에서 언어적 능력이 가장 탁월한 민족이기도 한 네덜란드는 언어적인 토대와 금융의 세계화 등을 통해 다국적 기업을 많이 보유한 국가이기도 함.

18) 스위스

- 스위스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알프스를 품고 있는 중심 국가라는 점 등으로 관광산업과 주요 국제기구의 중심지가 된 국가임.

- 시계의 나라로 알려진 만큼 정교하고 세밀한 공업력이 기반이 되고 있으며, 세계에서 상위권에 속하는 높은 생산력은 근면한 국민성과 과학에 뒷받침된 높은 기술수준, 중립국가로서 군비 지출이 거의 없는 점 등에 기인함.

- 금융업 역시 주요한 산업적 기반인데, 고객 정보의 비밀원칙을 잘 지켜 많은 검은돈이 유치되어 있는 국가로도 유명하며, 4개의 국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국가로도 유명함.

- 산악 지대라는 이점은 버터와 치즈 등의 낙농제품을 전세계에 알리는 기반이 되었으며, 특히 치즈는 고품질을 인정받아 많은 국가에 다량으로 수출되고 있음.

II. 동유럽 지역의 특징과 문화교류의 주요 현황

1. 개요

- 동유럽 지역과의 문화적 교류는 노태우 정부 이후 ‘북방정책’이라는 대외정책 기조에 의해 헝가리와 수교를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
- 대부분의 국가들과는 탈냉전 이후 교류를 시작했기 때문에 문화교류정책의 역사가 비교적 짧은 편이지만, 경제적 이해관계와 경제교류에 중점적으로 투자하면서 단기간에 다양한 교류정책이 진행되었음.
- 한국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유럽 국가로 인식하기보다는 옛 동구의 사회주의 국가 연장선에서 바라보는 경향이 짙기 때문에 적절하고 상호존중의 기준에 의한 문화교류정책 수립에 한계를 보임.
- 문화교류의 폭을 좀 더 다양한 동구 국가들로 확장할 필요성이 있음.
- 발트 해 연안 국가들이나 흑해 주변 국가들과 같이 한국과의 교류 역사가 짧거나 전혀 없는 국가들까지 포함하는 중동유럽에 대한 장기적인 문화교류정책의 필요성이 존재함.

2. 동유럽 주요 국가들의 문화적 특징

1) 체코

- 체코를 상징하는 이미지는 ‘프라하의 봄(Prague Spring)’이라고 할 수 있는데, 프라하의 봄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음.
- 하나는 1968년에 위로는 최고위층 정치인들, 아래로는 작가와 예술가, 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시작된 자유화 운동을 일컫는 상징적인 의미이며, 다른 하나는 5월에서 6월까지 이어지는 체코 최대의 음악축제인 프라하 국제 음악 페스티벌의 공식명칭.
- 두 가지 의미 모두는 혹독한 겨울을 이기고 새로운 희망을 추구하는 체코인들의 역사와 문화를 상징하고 있음.
- ‘프라하의 봄’이라 불리는 프라하 오월 음악 축제는 1946년 체코 필하모니 창단 50주년에 맞추어 시작된 이래, 수많은 체코의 문화행사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핵심적인 축제로 자리잡음. 프라하의 봄 음악축제는 1968년이나 1989년의 정치적 격동 속에서도 계속 개최되어 체코인뿐만 아니라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았음.
- 역사상 수많은 갈등을 거치면서도 중세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한 신비의 도시 프라하가 유명한데, 천년의 역사를 가진 도시로 웅장하고도 아름다운 건축물들을

즐비하게 거느리고 있으며, 로마네스크, 고딕, 르네상스 등 온갖 양식의 예술품들을 보유하고 있음.

- 맥주의 천국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으며, 1인당 맥주소비량이 세계에서 가장 많으며, 세계 최초의 맥주 양조법에 관한 기록, 세계 최초의 맥주 박물관 개관, 세계 최초의 플젠식 맥주 생산, 맥주공장 종업원이 대통령이 된 나라 등이 체코를 수식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음.

2) 헝가리

- 헝가리는 유명한 온천국가로 국토의 3분의 2가 온천개발이 가능지역이며, 전국적으로 1천여 개의 온천이 존재하는데, 온천의 수온은 24도에서 78도 사이로 근육신경, 관절염, 소화계통 질환 치료 효과로 매우 유명함.

- 기초 과학이 발전된 국가로 노벨상 수상자를 13명이나 배출한 바 있으며, 이 밖에 가족중심 문화, 오페라의 국민적 대중화 등의 특성을 지니고 있음.

3) 폴란드

- 폴란드는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대통령까지 지냈던 바웬사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유대인 학살’은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폴란드를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연상되는 이미지임.

- 폴란드의 부정적 이미지 이면에는 그들만의 독특한 긍정적 이미지가 존재하는데, 첫째는 폴란드가 세계적인 스키, 온천 휴양지라는 점, 둘째는 폴란드가 사회보장과 노동보호가 잘 정비되어 있는 국가라는 점, 셋째는 쇼팽 등의 걸출한 음악가를 배출하고 ‘바르샤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보유하는 등의 음악적 저력.

- 도시 내에 산재해 있는 중세 건축 양식들은 폴란드만의 독특한 색깔을 보여주고 있는 문화적 이미지이며, 가톨릭 국가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모국으로도 유명함.

4) 슬로바키아

- 슬로바키아 국민은 전통음악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데, 그 기원은 슬라브족과 유럽인들의 민속음악의 모태가 되며, 15~16세기 종교음악의 기원인 국가적 배경을 갖고 있기도 함.

- 음악과 관련하여 유명한 교향악단으로는 브라티슬라바 군시케 필하모닉오케스트라, 브라티슬라바 브로드캐스터 교향악단, 슬라바 실내오케스트라 등이 있으며, 문화적 소양도 풍부한 편임.
- 세계적으로 유명한 고대양식의 건축물이 많으며, 특히 브라티슬라바성(城)과 같은 경우 예전 황제의 주거지나 의사당 혹은 시립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음.
- 유고연방에서 이탈하여 독립국가로서 독특한 슬라브 문화를 지켜나고 있는 중심 국가임.

III. 아프리카 지역의 특징과 문화교류 현황

1. 개요

1) 아프리카 지역 구분의 의미

- 아프리카 지역은 북부만이 지중해에 걸쳐 있고, 중부와 남부 아프리카의 경우에는 지중해 권역으로 포함시키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북부 아프리카의 경우 사하라 사막 위쪽을 의미하며, 역사적으로 지중해를 중심으로 상당한 발전을 이룩한 지역임.
- 중부와 남부의 경우 유럽 국가들의 식민지였던 역사적 경험을 갖고 있으며, 비동맹 국가 그룹에 속해 있는 국가들로, 유럽적 정체성이나 유럽으로의 이주를 통한 문화적 공유를 하고 있음.
- 이집트를 비롯한 북부 아프리카 국가들은 지중해 권역에 포함시켜 문화정책과 문화적 교류에 대한 설명의 필요성이 있지만, 이슬람 세력의 아랍권이라는 점과 주요 국가에 대한 접근이나 설명 역시 제한적이라는 점 때문에 본 장에서는 생략함.
- 중부와 남부 아프리카 역시 많은 국가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개별 국가들에 대한 접근의 한계와 2010년 월드컵 개최 국가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대한 중요성으로 인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대한 기술만을 중점적으로 전개 할 것임.

2) 지역 구분에 따른 문화교류의 한계와 쟁점들

- 아프리카 지역 전체는 저개발국가와 비동맹 국가 그룹으로 분류되는 국가들

이 많기 때문에 한국과의 교류 면에서 제한적인 측면이 강함.

- 제 3공화국 이후 급속하게 증가되고 있는 아프리카 지역과의 외교 관계 확대와 문화교류 증진은 북한과의 외교적 경쟁이라는 정치적 의미가 강하게 내포되어 시작되었음.

- 낙후된 국가 시설과 사회 자본들로 인해 아프리카를 오지 혹은 낙후지역으로만 한정할 경우 국가 대 국가의 공식적이고 의미 있는 문화 교류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 아프리카에 대한 접근이 비교적 경제적 의미에서 시작되었다면, 자원외교나 에너지외교에 대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도 다양한 문화교류정책에 대한 뒷받침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 아프리카 지역의 문화교류 정책의 핵심은 상호 존중과 미개나 개화라는 문화수준에 대한 고저 판단을 없애고, 상호 인정을 통한 고차원적 교류 정책이 필요함.

- 아프리카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라는 일방적이고 편의주의적 생각만으로는 아프리카와의 진정한 문화교류 정책을 수립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아프리카의 해당 국가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자원과 정책이 동반된 교류정책 수립이 우선하여야 할 것임.

2. 사례 국가로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소개와 문화교류정책의 의미

1)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국가정보 현황

- 오랜 인종적 갈등을 해소하고, 흑인에 의해 선출된 만델라 대통령으로 유명한 아프리카 남단의 네덜란드 식민지 출신의 국가.

- 2009년 5월에 취임한 제이콥 주마(Jacob ZUMA) 대통령과 칼레마 모트란테(Khalema MOTLANTHE) 부통령이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대통령제의 입헌공화국 국가임.

- 국내총생산(GDP)은 US\$ 2,745억이며, 1인당 GDP는 US\$ 5,906이고, GDP 성장률은 2009년 기준 -2.2%임.

- 높은 실업률(31.2%; 2009년 1분기 기준)과 비교적 높은 물가상승률(2009년 3월 기준 9.5%)은 빈부 격차가 심한 사회적 양극화 구조를 가진 국가로 만들었음.

2)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정치 구조¹⁾

1) 이하 주요 내용은 다음의 사이트를 통해 얻은 정보를 요약하고 편집한 것임. 출처:

① 의회

- 남아공 의회는 입법 권한을 행사하며 국회와 주 의회의 두 기관으로 구성.
- 남아공 의회는 헌법에서 정한 범위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도록 제약을 받음.
- 남아공 국회는 최소 350명에서 최대 400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5년으로 보통선거방식으로 선출됨.

o 남아공 주 의회

- 입법과정에 참여하는 주요 구성원으로서 협력적 지배구조와 참여 민주주의의 확립을 위해 창설.
- 남아공 9개 주에서 대표 10인을 주 의회 의원으로 선출.
- 각 주 대표단에 소수 정당 대표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규정.

② 대통령과 내각

o 대통령

- 대통령은 남아공 국회에서 선출하며 국가 정상으로서의 내각을 이끌며, 임기 5년의 1차 중임 가능.

o 내각

- 대통령과 부통령을 비롯하여 25개 부처의 장관으로 구성.
- 부통령 및 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각각의 권한과 기능을 정하고 해임할 수 있음.
- 이 중 두 부처의 장관은 국회의원 중 선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차관도 대통령이 임명함.
- 국무위원들은 남아공 의회의 청문회에 참석하도록 요구됨.

③ 사법부

- o 남아공의 일반 법체계는 관습법인 Roman Dutch Law(로마식 화란법)를 따르고 있으며 민사, 형사, 상사 등의 분야에서는 일부 영미법의 영향을 받음

<http://g20.kangwon.ac.kr/index1.php> (검색일: 2009년 8월 20일)

-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은 7년 단임으로 대통령이 임명

- 대법원은 최고 대법원과 지방대법원으로 구성

- 대법원 산하에는 각 지역별 지방법원이 있으며 세부 행정구역별로 310 개소의 치안법원이 있음

- 모든 법관은 법무장관의 추천에 의해 대통령이 임명하며 의회의 요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되지 아니함

- 별도로 설치되는 헌법재판소는 소장과 10명의 재판관으로 구성

④ 진실화해위원회(Truth&Reconciliation Commission)

- 1990-1994년 4년의 기간동안 남아공 인종분리정권과 민주화 운동 단체들간의 협상을 통해 창설

- 진실화해위원회(TRC)는 명백한 지침과 시한을 정해두고 1995년 국회의 동의를 얻어 설립

- 인종분리정책시대에 저질러진 반인권적 행위에 대한 7년간의 청문회를 통해 진실 규명을 위해 노력

- 진실화해위원회(TRC)의 임무는 과거의 인권침해사례를 조사하여 사건을 마무리하고 희생자들의 보상 및 명예회복과 관련된 지침을 마련하여 그들이 사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도록 돕는 것임

- 진실화해위원회(TRC)는 근대 역사의 어두운 과거와의 화해를 모색하고자 하는 여러 국가들의 모범 사례로 손꼽힘

- 진실화해위원회(TRC) 구성 조직도

① 인권침해위원회(Human Rights Violations Committee)

- 진실화해위원회(TRC)에서 진술한 내용을 근거로 지난 1960-1994년 사이에 일어난 인권침해사례 조사

- 희생자들의 신원 확인 및 현재의 상황 등과 그들이 입은 피해 성격과 범위를

밝힘

- 해당 사례가 국가적 혹은 조직적, 개인적으로 계획되었는지를 조사한 수, 피해자와 인권 침해 사건이 밝혀지면 그 내용을 보상 및 명예회복 위원회로 넘김

② 보상 및 명예회복 위원회(Reparation and Rehabilitation Committee)

- 진실위원회의 절차가 피해자의 권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
- 정책 및 건의사항을 수립하여 의생자 및 그 가족과 지역공동체 모두 명예를 회 수 있도록 조치

③ 사면위원회(Amnesty Committee)

- 사면 신청이 해당 법규에 따라 이루어졌는지를 검토
- 사면되는 경우 가해자가 해당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로부터 면죄됨

3.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최근 국가동향

1) 외교정책

o 남아공의 외교정책

- 인권신장
- 민주주의 진흥
- 국가 간 교류에 있어서 정의와 국제법의 준수
- 국제평화와 분쟁해결을 위한 국제적으로 허용된 메커니즘 존중
- 세계문제에 있어서 아프리카의 이해관계 중시
- 지역 간 국가 간 협력을 통한 경제발전 지향

o 남아공의 대외관계는 외무부인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DFA)가 관장

o 최근 외교정책을 보면 경제협력 확대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

o 남아공 수출업체의 이익대변, 외국인 직접투자유치가 현안사항

2) 외교관계

- 1990년대까지 남아공은 인종차별 정책으로 인해 외교적 고립상태에 빠져 있었음
- 흑인정권이 들어서면서 UN, 남부아프리카개발공동체(SADC), 아프리카연합(AU)등 국제기관이나 지역기구와의 가입 또는 재가입 실현
- 각 국가들과의 외교 관계 회복으로 85개국에 정식외교 사절이 나가있고 73개국에는 비상주 외교사절이 진출해 있음

o 남아공은 178개의 국가와 외교관계 수립

o 남아공에 160개의 외국공관 주재

3) 지역무역협력

o 남아공은 지난 1993년 UN 경제체제 해체 이후 세계 경제권으로의 편입에 적극적

o 경제제재로 인해 고립됐던 경제 구조를 탈피해 개방화를 통한 경제성장 정책 추진

o 남아공은 다자간 무역체제에 적극 참여함과 동시에 다자간 무역체제의 보완 수단으로 FTA 등 양자 간 무역협정 적극 추진 중

o 남아공은 남부아프리카 최대의 경제대국으로서 남부아프리카 경제협력체를 형성해 FTA 협상력 제고

o 남아공은 남부아프리카 최대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남부아프리카경제공동체(SADC), 남부아프리카관세동맹(SACU) 등 경제협력체 창설 주도

o 남부아프리카 총생산 및 교역액의 70% 이상 점유

4) 남아프리카 주변국과의 외교관계

- 남아공은 주변 아프리카국가들과의 협력관계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

- 남부아프리카개발공동체(SADC), 아프리카 53개국이 참여한 강력한 정치협력체 AU(African Union)에 주도적으로 참여

- 아프리카 국가들은 남아공과의 교역에 크게 의존

- 남아공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보츠와나(Botswana), 레소토(Lesotho), 스와질랜드(Swaziland), 잠비아(Zambia), 말라위(Malawi) 등 5개국들은 남아공의 도로, 철도, 항만 등을 교역증진 창구로 활용

- 이 외에 보츠와나(Botswana), 레소토(Lesotho), 스와질랜드(Swaziland), 나미비아(Namibia) 등과는 남부아프리카 관세동맹체(SACU)를 창설: 역내국간 상품교역 무관세, 역외국에 대해서는 공동관세 적용

5) 다른 국가와의 외교관계

- 미국은 과거 인종차별시기에도 아프리카에서 소련의 영향력을 억제하기 위한 전략적 이유로 남아공을 중시하였으며 현재에도 양국은 상호 밀접한 관계 유지

- 현재 미국은 남아공의 주요 교역국 중 하나이며, 약 500여개 이상의 미국기업들이 남아공 진출

- EU는 남아공 최대 교역대상국

- 남아공 수출상품의 40% 이상을 EU 국가들이 수입

- 남아공의 외국인직접투자액 절반 이상을 EU 국가들이 차지

- 영국과의 관계가 가장 밀접하며 현재 남아공 백인 중 약 80만 명이 영국에서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음

- 2000년 1월 1일 EU와 FTA 체결: 이에 따라 남아공은 2000년부터 12년 동안 EU 수출품의 86%, EU는 10년에 걸쳐 남아공 수출품의 95%에 대해 수입자유화 조치 추진

- 아시아와의 외교관계는 99년부터 활기를 띄기 시작

- 일본: 99년 남아공에 2천만불의 원조자금지원을 발표, 아시아국가 중에는 최고의 무역파트너로서 현지투자순위도 5번째로 남아공과 가장 밀접한 관계 유지
- 중국: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안정적 자원확보 및 영향력 강화를 위해 협력관계 강화

- 최근 들어 인도 및 브라질과 깊은 경제외교적 관계유지: IBSA (India-Brazil-South Africa)라는 경제협력 협의체 구성

4. 경제 분야의 특징들

1)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제 개황

- 남아프리카공화국은 Sub-Saharan 아프리카 전체 GDP의 40%를 점유하고 있으며 남부아프리카 물류의 중심지임

- 인접국가와 비교 시, 남아공은 경제규모가 크고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느리게 성장

- 지난 99년 이후 장기 성장 국면에 진입

- 높은 수준의 민간 소비, 저금리에 따른 설비투자 확대, 완만한 물가 상승률 등과 같은 호조 요인에 힘입어 2007년까지 높은 수준의 경제 성장세 지속

- 남아공 GDP(지출측면)의 약 63%를 차지하는 높은 수준의 민간소비는 2007년 이후 증가세 둔화

- 민간소비 2007년까지 매년 6~7% 높은 성장률 기록

- 2006년 6월부터 지속되고 있는 금리인상, 남아공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법 등에 따라 성장세 급격히 둔화

- 국내 경기침체로 기업들의 고용사정 악화: 2008년 공식 실업률 23.2%
- 남아공 경제의 전반적인 침체는 투자 및 내수 위축, 주식시장의 불안정성 등에 따른 것임
- 2008년 4분기 가계지출 -2.7%(전년동기대비), 국내수요 -0.4%(10년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기록)
- 2009년 2월 남아공의 산업생산지수는 전년동기대비 15%나 감소하여 2000년 수준으로 후퇴
- 주요 수출 대상국: 일본(Japan), 미국(USA), 영국(UK), 독일(Germany)
- 주요 수입 대상국: 독일(Germany), 중국(China), 미국(USA), 일본(Japan), 사우디(Saudi)
- 남아공의 주요 수출 품목은 주로 광물자원임
 - 남아공 내에 광물자원 풍부
 - 최근 들어 국제적으로 광물자원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
 - 주요 수출 광물자원: 플래티넘, 금, 석탄, 다이아몬드
 - 자동차 수출액 2,894백만 달러(수출금액 기준 4위): 남아공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 산업 육성 정책(MIDP)에 따라 토요타, 벤츠, BMW 등 세계적인 자동차 메이커들이 남아공에 생산기지 운영으로 자동차 산업 발전
- 주요 수출 품목: 원유, 자동차, 휴대폰, 컴퓨터
 - 최근 들어 남아공 흑인계층의 소득 수준이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휴대폰, 컴퓨터, 자동차 소비 급증 → 이에 따라 수입액 급증
- 2004년 이후 남아공의 무역 수지가 적자로 반전됨과 동시에 적자규모도 늘어남

○ 남아공 주요 수출입 품목

<표 2-1> 남아공의 주요 수출품과 비중

순위	수출품목	금액(백만달러)	비중(%)	수입품목	금액(백만달러)	비중(%)
1	플래티넘	9,905	14.18	원유	10,954	13.71
2	금	5,651	8.09	승용차	4,414	5.52
3	페리엘로이	3,719	5.32	석유제품	3,225	4.04
4	석탄	3,404	4.87	무선통신기기	2,498	3.13
5	원심분리기	3,188	4.56	컴퓨터	1,487	1.86
6	승용차	2,872	4.11	화물자동차	1,399	1.75
7	다이아몬드	2,508	3.59	건설중장비	1,216	1.52
8	알루미늄	1,641	2.35	의약품	1,171	1.47
9	스테인리스강	1,609	2.30	자동차부품	1,113	1.39
10	철광석	1,556	2.23	다이아몬드	995	1.25

○ 최근의 경기 호조세 지속 및 향후 낙관적인 경기 전망에 따라 기업들의 설비 투자 증가

○ 2010년 월드컵 개최준비 및 신경제정책 추진을 위해 남아공 정부에서 대규모 공공투자 진행 중이어서 남아공 내 설비 투자 지속해서 증가

○ 2007년 설비 투자 증가율 14.8% 기록

○ 최근 지속되고 있는 금리인상 및 향후 경기에 대한 비관적인 인식이 확산되면서 향후 민간부문의 설비 투자 증가세는 둔화될 것으로 전망

○ 2002년 하반기부터 소비자 물가 급등하기 시작- 2001년 동월 대비 10% 이상 상승

○ 2003년 중반 이후 물가상승세가 진정국면에 진입

- 2005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3.9%로 남아공 중앙은행의 물가상승률 Target Range(3~6%) 내로 안착

- 2006년 중반 이후 환율상승, 국제유가 급등에 따라 물가 상승률이 남아공 중앙은행의 Ratget Range를 벗어남

- 2008년 8월 기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3.7%로 최근 10% 이상의 높은 물가상승세 지속

- 2008년 9월 25일 기준, 남아공 기준금리인 Repo 금리는 12%, Prime 금리는 15.5%임

- 물가안정, 설비투자 및 소비확대를 위해 그동안 저금리 정책 유지해 옴

- 국제유가 상승, 소비과열로 인해 2006년 4차례에 걸쳐 금리 인상

- 2007년 금리인상 압력 지속으로 네 차례에 걸쳐 금리 인상

- 2008년 한 차례 금리 인상

- 현재 인플레이션이 다소 진정기미를 보임에 따라 향후 추가적인 금리인하 전망

- 수출 감소에 따른 경상수지 및 재정수지 적자 압력이 커짐

- 2008 GDP 대비 경상수지 -8.3%

- 2008 GDP 대비 재정수지 -1.7%

- 남아공 환율은 지난 2002년 9월 1달러당 10.50 Rand에서 2006년 초 6.00 수준까지 꾸준히 하락

- 란드화 강세의 원인

- 미국의 弱 달러정책
-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달러화 유입 증가
- 수입물가 하락을 통한 물가안정 정책

o 대미달러 환율은 2008년 10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상승하기 시작하여 2009년 3월 전년동월대비 30%나 상승한 10.01란드를 기록하였음

o 남아공의 환율은 전형적인 랜덤워크(Random walk)를 따르고 있어 변동폭이 심함

o 경상수지 적자폭 확대에 의한 달러부족은 환율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음

o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현황

① FTA 기체결국: EU, EFTA, SACU

o EU와는 지난 1999년 체결한 TDCA(Trade, Development and cooperation Agreement)를 통해 2000년 1월부터 FTA 발효

- EFTA(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와는 2003년 초에 협상을 시작해 2006년 2월에 협상 타결

- 모든 회원국의 비준을 거쳐 2008년 5월 1일부로 정식 발효

o SACU는 FTA보다 경제통합의 정도가 한 단계 높은 수준의 경제통합체인 관세동맹체(Customs Union)로서 역외국에 대해 공동관세를 부과

- 2000년 1월부터 EU와 단독으로 FTA를 체결한 상태이나 EU가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부여하고 있는 GPA가 2007년 말로 종료됨에 따라 현재 SACU와 EU와의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음

② FTA 협상 중인 국가 : 미국, MERCOSUR, SADC

o 미국과는 2004년 12월에 협상을 시작했지만, 지재권, 서비스교역, 투자 부문

에 대한 현저한 입장차이로 인해 현재 협상이 교착상태에 있음

- 현재 SACU에서 미국에 협상 프로그램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으나 별다른 진척 없음

- 중남미공동시장(MERCOSUR)과는 2004년 12월 특혜무역협정(PTA)을 체결했으며, 현재 동 협정을 FTA로 발전시키기 위해 협상 진행 중

- SADC(Southern Africa Development Community)과는 2000년 9월 역내 FTA 출범을 위한 의정서 체결

- 2008년 FTA 출범, 2010년 관세동맹 창설, 2015년 공동시장, 2016년 화폐통합을 목표로 협상 진행 중

③ FTA 검토 중인 국가: 인도, 중국

- 인도와의 FTA 협상은 2005년 9월에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인도 정부의 요청으로 무기한 연기

- 최근 인도정부에서 특혜무역협정(PTA)을 새롭게 제안했으나 별다른 진척 없음

- 중국과의 FTA 체결을 반대하는 국내 산업계의 목소리가 높아 FTA 체결에 장시간 소요 예상

④ 한국-남아공 FTA

- 2004년 6월 개최된 한-남아공 정책협의회에서 우리 정부가 양국 간 FTA 제안

- 우리 측에서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가 FTA 타당성 조사 담당 연구기관으로 선정되었으나 남아공에서는 현재까지도 지정하지 않음

6) 남아공 신경제성장 정책(ASGISA)

- 최근 남아공 정부는 국민소득 증대 및 실업을 감소를 위해 연 6%의 경제성장을 달성을 목표로 하는 신 경제성장정책(Accelerated and Shared Growth Initiative South Africa)을 발표

- 단기간 내에 압축적인 경제 성장을 이룬 동아시아 국가들을 벤치마킹

- 2008년 3월까지 약 530억 달러 투자 계획

※ 2010년 남아공 월드컵

- 2010년 6월 11일부터 7월 11일까지 FIFA 월드컵 개최

- 월드컵 개최도시: 요하네스버그(Johannesburg), 케이프타운(Cape Town) 등 9개 도시

- 사용될 경기장은 10개이며, 10개 경기장 중 5개 경기장은 신축되며 나머지 5개 경기장은 기존 경기장 개보수해 사용 계획

- 남아공 월드컵의 경제적 효과(GDP 증가분) 약 73억 달러 전망

- 직접적 경제효과 - 월드컵 주요 수혜 산업: 건설, 통신, 관광산업 등

- 간접적 경제효과

- 남아공 국가와 기업의 이미지 제고
- 각종 국제경기 개최 여건 제공
- 남아공 경제에 대한 신뢰도 증대
-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입증가

※ 남아프리카공화국 2009 하반기 주요일정안내 ※

<표 2-2> 남아프리카 2009년 하반기 주요 일정표

일	정	내	용
1. 1 - 12.31		국제천문학의 해	
6.25 - 7. 7		Eastern Cape Human Settlements assists veterans apply for housing subsidies	
6.29 - 7. 8		Eastern Cape Health meets with bursary holders	
7. 1 - 7. 3		AU 회의	
7. 2 - 7.22		N Kiviet leads Provincial Executive Council (Exco) Outreach Programme	
7. 6 - 7.10		Prosecuting Authority hosts media workshop on human trafficking	
7. 7		B Tshwene presents North West Agriculture Prov Budget Vote	
7. 8 - 7.10		M Nkoana-Mashabane attends G8 Summit	
7.11		세계 인구의 날	
7.18		넬슨 만델라 전대통령 생일	
7.19 - 7.22		제5회 International Aids Society 회의	
7.20 - 7.21		M Modiselle attends second research showcase	
8. 9		남아공 여성의 날 세계 원주민의 날	
8.12		세계 청소년의 날	
8.16 - 8.22		제57회 국제통계기구 회의	
9. 1 - 9.30		Heart Month 문화유산의 달	
9. 1 - 9. 7		남아공 식목 주간	
9.8		세계 문해(literacy)의 날 World Rabies Day	
9.16		세계 오존층 보호의 기간	
9.21		세계 알츠하이머병의 날 세계 평화의 날	
9.24		남아공 문화유산의 날 세계 심장의 날	
9.25 - 9.27		Small Business Fair	
9.27		세계 관광의 날	
10. 1 - 10.31		천문학의 달 유방암의 달 사회 개발의 달 교통의 달	
10. 1		International Day for Older Persons	
10. 5		세계 교사의 날	

10. 8	국제 자연재해 방지의 날 세계 시각장애 방지의 날
10. 9	World Postal Day
10.15	Global Handwashing Day 세계 지방 여성의 날
10.16	World Food Day
10.17	국제 빈곤 퇴치의 날
10.18	세계 물 관리의 날
10.20	World Osteoporosis Day
10.24	UN의 날
11.10	평화와 발전을 위한 세계 과학의 날
11.14	세계 당뇨병의 날ay
11.16 – 12.10	여성과 아동 폭력 추방을 위한 16일간의 행동주의
11.16	International Day for Tolerance World Remembrance Day (WRD) for Victims of Road Accidents
11.20	아프리카 산업화의 날 세계 어린이 날
11.25	International Day for the Elimina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
11.16 – 12.10	여성과 아동 폭력 추방을 위한 16일간의 행동주의
12. 1	세계 에이즈의 날
12. 2	국제 노예제 철폐의 날
12. 5	국제 봉사자의 날
12. 6	세계 장애인의 날
12. 7	국제 민간 항공의 날
12.10	세계 인권의 날
12.16	남아공 화해의 날
12.18	세계 이주민의 날
12.20	International Human Solidarity Day
12.25	크리스마스
12.26	Goodwill day

※ 참고자료: 남아프리카공화국 2009 하반기 축제일정

1) 7월

○ Knysna Oyster Festival

개최도시: Knysna, Western Cape

웹사이트: www.oysterfestival.co.za

해안에 위치한 아름다운 도시 마을 나이즈나는 굴로 유명하며, 굴축제가 열리는 7월이면 더욱 인기가 높다. 오이스터 브라이(남아공 식 바비큐)를 비롯하여 굴 시식, 굴먹기 대회 등의 독특한 행사와 함께 다양한 공연 및 사이클, 달리기, 카누, 내리막길 달리기와 세일링 등 스포츠 경기가 진행된다.

○ Ellisras Bushveld Festival

개최도시: Lephalale (Ellisras), Limpopo

웹사이트: www.lephalale.com

Email: p4p@telkomsa.net

1986년 최초로 열린 엘리스라스 부시펠트 축제는 7월 초 넓게 펼쳐진 초원 한 가운데라 할 수 있는 림포포 주의 워터버그에서 열린다. 행정수도 프리토리아에서 약 280km 거리에 위치한 이곳의 축제는 가축쇼와 야생동물 경매, 말 점핑 대회, 개 쇼, 농업 관련 행사, 최고의 오프로드 차량을 뽑는 3일 전쟁, 야생동물 농장 전시회, 수렵 대회, 조류 및 식물 이름 맞추기 대회, 브레보스를 비롯한 남아공 전통 요리와 맥주 천막, 대형 캠프파이어 등 다채로운 즐길거리가 마련된다.

○ Calitzdorp Port Festival

개최도시: Calitzdorp, Western Cape

웹사이트: www.sappa.co.za

칼리츠도르프의 클레인 카루는 남아공 포트 와인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다. 매년 열리는 포트 축제는 1992년 남아공 포트생산자 협회에서 시작하였다. 7월의 주말에 진행되는 이 축제에서는 남아공 톱 15개 포트 생산자를 소개한다. 남아공 최고의 와인 평론가가 심사하는 포트 블라인드 테이스팅도 열린다. 포이키코스 대회와 타조농장 관광 등 흥미로운 경험을 제공한다.

2) 8월

○ Oppikoppi Bushveld Festival

개최지: Northam, North West

웹사이트: www.oppikoppi.co.za

8월에 개최되는 오피코피는 남아공의 뛰어난 음악적 재능을 뽐내는 행사로 자리잡았다. 1994년 시작된 이 축제는 언덕 위에 자리한 아프리카 초원의 한 농장에서 열리게 되어 '언덕 위'라는 의미의 아프리칸스어인 "op die koppie"에서 이름을 얻게 되었다. 그 후 케이프 지역 월체스터로 장소를 이동하였다가 다시 츠와네로 옮겨 3년간 진행되었다. 2004년 다시 본래의 개최지로 옮겨 이 곳에서 계속 열리게 되었다. 추가로 만든 3개의 무대와 작은 코미디 공연장, 그리고 언덕 위 뜨거운 음악 공연 무대 등 다양한 무대가 준비되어 있다. 오피코피를 통해 여러 음악가들이 명성을 쌓게 되었으며 아프리카의 와일드한 맛을 즐길 줄 아는 사람들을 위한 자리이다. 무덥고 건조하며 붉은 아프리카 흙먼지가 가시덤불 위에 날리는 아프리카 초원에서 진행된다. 집에 가면 깨끗이 목욕을 해야 함은 필수이다. 오피코피에서는 부활절에도 축제가 열린다.

○ Joy of Jazz

개최지: Johannesburg, Gauteng

웹사이트: www.joyofjazz.co.za

요하네스버그에서 가장 큰 연중 재즈 축제인 '조이오브재즈'는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로 재즈를 중심으로 다양한 음악 스타일을 선보인다. 약 200개 이상의 남아공 및 국제 음악가들이 뉴타운을 중심으로 요하네스버그 내의 여러 무대에서 공연을 벌인다.

○ Hantam Vleisfees

개최지: Calvinia, Northern Cape

웹사이트: www.vleisfees.co.za

캘비니아는 노던케이프 주의 양 산업의 중심지로 이 곳에서는 양고기 축제가 열린다. 육류를 바비큐하거나, 스투로 만들고 또는 커리 요리나 피타, 소사티, 포이키코스 등에 사용하는 등 최상급의 양머리를 30랜드에 구할 수도 있다. 1989년 최초로 시작된 "한탐 플레이스피어스(Hantam Vleisfees)"는 3일간 열리며 음악과 거

리 축제, vintage car rally 포도주 차량 행진을 비롯하여 저녁식사와 춤이 함께하는 하이라이트인 미스 플레이스피어스 경연대회까지 다양한 즐길거리로 가득하다.

○ Cellar Rats Wine Festival

개최도시: Magaliesberg, Gauteng

웹사이트: www.cellarrats.co.za

남아공 최고의 와인을 평온한 마할리스버그의 자연에서 즐겨보자. 매년 8월 열리는 셀러 랫 (다락의 쥐) 와인 축제는 와인 시음과 함께 피크닉 바구니를 판매하며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커다란 나무 그늘과 초록의 잔디를 즐기며 마할리스 강가에 서식하는 다양한 종류의 새들을 관찰할 수 있다.

3) 9월

○ Arts Alive

개최도시: Johannesburg, Gauteng

웹사이트: www.artsalive.co.za

생생한 예술이란 의미의 '아츠 얼라이브'는 1992년 9월부터 시작되었다. 무용과 시각미술, 시, 음악 등을 화려하게 혼합을 요하네스버그 내 곳곳의 공연장에서 선보인다. 주 공연은 요하네스버그 스테디움에서 진행되며 50센트와 부스타 라임스와 같은 세계적인 스타가 출연한다. 약 600명이 참가하여 총 4일간의 일정동안 공연을 하며 대부분의 공연은 뉴타운의 여러 무대에서 진행된다. 마지막 날에는 가장 인기 있는 Jazz on the Lake가 열린다.

○ Aardklop Arts Festival

개최도시: Potchefstroom, Free State

웹사이트: www.aardklop.co.za

Aardklop 예술 축제는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열리며 예술과 다방면으로 우수한 재능을 가진 예술인들을 선보인다. 1998년 최초로 열린 Aardklop는 아프리카어로 대지의 리듬이라는 뜻이다. 약 90개 이상의 쇼가 열리며 클래식 음악에서 재즈와 하드록, 카바레와 시각예술, 연극, 서커스 공연, 오페라 그리고 아프리카와 월

드 뮤직, 시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되며 마지막 날은 '오피아르데(OpplAarde)' 록 공연과 함께 막을 내린다.

○ Woodstock

개최도시: Hartbeeshoek, North West

웹사이트: www.woodstock.co.za

우드스톡은 1999년 최초로 열렸으며 남아공 최대의 청소년 중심의 음악 및 생활 축제이다. 주류 음악 외에도 4일간의 축제를 통해 공예품 시장과 대안 생활품 등이 소개된다. 노스웨스트 주 하르트비스푸어르트 댐 근교의 하르트비어스후크 홀리데이 리조트에서 진행된다.

○ Gariep Kunstefees

개최도시: Kimberley, Northern Cape

웹사이트: www.gariepfees.co.za

이제 6년째에 접어드는 '하립 쿤스트피어스(Gariep Kunstefees)'는 예술 축제로 최고의 남아공 음악인들이 참석하며, 남아공의 새로운 영화 제작인들이 소개하는 영화 축제를 비롯하여 미술전과 어린이 극장 등의 행사가 마련된다.

○ Hermanus Whale Festival

개최도시: Hermanus, Western Cape

웹사이트: www.whalefestival.co.za

매년 남방참고래는 수천 마일을 헤엄쳐 케이프 남부 해안에 도착하여 짹짹기도 하고 새끼도 낳는다. 허마너스 마을 사람들과 어울려 다양한 행사로 가득한 축제를 즐기자. 허마너스는 육지에서 고래를 가장 잘 관찰할 수 있는 세계 최적의 장소로 유명하다.

○ Rustler's Valley Spring Equinox Gathering

개최도시: Fouriesburg, Free State

웹사이트: www.rustlers.co.za

프리스테이트 주 동쪽의 러슬러스 밸리는 남아공에서 최초로 음악 축제가 열린 곳이다. 근래에 와서는 규모가 더 작아졌지만 이 곳에서는 12월에도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 Awesome Africa Music Festival

개최도시: Durban, KwaZulu-Natal

웹사이트: www.awesomeafricafestival.co.za

'스탠다드뱅크 어섬 아프리카 음악 축제'는 1999년 최초로 열렸으며 더반의 엘버트 파크에서 진행된다. 3개의 무대에서 쉴 새 없이 논스톱으로 음악 공연이 펼쳐지며 여기에는 세계 20여개국에서 온 약 200명 이상의 아티스트들이 참가한다. 이 축제는 아프리카 음악인들과 세계 음악인들의 교류에 초점을 둔다.

○ Knysna Gastronomica

개최도시: Knysna, Western Cape

웹사이트: www.gastronomicakny.co.za

새로운 남아공 축제로 떠오른 '나이즈나 미식가 축제'는 아름다운 해변 마을 나이즈나에서 훌륭한 음식과 와인, 문화가 함께 어우러지는 자리이다.

○ Prince Albert Agricultural Show

개최도시: Prince Albert, Western Cape

웹사이트: www.patourism.co.za

프린스 알버트에서는 매년 9월 남아공 농업의 전통을 기리는 축제가 열린다. 이 곳에서는 수공예품과 미술, 화훼, 말 쇼와 오토바이 장애물 경주, 양과 염소 경연, 현지 특산품과 맛있는 먹거리와 주류, 남녀노소 모두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마련된다. 농가식 아침식사와 스테이크 브라이(바비큐)는 꼭 맛보아야 한다.

○ Southern Cross Music Festival

개최도시: Mooi River, KwaZulu-Natal

웹사이트: www.southerncrossmusic.co.za

사우던크로스 뮤직 페스티벌은 매년 9월 과줄루나탈 주의 아름다운 무이강변의 히든밸리에서 3일간 진행된다. 1998년 처음 시작된 이 축제는 수익금의 일부를 자선단체에 기부한다. 음악 외에도 낚시와 수영, 래프팅, 압자일렌, 하이킹, 산책, 산악자전거와 오프로드 여행 등 다양한 즐길거리가 있다. 약 6천명 정도 방문객이 축제에 참가한다.

○ Macufe

개최도시: Bloemfontein, Free State

웹사이트: www.pacofs.co.za

마쿠페는 10일간 진행되는 '만가웅 아프리카 문화 축제'로 아프리카와 국제적 재능을 가진 음악인들의 기량을 엿볼 수 있는 자리이다. 이 축제에서는 재즈와 가스펠, 콰이토, 힙합과 R&B, 록과 클래식 음악을 비롯하여 댄스와 드라마, 카바레, 음악 공연, 시와 미술, 전통 공예 등을 선보인다. 1997년 처음 개최되었을 당시 약 3만명의 관중이 참가했으며 이제는 남아공과 아프리카, 전 세계에서 약 14만 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행사로 성장했다. 9월 말에서 10월 초에 열리며 프리스테이트 주 공연 예술 센터에서 주관한다.

4) 10월

○ Bosman Weekend

개최도시: Groot Marico, North West

웹사이트: www.marico.co.za

헤르만 찰스 보스만은 남아공의 가장 위대한 작가 중 한 사람이다. 보스만의 업적을 기리는 이 축제에서는 그의 작품의 배경으로 여러차례 등장한 흐루트 마리코 (Groot Marico)라는 마을에서 열린다. 남아공 최고의 배우들이 보스만의 작품을 낭독하고 이를 연기한다. 물론 풍성한 먹거리와 따뜻한 사람들, 그리고 맘푸우르 (mampoer)가 행복감을 더한다.

5) 11월

○ Ficksburg Cherry Festival

개최도시: Ficksburg, Free State

웹사이트: www.cherryfestival.co.za

픽스버그 체리 축제는 남아공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축제 중 하나로 1969년 처음 열렸다. 오늘날에는 매년 11월 초에 약 2만 명의 방문객이 프리스테이트 주의 작은 마을에 몰려든다. 매우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하며 축제를 통해 체리와 아스파라거스 시식회, 관광, 피크닉, 음악과 미스 체리 및 체리씨 경연대회도 열린다.

6) 12월

○ Rustler's Valley

개최도시: Fouriesburg, Free State

웹사이트: www.rustlers.co.za

프리스테이트 주 동쪽의 러슬러스 밸리는 남아공 최초로 음악 축제가 열린 곳이다. 근래에 와서는 규모가 많이 작아졌지만 11월 말과 12월에 최고의 트랜스와 댄스, 드럼 축제가 열리는 곳으로 변모했다. 또한 새해 축하 행사 그리고 9월의 춘분 행사도 이곳에서 열린다. 러슬러에서는 아프리카식 찜질방과 디자인 강연, 배낭 여행객 숙소와 오두막, 야생동물보호구역, 소서리 식당과 마림바 하우스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다. 말루티 산 자락에서 바라보는 경치 그 자체만으로도 감탄사를 자아낸다.

○ Spier Summer Festival

개최도시: Stellenbosch, Western Cape

웹사이트: www.spierarts.co.za

웨스턴케이프 주의 녹음이 무성한 와인랜드의 스피어 에스테이트의 계단식 공원장에서는 매년 스피어 여름 축제가 열린다. 4 달에 걸쳐 음악과 오페라, 댄스, 코미디 쇼, 연극 공연 등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1995년 처음 열린 이 행사는 12월부터 3월까지 계속된다.

5) 남아프리카공화국의 2009년 하반기 정치·경제·사회·문화 관련 주요 일정

<표 2-3> 남아공 2009년 하반기 정치·경제·사회·문화 관련 주요 일정표

분야	일정명	일정 및 장소	내용	참고사이트	비고
정치					
경제					
사회문화		6.16	남아공 청소년의 날 행사	주한남아공대사관 www.southafrica-embassy.or.kr	
	Mandela Day	7.18	넬슨만델라 前 대통령 생일	주한남아공대사관 www.southafrica-embassy.or.kr	
	N a t i o n a l Women's Day	8.9	남아공 여성의 날	주한남아공대사관 www.southafrica-embassy.or.kr	
	Heritage Day	9.24	남아공 문화 유산의 날	주한남아공대사관 www.southafrica-embassy.or.kr	
	Day of Reconciliation	12.16	남아공 화해의 날	주한남아공대사관 www.southafrica-embassy.or.kr	
	Day of Goodwill	12.26	굿월(Goodwill) 데이	주한남아공대사관 www.southafrica-embassy.or.kr	

6) 한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간의 주요 정치·경제·사회·문화 행사 일정

<표 2-4> 한국-남아공 간 2009 상반기 주요 정치·경제·사회·문화 행사 일정표

분야	일정명	일정 및 장소	내용	참고사이트	비고
정치					
경제					
사회문화	남아공 와인 축제 2009	2009.7.23 부산파라다이스 호텔	남아공 와인 소개	주한남아공대사관 www.southafrica-embassy.or.kr	주최: 주한남아공대사관
	남아공 청소년 합창단 공연	2009.7.12-17 월드콰이어 챔피언쉽 코리아 2009(창원, 마산), 2009.7.18 고신대학교예음관	남아공 청소년 합창단과 세네스트로 남성 합창단이 월드콰이어 챔피언쉽 코리아에 참가	주한남아공대사관 www.southafrica-embassy.or.kr	

IV. 문화교류 정책의 특징과 상호 교류의 가능성

1. 문화교류 정책의 정책적 특징과 내용

1) 국제문화교류의 기본 방향

- ‘문화한국’과 ‘관광한국’의 기본 방향 설정
- 문화교류의 목표: 첫째, ‘문화한국’과 ‘관광한국’의 국가 선양.
둘째, 우리 문화의 세계화와 국제경쟁력 강화.
셋째,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제고 및 우호협력 관계 증진
- 주요 전략: 해외 한국문화원 설립, 주요 문화상품 해외진출 개발 지원, 한국 문화 이미지(C.I.) 홍보를 통한 국가이미지 제고, 문화산업 현지 진출, 주요 국제행사 참가, 해외 주요 문화예술계 인사 방한 초청 등의 다양한 전략 수립

2) 유럽 지역 국가들과의 문화교류 협정 체결 현황

<표 2-5> 유럽 국가들과의 문화교류협정 체결 현황표

유럽(21개국 서명)		
국 명	서 명	발 효
프랑스	65.12.28	68. 5. 8
이태리	65. 3. 9	70. 6.16
그리스	67. 2.28	70. 7. 3
독일	70. 5.16	72. 8.16
터키	72. 8. 4	74. 5. 3
영국	82. 4.21	82. 8.11
벨기에	80. 3.21	82.10.19
헝가리	89. 2. 1	89. 3.29
포르투갈	90.11.21	91. 6.19
루마니아	91.10.28	92. 6. 1
러시아	92.11.19	92.12.19
폴란드	93. 6. 9	94.10. 3
핀란드	93.10.21	94. 1.26
스페인	94. 1.17	94. 4.28
(구협정)	(77.2.7)	(77.6.6)
불가리아	94. 1.17	94. 4. 6
우즈베키스탄	94. 6. 6	94.10.10
체코	94.10. 6	94.10.24
카자흐스탄	95. 5.16	95. 6.15
슬로베니아	95. 7. 5	97 6.14
키르기즈스탄	97. 6. 4	97. 6. 4
에스토니아	2001.6.25	2001.7.20

출처: 외교통상부

3.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한국문화의 유럽 소개

-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한국문화를 해외에 소개하는 노력.
- 전략과 시행 기준: 첫째 올림픽이나 월드컵과 같은 스포츠 행사의 유치 및 신청 등의 방법. 둘째, 주요 국제행사의 활용. 셋째 ‘한국문화주간’ 또는 ‘한국문화의 달’ 행사 등의 개최하는 경향이 두드러짐.
- ASEM 정상회의의 적극적 활용
- 유럽 주요 박물관에 「한국실」 설치

<표 2-6> 유럽 주요 박물관에 개설된 한국실 설치 현황

연 번	국명	박물관명	한국실 개황				비 고
			규모 (평)	개관	소장품	지원 내역	
25	영국	대영박물관	120	2000.11	고려청자 조 선 백 자 등 3,200 여점	KF : £1,200,000 - 한국실 설치경비 (1992 ~ 1996) 한빛 : £1,000,000 삼성 : £65,000	
26	영국	빅토리아 앨버트박물관	40	92	800점	삼성문화재단 지원	
27		피 츠 윌 리 엄 박물관		90	250점	현대 지원	
28		스 코 틀 랜 드 박물관	9	96	178점	자체 설치	코너, 유 물 보 강 추진중
29	독일	켈른 동양박물관	27	95	300여점	KF : DM 200,000 - 한국실 설치경비(1994)	
30		구 텐 베 르 크 박물관	11	74	58점	KF : DM 53,820 - 한국실 설치경비(1997)	
31		함부르크 민속박물관	0.6	80	3,000여점	KF : DM200,000 - 한국문화 소개행사 전시경비(1997)	코너
32		베를린동아시 아박물관	5	70	고 려 청 자 등 76점	자체 설치	코너
33		베를린 민속박물관			600여점	자체 설치	코너
34		함부르크예술 공예박물관	9	97	100여점	KF : DM53,820 - 한국실 설치경비(1997)	코너
35	프랑스	기메박물관	108	2001.1. 15	고려시대 수월관음도 등 914점	KF : FF5,176,000 - 한국유물 복원(1994) FF 500,000 - 한국유물 도록제작(1996) FF 676,000 - 한국실 설치(1996, 1997) FF 4,000,000 - 삼성문화재단 FF5,000,000	
36	네덜 란드	라이덴 민속박물관	39	2000 (예정)	800여점	자체 설치	
37	벨기에	왕립 마리몽 박물관	24	99	35점	자체 설치	
38		왕립예술역사 박물관	2	94	47점	자체 설치	코너

39	덴마크	국립박물관	23	66	1,150점	자체 설치	
40	스위스	바우어컬렉션	진열장 1개	64	5점	자체 설치	코너
41	스위스	민족학박물관			456점	자체 설치	코너
42	바디칸 교황청	바디칸 민족박물관	10	73	부채, 촛대 한복 등 민속공예품 450점	자체 설치	한국실 확장 및 유물보강 추진중
43	오스트리아	비엔나 민속박물관	36	88	2,000여점	자체 설치	
44	체코	나 프레스텍 박물관	12	64	200여점	자체 설치	

4. 2009년 주요 행사 일정 및 내용

<표 2-7> 2009년 유럽 주요 국가들에서 진행될 문화사업 일정표

지역	국가	사업명	기간
유럽	영국	극단 초인 / 선녀와 나무꾼 UK Tour	4.16~5.2
		한국 로타리 총재단 / 영국 버밍햄 국제로타리 제100차 국제대회 한국 전통문화 공연	6.18~6.25
	프랑스	극단 우투리 / 2009 <한국사람들> 프랑스투어	5.12~5.27
		(사) 사물놀이 한울림 / MusicAlp	7월 말~8월 초
	독일	의정부 이미숙무용단 / 독일 함부르크 820주년 항구축제 참가 공연 '두드리 GO!'	5.4~5.10
		(사) 한지개발원 / 독일 본 여성미술관 초청 Paper Art 전시 'Color of Korea'	6.7~7.12
		Ensemble U3, Berlin Strings & Percussion / 베를린 아시아태평양주간 페스티벌 2009 계기 'Rhythm of Korea' 공연	10.10~11.30
	오스트리아	안은미 무용단 / 안은미무용단 오스트리아 초청공연	11.3~11.10
	스페인, 독일	한글 아티스트 인 레지던스 체트카엠 / 1. Alano 2. Virtual Curating for the Museum on WEB 2.0	2008.5.1~2009.4.30
	네덜란드, 벨기에	한국창작음악연구회 / Korean Tea Music<Da'Ak>	3.11~3.21
	터키	Istanbul Foundation For Culture and Arts / Participation of the Korean Artist in the 11th International Istanbul Biennial	9.12~11.8

5. 기타 CHOICE 지원 사업

<표 2-8> 기타 지원 사업 내용

지역	국가	사업명	기간
유럽	프랑스, 벨기에	댄스시어터 창 / <Story of B> 프랑스, 벨기에 초청공연	3.21~3.28
	러시아	공연창작집단 뛰다 / <하늬이야기> 러시아 International Theatre King Festival 초청공연	4.24~4.29
	프랑스	SORO 퍼포먼스 유닛 / [르두/Le Deux]-프랑스 돌루즈 Mix'Art-Myrys외 초청 공연 및 페스티벌 참가	5.29~6.30

V. 한국과의 상호문화교류정책의 방향과 내용

1. 문화협정 개요

- 양국간 문화협정이 체결·발효된 이후 일반적으로 문화교류계획서(Cultural Exchange Programme)를 체결하여 2-3년 단위로 향후 문화교류·협력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에 따라 문화교류를 시행함.
- 2008.10월 현재 문화협정 체결국수 : 총 97개국 서명

2. 문화협정의 구성

- 교육 · 학술 분야 협력
- 문화 · 예술 교류
- 체육 · 청소년 교류
- 매스미디어간 협력
- 과학 · 기술분야 협력 (상대국에 따라 예외적으로 포함)

3. 문화공동위원회 개요

1) 설치 필요성

문화협정이 체결·발효된 이후 문화협정상규정의 규정이나 양국 간의 별도합의에 따

라 문화외교국장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 간 문화공동위원회를 설치, 운영함.

2) 문화교류시행계획서 체결과 시행

2-3년마다 양국이 교대로 문화공동위 회의를 개최하여 양국 간 문화교류·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며 통상적으로 문화교류시행계획서를 체결, 시행하게 됨.

3) 서유럽의 해당 국가

-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그리스, 헝가리, 러시아, 스페인, 핀란드, 루마니아, 벨기에, 우즈베키스탄 등

4. 주요 개최 실적

<표 2-8> 문화협정에 따른 주요 행사 및 일정

국가	개최실적
프랑스 (문화과학기술진흥성위원회)	11차: 2002.9.26, 파리
영국	6차: 1996.10.10, 런던
독일	9차: 2004.9.21-22, 베를린
이탈리아	7차: 1998.11.10-11, 로마
그리스	4차: 2006.5.23, 아테네
헝가리	1차: 1990.11.5-6, 부다페스트
러시아	5차: 2003.12.16, 모스크바
스페인	4차: 2005.12.19, 서울
핀란드	4차: 2005.10.18, 서울
우즈베키스탄	2차: 2006.7.21, 서울
루마니아	1차: 1995.7.5-6, 부카레스
벨기에	3차: 1989.2.13-17, 브뤼셀

5. 지중해 권역과의 문화교류정책을 위한 제언

1) 지역 단위 문화교류 정책의 필요성

- 유럽연합의 경우 국가 단위 문화교류는 더 이상 커다란 의미를 상실해가고 있음.
- 개별 국가 차원의 문화교류 정책보다는 지역(Region) 단위의 적극적인 문화교류 정책 수립이 필요함.
- 지역의 의미는 행정자치단위를 의미하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도 단위로 이해할 수 있음.
- 유럽연합의 경우 지역개발정책이나 사회기금 등의 운영 단위를 지역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실제로 지방정치와 행정의 중심은 국가가 아닌 지방과 지역이기 때문에 지방을 거점으로 하여 한국의 지방 행정자치단체와 직접적인 문화교류의 필요성과 유용성이 존재.
- 문화교류 정책의 대상을 프랑스, 혹은 독일 등의 국가 단위가 아닌 독일의 작센 지방, 프랑스의 노르드 갈레 지방, 이탈리아의 피엔몬테 등과 같이 지방 단위의 행정구역을 묶어서 공통된 문화적 매개 수단을 통한 동시적이고 일관된 정책 수립의 필요성.
- 예를 들면 충북 영동 지역의 포도와 와인 산업 중흥을 위해, 유럽의 주요 와인 생산 국가들과의 문화교류 협력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에 따라 와인과 그에 걸맞는 축제 등을 묶어서 지역 대 지역의 문화교류정책을 수립할 수 있음.

2) 축제를 통한 지방정부 차원의 문화적 교류와 협력의 필요성

- 유럽이나 아프리카의 경우 많은 국가들에서 현재 일정한 프로그램에 의해 진행되는 다양하고 독특한 축제는 한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많은 축제들과 연결시킬 수 있을만한 문화적인 공통의 유대감이 존재.
- 축제를 통한 문화교류와 유대의 강화는 단순한 이벤트의 교환이나 상호방문의 의미를 뛰어 넘을 수 있는 새로운 지평을 확장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이를 위해 필요한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선결 과제임.
- 첫째, 한국의 지방 축제나 지역 단위 축제의 고유성과 역사적 전통의 복원이 가장 시급한 문제임. 현재 지방자치단체나 지역의 축제는 상업성이 치중한 나머지 지역을 내세울만한 특징이나 역사적 배경이 전무한 편임. 이는 상대 지역과의 문화

교류에서 치명적인 약점으로 대두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의 문화 교류에 어려움이 존재하게 됨.

- 둘째, 축제의 의미에 대한 분명한 정의와 사업에 대한 장기적이고 연속성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 필요성이 존재. 한국의 경우 대개의 축제는 프로그램의 연속성이 없는 편이고,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지속성을 유지하기 힘든 구조이며, 자치단체장의 교체나 정치권력의 변화에 따라 지나치게 유동적이라는 문제가 존재함. 이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지역 단위의 여하한의 문화적 지속적인 교류 자체의 어려움이 상존.

- 셋째, 지역 중심의 문화교류 정책 전문가와 부서의 육성이 시급한 과제임. 중앙 정부와의 업무 중복이나 행정의 비효율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 정부에서는 커다란 수준에서 거시적인 정책을 제언하고 입안하는 역할에 한정하고, 지방 정부에서 보다 세부적이고 세밀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진행시킴으로써 문화교류 정책의 일률적이고 일반화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화교류 정책의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을 정책적 이원화와 효율성을 추구하자는 의미임.

- 넷째, 문화교류 정책에 대한 보다 일관성 있고 정책적 함의를 추구하기 위한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대학의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할 필요성이 존재함. 전문가 양성과 함께 문화를 담당할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측면에서도 고려할 수 있는 요소임.

※ 참고 자료: 유럽의 주요 축제들

1) 노팅힐 카니발 (Notting Hill Carnival)

- 영국, 런던
- 매년 8월 마지막 월요일 개최
- 1965년 처음에는 국적과 인종 구별 없는 노동자 계급의 결속을 다지는 축제로 시작하여 서인도제도 출신 이주민의 민족축제로 발전함. 오늘날에는 적극적으로 민족 정체성을 형성한다는 서명 아래 지식인들과 예술인들이 참여하는 범계급적 행사가 됨. 드럼통을 잘라서 만든 악기로 레게음악을 연주하고 춤을 추며 행진함.

2. 에딘버러 축제 (Edinburgh Festival)

- 영국, 스코틀랜드의 에딘버러

- 매년 8월 마지막 두 주와 9월 첫 주에 개최
- 세계 각지에서 음악, 연극, 오페라 그리고 다른 여러 분야의 예술인들이 모이는 음악축제. 모든 공연장과 거리 곳곳에서 공연이 열리며 오늘날 새로운 음악이나 연극 작품들이 런던 혹은 세계의 대도시로 진출하기 전 첫 선을 보이는 자리가 됨.

3. 베네치아 카니발 (Venezia Carnival)

- 이탈리아, 베네치아
- 사순절 2주 전부터 개최
- 사순절 첫날까지의 재생과 부활을 상징하는 축제로 1268년 처음 개최. 카니발 기간 동안에는 아퀼레이아에게 승리한 날을 기념하는 경축 행사 등 많은 행사와 말을 이용한 스포츠, 공중곡예, 민속전시회가 벌어지며 광장과 거리 골목에서는 가면 쓴 가장행렬과 무도회가 벌어짐.

4. 팔리오 (Palio)

- 이탈리아, 시에나
- 매년 여름 6월~8월 중 두 차례 열림
- 각 콘트라다를 대표하는 기수들이 자신의 콘트라다를 상징하는 기수복을 입고 안장 없는 말에 올라 마리아의 상으로 장식된 팔리오 깃발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함. 팔리오 전야제에는 각 콘트라다의 승리를 기원하는 만찬이 열리며 우승한 콘트라다의 주민들은 포도주를 마시며 시가행진을 하고 패배한 콘트라다 주민은 우스꽝스런 옷을 입고 승리한 콘트라다에 선물을 바침.

5. 뱅슈 카니발 (Binche Carnival)

- 벨기에, 뱅슈
- 매년 2월 사순절 이전 일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열림
- 중세시대부터 전통을 이어 온 행사로 카니발을 위해 선발된 공연자인 쥘(Gille)들이 축제 3일 동안 가장 행렬을 함. 축제의 첫날은 화려한 의상 퍼레이드로 시내 중심가를 행진하고, 두 번째 날에는 젊은이들이 모여들어 친목을 다지며, 축제의 마지막 날인 세 번째 날에는 질들이 춤을 추며 시내를 행진하고, 어린이들을 향해 오렌지를 던짐.

6. 고양이 축제

- 벨기에, 이프레스
- 매년 5월 둘째 일요일
- 중세에 고양이가 흑사병을 전염시킨다고 생각하고 고양이를 전멸시킨 전통에서 유래됨. 매년 5월 도시의 모든 거리는 고양이가 그려진 각종 표지판이나 깃발이 도시를 장식하고 제과점에서는 고양이 모양을 한 초코렛과 과자들이 전시 판매됨. 고양이로 분장을 한 사람 들이 가장행렬을 함.

7. 뮌헨 맥주축제 (Octoberfest)

- 독일, 뮌헨
- 매년 9월 말에서 10월 초에 열리는 맥주축제
- 1810년 10월 바이에른공국왕국의 초대 왕인 빌헬름 1세의 결혼에 맞추어 5일간 음악제를 결단인 축제를 열면서 시작됨. 축제 첫날에는 바그너 극장에서 시청 앞 광장에 걸쳐 있는 마을과 직능단체들이 왕·왕비·귀족·농부·광대 등으로 분장하고 시내를 행진. 시내 광장에서 뮌헨의 6대 맥주회사가 3,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천막술집을 열어 분위기를 고조시킨 뮌헨 시장이 그해 첫 생산된 맥주를 선보이면서 축제의 개막을 선언함. 이후 16일 동안 맥주를 마시고 즐기면서 축제를 벌임.

8. 쾰른 카니발

- 독일, 쾰른
- 매년 2월
- 닭 모양의 모자를 쓰고 배를 내민 사람들이 중세 거리의 시민들처럼 화려하게 장식된 트랙터 위의 무대에서 사탕, 초콜릿, 인형, 꽃 등을 양손 가득히 쥔 채 봄의 방문을 축하하며 구경꾼들에게 뿌림. 카니발이 끝나고 재의 수요일에는 얼굴에 재를 묻히고 그 동안의 광란을 참회함.

9. 니스 카니발 (Nice Carnival)

- 프랑스, 니스

- 18세기 베네치아 카니발의 전통을 이어받은 유일한 카니발로 1878년부터 시작. 꽃마차 경연대회, 기마 행진, 가장 행렬, 색종이 뿌리기 대회, 밀가루 전쟁 등으로 구성되며 '참회의 화요일'인 사육제 최종일 저녁 '미국의 해'에서 카니발 황제가 화장되고 불꽃놀이가 끝나면 대단원의 막이 내림. 매년 카니발을 위해 약 1,500명의 인원이 동원되며 카니발의 절정은 꽃마차 경연임. 말이 끄는 꽃마차에서 미녀들이 수십만 관중에게 10톤가량 되는 꽃송이를 던지는 놀이가 벌어짐.

10. 보졸레 누보 축제

- 프랑스, 보졸레에서 시작되어 프랑스 전역으로 확산
- 매년 11월 셋째 주 목요일
- 11월 셋째 주 목요일은 보졸레 누보의 출시일로, 이날 프랑스 대부분의 레스토랑 곳곳에 '보졸레 누보 상륙'이라는 포스터가 붙어 있으며, 사람들은 온통 축제 분위기 속에서 보졸레 누보를 시음함.

11. 튜립 축제

- 네덜란드, 리세
- 매년 3월
- 네덜란드 튜립 재배의 중심지인 리세 지방의 큐켄호프 공원에서 열리는 꽃 축제. 전 세계에서 관광객들이 모여들며, 튜립을 비롯한 히아신스, 수선화 등이 공개됨.

12. 잘츠부르크 음악제 (Salzburg Festival)

-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 매년 7월~8월까지 1개월간 개최
- 모차르트의 고향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의 음악축제. 1922년 연출가이던 막스 라인하르트, 시인호프만슈탈, 작곡가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에 의해 시작. 처음에는 모차르트 곡만의 축제였으나 오늘날 프로그램의 폭이 넓어졌고 페스티벌 기간 동안 세계의 유명한 오케스타라와 지휘자, 솔리스트들이 대거 모여듦. 보통 축제기간동안 대여섯 편의 오페라 공연과 60여종의 음악 연주회, 연극 공연, 발레 공연 등이 상연됨.

13. 스페인 토마토 축제 (La Tomatina)

- 스페인, 부늘

- 매년 8월 마지막 수요일

- 1944년 토마토 값 폭락에 분노한 농부들이 시의원들에게 분풀이로 토마토를 던진 것에서 유래. 주민들은 축제 며칠 전부터 비닐과 천으로 창문 등 건물을 가리고 축제에 쓰일 토마토를 구입함. 축제 당일 여러 나라에서 온 관광객들이 허름한 옷차림으로 마을 중앙에 있는 광장을 중심으로 몰려들면 대포 소리와 함께 아무에게나 토마토를 던지기 시작함. ‘토마토 전쟁’이라 불리는 축제는 2시간 동안 계속됨.

14. 메르세 축제 (La Merce)

- 스페인, 바르셀로나

- 9월 24일이 속해 있는 1주일 간

- 바르셀로나의 수호성인인 메르세를 기리기 위한 축제로, 가장 특별한 이벤트는 인간 탑 쌓기이며 가장행렬, 라이브 무대, 서커스 등 일주일 동안 도시 곳곳에서 이벤트가 벌어짐.

15. 하지축제

- 스웨덴, 전역

- 매년 하지에 가장 가까운 토요일

- 공원이나 풀밭 광장에 민속 의상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바이올린 악사들은 경쾌한 음악을 연주함. 고대 켈트족의 전통처럼 광장 한가운데 백화꽃과 자작나무 잎으로 장식한 장대기둥 메이폴(May Pole)을 세우면 하지축제의 막이 오름. 아코디언 소리에 맞춰 온 동네 사람들이 메이폴을 빙빙 돌고 춤을 춤.

16. 헬싱키 축제

- 핀란드, 헬싱키

- 매년 8월 말~9월 초

- 1995년부터 계속되어온 10일간의 예술축제. 다양한 장르의 음악 밴드, 춤, 예술, 음식문화를 테마로 헬싱키 시내 곳곳의 레스토랑과 바에서 축제가 열림. 축제는 '성가대의 밤'으로 시작되고, 축제 기간 중 '예술의 밤'에는 주요 박물관, 미술관, 갤러리, 도서관들이 늦게까지 무료로 전시실을 개방함.

*** 한국의 주요 축제와 현황**

<표 2-9> 한국의 주요 축제

연 번	축 제 명	기 간	연 번	축 제 명	기 간
1	얼음나라화천산천어축제	1.10-1.27	30	평창효석문화제	9.4-14
2	인제빙어 축제	1.30-2.2	31	금산인삼축제	9.18-27
3	제주정월대보름들불축제	2.12-14	32	안성남사당바우덕이축제	9.22-27
4	영암왕인축제	4.4-7	33	천안흥타령축제	9.23-27
5	고령대가야체험 축제	4.9-12	34	충주세계무술축제	9.23-27
6	경주 술과 떡잔치	4.18-23	35	봉화송이 축제	9.24-27
7	부산광안리여방축제	4.24-26	36	서귀포칠십리축제	9.24-27
8	함평나비 축제	4.24-5.10	37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9.25-10. 4
9	진도신비의바닷길 축제	4.25-27	38	양양송이 축제	9.25-29
10	아산성웅이순신 축제	4.28-5.3	39	남강유등 축제	10.1-12
11	연천전곡리구석기 축제	5.1-5	40	김제지평선 축제	10.9-13
12	남원춘향제	5.1-5	41	백제문화제	10.9-18
13	대구약령시한방문화 축제	5.1-5	42	추억의7080총장 축제	10.13-18
14	지리산한방약초 축제	5.2-10	43	풍기인삼 축제	10.13-18
15	문경차사발 축제	5.2-10	44	자라섬국제재즈페스티벌	10.15-18
16	하동야생차문화 축제	5.2-5	45	황성한우 축제	10.15-19
17	담양대나무 축제	5.3-5.8	46	외고산옹기 축제	10.15-18
18	울산쇠부리 축제	5.8-10	47	정선아리랑제	10.15-18
19	부평풍물대 축제	5.20-24	48	인천소래포구 축제	10.16-19
20	춘천마임 축제	5.22-31	49	부산자갈치문화관광 축제	10.21-25
21	부산해운대모래 축제	5.29-31	50	강경발효젓갈 축제	10.22-29
22	무주반딧불 축제	6.13-21	51	이천쌀문화 축제	10.22-25
23	한산모시문화제	6.13-21	52	남도음식문화큰잔치	10.22-26
24	부여서동연꽃 축제	7.10-19	53	고창모양성제	10.23-26
25	보령머드 축제	7.11-19	54	광주김치대 축제	10.23-11. .1
26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7.24-26	55	김해분청도자기 축제	10.27-11. .1
27	강진청자문화제	8.8-16	56	최남단방어 축제	11.6-15
28	통영한산대첩 축제	8.13-17	57	파주장단콩 축제	11.20-22
29	난계국악 축제	9.4-8			

<표 2-10> 한국의 주요 축제와 내용

축제명(등급)	기간	장소	주최/주관	주요 프로그램
얼음나라화천 산천어축제(우수)	1.10-1.27	화천군 화천천	화천군/화천군나라 축제조직위원회	얼음축구, 산천어얼음낚시, 산천어루어낚시, 빙판이벤트, 얼음별매타 기, 창작별매콘테스트, 얼음나라 열차, 산천어 등(燈)거리 등
인제빙어축제 (유망)	1.30-2.2 (4일간)	인제군 남면 부평선착장 등	인제군/빙어 축제추진위원회	산촌의 겨울놀이, 산촌의 겨울음식, 빙어낚시 체험, 은빛나라퍼레이 드, 아이스모빌, 은빛나라 점등식, 빙하전국 루미나리 등
제주정월대보름들 불 축제(유망)	2.12-14 (3일간)	제주시 새별 오름 일대	제주시	부싯돌불씨만들기, 달집만들기대회, 등돌들기, 달집태우기, 오름불놀이, 불강통돌리기, 레이저쇼 등
영암왕인축제 (예비)	4.4-7 (4일간)	왕인박사유적지 및 도기문화센 터 일원	영암군 / 영암군향 토축제추진위	왕인박사 춘향대제, 왕인맞이, 월출산달맞이, 왕인역사전시관, 건강걷 기대회, 야간트래킹, 영암명품즉석경매 대형응관빛기대학생워크숍, 왕인수석전시관, 인공암벽등반 등
고령 대가야체험축 제(예비)	4.9-12 (4일간)	대가야박물관 및 관내 일원	고령군 / (사)대가야 체험축제추진위	지산동고분체험, 지산동무덤의 미스터리, 대가야유물체험, 대가야목관만들 기체험, 고분벽화만들기, 역사재현극 등)
경주술과떡잔치(유 망)	4.18-23 (6일간)	경주 황성 공원 일원	경주시/한국의술과떡 잔치추진위원회	전통술·떡전시, 창작떡만들기대회, 떡메치기, 대동술지도, 해외 자매· 우호도시 떡 판매, 술·떡 시음시식 및 판매 등
부산광안리여방축 제(예비)	4.24-26 (4일간)	광안리해수욕 장 일원	수영구 / 수영구축 제추진위원회	수영전통민속공연, 망썰레, 길놀이, 활여요리경연대회, 청소년비보이합합 경연대회, 선풍정랑달기, 맨손으로 고기잡기 등
함평나비축제 (최우수)	4.24-5.10 (17일간)	함평천 수변공 원 일원	함평군 / 함평 나비대축제추진위	나비채집 체험, 나비날개 이용 공예품 만들기, 곤충달리기대회, 나비 탈 제작 및 퍼포먼스 나비곤충열차 운행 등
울산쇠부리축제 (예비)	4.24-26 (3일간)	울산 북구청광장	울산시북구청/북구 쇠부리축제추진위원 회	고대 야철로전시, 금속공예전, 쇠부리카릭터 공모, 학술세미나, 쇠부 리놀이, 대장간 체험, 쇠부리놀이체험, 봄꽃전시회, 쇠부리주제극 연 출, 외국인 노래자랑 등
진도신비의바닷길 축제(우수)	4.25-27 (3일간)	진도읍 일원 모도리 해변	진도군 / 진도군축 제추진위원회	무형문화재공연, 군립민속예술단공연, 기타 진도민속민요공연 바닷길체 험, 진도개체험, 진도홍주체험, 병할머니소망띠달기 등
아산성웅이순신축 제(유망)	4.28-5.3 (6일간)	현충사 및 국교천 일원	아산시/아산성웅이 순신축제위원회	이순신장군 출정식, 이순신판소리, 이순신 뮤지컬, 삼도수군통제사 길 거리조성, 거북선모형제작, 야간 거북선 운영 등
연천전곡리구석기 축제(유망)	5.1-5 (5일간)	전곡리선사유 적지 일원	연천군/연천 전곡리구 석기 축제추진위	구석기퍼레이드, 구석기체험학교, 선사체험마을, 농경생활문화체험, 살아 있는 구석기인 퍼포먼스, 화석에서 태어난 구석기인 등
남원춘향제 (우수)	5.1-5 (5일간)	광한루원, 춘향 테마파크 등	(사)춘향문화선양회/ 춘향제전위원회	춘향국악대전, 남원농악하마당, 시조경향대회, 춘향묘 참배 및 춘향제전, 대동기놀이, 전통놀이체험장, 춘향그네뛰기 등
대구약령시한방문 화축제(예비)	5.1-5 (5일간)	약령전시관, 약 령공원, 약전골 목 등	대구사대구시중구/ (사) 약령시보존위	전국우량한약재 선발대회, 약전골목 재발견, 한방우료진료, 무료 체질 감별, 한방백 마시지, 약차시음, 한방 건강체험, 청년허준선발 등
지리산한방약초축 제(유망)	5.2-10 (9일간)	산청읍 경호 강변 일원	산청군, 산청군농업협 동조합 / 산청한방약초 축제위원회	한방진료경험 수기공모, 산청문화관광투어, 허준 마당극공연, 사진전시회, 심마니 약초찾기, 한약재 썰기경연, 한약재 달이기 시연 및시음, 류의 태, 허준상 시상, 약초산업발전 심포지움, 등
문경차사발축제 (우수)	5.2-10 (10일간)	문경도자기전 시관광장	문경시 / 문경차사 발축제추진위	대한민국 도예 명장전, 세계의 차사발전, 공물차사발잡기, 전국도자기교전, 전통다례 학교 운영, 수제차 뉘기, 차사발아카데미 등
하동야생차문화축 제(최우수)	5.2-5 (4일간)	화개면 차사배지 일원 및 백담도 요지 일원	하동군 / 하동야생차 문화축제조직위	차사배지다례식, 차와 차사발세미나, 녹차재배농가체험, 다시만들기공 연, 야생차만들기체험, 차사발만들기체험, 천년차 경매, 외국인차예절경 연대회, 템플스테이, 산사음악회 등
담양대나무축제 (예비)	5.3-8 (6일간)	문화공원 일원	담양군 / (사)담양 대나무축제위	대나무박람회, 대나무악기경연대회, 죽경배기대회, 시서화백일장, 대통 술 담그기, 대나무 뗏목타기, 대소쿠리 어부체험 등
울산쇠부리축제 (예비)	5.8-10 (3일간)	울산 북구청광장	울산시북구청/북구 쇠부리축제추진위원 회	고대 야철로전시, 금속공예전, 쇠부리카릭터 공모, 학술세미나, 쇠부 리놀이, 대장간 체험, 쇠부리놀이체험, 봄꽃전시회, 쇠부리주제극 연 출, 외국인 노래자랑 등
부평풍물대축제 (예비)	5.20-24 (5일간)	부평로, 신트 리공원 일원	부평구 / 부평구축 제위원회	무형문화재 초청공연, 풍물공연, 해외초청공연, 예술무대공연, 대동 마당, 풍물체험마당, 놀이체험마당, 예술체험마당 등
춘천국제마임축제 (최우수)	5.22-31 (10일간)	마임의 집, 고승 도지 성 등	한국마임협회, 춘천 MBC / (사)춘천마 임축제	극장공연, 도깨비난장, 찾아가는 마임공연, 거리공연, 도깨비열차, 예 술가지원 프로그램, 미친 금요일, 밤 도깨비 난장 등
부산해운대모래축 제(예비)	5.29-31 (3일간)	해운대해수욕 장백사장	해운대구/해운대문 화관광협의회	국제모래작품전, 세계여자비치발리볼, 모래마라톤, 모래전시체험관, 해상볼꽃쇼, 모래축볼기원제 모래골프 등

축제명(등급)	기간	장소	주최/주관	주요 프로그램
무주반딧불축제 (우수)	6.13-21 (9일간)	무주군 일원	무주군 / 사)무주반딧 불축제제전위원회	반딧불이인형극 등 문화예술행사, 반딧불이 분양 및 방사 체험, 반딧불이 야간 관찰 체험, 나무곤충 만들기 및 장승 깎기 체험 등
한산모시문화제 (유망)	6.13-21 (9일간)	한산모시관	서천군 / 한산모시문 화제추진위원회	한산모시옷패션쇼, 저산팔음길썰놀이, 한산모시제, 한산모시새벽시장, 한산 모시천연염색, 한산모시폴체험, 한산소곡주체험 등
부여서동연꽃축제(예비)	7.10-19 (10일간)	부여서동공원	부여군/부여문화원	연꽃주제관운영, 서동사랑이벤트,세계연꽃전시회,연음식경연대회,연꽃 관련체험,생태문화체험, 손수레운행, 수막레이저쇼 등
보령머드축제 (대표)	7.11-19 (9일간)	대천해수욕장	보령시 / 보령머드 축제추진위원회	거리퍼레이드, 요트퍼레이드, 머드홍보관, 지역특산품전시판매, 머드슈퍼슬라이딩, 머드씨름대회, 갯벌마라톤대회, 머드페인팅, 머드마사지 등
인 천 펜 타 포 트 락 페스티벌 (예비)	7.24-26 (3일간)	인천 아람도앞 시민휴식공간	인천광역시/아이에스 컴,인천관광공사	빅탑스테이지, 서브스테이지,신인발굴 프로그램, 웰드뮤직공연,패션 쇼 공연,아트전시,마임과 각종 놀이기구 테크노 DJ공연 등
부여서동연꽃축제(예비)	7.10-19 (10일간)	부여서동공원	부여군/부여문화원	연꽃주제관운영, 서동사랑이벤트,세계연꽃전시회,연음식경연대회,연꽃 관련체험,생태문화체험, 손수레운행, 수막레이저쇼 등
강진청자문화제 (최우수)	8.8-16 (9일간)	강진 고려청자 도요지	강진군 / 강진군향토 축제추진위원회	강진 신전 들노래, 고려청자 신비의 소리터널, 소달구지 열차여행, 고려시대왕실체험, 고려청자문양 탁본 및 조각 등
통영한산대첩축제 (유망)	8.13-17 (5일간)	통영시 일원	(재)한산대첩기념사 업회	고유제 봉행, 삼도수군통제사 행렬, 통제영과시험, 해양레포츠체험, 모 형거북선 및 창작거북선 만들기, 한산해전재현 등
난 계국악축제 (우수)	9.4-8 (5일간)	영동군 일원	영동군 / (사)난계국악사업회	박연선생송모제, 전국시조경향대회, 난계국악단 공연, 국악기 제작, 국악난 장공연, 난계국악교실, 퓨전타악공연, 국악캠프 운영 등
평창효석문화제 (유망)	9.4-14 (11일간)	평창군 봉평 면 문화마을	이효석문학선양회	학습체험프로그램, 효석백일장 메밀꽃밭오솔길, 전통장터, 도리깨마 당, 가산문학의 감동으로", 가장행렬, 먹거리테마 단지 등
금산인삼축제 (최우수)	9.18-27 (10일간)	금산인삼관 및 인삼약초시장	금산인삼선양위원회 / 금산인삼축제집행위	인삼제 전, 물떼기농요, 금산농악, 강처사설화마당극, 인삼캐기, 인 삼명만들기, 인삼씨앗고르기, 전통인삼생산체험 등
안성바우덕이 축제(예비)	9.22-27 (6일간)	안성시 내가평 공연	안성시 / 안성남사당바 우덕이축제위원회	신남사당놀이공연, 시민무대상설공연, 남사당놀이전통문화체험, 옛날장터, 추 수체험, 가축장터, 공방이르기, 바우덕이 풍물그리기 등
천안흥타령축제 (최우수)	9.23-27 (5일간)	천안시대성공원아 리안공연장등	천안시 / 천안시문화 예술선양위원회	농소전 제작공연, 춤전시관, 흥타령춤배우기, 거리퍼레이드, 씨티 투어, 거봉포도와이너리, 전국팔도사투리강연 등
충주세계무술축제 (유망)	9.23-29 (7일간)	칠금관광지	충주시 / (재)충원 문화관광재단	우류국악난공연, 무술퍼포먼스, 태권퍼포먼스, 무술강좌, 무술배워보기, 목검만들기, 무술연우 및 무술대회, 이중격투기, 충주사과마라톤대회 등
봉화송이축제 (유망)	9.24-27 (4일간)	봉화읍 체육공원 송이산 일원	봉화군 / 봉화군축 제추진위원회	춘양목술발간경기대회, 상계줄다리기재현, 봉화춘양목송이 심포지엄 송이 채취, 송이·한약우요리체험, 목공예품 만들기체험 등
서귀포칠십리 축제(유망)	9.24-27 (4일간)	천지연광장, 서귀포항	서귀포시 / 서귀포칠 십리축제위원회	칠십리대행진, 불초초대마프로그래, 칠십리음악회, 민속공연, 제주옹기만들기, 낚시대 회, 수영대회, 정의현감 행차재현, 칠십리바다해상퍼레이드, 등
안동국제탈춤 페스티벌(대표)	9.25-10.4 (10일간)	탈춤공원, 하 회마을	안동시 / (재)안동국제 관광조직위원회	국내외탈춤공연, 월드마스크경연대회, 창작탈퍼포먼스, 탈춤따라배우기, 마당극, 창작인형극, 세계탈전시회, 탈만들기등50여개체험, 하회선유출물놀 이, 탈춤풍물경연대회, 안동민속축제 등
양양송이축제 (우수)	9.25-29 (5일간)	남대천둔치, 양양 재래시장 등	양양송이축제위	산신제, 읍면전통민속공연, 탁장사대회, 전통혼례식 재연, 송이채취, 송이생태견학, 송이요리시식, 농가홈스테이 등
남강유등축제 (최우수)	10.1-12 (12일간)	진주성 및 진주 남강 일원	진주문화예술재단/남 강유등축제 제전위	소망등달기, 풍등 날리기, 창작탈춤, 농악발표회, 등 캐릭터 사진찍기대 회, 소망등달기, 유등띄우기, 세계등 전시, 종교등 전시 등
김제지평선축제 (최우수)	10.9-13 (5일간)	김제시 일원(벽골 제 중심)	김제시 /김제시지 평선축제제전위원회	벽골제제사, 쌍룡놀이, 임석줄다리기, 벼베기시연, 인간문화재공연 지평선쌀유 통특별전, 생명농업전시관, 단야농자인형극및동화구연 등
공주부여백제문화 제(예비)	10.9-18 (10일간)	공산성, 둔치공 원, 정령사지 및 구드래광장	충남,공주시,부여군 / (재)백제문화제추진위 원회 등	대백제 기마군단 행렬, 무령왕이야기, 사비 백제의 부활, 백제향, 백제문 화속으로, 예술의거리 운영, 인절미만들기, 세계불꽃쇼
광주7080충장축제 (예비)	10.13-18 (6일간)	충장로, 금남로,황 금로 일원	광주 동구청/광주충장 로축제추진위원회	추억의전시관,민정순시퍼포먼스,추억의 벼룩시장,거리퍼레이드,추억 의 먹거리,추억의 포크송 공연, 충장 병마리축제 등
풍기인삼축제 (유망)	10.13-18 (6일간)	영주시 풍기 읍 일원	풍기인삼축제추진위 원회/풍기인삼축제 실무위원회	인삼고유제및대제, 주세봉군수행차재현, 풍기인삼실버페스티벌, 풍기인 삼씨앗뿌리기, 인삼마라톤대회, 외국약초비교전시, 인삼피부마사지체 험, 풍기인삼사우나, 축령옛길야간걷기 등

축제명(등급)	기간	장소	주최/주관	주요프로그램
자라섬국제재즈페스티벌(유망)	10.15-18 (4일간)	자라섬, 가평역, 가평 시내	가평군/(사)자라섬청소년재즈센터	국제재즈페스티벌, 국제재즈콩쿨, 세계타악기전시회, 전시체험, 재즈연주워크숍, 무케도열차체험, 재즈책잔치 운영 등
황성한우축제(예비)	10.2-7 (6일간)	황성읍성강둔치 일원	황성군/황성한우축제추진위원회	한우, 더덕주제관, 전국씨름대회, 한우품평회, 외양간체험, 우마차여행, 거리퍼포먼스, 명 제작체험 등
울산 외고산옹기축제(유망)	10.15-18 (4일간)	울주군 외고산옹기마을 일원	울주군/외고산옹기축제추진위원회	옹기투호대회, 옹기물레시연, 옹기산전전시회, 흙모형 만들기 옹기체험 흙놀이, 전통옹기 제작 및 체험, 퓨전국악공연, 등
정선아리랑제(예비)	10.15-18 (4일간)	정선읍중앙시장 일원	(사)정선아리랑제위원회	정선아리랑 뮤지컬, 인형극, 락공연, 경향대회, 난타, 창곡공연 등, 창작뿔떡 만들기, 토속음식만들기 체험, 홈스테이 등
인천소래포구축제(예비)	10.16-19 (4일간)	소래포구 일원 및 해안공원	남동구 / 인천소래포구축제추진위원회, 남동문화원	개막퍼레이드, 서해안풍어제, 새우전전시관, 소래수산물활어전시관, 김장체험관, 소래포토존, 소래먹거리장터, 세계풍물관, 외국인, 수산물이벤트, 영 페스티벌, 소래포구아름다선발대회, 등
부산자갈치문화관광축제(유망)	10.21-25 (5일간)	자갈치시장 일원	(사)부산자갈치문화관광축제위원회	용신제, 용왕제, 출어제, 만선제, 소망등달기, 길놀이, 맨손으로 할여잡기, 낙지숙의 진주찾기, 나도자갈치아자매 등
이천쌀문화축제(우수)	10.22-25 (4일간)	이천시 설봉공원	이천시 / 이천쌀문화축제추진위원회	거북놀이, 추수감사제, 임금님진상행렬, 쌀퍼포먼스, 풍년마당극, 장승제, 짚공예, 탈곡마당, 대동놀이, 가마솔밭이천명 등
강경발효전갈축제(우수)	10.22-26 (5일간)	강경읍일원, 강경포구, 것갈시장, 옥녀봉	논산시/강경것갈축제추진위원회	축제연계관광, 읍면동문화가장행렬, 개대사 철학 이운행사, 놀외고을전통행사, 황산골선비밥상, 것갈주먹밥사먹기, 가마솔밭쌀밥과것갈시식체험, 황포돛배유람선타기, 시장통길거리한마당 등
남도음식문화큰잔치(유망)	10.22-26 (5일간)	낙안읍성민속마을	전라남도, 22시군/전라남도축제추진위원회 등	상달제, 도립국악단공연, 남도선명한마당, 돌산갯김치담그기, 흥탁상합체험, 요리경연, 창작등만들기, 민속체험, 남도음식전시판매, 낙안읍성민속생활 체험, 마당극 남도천지밥 등
고창모양성제(예비)	10.23-26 (4일간)	고창읍성 내외	(사)고창모양성보존회 / 고창문화재단	성향제, 답성놀이 춤, 원님부임행사, 수문장교대식, 전통혼례식, 답성놀이 체험, 돌탑쌓기체험, 성쌓기체험, 조선관아체험 등
광주김치대축제(유망)	10.23-11.1 (10일간)	김대중컨벤션센터 또는 영주종합체육관	광주광역시/광주김치대축제추진위원회	김치전시관, 2008김치산업페어, 김치발효과학카페 등, 종가집김치시연, 김치스쿨, 김치주먹밥만들기, 김치과학교실, 배추수확체험, 묵은지 퓨전 별미거리, 김치서포터즈 등
김해분청도자기축제(예비)	10.27-11.1 (6일간)	진례면 송정리 일원	김해시/(사)김해도예협회	도자기비교전시, 분청사기학술세미나, 도자기시화전, 도자기만들기체험, 투호, 전통가마불지피기, 도자기조각모자이크 등
최남단방어축제(예비)	11.6-15 (10일간)	모슬포 향내일원	최남단방어축제위원회	역사문화유적지 답사, 풍어제 및 길놀이, 해녀물질대회, 방어어시장 및 경매, 백일장 사생대회, 전국 갯바위 낚시대회, 방어 손으로 잡기, 방어축제표지모델 선발대회 등
파주장단콩축제(예비)	11.20-22 (3일간)	파주 임진각광장	파주시, KBS플러스/파주장단콩축제추진위원회	장단콩전시관, 쌀홍보관, DMZ곤충관, 유기농산물전시, 꼬마메주체험, 도리깨콩타작, 어린이메틀체험, 장단콩두부만들기, DMZ불꽃놀이, 경기영어마을 및 헤이리마을 투어 연계 등

출처: 문화관광체육부

■ 최근의 상황 변화와 쟁점: 한-EU FTA 체결가능성과 문화교류

1. 개요

- FTA 체결과정 혹은 준비과정에서 담당하고 있는 유럽의회와 개별 국가의 의회의 역할과 기능.
- 초국가(혹은 초정부)로서 EU와 개별 국가들 간의 권리와 이해 충돌 해결 방법과 쟁점들.
- 유럽연합과의 FTA 체결은 문화교류 정책의 내용까지 바꿀 수 있는 파급효과

와 보다 치밀한 전략 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됨.

– 지역 단위를 중심으로 유럽연합이라는 큰 틀에서 문화교류 정책의 전반적인 틀과 내용이 재정립될 필요성 제기.

– 유럽연합의 정치적 책임에 대한 의미.

2. 한-EU FTA 추진과정 및 주요 쟁점

1) 추진경과

<표 2-11> 한-EU FTA 추진 과정

일시	내용
2003. 8.	EU를 중장기적 FTA 추진 대상국으로 선정
2006. 5. 15.	한-EU 통상장관회담 개최(필리핀), 한-EU FTA 예비협약의 개최 합의
2006. 7. 19.	제 1차 한-EU FTA 예비협약의 개최 (브뤼셀)
2006. 9. 26. ~ 27.	제 2차 한-EU FTA 예비협약의 개최 (브뤼셀)
2006. 11. 24.	한-EU FTA 공청회 개최
2006. 12. 6.	FTA 민간자문회의 개최,
2007. 4. 9.	FTA 추진위원회 개최
2007. 5. 1.	대외 경제장관회의 개최, 한-EU FTA 협상 출범 승인
2007. 5. 7. ~ 11.	한-EU FTA 1차 협상 개최(서울) : 상품, 서비스/투자, 기타 규범(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쟁), 분쟁해결/지속가능발전 등 4개 분과로 구성
2007. 7. 16. ~ 20.	한-EU FTA 1차 협상 개최(브뤼셀) : 상품, 서비스, 정부조달 개방안 교환 및 협의
2007. 9. 17. ~ 21.	한-EU FTA 3차 협상 개최(브뤼셀) : 본격적인 양허 협상 개시
2007. 10. 15. ~ 19.	한-EU FTA 4차 협상 개최(서울) : 분야별 통합협정문과 상품 관세 양허안 논의
2007. 11. 19. ~ 23.	한-EU FTA 5차 협상 개최(브뤼셀) : 3대 이슈(상품 관세 양허, 자동차 기술표준, 원산지 규정) 쟁점화
2008. 1. 21. ~ 25.	한-EU FTA 6차 협상 개최(서울) : 쟁점 타결 시도

2008. 5. 12. ~ 15.	한-EU FTA 7차 협상 개최(브뤼셀) : 연내 타결을 합의, 쟁점 제외분야 모두 타결 추진
2009. 3. 23. ~ 24.	한-EU FTA 8차 협상 개최(서울)
2009. 7. 13.	한-EU FTA 협상 종결

2. 발효까지의 절차

1) 협정문 가서명 → 정식서명 → 국회 비준동의, EU의회 승인 (비준동의안 처리 시한 없음) → 협정 이행을 위해 필요한 법률 제·개정 → 양국 간 FTA 이행을 위한 국내 절차를 완료했다는 확인서한 교환으로부터 60일 경과 후 발효.

※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내년 초 발효 전망

3. 주요 쟁점사항과 협상 결과

1) 상품 양허

① FTA에 따른 관세 철폐 일정

	한국	품목(관세율)	EU	품목(관세율)
즉시	91%	자동차부품(8), 계측기(8), 직물제의류(8~13), 칼라TV(8), 냉장고(8), 선박(5), 타이어(8), 복사기(8) 등	97%	자동차부품(4.5), 무선통신기기부품(2~5), 평판디스플레이어(3.7), 편직물(8), 복사기(3), 서류절단기(2.2), 냉장고(1.9), 에어컨(2.7), VCR(14) 등
3년	5%	중·대형(1,500cc초과)승용차(8), 기타정밀화학제품(5~8), 펌프(8), 무선통신기기부품(8), 의약품(6.5), 화장품(8) 등	2%	중·대형(1,500cc초과)승용차(10), 베어링(8), 타이어(2.5~4.5), 합성수지(6.5), 전자레인지(5) 등
5년	3.5%	소형(1,500cc이하)승용차(8), 기초화장품(8), 접착제(6.5), 합성고무(8) 등	1%	소형(1,500cc이하)승용차(10), 칼라TV(14), TV카메라 및 수상기(14), 광학기기부품(6.7), 순모직물(8)

7년	0.5%	순모직물(13), 동조가공품(8), 건설중장비(8), 기타기계류 (16), 밸브(8), 베어링(8) 등	-	-
----	------	---	---	---

② 공산품 관세 5년 내 철폐

- EU는 3년 내 공산품의 99%, 한국은 3년 내 96%, 양국 모두 5년 내 100%에 가까운 관세철폐 합의.

2) 통관

① 내용

- EU 회원국들의 상이한 세관행정이 한국 수출기업에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EU측에 세관절차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것을 요구.

② 통관협력위원회 설치 합의

- 품목 분류, 통관절차의 신속화, 우회수출입 방지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함.

3) 지적재산권

- EU가 WTO TRIPS(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의 보호수준을 훨씬 상회하는 내용을 요구하여 협상 난항, 또한 EU는 한국의 이미테이션 시장을 겨냥해 지적재산권 침해와 관련한 단속, 처벌, 소송절차를 규정하는 집행규정 강화 요구

- 지적재산권 분야의 지리적 표시(농식품 및 포도주·증류주) 품목을 협정 부속서에 기재하여 상호 보호하기로 합의.

- 농산품과 식품의 지리적 표시의 보호수준을 WTO협정상의 포도주·증류주 보호 수준으로 강화. 선행상표의 사용은 계속 보장. 양측은 스카치위스키, 샹파뉴 샴페인 등을 협정문 부속서에 기재하고 상표권 수준의 보호를하기로 합의.

4) 자동차 관련

① 관세 양허 관련

- 양측 모두 자동차는 교역규모는 물론 연관산업에 대한 유발효과가 지대한 품목인 만큼 즉시철폐 대상에서 제외, 배기량 1500cc초과 중대형 자동차는 3년 내, 1500cc이하 소형차는 5년 내 단계적 관세 폐지 합의, EU의 중형/대형 자동차 관세 10%를 3년 내 철폐 시 매년 3.3%의 관세인하 효과 기대.

②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 관련

-2013년까지 EU의 불만사항인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OBD)가 없어도 수입을 허용하고, 2014년 이후에는 한층 강화된 배기가스 기준인 '유로 6' 규제에 따라 수입 합의.

③ 자동차 기술표준 관련

- 협상 초기 유럽 업체들은 한국 시장 진출을 위해 유럽식과 다른 기술표준을 맞춰야 한다는 데 불만을 표명했고 EU 역시 자동차 기술표준 문제에 대해 비관세 장벽으로 규정, 양측 모두 국내 혹은 역내 기준을 유럽경제위원회(ECE)의 기술표준에 맞추어 완화기로 합의.

5) 서비스 분야

① EU는 협상 초기부터 법률, 회계, 유통, 통신 분야에서 폭넓은 개방을 요구

② 법률서비스 관련 한-미 FTA 수준에서 5년에 걸쳐 3단계로 나뉘 국내 법률 시장 개방 합의. 외국법자문사의 자국 명칭(home title) 사용 허용. 영국의 경우 사무 변호사(Solicitor)와 법정변호사(Barrister) 명칭 사용 가능

③ 금융서비스 관련 큰 마찰 없이 한미 FTA 수준으로 합의, 특히 EU는 기업을 상대로 판매하는 퇴직연금과 석유화학업체들을 상대로 하는 화재보험에 큰 관심 보임.

④ 통신서비스 관련 한미 FTA보다 추가된 수준으로 개방하되 2년의 유예기간과 포괄적 규제 권한을 유보함으로써 부정적 영향 회피 효과 기대, 방송용 국제위성전용회선서비스 시장 추가 개방

⑤ 환경서비스 관련 한미 FTA보다 추가된 수준으로 개방하되 5년의 유예기간과 포괄적 규제 권한을 유보함으로써 부정적 영향 회피 효과 기대, 생활하수처리서비스 시장 추가 개방, 생활하수처리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는 지자체, 공기업 독점과 같은 포괄적 규제 권한 유보

6) 농산물 관련 쟁점

① 협상 초기부터 EU측은 쌀, 고추, 마늘과 같은 한국 측 민감 품목에 대해 개방 제외, 세이프가드 혹은 관세할당제와 같은 예외적 취급을 인정하고 EU의 주요 관심 품목인 돼지고기, 낙농제품, 화인 등에 대해 한-미 FTA와 동일한 수준의 개방을 요구

② 쌀과 고추, 마늘, 양파 등은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 현행 관세 유지

③ 돼지고기 수입 관세 철폐시기에 대한 의견 불일치로 협상 난항. 돼지고기 시장 개방 관련 25%의 수입관세가 작용되는 냉동 삼겹살은 10년, 삼겹살 이외의 냉동 돼지고기는 5년, 냉장 돼지고기는 10년 내 관세 철폐합의

④ 와인의 경우 관세 즉시 철폐, 위스키의 경우 3년 내 철폐 합의

7) 무역구제

① 양측 모두 FTA에 따른 관세철폐로 산업피해가 있을 경우 세이프 가드 발동에 합의, 발동기간은 2년으로 하되 2년 추가 연장 가능에 합의

② 한-미 FTA에서 양자 세이프가드를 재발동하지 않도록 제한한 것과 달리 한-EU FTA에서는 제한을 두지 않기로 합의

8) 반덤핑 및 규제 이슈

- 제로잉(Zeroing) 금지, 최소관세 부과 원칙, 공익 조항 등 협정문에 포함 합의

9) 위생검역 및 정부조달 시장

① 위생검역 관련 세계무역기구(WTO) 위생검역조치(SPS)와 세계동물보건기구(OIE)의 일반원칙과 권리·의무 확인 합의

② 정부조달 시장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민자 사업 개방 합의

10) 원산지 규정

① EU는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 철강, 비철금속, 화학 등 한국의 관심품목에 대해 60%의 엄격한 부가가치기준을 요구, 그러나 한국은 부품 및 원자재를 동아시아나 동남아로부터 아웃소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엄격한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기 어려움. 이에 따라 한국은 EU측에 품목번호 변경 기준의 채택과 부가가치기준을 낮춰달라고 요구, EU는 최초로 결합기준 대신 완화된 선택기준을 수용 합의

② 자동차 원산지 기준의 경우 역외산 부품사용 비율 상한을 40% 미만 대신 45% 선에서 합의. 자동차부품, 기타 자동차의 경우 품목번호 변경 또는 역외산 부품사용비율(50%) 적용 합의

4. 문화교류정책과의 상관성

- 개별 국가와의 문화교류보다는 유럽연합 전체를 아우르는 전반적인 문화정책 기조의 새로운 수립이 필요함.

- 지역과 유럽연합 차원의 문화교류 정책이라는 이원적 접근의 필요성 대두.

- 유럽 지역에 대한 새로운 성찰과 문화정책 분류에 대한 새로운 정립이 필요하며, 경제적 관점에서 다시 한 번 접근할 필요성 존재.

제3장. 권역별 연구: 중동권

제 1절 사례를 통해 본 연구의 필요성

1. 개요

1) 사례 1: T-50 고등 훈련기 수주 실패

- 국산 고등훈련기 T-50의 아랍에미리트(UAE) 수출이 4년간의 노력 끝에 2009년 2월 좌절됨. UAE는 수도 아부다비에서 열린 국제 국방전시회(IDEX)에서 자국 공군의 고등훈련기로 이탈리아의 M-346을 선정, 48대를 구매할 계획이라고 최종 발표했음.

- 고등훈련기 40여 대 구매 계획이 포함된 UAE의 훈련기 구매 프로젝트는 액수만 30억 달러(한화 4조 5천억 원)에 달해 정부는 구매계약을 따내기 위해 전력을 다했음. 국무총리와 산업자원부 장관, 공군참모총장 등은 UAE를 방문할 때마다 UAE 정부에 T-50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주력했고 UAE 정부 관계자들은 방한 때마다 극진한 대접을 제공했음. 2006년 6월에는 UAE의 군 부총사령관인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나하얀 왕세자가 방한, 경남 사천 비행장에서 T-50 시뮬레이션에 참여한 뒤 T-50의 성능을 호평하며 깊은 관심을 보이기도 했음.

- 이탈리아 M-346과 경쟁은 초기부터 다소 버거운 싸움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이탈리아는 아프가니스탄 병력을 지원하기 위해 UAE에 군 기지를 운영하고 있는 점을 심분 활용하며 UAE 군 고위층을 공략했음.

- 그러나 쉽지 않은 경쟁이었다 하더라도 정부가 좀 더 치밀한 전략으로 대처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대목임. 고등훈련기 선정 때 기종의 성능뿐 아니라 해당 국가와의 산업협력 프로젝트도 중요한 고려 요소로 따지겠다는 UAE의 방침은 주지의 사실이었음. 관광객 증대를 위해 사막에 F-1 경기장을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제안,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관광 수입 증대에 역점을 두고 있던 UAE의 귀를 솔깃하게 만들기도 했음.

- 반면 우리 정부는 UAE의 이목을 끌만한 산업 협력계획을 제시하지 못했음. ‘30개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각종 협력 사업들을 실무 차원에서 제안했지만 UAE의 관심을 얻진 못했음. 더불어 UAE 정부는 인천~두바이 항로 외에 인천~아부다비

직항로를 개설해달라고 한국 정부에 요청했으나 성사되지 않았음. 무함마드 왕세자는 지난 1월 UAE를 방문한 김형오 국회의장을 만나 "솔직히 말해 9개월 동안 기다렸는데 (한국 정부는) 산업협력 프로젝트와 관련해 아무런 답변이 없다"며 정부의 무성의에 서운함을 표시했음. 이탈리아가 M-346의 첫 해외 수출을 위해 UAE의 구미를 당길 각종 인센티브를 쏟아내는 동안 우리 정부는 T-50의 성능을 강조하기만 한 셈임. T-50이 경쟁 기종보다 성능은 우수하지만 50억 이상 비싼 만큼 아랍에미리트의 구미를 끌 ‘당근’을 제시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못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임.

- 무함마드 왕세자는 당시 김 의장에게 “2월에 UAE에서 국제국방전시회가 열리는데 그 이전까지 관계 장관이 한국의 새 제안을 갖고 아부다비로 와 뵈으면 한다”며 마지막 기회를 주었으나, 정부는 일정상 이유로 곧바로 당국자를 파견하지 못한 채 3월 8일 일정으로 담당 차관을 UAE로 보내기로 하는 등 막판 총력을 기울이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음. 4월에 최종계약자를 발표할 것으로 알고 느긋하게 대응한 정부의 정보 부재는 아쉬움으로 남음.

2) 사례 2: “한국인에 대해 왜 이슬람권이 구명운동을 벌여야하는가?”

- 2007년 9월 3일과 10일 두 차례에 걸쳐 이집트 및 중동의 최대 일간지 알-아흐람에 올라온 칼럼의 논조.

- 기고자는 이집트 카이로 대학의 무함마드 살림 교수. 현재 쿠웨이트 국립대학에서 국제정치학을 가르치고 있음. 살림 교수는 칼럼에서 중동 최고의 수니파 종교기관인 알-아즈하르의 종교지도자가 아프가니스탄에서 피랍된 “한국인들의 실체를 정확히 모르면서 인질 석방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비판.

- 살림 교수는 기고문에서 피랍된 한국인들이 미국 등 서방의 전(全)세계 기독교화 움직임에 동참하는 생물교회 소속 선교사 및 신앙인들이라고 규정. 군사적 점령을 발판으로 이슬람 국가인 아프간을 기독교화 하려는 음모의 일환으로 한국인의 봉사활동을 기술. 한국이 미국에 이어 세계 최대 선교사 파견국가라면서 한국 기독교단체의 대중동 선교에 대해서도 살림 교수는 강력히 비난.

- 살림 교수는 친한파 인사로 분류되어 왔음. 카이로 대학 내 아시아연구소를 설립해 동아시아를 연구하는 학자로 한국교류재단(Korea Foundation)으로부터 10여 년간 지원을 받고 한국과 매년 학술 세미나도 개최해 왔음. 한국에도 수차례 방문해 한-중동 협력에 대해 논문을 발표해 왔음.

- 그러나 살림 교수는 아프간 인질납치 문제만큼은 한국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음. 중동의 지식인과 언론이 - 특히 살림 교수와 같은 친한파들마저 - 우리의 대중

동권 활동과 진출에 대해 전반적으로 의혹의 눈길을 보낼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

- 한국으로서는 테러 세력 잠입을 방지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는 한편 이슬람권과 서방의 갈등 구조 속에 휘말리지 않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해야 함. 이슬람과 격세력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까지도 최근의 서방과 중동의 갈등을 기독교와 이슬람의 충돌로 보는 시각이 확산하고 있기 때문임.

- 이슬람권은 19세기부터 서방과의 직접적인 갈등에 노출돼 왔음. 식민통치를 경험하고 그 과정에서 제국주의에 기반을 둔 서방의 기독교인들이 ‘활개를 치는’ 상황 등이 역사학자들에 의해 상세히 기록돼 있음. 살림 교수처럼 지식인들은 기회가 날 때마다 기독교 문명의 침투를 경고하는 글을 쓰고 있음. 9.11 테러 이후 부시 행정부가 이슬람권을 상대로 테러와의 전쟁을 벌이면서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상이 보이고 있음. 양측이 이념적으로 갈등을 보이고 있어 분쟁의 해결에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

- 이 과정에 중립적이어야 할 우리는 파병을 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서방에 동참하고 있음. 중동과의 진정한 문화협력과 교류가 더욱 절실히 필요한 상황임. 고유가와 플랜트 수주 최대 시장이라는 중동의 경제적 중요성의 점차 높아지면서 문화적 교류의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음.

- 특히 2009년 들어 예멘에서 한국인에 대한 잇따른 공격이 발생하면서, 한국의 대중동 이미지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3) 사례 3: 실패로 돌아간 사우디아라비아 내 한국문화원 설치

- 2008년부터 추진해 온 사우디아라비아 내 한국문화원 설치 노력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음.

- 사우디 정부의 외국 문화원 설치 반대 움직임이 가장 큰 원인이었음. 외국문화에 대한 폐쇄적인 사우디 정부의 입장이 작용한 것으로 보임.

- 주 이집트 주재 한국 대사관이 카이로에 한국문화원 설치에 가장 적극적이었으나, 경제적 시각에 입각한 사우디 내 문화원 개원 추진이 적절하지 못하였음.

- 전형적인 경제우선주의적 접근의 결과였음. 정부와 재계에겐 사우디가 경제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곳이 될 수 있음. 그러나 각국에 세워질 문화원이 아니라 중동 전역을 담당해야 할 문화원이라면 허브 지역에 세워져야 했음. 이집트나 두바이가 적절한 선택이었을 것임. 당사국 국민뿐만 아니라 주변 아랍 국민이 자주 드나드는 곳이 더 적절했을 것임. 사우디를 방문하는 외국인도 서양인뿐만 아니라

아랍인도 그 수가 많지 않음.

- 더불어 중동을 단일체(monolithic)로 보려는 시각이 정책 실패의 배경이 되었음. 이집트와 두바이에 비해 사우디는 상당히 폐쇄적인 국가임. 사회적,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큰 차이를 가지고 있음. 이를 무시하고 다른 중동 내 사회분위기를 사우디에 적용해 문화원 개설을 일방적으로 추진하였음. 대중동 문화전략도 중동 내 문화 그리고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여러 지역으로 나누어 접근해야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 마지막으로 전문 인력이 부재한 것도 한 원인임. 현재 중동지역에는 한국 문화원이 없음. 두 곳 (이집트와 이란)에 홍보(문화)관만 파견하고 있음. 이 중 카이로 주재 홍보관 만이 현지 언어를 구사하고 있음. 사우디에 문화원 개설을 위해 파견된 공무원도 중동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결여한 자원으로 알려지고 있음.

4) 세 사례의 시사점

- 문화교류의 필요성: 서방과 이슬람권의 대치 속에 한국의 국익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문화적 교류를 통한 정신문화적 근접성을 제고해야 함. 한국과 중동의 경제적 협력이 확대되고 있으나 문화적 교류는 지극히 점진적인 확대양상을 보이고 있음.

- 문화교류 접근법의 재고: 경제우선주의적 시각을 뛰어넘어 ‘문화적 거리’를 좁히려는 진정한 노력이 필요함. 현재는 많은 플랜트 수주가 이어지고 있지만, 향후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경제협력 관계 유지를 위해서도 기업위주의 경제적 진출과 더불어 정부나 민간 혹은 산관 차원의 문화적 ‘거리좁히기’ 노력이 더욱 본격화해야 하는 시점임.

- 인력구조의 한계점 극복: 현지의 정세와 문화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여 중동관련 문화교류업무에 투입해야함. T-50의 수출이 좌절된 이유에 대해 상대국의 문화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국가차원의 세일즈 전략이 부족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임. 특히 중동에서는 부족 특성의 가부장적 전통이 강하기 때문에 인맥 구축이 중요함. 지난 정권 당시 T-50의 첫 수출을 위해 KAI사장으로 지난 정권 당시 임명된 정해주씨가 아랍에미리트 왕세자인 무함마드와 7차례 만나 함께 T-50 시승까지 하는 친분을 쌓았으나 현 정권에서 다른 인사로 교체되면서 인맥관계가 끊어졌다는 아부다비 현지의 지적도 있음.

제 2절 중동권 문화교류 현황과 정책

I. 기관 현황

1. 주중동 기관 현황

- 대사관 현황: 27개 중동 국가 중 17개 대사관, 2개 총영사관(젓다, 두바이), 3개 겸임공관(바레인, 소말리아, 지부티)
- 문화원: 없음
- 문화홍보관 파견: 3 개소 (리야드, 카이로, 테헤란)

2. 주한 중동국 공관 현황

- 대사관: 18개
- 문화원: 없음
- 문화홍보관 파견: 10여개 대사관 (전문 홍보관은 아님)

II. 대중동 문화교류 기관별 활동 현황

1. 외교통상부:

o 문화교류협정 체결: 18개 국가와 문화협정 체결, 17개국 협정 효력 발효 (리비아만 미 발효)

o 해외공연 및 행사 주선:

- 모하메드5세대학교 한국의 날 행사 (2009.06.10, 모로코),
- 한국-모로코 우정의 날 행사 (2009.01.02, 모로코),
- 한국 문화의 밤 행사 (2008.12.22, 이스라엘),
- 안성 남사당 바우덕이 공연 (2008.12.03, 이란)
- 한-일 전통의상 패션쇼 (2008.11.04, 쿠웨이트),
- 비보이공연 (2008.10.30, 오만),
- 비보이, 사물놀이 공연 (2008.10.30, 두바이),

- 한국 서예전시회 (2008.10.30, 오만),
- 태권도 대회 및 시범 개최 (2008.10.29, 튀니지),
- 사진 및 서예 전시회 개최 (2008.10.28, 사우디아라비아),
- 국립국악원 공연 개최 (2008.10.28, 모로코),
- 한국 서예전 및 시연회 (2008.10.28, 리비아),
- 한-중동 우호친선 특급카라반 행사 (2008.10.28, 알제리),
- 한국 음식문화 축제 (2008.10.22, 두바이),
- 카라반 서예전 (2008.10.21, 이집트),
- 전통공연단 공연 (2008.07.07, 모로코),
- 한국 청소년 현대미술전 (2008.06.06, 이집트),
- 한국 문화행사 (2008.05.07, 아부다비),
- 국립전통예술단 공연 (2008.04.11, 이집트),
- 축제의 땅 공연(2007.03.20, 오만, 아랍에미리트),
- 이스라엘 국립박물관 한복전시회 (2006.03.14, 이스라엘)

○ 국내 중동관련 행사 조직 및 지원:

- 제2회 아랍문화축전(2009년 5월 12-20일)

주최: 한-아랍소사이어티

후원: 외교부, 한국국제교류재단, 국립극장, 주한아랍국가 대사관들이 후원

행사내용:

수단, 아랍에미리트연합, 카타르, 모로코의 국립전통예술단 공연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어 캘리그래피 전시 및 시연,

이집트, 알제리, 튀니지, 레바논, 모로코, 이라크, 팔레스타인 아랍 7개국의 최

신 영화 상영

아랍음식축제, 아랍전통 결혼식 재현 등

- 제1회 아랍문화축전 (2008년 6월 5일-8일)

주최: 한-아랍소사이어티

후원: 외교부, 한국국제교류재단, 국립극장, 주한아랍국가 대사관들이 후원

행사내용:

알제리, 리비아, 사우디, 요르단 국립민속무용단 공연

모로코 땅제 안달루시아 오케스트라 공연

이집트, 알제리, 튀니지, 레바논, 모로코, 이라크, 팔레스타인 아랍 7개국의 최

신 영화 상영

아랍음식축제, 어린이 벨리댄스 워크숍, 아랍전통악기 체험 워크숍, 결혼식 재현 등

- 쿠웨이트 출신 아랍풍 서양화가 「수라야 알-바크사미(Thuraya Al-Baqsam i)」 작품 전시회(2008년 7월 8-11일간 한국국제교류재단 문화센터 아람갤러리)

- 스포츠 외교: 태권도 시범단 파견활동

태권도 시범경기 (2008년 10월 30일, 모로코)

제6회 튀니지공화국 태권도 대회 (2007.02.08, 튀니지)

- 한-중동 협력포럼: 한-아랍 학자 간 협력방안 논의기구, 2003년부터 한국과 중동 지역 국가를 번회하며 개최되고 있음.

2. 문화체육관광부:

o 홍보관 파견 및 운영: 중동 3개 지역에 홍보관 파견, 문화교류 실무 담당

o 국제문화과:

- 국제문화교류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평가
- 국가브랜드 제고를 위한 문화분야 전략 수립 및 조정
- 문화예술에 관한 국제협약 및 문화협정 추진
- 주요 한국문화소개행사 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
- 해외동포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 계획의 수립·추진
- 재외공관의 문화예술활동 지원
- 해외문화홍보원 운영
- 문화분야 국제전문인력의 양성
- 문화분야 대외원조(ODA)

3. 한국국제교류재단:

o 중동 한국학 지원: 중동 한국어과 및 언어프로그램 설치 국가에 대한 한국인 교수 파견

- 이집트 아인샴스 대학 한국어과 교수 파견 및 기타 지원
- 요르단 대학 한국어과 교수 파견 및 기타 지원
- 튀니지 마누바 대학교 한국어 프로그램 지원
- 모로코 무함마드 5세 대학 한국어 프로그램 지원

- 이집트 카이로대학 아시아연구소 한국학 연구 지원

- 한국어 펠로우십: 중동의 연구자 및 학생에 대한 지원

- 2006년 7명

- 2007년 5명

- 2008년 7명

- 인사교류:

- 해외인사초청: 연간 20명 전후의 중동 인사 한국 초청, 견학 지원

- 차세대지도자교류: 연간 30명 정도의 중동권 차세대 지도자 초청 지원

- 문화교류:

- 레바논 베이루트 국제무용단 초청공연 (2009.04. 15-22, 서울)

- 두바이-한국 예술전 (2009.03.21-26, 아랍에미리트) 등

4. 한국국제협력단:

- 코이카 사무소 운영: ODA 지원 및 정보 수집 위한 사무소 설치

- 6개국: 요르단, 이라크, 팔레스타인, 이집트, 모로코, 튀니지

- 교육 사업: 중동 현지에서 다양한 교육사업 추진 중

- 직업훈련 시스템 운영: 카이로 자동차정비 교육, 컴퓨터교육, IT 교육, 음악 및 미술 교육 등

- 한국어 교사 파견: 중동 내 한국어과와 한국어프로그램에 봉사단 파견

- 중동 공무원 및 청소년 국내 초청 교육

- 아프가니스탄 성평등 정책 및 여성지도자 양성 프로그램 (2009.06.07)

- 모로코 교사 IT 활용역량 강화사업 (2009.07.06)

- 이라크 아르빌 IT 훈련센터 3차 국내초청연수 (2009.04.20)

- 중동 공무원 및 학자 1년 연수 프로그램

- 국내 7개 대학원에서 석사 프로그램 운영 중

5. KOTRA, 무역협회 및 상공회의소:

- 코트라 사무소 운영: 중동 지역 민간 및 중소기업 교류 증진을 위한 교두보 역할
 - 13개국 사무소 설치: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이라크, 알제리, 요르단, 수단, 모로코, 이집트, 쿠웨이트, 이란, 이스라엘, 리비아
- 무역협회: 아랍 대학생 초청 연수
- 상공회의소: 국내 중동전문가육성과정 운영

6. 한-아랍 소사이어티:

- 외교통상부와 무역협회 주도로 국내기업 및 주한 아랍 대사관의 참여로 중동 지역 민간문화교류의 교두보 역할을 위해 2008년 비영리재단법인으로 출범
 - 아랍문화축전 개최 (위 외교통상부 활동 참조)
 - 중동 각국에 ‘한국의 날’ 지정 운영: 일부 국가 2008년부터 행사 시작
 - 각종 전시회 및 문화행사 개최 지원

7. 한중동협회: 중동과의 순수 민간교류를 위해 2002년 9월 창립된 비영리사단법인

- 한-중동 산업협력사업
 - 중동 산업계 고위인사 초청·연수 (2003-2008)
 - 한-UAE 경제협력비전 수립 (2007.4.10-2007.6.10)
 - 아부다비 U-City 산업협력실사단 파견지원 (2007.7.8-7.15)
 - UAE 민관합동 경제사절단 파견지원 (2007.10.27-2007.11.1)
- 한·중동 비즈니스 매칭사업
 - 한국 산업, 기업 및 상품 홍보용 아랍어웹사이트 구축 및 운영
 - 중동 비즈니스 전문가 육성사업
- 한-중동포럼 개최

- 제 1차 한·중동포럼 개최 (서울, 2007.10.23)
- 제 2차 한·중동포럼 개최 (이집트 카이로, 2008.10.19 - 10.20)

○ 각종 세미나 및 심포지엄 개최

- 2004 한-중동 심포지엄 「이라크-중동정세: 한국의 역할과 대응」
(2004.06.09)
- 2006 제1차 한-중동 이슬람 문화 대토론회 (2006.05.30)
- 2006 제2차 한-중동 이슬람 문화 대토론회 (2006.10.10)

○ 문화교류사업

- 중동이슬람문화예술 대축제 (2005.11-2006.11)
- 사우디아라비아 문화축제 (2008.10.08 -11.30)

8. 한국아랍친선협회: 외무부의 협조로 1971년 발족한 민간단체

- 역사에 비해 협회의 규모가 축소되어 활동이 활발하지 못함
- 소규모 문화교류행사 지원과 협회보 발행
- 처용문화제 기간 중 아랍문화 전시회 개최 (2008.10.04-07)
- 제17회 한국-아랍 친선체육대회 (2009.05.09)

9. 한국-각중동국 친선협회:

- 한국 기업 및 전문가가 회장을 맡고 있는 한국-중동국 친선협회가 활동하고 있음
- 예) 한-사우디 친선협회, 한-쿠웨이트 친선협회 등
- 주로 양국 간의 비즈니스 및 인적 교류의 산발적인 행사를 담당하고 있음.

10. 중동학관련 학회:

- 한국중동학회, 한국이슬람학회, 아랍어문학회 3개 학회가 매년 1-2회 국제학술세미나를 개최하면서 아랍 학자들과의 교류를 진행해 오고 있음.
-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명지대학교 중동문제연구소 등 일부 중동관련 연구소

들도 국제학술세미나를 통해 중동 학자와의 교류를 수행해 오고 있음.

III. 대중동 문화교류 활동 현황의 평가

1. 문화 교류의 양적 증가:

- 미주, 유럽, 아시아 등 타지역에 비해서는 아직 크게 부족하나 2000년 이후 한국의 대중동 문화교류는 크게 늘고 있음. 문화관광부, 외교통상부 등을 중심으로 한 한-중동 민간문화교류는 1990년대에 비교하여 크게 증가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음.

- 특히 OECD 국가로서 한국의 ODA 규모와 활동이 증가하면서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더불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과 같이 전쟁을 치른 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과 원조성 교류가 크게 늘어났음.

- 빈도의 측면뿐만 아니라 다양성도 확대되고 있음. 기존에는 학회 중심, 정부 중심의 교류가 주를 이루었으나 현재는 새로운 민간단체들의 등장으로 교류의 폭이 넓어지고 있음. 예) 한-아랍소사이어티, 한-중동협회 등 새로운 단체들이 활발한 교류를 펼치고 있음.

2. 양방향 교류의 시작:

- 한국의 적극적인 대중동 교류 노력에 영향을 받아 중동국가들도 한국에 대한 중동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소 노력하고 있음. 중동 국가들도 현재는 문화적 수준을 높이고 있어, 국제 환경에의 동참 그리고 다문화의 이해 방향으로 국민의 수준을 제고하고 있는 상황임.

- 한아랍소사이어티가 주관하는 국내 아랍문화축전에 상당수 아랍국가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이 한 예임. 더불어 사우디아라비아 등 일부 아랍 국가는 한국에서 자국 문화행사 및 전시회를 열어 자국을 홍보하는데 적극적인 활동도 보이고 있음.

- 그러나 국내 체류 경비 등 일부 경비에 대한 한국부담의 원칙을 고집하고 있어 자국을 알리려는 순수한 자발적인 노력이 아직은 부족한 실정임. 또한 아직도 자국 문화원 설치, 그리고 지속적인 한국과의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데는

소극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3. 반한 인사들의 등장 시작:

- 앞의 사례 2에서 언급한 무함마드 살림 교수의 예와 같이 한국에 대해 연구를 수행한 일부 지식인들의 반한적 발언이나 지적도 새롭게 등장하고 있음. 과거 한국이 중동과 학술 및 문화교류가 적었을 경우와는 달리 약간의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음.

- 이는 과거 70년대와 80년대 열사의 땅에서 일하던 한국인 노무자를 비하하는 일부 석유부국의 국민감정과는 상당히 차원이 다름. 특히 한국의 이라크 파병 이후 우리의 친미 노선에 대한 아랍권 지식인과 언론의 비판이 상당히 고조된 바 있음.

- 반한적 시각의 또 다른 대표적인 예는 리비아의 지도자 무아마르 카다피의 차남 사이프 이슬람임. 사이프 이슬람은 카다피를 이어받아 리비아의 대권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은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 필자가 특파원 당시 만난 사이프 이슬람은 “한국은 우리나라에서 돈만 벌어난 서방과 크게 다를 바 없다”며 “엄청난 규모의 대수로 공사를 한국에 수십 년간 위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리비아 국민을 위해 행한 문화적 혹은 사회적 봉사는 전혀 없었다”고 지적한 바 있음.

- 특히 지나치게 공격적인 한국의 선교활동에 대해 이슬람 과격주의는 물론 온건한 일반 시민에게도 한국 국가와 국민 전체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점차 확산하고 있음. 필자가 만난 일부 현지인은 “선교를 하고 싶으면 다른 빈곤한 기독교 국가에서 행하라,” 혹은 “이제 경제적으로 영향력을 가지기 시작한 한국이 왜 유럽과 미국 등 서방의 잘못된 길을 답습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지적하기도 함.

- 이 같은 반한감정은 미국주도 패권시대에 있어 한국이 미국의 대중동정책을 지지하고 일부 직접 동참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국제적 환경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 그러나 이보다는 우리의 지나친 경제중심적 대중동 진출 전략 및 정책 그리고 지나친 선교활동이 더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더불어 한국에 거주하는 중동 및 이슬람권 주민이 늘어나고 민간 교류가 확대되면서 한국 거주 경험이 있는 일부 중동인들이 자국에서 한국에 대한 반감을 퍼뜨리는 역할을 하기도 함. 특히 테러 방지를 위해 지나치게 중동인에 대한 입국 절차를 까다롭게 한 것에 대해 이란인들을 포함한 일부 국가 국민의 불만이 고조되어 있는 상황임. 한 예로 사우디에서 온 한 유학생은 길거리에서 자신에게 ‘오사마 빈

라덴’이라고 놀리는 한국인과 주먹다짐을 벌인 사례도 있었음.

4. 기업의 참여 확대 조짐

- 현지 진출 한국기업의 인도적 봉사활동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긍정적인 현상도 있음. 일부 기업은 이윤의 일부를 현지 복지서비스에 기부하여 현지인들로부터 큰 반응을 얻고 있음.

- 대표적인 예는 LG의 글로벌 감성경영임. LG는 21세기에 들어와 중동 현지에서 각종 스포츠 행사 지원, 의료지원, IT 시설 제공 등을 시행하면서 현지인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도출하고 있음.

- 한국에서도 중동 진출 우리 기업들의 대중동문화행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음. 한-아랍소사이어티 출범 당시 중동에 진출해 활동하고 있는 대기업들은 기금을 출연해 향후 문화교류활동의 기초자금을 축적하는데 기여하고 있음. 이와 더불어 SK의 경우 ‘한-아랍포럼’을 독자적으로 개최할 예정임.

IV. 대중동 문화교류 접근법의 문제점

1. 문명충돌론적 담론

- 서방과 충돌하고 있는 중동을 바라보는 한국의 일부 시각에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음. 지나치게 서방적 그리고 한국적 시각으로 중동의 정치, 경제, 그리고 사회 발전단계를 조명하고 있음.

- ‘이슬람 쓰나미가 몰려온다,’ ‘회교 한국 포교 계획 진행 중,’ 등 제목의 기사와 글이 인터넷에 넘쳐나고 있음. 중동의 이슬람 종교를 대치해야하는 하나의 적대세력으로 규정하는 논조가 확산되고 있음.

<그림 3-1> 벨기에 신문이 그린 이슬람 창시자 무함마드 관련 만평



- 100여 년 전에 등장한 문화의 개념이 다시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에 확산하는 분위기임. 1874년 저명한 인류학자 에드워드 타일러는 문화를 문명과 유사한 개념으로 분석하였음. “문화 혹은 문명은 넓은 민족지(誌)적인 의미에서 고찰해야 한다. 문화 혹은 문명은 지식, 믿음, 예술, 가치, 법, 관습 그리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람이 획득할 수 있는 다른 능력들을 포함한다.” 타일러 등 18세기와 19세기의 학자들이 내놓은 문화 개념은 일반적으로 서구중심적인 ‘문명으로서의 문화’의 접근법임. 이 유럽중심적인 시각은 문화를 문명과 동일시하면서 서구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있음. 서구의 제국과 그 식민지 간의 불평등이 녹아 있음. 매튜 아놀드와 같은 학자는 단순히 문화를 “세계에서 간주되고 말해지는 최상의 결과”라고 규정하기도 하였음.

- 여기에 서방과 중동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충돌로 이어지면서 결국 문명간 충돌론이 등장하였음. 특히 9.11 테러 이후에는 이 이론이 - 학계에서는 큰 비판을 받고 있지만 - 대중과 여론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음. 중동 및 이슬람 지역을 기술하는데 이슬람 문명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하는 것도 이를 반영하고 있음. 우월성이 담긴 그리고 개화시켜야하는 지역으로서의 문명 개념이 직간접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그림 3-2> 이스라엘의 시각으로 시리아 문제를 보고 있는 미국을 꼬집는
중동 현지 신문의 만평



- 한편 유네스코가 2002년 내놓은 문화의 개념은 보다 포괄적임. “문화는 한 사회와 단체 그리고 그 주변이 가지고 있는 일련의 특유한 정신적, 물질적, 지적 그리고 감정적 특징들이다. 여기에 예술, 문학, 생활양식, 공생의 방식, 가치체계, 전통 그리고 믿음이 포함된다.” 이 정의는 문명이라는 단어는 포함돼 있지 않음. 사회 집단의 다양성도 존중하고 있음. 인류의 삶과 생각의 상당부분에 걸치는 포괄적인 개념임. 중동과의 문화협력과 교류를 위해 현지를 조망하는 시각이 이 같은 문화 개념에서 출발해야 함. 우월감이 담긴 문명론적 접근은 타문화의 이해와 교류에 불균형을 가져올 가능성이 큼.

- 최근 한국의 대중동 문화교류도 ODA 지원국으로서의 일방적인 문화교류 확대 현상, 한국을 ‘배워야하는 대상’으로서의 각종 연수프로그램 추진 등의 우월감을 표출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음.

2. 경제우선주의의 한계

- 21세기 들어와 중동의 경제적 중요성이 두각 되고 있음. 에너지원, 즉 석유의 공급지로서 앞으로도 100여년 정도 각광을 받을 것으로 보임. 특히 고유가 시대에 우리의 플랜트 수출이 급증하면서 중동에 대한 재계의 관심도 고조되고 있음.

- 그러나 진정한 문화교류를 위해서는 지나친 경제적 접근에서 벗어나야 함. 대부분 중동인들은 한국인을 서두르는 비즈니스맨으로 간주하고 있음. 가격경쟁을 통해 최대한 많은 수주를 하려고 노력하는 한국 경제인의 이미지가 깊이 뿌리박혀 있음.

- 중동을 단순히 수출시장으로만 보는 시각도 이제 지양해야 함. 예를 들어 사우디의 경우, 실제로는 대규모 수입국이지만, 산업다변화를 통해 수출 증진에 많

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중동 산유국 대부분 경제정책 입안자들은 한국 기업에 수출보다는 제조업 투자를 원하고 있음.

- 더불어 최근 오일머니를 유치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도 이와 일맥상통함. 이를 위해서는 한국에 투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함. 진정한 문화적 교류는 이 때문에 필요함. 우리 경제인들에게 중동은 상당히 잘 알려져 있음. 앞으로도 많은 한국 기업이 중동으로의 진출을 추진할 것임. 하지만 문화적 이해 없이 단순한 통계지표만 믿는 중동 진출은 무모한 행위가 될 수도 있음. 같은 맥락에서 중동의 경제인들에게는 아직 한국이 생소함. 알지 못하는 곳에 과감히 투자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임.

<그림 3-3> 리비아의 대수로 공사현장



- 이런 분위기를 고려하여 우리 정부는 최근 중동에 한국문화원 개원을 추진한 바 있음. 그러나 현지의 사회적 가치관, 현지인의 반응을 고려하지 않고 추진하다가 결국은 문화원 개원에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음.

V. 대중동 문화교류의 구조적 문제점

1. 일방적 문화교류

- 2000년 이후 중동과의 문화교류가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였으나 한국이 주도하는 일방성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음. 한국의 대중동 문화행사 빈도가 중동의 한국 내 문화행사의 빈도를 크게 앞지르고 있음.

- 중동국가에 있어 한국의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음. 최근 중동국가도 서방을 대체하는 東-東 협력으로 대외관계정책의 기초를 일부 수정하고 있으나, 아직도 한국 등 극동의 국가보다는 서방, 특히 유럽과의 협력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음. 이는 유럽과 중동의 지리적 인접성에도 그 원인이 있으나, 중동을 식민지화했던 유럽 여러 나라의 국민이 아직도 중동지역에 상당수 대를 이어 거주하면서 여러 경제적, 문화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할 수 있음.

- 우리 정부와 민간단체의 성과달성식 접근도 일방성의 원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음. 실적을 올리기 위한 행사의 양적 확대 더불어 개인적 그리고 단체적 대외 활동 실적을 올리기 위한 일부 민간 예술단체의 단발성 행사개최도 한 원인임.

2. 산발적인 단시안적 정책

- 특히 문화적 측면에 있어서는 중동에 대한 장기적인 전략이나 정책이 아쉬운 상황임. 장기적인 전략이 아닌 필요에 의한 논의만 그동안 지속되어 왔음. 파병과 더불어 문화외교가 언급되었지만 결과물은 없었음. 문화공연단, 전시회, 드라마 수출 등만 산발적으로 현지에서 개최되었을 뿐임.

- 다행스럽게 고유가를 맞이해 한-아랍소사이어티(KAS)가 창립되고 문화원을 개원하겠다는 움직임이 있었음. 그러나 장기적 차원에서 중동에 문화원 건립이 시급한 상황임. 이미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중동 여러 나라에 문화원을 운영하고 있고, 최근에는 중국도 여러 문화원을 개설하고 있음.

3. 인력 구조와 운용의 한계점

- 장기전략 부재를 언급하면서 매번 지적되는 사항이 전문인력의 부재였음. 여러 학술진흥사업, 전문가 육성 프로그램이 간간히 있어왔으나 이마저도 주로 경제와 교역을 위한 사업들이 대다수였음. 결국 문화사업 혹은 문화교류 방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학문적 연구 기반이 결여되어 있는 상황임.

- 중동문화 인재양성을 위한 전문 프로그램이나 국가적 지원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할 수 있음. 국정홍보처가 사라지면서 기파견된 홍보관이 최근에는 홍보관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 수는 세 명에 지나지 않음. 이 중에서도 한 명만이 아랍어를 구사할 수 있는 자원임. 현지 언어는 물론 중동 문화에 대한 식견이 전무한 홍보관을 파견하는 관행도 재고해야할 사안임.

- 결과적으로 중동의 다양성을 무시하고 하나의 정책 아이디어로 전 중동국가를 아우르려는 노력도 있었음. 중동은 문화적으로 여러 지역으로 나누어 접근해야 함. 즉 북아프리카 지역, 샴(요르단, 시리아, 이라크, 레바논) 지역, 걸프지역 (GCC 국가), 이란 등은 상당히 다른 문화적 유산과 사회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음.

- 근본적인 문제는 정부 부처의 전통적인 인력배치 시스템에도 있음. 2-3년 주기로 부서를 이동하다보니 장기적인 정책을 세울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님. 특정 지역이나 업무에 대해 전문성을 갖기 어려움.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시스템도 아니고 인력배치도 순환근무를 원칙으로 하다 보니 중동관련 전문인력 양성의 실적은 사실상 전무하였음.

- 인력 선발에도 문제점이 있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시 외에 정부기관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상 막혀있는 상황임. 고용기회가 없다는 것은 학생들의 무관심으로 이어지고 있음. 지역학을 포함한 인문학을 공부하려는 학생들의 수는 항상 극소수에 불과한 실정임. 이 악순환의 고리를 깰 수 있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 이런 상황에서 중동에 대한 인력을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는 곳은 기독교 선교 단체임.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로 전세계 파견 인력이 1만 7000명임을 자부하고 있는 기독교 선교관련 단체들은 현재 최소 1000여 명 정도의 선교인력을 중동 및 이슬람권에 파견하고 있음. 인터넷에서 자료 검색을 하다보면 절대다수의 중동관련 자료가 이 종교의 선교단체들이 올린 것들임. ‘문명적’ 시각이 점차 더 인터넷에 의존하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확산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

제3절 한국과의 상호문화교류정책의 방향과 내용

1. 정부 내 혹은 범정부적 담당부처 신설 혹은 정비

- 중동과 문화 협력 및 교류 확대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정부의 전담 부서나 통합기구가 설치되어야 함.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마련 및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필수적임.

- 현재 문화관광부 내 중동 전담부서조차 없는 상황임. 조직이 없으니 전담 인력이 없는 것은 당연한 결과임.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외교통상부, 국정원,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등의 파견인력(반드시 장기 근무를 조건으로)이 동참하는 통합기구의 마련이 필요함. 전문 인력을 선발해 기구 주요 업무를 담당케 하는 것도 필수적임.

2. 국내 유관기관의 협력 강화

- 정부의 부처 신설 및 정비와 더불어 국내 중동 관련 유관기관 간 협력도 보다 긴밀히 추진되어야 함. 이런 점에서 Umbrella 기관으로서 KAS가 출범한 것은 긍정적인 현상임. KAS를 정점으로 민간단체들의 유기적인 협력이 추진되어야 함. 한국중동학회, 이슬람학회 등 학술단체는 물론 한-중동협회, 한-아랍 친선협회 등의 공동사업으로 연례 문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건의함. 적절한 규모에 알찬 내용으로 중동 현지에 한국 문화를 제대로 소개할 수 있는 정기적인 사업을 의미함.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중동 각국이 알고 매년 기대하는 문화 사업을 정례화 해야 함.

- 한-중동협회가 운영했던 인천의 중동문화원이 개원 1년을 못 채우고 사실상 문을 닫게 되었음. 여러 문제가 있으나 위에 언급한 ‘문명적’ 시각도 상당부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음. 앞서 언급한 여러 유관기관을 힘을 모아 서울에 문화원을 개원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만 함. 우리가 중동문화에 대해 알고 노력하고 있다는 상징성을 담을 시설이 될 수 있음.

- 특히 현재 KAS에 참여하고 있는 주한 중동국 공관과의 협력을 구체화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KAS 혹은 국내의 대외문화협력 통합기구를 통하여 국내 외교 공관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출범할 필요가 있음. 국내의 공관과의 협력은 1차적으로 각 중동국의 한국 문화에 대한 수요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국내에서의 중동국 문화행사를 정기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창구가 될 수 있음.

<그림 3-4> 이집트 아인 샴스대학에서 펼쳐진 한국의 탈춤 공연



3. 양방향 교류 유도

- 정례화 된 문화사업, 연례 포럼, 국내의 중동문화원 그리고 현지의 한국문화원 개원 등의 사업이 자리를 잡게 되면 상대방의 호혜적인 조치를 적극 요구해야 함. 문화 교류는 한 방향이 아니라 양방향이어야 함.

- 우리가 먼저 시작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상대방의 적극적인 참여 혹은 주도적인 사업을 요청할 필요가 있음. 최근에는 중동에서 한국을 방문하는 공연단이 늘어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중동 각국은 우리보다는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 왔음.

- 이를 위해 중동의 특정 국가 혹은 아랍연맹, OIC 등 역내기구와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한 방법임. 교환프로그램 형식으로 한 차례는 한국에서 그리고 한 차례는 중동 현지의 여러 나라를 돌아가며 문화공동프로젝트를 구상하는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음. 이는 일방적으로 우리가 중동에서의 한국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것보다는 현지에서 원하는 수요에 맞춰 상호노력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음.

제 4절 소결: 세부 방안

- 대외의존형 경제구조를 가진 우리로서는 한국의 이미지를 전세계에 최대한 알려야 하는 시대적, 경제적 과제를 가지고 있음. 한국의 국익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음. 또한 테러 피해가 발생하는 중동 지역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문화적 교류를 통한 정신문화적 근접성을 제고해야 함.

- 최근 양측간의 문화교류가 양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으나, 한국의 일방적인 문화적 접근인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경제우선주의적 시각을 뛰어넘어 문화적으로 상호이해하려는 진정한 노력이 결실을 거두어야 중동권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보임. 그동안 서방과 긴밀한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문화적 교류를 수행해 온 중동 측 입장으로는 한국에 대한 중요성을 아직 크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을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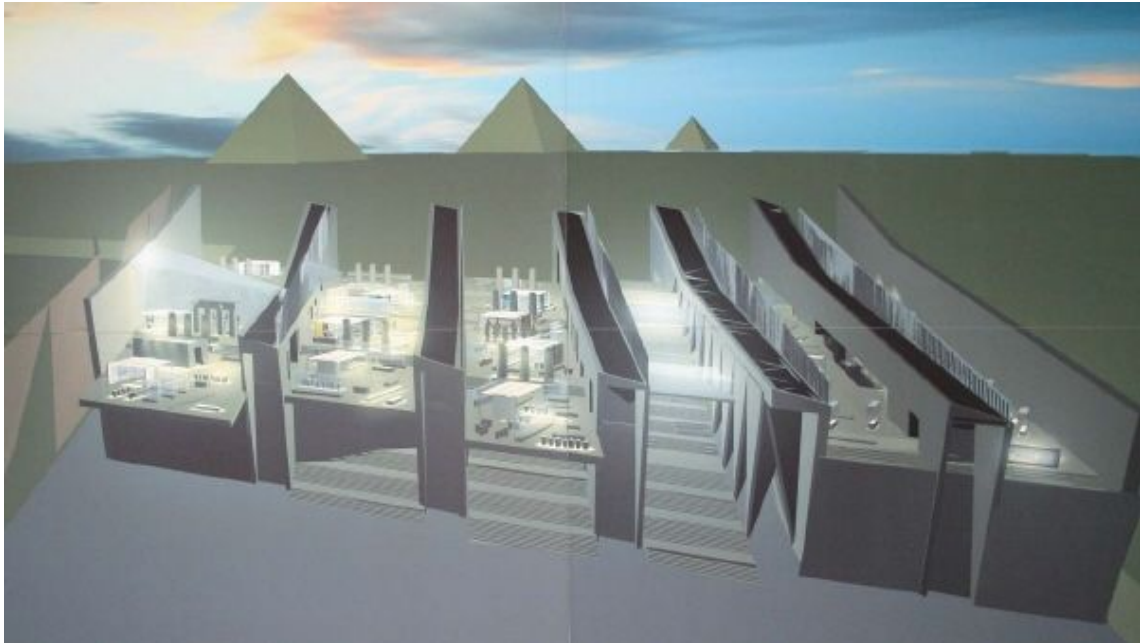
- 대중동 문화교류에 있어서 그동안 접근법적 그리고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존재해 왔음. 문화충돌론적 담론이 상당히 팽배되어 있는 상황임. 또한 기독교적 사고방식으로 중동과 이슬람권을 하나의 적대세력으로 인식하려는 경향도 있음. 문화교류 관련 모든 사업이 보다 효과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이 같은 접근법적 그리고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함. 문화교류에 대한 논의는 그동안 계속 있어왔지만 이 같은 환경적 요소 때문에 실질적인 열매를 맺지 못해왔음. 포괄적이고 진정한 상호이해와 교류를 위해 이제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임.

※ 세부 방안 제언

- 앞 절에서 정책방향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데 이어 소결에서는 단기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세부 방안을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함. 일부 사안의 우리와 중동 측과의, 국가 혹은 기구, 사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 될 수도 있어 장기적인 사업이 될 수도 있음.

○ 상징물을 세우자:

<그림 3-5> 일본이 지원하고 있는 이집트의 신(新) 고고학 박물관 프로젝트



- 중동을 아무리 돌아다녀도 한국을 상징할 만한 것들이 없음. 물론 이란 수도 테헤란에 한국 거리와 한국 공원이 있지만 규모면에서 일본과 중국의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음.

- 예를 들어 중국은 이집트에 컨퍼런스 센터를 건설해 주었음. 일본은 오페라 하우스, 무바라크 다리 등을 무상으로 지원하였음. 현재도 이집트의 신 박물관 공사의 상당부분을 지원하고 있음. 유럽 등 서방국가의 경우 식민 통치 당시 많은 건물 및 산업시설을 남겨두어 현재도 이용되고 있음.

- 일개 국가가 될 수도 있지만 중동인들의 왕래가 많은 곳에 한국의 중동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는 상징적인 건축물 혹은 조형물이 필요함. 현재로서는 코이카의 여러 ODA 사업을 한 곳에 집중해보는 것도 고려해 볼만함.

o 문화사업을 정례화하자:

<그림 3-6> 쿠웨이트의 월간 '알-아라비'에 실린 한국 문화 특집



- 현재 대부분 중동 각국과 한국 간의 친선협회가 활동하고 있음. 이 국가별 친선단체를 통해 연례 문화공연을 격년제로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만함. 각 친선협회의 재정적 부담은 KAS나 기업의 후원으로 지원하는 방안임. 더불어 KAS를 축으로 하는 'Korea Caravan' 활동을 정례화 해야 함.

- 중동을 권역별로 나누어 몇 개국씩 돌아가면서 연례행사를 개최해 올림픽 개최 주기와 비슷하게 한국문화를 소개하는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보는 것임.

- 이를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동의 역내 국제기구와의 공동위원회 설치 방안, 국내의 중동국 공관과 정부의 통합기구 혹은 KAS와 같은 민간기구간 협력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수요를 파악하고 양측이 합의한 사안을 바탕으로 공동사업이 정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

o 번역된 자료를 공급하자:

<그림 3-7> 이집트 영자신문에 게재된 '겨울연가' 관련 기사



- 한국 드라마 및 문학작품의 지속적인 번역과 공급 사업을 추진해야 함. 아직도 문화적 수준이 비교적 낮은 중동지역에는 현지어로 번역된 문화콘텐츠의 수요가 지극히 높음.

- 한국 드라마의 성공적인 중동진출을 경험으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원 사업을 추진해야 함. 이란에서도 한국의 대장금이 사상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한 바 있음. 당시 필자가 인터뷰한 이란국영TV 관계자는 농담조로 “대장금의 시청률은 90%에 달하고 있으며 나머지 10%는 TV가 없는 가정이다”라고 말했을 정도임.

- 요르단 등 몇몇 사례를 제외하고는 현재까지는 무상으로 지원을 원하는 경우가 다수임. 하지만 앞으로 한국의 드라마가 지속적인 인기를 끌 경우 사업성이 높은 분야가 될 수도 있음.

- 문학작품의 경우 현지인이 가장 선호하는 시를 중심으로 한 번역작업 및 현지 출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현재 한국문학번역원에서 외국어로의 한국문학 번역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원 규모나 편수가 제한되어 있어 양적으로 지극히 부족한 상황임.

- 번역 사업의 중요성은 아직도 중동 국가의 대다수는 상당히 높은 문맹률을 기록하고 있음. 더불어 영어 등 서양 언어로 문화컨텐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경

우 중동 전체 인구의 약 5% 정도만이 접할 수 있는 상황임.

- 이와 관련하여 한국의 문화에 대한 중동 언어 번역본을 제작하고 한국 관련 각종 외국어 사이트에 올려놓는 것도 바람직함. 현재 외교통상부와 지식경제부는 아랍어 사이트를 만들어 중동 국가 및 중동인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음.

o 최대 경쟁력은 태권도다:

- 경제와 선진기술도 있지만 더욱 한국을 명확히 인식시키는 것은 단연 태권도임. 한국의 정신과 예절 그리고 도를 가르치는 태권도는 현지에서 대를 이어 친한 파를 양성할 수 있는 최대 무기라고 할 수 있음. 이집트의 태권도 도장에 다니고 있는 대부분 현지인 어린이들의 부모는 한국인에게 태권도를 배운 사람들임.

- 제3세계의 경우 메달 유망종목으로서 태권도의 인기는 상당히 높음. 그러나 한 때 정치적인 배경에 의한 사범 파견이 주가 되었지만 현재는 그 맥을 찾기 어려운 상황임. 코이카에서 지원하는 일부 사범이 활동하고 있는 상황임. 때문에 일부 중동국가에서 태권도 사범 파견을 요청하고 있으나 실현되지 않고 있음.

<그림 3-8> 이집트 수도 카이로 시내의 한 체육관에서 열린 태권도 시범



- 특히 군부 독재와 경찰국가로 분류되는 중동의 경우 정부 관련 기관에 대한 태권도 교육은 큰 효과를 볼 수 있음. 상류층 혹은 권력층에 대한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권력 혹은 정부의 중심에 한국을 사랑하는 인사들을 양성할 수 있음. 대표적인 예로 이집트와 요르단의 경우 경찰대학 등에서 태권도를 수강한 사람들이 정계와 관계에서 한국에 대해 우호적인 발언을 하고 있음.

o 선교단체를 활용하자:

-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인질 납치 및 살해, 2009년 예멘에서의 관광객 테러 및 봉사단원 살해 사건에서 드러난 바와 같아 이슬람 선교단체에 대한 중동 및 이슬람권의 반감이 거센 상황임. 서방과의 정치적 그리고 문화적 대치상황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선교단체도 서방 세력의 일부로 간주하는 상황임. 기독교 단체의 이 같은 움직임은 현재 반한감정으로 확산하고 있음.

- 그러나 현실적으로 한국의 선교활동을 막거나 제한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임. 결국 정부도 위험 지역을 여행제한국가로 지정하는 간접적인 억제정책에 의존하고 있음.

-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였을 때 선교활동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만함. 현지의 활동을 선교보다는 장기적인 차원의 선교라는 접근법으로 일단 인도적 구호활동, 교육 활동, 기타 문화 활동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임.

<그림 3-9> 이집트에서 활동 중인 한국의 기독교 단체가 행하고 있는 베이비 워쉬 사업 장면



- 대표적인 예로 이집트에서 활동 중인 한 기독교 단체는 현지인에 대한 선교 보다는 빈민지역의 의료원 운영 및 상수도 시설이 없는 지역의 ‘아기 씻기기’ 사업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음. 기타 문화 및 구호 사업에서 현재 여러 기독교 단체들이 정기적이지는 않으나 ‘언청이 수술’과 같은 활동을 보여주고 있어 현지 정부와 언론의 호평을 받고 있고, 특히 수술을 받은 사람들은 평생 한국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않고 있음.

o ‘코리아 센터’를 만들자:

<그림 3-10> 이집트 아인샴스 대학 한국어과의 수업장면



- 문화원 등 중동 현지에의 한국 문화전파 시설을 설립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임.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에서의 문화원 설립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다른 대안 국가를 설정해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함.

- 그러나 재정상 그리고 각 부처 간 경쟁관계 상 현실적으로 문화원을 단독 설립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임. 더불어 중동 국가가 27개국이나 된다는 점에서 일부 국가에만 문화원을 설치하는 것은 주변국으로부터 지적을 받을 수 있기도 함.

- 결과적으로 문화원 보다는 다목적 그리고 다기능의 성격을 가진 ‘코리아 센터’를 건립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고 효과적일 것이라고 판단됨. 이미 상당수 중동 국가에 코이카, 코트라, 재정관, 재무관 등이 파견되어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외교통상부의 공관은 국방, 정보, 정무, 그리고 영사업무를 담당하고 문화와 경제협력 및 ODA를 통합하는 코리아 센터의 개설이 바람직함. 특히 현재 증가하고 있는 ODA 사업의 지출을 담당하고 있는 코이카의 경우 자금의 일부를 문화사업에 할당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결국 코리아센터는 한국의 IT를 중심으로 한 기술, 의료 및 교육 서비스, 문화 자료실 및 홍보관 등의 역할을 하면서 현지인들이 사업차 혹은 문화적 갈증 해소를 위해 방문하는 시설이 될 것으로 예상됨.

o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자:

<그림 3-11> 두바이에서 열린 LG의 이라크 축구대표팀 지원 서명식 장면



- 현재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그 규모가 미약한 중동 진출 한국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필수적임. 제한된 정부 예산에 의존한 한-중동 교류협력 확대 방안에는 현실적으로 큰 어려움이 있음. 특히 2008년에만 중동에서 300억 달러 이상의 플랜트를 수주한 한국기업도 리비아의 사례를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문화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고려해야 함.
- 이를 위해 국내에서도 기부문화가 활성화되고 있는 만큼,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문화투자’ 캠페인을 시작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수주액의 1% 문화투자’하기 혹은 ‘수주액의 0.1% 문화기금 조성하기’ 등의 사업을 구체화하여 협력을 구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만함.

제 4장 권역별 연구: 남미권역

한국의 대 라틴아메리카 문화외교: 현황과 개선점

1. 서론

○ 글로벌 경제위기가 진행되는 가운데 강대국들 사이의 국제질서는 과거와 달리 다극화되어 가는 경향을 보임. 그동안 달러화의 독주에 유로화가 도전장을 내밀었고, 그 틈새에 엔화와 위안화도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중임. 아직은 달러의 주도력이 유지되고 있지만 과거와 달리 그 강도는 훨씬 약화되었음.

○ 다른 한편, 그동안 진행된 세계화의 결과로 중국과 인도 등 신흥경제권도 두각을 나타내면서 다자외교에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킴. IBSA 참여국인 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남남협력의 차원에서 매년 정상회담을 갖고,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브라질과 인도가 주도한 G-20는 도하 라운드에서 제3세계의 결집이 가능함을 보여주었음. 이들은 선진국에게 농업 보조금과 시장 접근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적재산권이나 서비스 무역 등에서 양보할 수 없다고 각을 세우고 있음.

○ 과거의 권력구도가 흔들리면서 국제정치의 무대는 백가쟁명의 시대에 돌입함. 이 가운데 하드파워의 경쟁은 나름대로 치열하게 전개됨. 남미에서 미국의 헤게모니에 도전세력이 생기자 미국은 2차 대전 후 해체를 했던 항공모함 제4함대를 다시 띄움.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최근 들어 군비경쟁이 강화되고 있음. '신냉전 II'란 조어가 생길 정도로 러시아, 프랑스, 중국 모두 남미 국가들의 군 장비 개선 사업에 뛰어 들어 미국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음.

○ 하지만 오늘날 외교에서 하드파워와 더불어 소프트파워의 중요성도 크게 부각됨. 다른 나라에게 매력적으로 어필하고, 그것이 중장기적으로 국가이익을 부드럽게 실현하기 때문임. 이런 연유로 오늘날 공공외교(public diplomacy)가 각광을 받고 있음(Cowan and Cull, 2008). 이미 냉전기에 미국은 미국문화원(USIA)을 설치하여 프로파간다에서 공공외교로 전환하여 그 효능성을 입증한 바가 있음. 미국적 가치는 미국문화원,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풀브라이트 프로그램을 통해 자연스럽게 상대국 공중과 엘리트층에 흡수됨.

○ 문화외교의 대국이라 할 프랑스 역시 프랑스문화원, 알리앙스 프랑세즈, 쿼튀르프랑스 (Culturefrance)등의 기구를 통해 프랑스어와 문화 예술을 자연스럽게 전파함. 독일은 괴테 인스티투트, 스페인은 세르반테스 문화원, 이탈리아는 이탈리아문화원을 통해 자국의 언어와 문화를 자연스럽게 전파해 왔고, 또 전파하고 있음.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공공외교, 좁혀 말하면 문화외교의 선진국임.

○ 문화외교도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음. 이제 세계화와 정보화의 진전으로 공중에게 직접 다가가는 다양한 이미지와 정보의 양이 많아졌고, 이런 매개물을 통해 한 나라의 국력이나 이미지 그리고 문화가 전달됨. 또 과거보다 훨씬 많은 인구가 여행이나 디아스포라를 통해 타국과 타 지역 문화를 경험하고 있음. 이에 따라 장소 브랜드(place brand)인 국가 브랜드 만들기가 나라마다 유행이고, 문화교류를 통한 상호이해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음.

○ 대체로 공공외교는 (1) 청취(listening), (2) 옹호(advocacy), (3) 문화외교(cultural diplomacy), (4) 교류외교(exchange diplomacy), (5) 국제 뉴스 방송(international news broadcasting)의 다섯 차원으로 나뉨(Cull 2008: 32-6). 청취는 현지의 공중과 그들의 의견에 관한 데이터를 모으고 정리하여 정책을 수정하거나 보다 광범하게 공공정책의 접근법을 재편하는 것을 말함. 옹호는 행위자가 특정한 정책, 아이디어, 일반적인 이해를 외국 공중의 마음속에 심기 위하여 국제적 커뮤니케이션 행위를 하고, 이를 통해 국제 환경을 관리하는 활동을 가리킴. 가장 비근한 예로 대사관의 언론 홍보 활동을 들 수 있음. 문화외교는 한 나라의 문화적 자산과 성과물을 외국에 알리고 문화적 전파를 촉진하여 국제 환경을 관리하는 행위자의 활동임. 정부가 보조하는 국제예술 교류전이 이에 해당함. 교류외교는 연구 기간 또는 문화습득 기간 동안 시민을 파견하거나 외국 시민을 받아들여 상호교류를 하는 활동을 말함. 국가 간 학술교류 활동이 여기에 해당함. 국제 뉴스 방송은 라디오, TV, 인터넷을 통해 외국 공중과 접촉하는 활동을 말함. 오늘날 정보혁명으로 인해 사이트나 블로그를 통한 외교활동도 무시하지 못할 수준이 되었음.

○ 공공외교의 시간대, 정보 흐름, 인프라

<표 4-1> 공공외교의 대양한 기준과 척도들

공공외교의 유형	시간대	정보의 흐름	전형적인 인프라	한국의 경우
청취	단기와 장기	분석가와 정책과정으로 환류	모니터링 기술과 외국어에 능통한 스태프	외통부와 대사관, 국정원
옹호	단기	대외용	대사관 홍보직, 외교부처 전략기획팀	외통부, 대사관 홍보 담당
문화외교	장기	대외용	문화원 또는 도서관	문화관광체육부 산하 문화원,
교류외교	대단히 긴 장기	대외 및 내부	교류기구, 교육부처	국제교류재단(KF)
국제방송	중기	뉴스 송출자에서 대외로	뉴스국, 스튜디오, 편집국, 송출설비	아리랑 TV, KBS

출전: Cull(2008: 35). 한국의 경우는 필자가 추가함.

○ 공공외교의 다섯 차원은 대체로 정부나 산하 기구의 영향 아래 있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음. 종종 프랑스처럼 대단히 비대하게 팽창한 기구들 사이에 조정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직 충분히 발전한 단계가 아니므로 그런 걱정은 없음. 다만 선진적인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걱정해야 할 것임.

○ 이 글은 주로 라틴아메리카와 우리의 문화 교류의 실상을 파악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알아보기 위해 작성된 것임. 한국의 대 중남미 교류의 역사는 짧고, 성과도 제한적임. 이제 걸음마 수준의 문화교류가 시작된 수준이니 선진국의 경험과 교훈을 잘 새긴다면, 시행착오의 비용을 줄일 수도 있을 것임. 제2장에서는 주로 한국과 라틴아메리카가 서로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는 지 살펴봄.. 상대방의 인식과 기대수준을 이해해야 성공적인 문화교류와 교류외교가 이뤄지기 때문임. 제3장에서는 문화외교와 교류외교의 인프라와 현황을 살펴보고, 우리가 이제까지 도달한 수준에 대해 평가를 할 것임. 이어 문화교류의 대표적 사례를 필자가 경험한 예를 살펴보고 문제점을 지적할 것임. 제4장에서는 향후 개선되어야 할 점들을 포괄적으로 제시할 것임.

2. 한국과 라틴아메리카

1) 한국에서 라틴아메리카의 위상

- 어느새 한국 외교에서도 라틴아메리카가 주목을 받고 있음. ‘극동’에 치우친 우리는 그동안 4강 외교 내지 아시아와 동북아 담론 주위를 맴돌고 있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글로벌 차원의 외교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 이 가운데 특히 관심을 끌고 있는 대륙이 라틴아메리카임.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음.

- 첫째, 대 라틴아메리카 무역수지의 흑자폭이 크게 증가하여 대중 흑자를 능가하게 되었음. 여타 지역에 비해 수출입의 신장 속도가 빠르고, 이에 따른 무역수지 개선효과도 크므로 관계당국은 라틴아메리카를 전략적인 차원에서 바라보기 시작함. 무역에 이어 투자처로서도 라틴아메리카는 각광을 받고 있음. 특히 미주 시장을 겨냥한 전자, 철강, 에너지 부분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실정임.

- 둘째, 최근 에너지 자원 외교의 중요성이 증가하면서 한국 외교에서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위상도 자연히 높아짐. 유전과 가스전에 대한 투자와 공급물량 확보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기 때문임. 이와 더불어 ‘녹색성장’ 전략이 신정부의 새로운 노선이 되면서 바이오 에너지 개발을 둘러싸고 브라질을 위시한 라틴아메리카 제국과의 협력이 중요한 관심사로 부상함.

- 셋째, 1990년대 이래 한국 사회도 급격한 세계화의 조류에서 벗어날 수 없었음.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학계, 시민사회의 다양한 행위자들(NGO) 등은 과거보다 훨씬 다양한 경로의 교류를 실행하고 있는 현실이어서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더 많은 양질의 정보를 요구하게 되었음.

- 넷째, 16세기 이래 중남미의 음식문화(감자, 옥수수, 고추, 토마토 등)가 세계화되면서 우리 사회도 조선 조 중기 이후부터 영향을 받은 바 있음. 또 해방 이후 라틴아메리카 음악과 댄스는 미8군을 통해 우리 사회에 깊이 침투한 바가 있고, 한국의 대중음악 발전에 큰 기여를 한 바가 있음. 한국 음악인들과 애호가들의 라틴아메리카 음악에 대한 관심은 지금도 대단한 수준임.

- 다섯째, 국민소득 2만불 시대에 들어와서 우리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 사이의 문화교류도 증가하고 있음. 무엇보다 ‘라틴아메리카 미술 거장전’이나 ‘페르난도 보테로 전’과 같은 미술작품 전시회, ‘부에나 비스타 소시알 클럽’을 위시한 인기 음악 그룹의 방한 공연이 주기적으로 이뤄짐에 따라 한국 사람들도 라틴아메리카 문화를 깊숙이 감상할 기회가 증가하였음. 또 외국여행이 대중화되면서 라틴아메리카 행도 잦아졌다. 여러 종류의 라틴아메리카 기행문이 쏟아져 나오고, 또 문화적 관광(cultural tourism)에 대한 관심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 이런 사정에도 불구하고,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한국 사회 전반의 이해도 극히 낮은 편임. 기존에 나온 출판물의 편수가 지극히 미미한 실정이고, 그것도 대중

적 소개서 위주로 편성되어 있기에 심도 있는 이해에는 이르지 못함. 정치, 경제 분야는 차치하더라도 문화 분야의 전문가는 극히 부족하고 넓은 문화외교의 지평을 열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사람도 거의 없는 실정임. 한국 사회의 경우, 점증하는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다양한 수요(지식, 정보 등)를 채워줄 만한 인적, 제도적 인프라는 아직 취약한 실정이라고 말할 수 있음.

2) 라틴아메리카에서 한국의 위상

○ 라틴아메리카에서도 한국은 미지의 땅(terra incognita)이라 할 수 있음. 하지만 최근 아시아 제국과 라틴아메리카의 경제교류가 긴밀해지고, 아시아 붐에 편승하려는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늘어나면서 아시아에 대한 지식 욕구도 급속도로 팽창하고 있는 중임. 한국도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하여 문화외교의 계기를 잘 활용해야 함.

○ 먼저 중국, 일본, 한국 등의 아시아 국가들과 교역이 활성화되면서 라틴아메리카의 지경학(geoeconomics)에서 큰 변화가 생김. ‘대서양의 아메리카’(Atlantic America)가 상대적으로 약해지고, ‘태평양의 아메리카’(Pacific America)가 함. 특히 중국이 고도성장과 산업화에 매진하면서 라틴아메리카의 에너지, 자원, 식량을 빨아들이는 거대한 블랙홀로 변함. 중국은 이들로부터 원자재와 식량을 공급받는 대신 저가 공산품을 수출하고 있어, 중국과 남미 사이에는 윈-윈 게임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음. 중국 특수의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는 광산물 수출경제인 페루와 칠레에서 중국은 국가 호감도 조사에 각각 제1위, 제2위를 차지함. 대두 수출 덕을 보고 있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등에서도 중국은 인기가 상승하고 있는 호감 대상국임. 오래 전부터 경제 문화 교류를 실천하고 있는 일본에 대한 선호도도 상위권에 머물러 있음. 일본은 페루에서 제1위를, 칠레에서 제6위를 기록함. 반면에 오랫동안 선두권에 있었던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상대적 선호도 하락이 엿보임. 미국은 칠레에서 제8위의 선호국가로서 한국과 동위를 기록함. NAFTA의 회원국인 멕시코에서도 제7위를 기록하여 생각보다 선호도 경쟁에서 조금씩 후퇴하고 있음을 보임.

○ 반면 한국에 대한 인지도의 부상은 비교적 최근의 일로서, 주로 백색가전, IT 산업, 자동차 산업의 수출 호조에 기인한 바가 큼. 한국에 대한 선호도는 대체로 8-13위권에 머물러 생각보다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음. 이미 한국은 라틴아메리카

대중들에게 기술 선진국의 이미지로 다가와 있음. 삼성, LG, 대우, SK, 포스코 등은 현지 언론매체의 광고판에서 자주 등장하는 기업 브랜드임. 기업 브랜드의 성공으로 한국의 성공이 간접적으로 알려지고 있음(때때로 이런 대기업 브랜드의 국적이 일본으로 오해되기도 하는데, 그 까닭은 한국의 국가 브랜드 이미지의 상대적 허약성 때문이기도 함). 또 1980년대 이래 한국의 발전 경험을 전수받으려는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관심도 나름대로 있었음. 전후 한국의 경이적인 성장과 복지의 확충은 1980년대 이래 각종 경제적 실패를 경험한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시선을 끌기 충분함.

<표 4-2> 국가 선호도 조사: 콜롬비아, 칠레, 멕시코, 페루

Colombia			Chile			México			Perú		
País	Grados	Lugar	País	Grados	Lugar	País	Grados	Lugar	País	Grados	Lugar
Estados Unidos	70	1	China	60	1	Canadá	71	1	Japón	65	1
España	68	2	Canadá	59	2	España	66	2	China	65	1
Brasil	64	3	Australia	59	2	Alemania	65	3	Brasil	62	3
Canadá	63	4	Alemania	58	4	China	65	3	Canadá	60	4
México	61	5	España	58	4	Brasil	64	5	Estados Unidos	60	4
Alemania	59	6	Japón	57	6	Japón	64	5	México	56	6
Chile	58	7	Brasil	56	7	Estados Unidos	62	7	Argentina	50	7
Argentina	57	8	Estados Unidos	53	8	Argentina	60	8	Colombia	48	7
China	57	8	México	47	9	Australia	60	8	India	45	9
Japón	57	8	Corea del Sur	44	10	Chile	58	10	España	44	10
Australia	54	11	India	43	11	Corea del Sur	55	11	Cuba	44	10
Perú	49	12	Argentina	41	12	Irán	53	12	Chile	42	12
Corea del Sur	47	13	Guatemala	38	13	Guatemala	51	13	Venezuela	42	12
India	46	14	Colombia	37	14	Colombia	51	13	Irán	36	14
Guatemala	44	15	Venezuela	36	15	El Salvador	50	15			
Cuba	44	15	Cuba	36	15	Perú	49	16			
Venezuela	43	17	El Salvador	35	17	Cuba	48	17			
El Salvador	42	18	Perú	33	18	India	48	17			
Irán	37	19	Irán	33	18	Venezuela	47	19			

출전: Nexos, abril de 2009(<http://www.nexos.com.mx/?P=leerarticulo&Article=314>)

○ 하지만 최근의 한류 현상이 라틴아메리카에서 부분적으로 일어났지만, 전반적으로 한국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저조함. 한국에서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한국 알리기에 주력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그 역사가 일천한데다 아직도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기 때문임. 한국도 라틴아메리카 대중과 지식인들에 여전히 ‘미지의 땅’임.

○ 라틴아메리카는 유럽 이민자들이 정복하고 건설한 문명이기에 아무래도 아시아와는 문화적 친밀감, 역사적 전통이 크게 다름. 반면에 이들에 스페인, 프랑스, 독일, 미국 등에 느끼는 역사적 유대감과 친밀감은 언어, 문화, 제도 속에 녹아 있기에 대단히 큼. 프랑스의 계몽사상이나 나폴레옹 법전, 그리고 자크 마리탱의 인본적 가톨릭주의는 이곳 라틴아메리카의 법과 제도 속에 녹아있는 전통이다. 스페인은 언어와 시가문학의 전통을 남겼고, 독일은 프러시아 군제를 남겼다. 미국과 영국도 나름대로 경쟁 속에 자유주의 정서와 비즈니스 문화를 전파하였음.

○ 반면 아시아는 라틴아메리카와 본격적으로 교류한 역사가 비교적 짧음. 16-17세기의 아카폴코-마닐라 무역선의 교류를 제외한다면, 아마도 19세기 말에 있었던 태평양 지역 개발 붐 시절에 청조의 쿨리 수출이 최초가 아닌가 함. 뒤이어 1910-20년대에 일본의 농업이민이 있었고, 소수이지만 1960년대 이래로 한국 이민도 그곳으로 건너갔음. 그렇기 때문에 유럽과 아프리카처럼 대규모 이민이 이동이 있었던 경우와 달리 문화적 친밀감과 이해도도 상대적으로 낮고, 또 이민사회의 비중과 위상도 매우 낮았다고 말할 수 있음.

○ 21세기에 들어와서 이런 지형도는 크게 바뀌고 있음. 앞서 지적한 바처럼 중국의 부상과 이에 편승한 태평양 시대의 도래로 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는 그 어느 때보다 가까이 다가와 있음.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양쪽은 서로를 원함. 아시아는 시장과 투자처 그리고 원자재 공급처로 라틴아메리카를 원하고, 라틴아메리카는 아시아의 기술, 자본, 발전의 노하우, 인프라 투자를 열렬히 원하고 있음. 이에 따라 라틴아메리카도 아시아를 더욱 깊이 알기를 원함. 바야흐로 상호존중과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한 문화외교의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고 있음.

3) 두 문화의 만남, 이해의 어려움

○ 우리와 라틴아메리카가 서로 이해하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 일단 역사와 문화의 교류 경험이 일천하고, 지리적 거리도 만만치 않음. 한국인들과 달리 유럽 사람이나 미국 사람들은 로망스 언어인 스페인어와 포르투갈어를 비교적 쉽게 배움. 같은 라틴어 계열인 프랑스어, 이탈리아어를 아는 사람이라면 조금만 노력하면 언어를 습득할 수 있음. 하지만 한자문화권에 속하는 우리는 이 언어를 바닥에서 배워야만 함. 라틴아메리카 사람들도 한글을 배우기 힘들. 언어를 배울 동기부여

도 거의 없고, 설사 배운다고 맘을 먹어도 대단한 노력을 투여해야 함. 아시아 언어를 배운다고 맘을 먹어도 선호도는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순서일 것임. 필자가 20여년 접해본 기억으로는 북한에 오래 근무한 쿠바 외교관 몇 명 이외에는 한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는 라틴아메리카 연구자나 사람을 보지 못했음. 심지어 한국학을 하는 사람들조차 한국어 해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 언어를 통한 소통의 어려움 외에도 문화의 해독도 쉽지 않음. 이 문화는 유럽 문화를 바탕으로 원주민 또는 아프리카 흑인의 문화가 뒤섞인 혼종성(hybridity)의 문화임. 반면 우리는 단일민족과 고유한 문명이란 신화 속에서 살고 있음. 그런 우리이기에 이 혼종성에 대해서 대단히 낯선 느낌을 갖고 있고, 혼종성의 구성물에 대한 이해도 낮은 편임. 브라질 음악을 이해하자면 아프리카의 음악과 종교에 대한 일정한 이해가 필요한 데, 이러한 지식이 우리에게 부족함. 유럽의 예술사조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도 필요하지만, 그것도 남미인들에 미치지 못함. 그런 점에서 라틴아메리카 문화는 우리에게 하나의 미로처럼 느껴지기도 함.

○ 또 라틴아메리카 문화를 혼종성의 문화라고 하지만 혼종성의 구성물도 나라마다 서로 다름. 스페인어를 사용하고 비슷한 역사적 경험을 했다고 하더라도 원주민 문명의 존재 여부, 혼혈의 정도, 그리고 유럽 이민의 강도에 따라 서로 다른 모습을 띠고 있음. 아래 도표는 몇몇 지역의 문화를 유형화한 것임. 대체로 메소아메리카(특히 멕시코)와 안데스 문명의 경우 우리 역사 문화와 결합될 수 있는 접점(contact point)이 다수 발견되지만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의 경우 어떤 의미에서 유럽 문명이 이식된 유형이므로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고, 그만큼 학습과 교류에 많은 노력이 필요함.

<표 4-3> 라틴아메리카 문화 내부의 편차: 개괄적 유형

	메소아메리카	안데스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거대 선주민 문명의 존재	아스텍, 마야	잉카	수렵 채취	수렵 채취
혼혈화	메스티조의 중심성	메스티조화의 허약성; 안데스와 해안의 분열	물라토화(메스티조화);	tabla rasa; 유럽인의 식민
인종주의	상대적으로 허약함; 메스티조가 ‘우주적 인	상대적으로 강함; 유럽주의와 안데스 유토피아	상대적으로 약하지만, 여전히 인종주의 편견은 잔	상대적으로 강함; 정체성 분열이 심하고 도시 대 농촌

	종'	의 분열	존함.	의 대립, 자유주의 대 전통의 대립이 심함
문화적 민족주의의 강도	멕시코 혁명 이후 전위주의 미학과 정치의 결합으로 벽화, 국민음악, 박물관을 통한 메스티조 민족주의 고양	리마와 안데스의 분열로 메스티조 민족주의 문화운동의 허약성	카니발리스트 선언으로 트로피칼 모더니즘이 발전함	국제주의 대 민족주의의 문화적 대립이 재연됨. 아방가르드의 분열
문화 교류의 포인트	아스텍, 마야 문명과 한국 고종 세 문명의 비교; 국민음악과 한국 근대 음악의 비교(예: 안익태 vs. 차베스); 박물관 교류; 고추 음식 페스티벌	잉가와 주변 문명의 소개; 안데스 음악과 한국 전통 음악의 비교; 안데스 의류와 디자인; 감자를 통해 본 두 문명	현대미술 교류전; 의상 디자인전; 백남준의 예술세계; 빌라-로부스의 밤; 대중음악인 교류의 활성화; 타악기 교류전; 생태관광; 학술교류의 정례화; 한중일 공동의 문화 소개	태평양 시대의 파트너쉽; 발전 경험의 공유와 지식 전수; 학술 교류의 활성화; 한국의 전통악기로 연주한 탱고(또는 오리엔탕고 Orientango)

○ 라틴아메리카 사람들도 한국을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음. LG, 삼성, 현대, 대우 등의 상품 브랜드는 친숙하지만, 정작 한국의 국가 브랜드에 대해서는 인지 상의 혼란 내지 문에 쌍방교류에서 큰 어려움이 있음. 현대 한국의 발전상에 대해서는 경이로운 눈초리로 바라보지만, 한국의 문화적 유산을 나열하면 금방 지루한 표정을 지음. 한글, 도자기, 금속활자 등을 통해 한국의 문화사를 설명한다면, 청자는 금방 싫증을 낼 것임. 한국의 장소 브랜드(place brand), 예컨대 IT와 전자제품의 강국의 이미지가 이런 문화적 유산과 쉽게 연계되지 않기 때문임. 이런 배경을 이해한다면 현재 쌍방의 문화 교류가 진정한 다이얼로그와 협업이 되기보다는 모놀로그 형의 일방적 소개에 그치고 있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음.

3. 문화외교의 인프라와 현황

1) 정부 차원

○ 현재 한국의 대 중남미 문화외교의 중심 창구는 단연히 외교통상부 산하의 공관을 들 수 있음. 외교통상부는 본부의 중남미국을 중심으로 대 중남미 교섭의 창구가 되고 있음. 2008년 10월 현재 한국의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 지역의 23개국과 문화협정을 맺고 있음.

<표 4-4> 라틴 아메리카 지역 국가와의 문화협정 체결 현황

라틴아메리카 서명국 : 22 발효국 : 22		
국 명	서 명	발 효
브라질	66.02.27	67.10.20
니카라과	68.04.30	69.02.20
멕시코	66.04.29	69.03.17
도미니카공화국	68.04.09	69.11.21
아르헨티나 (구협정)	04.11.15 (68.08.08)	07.11.22 (70.01.04)
엘살바도르	70.06.26	70.11.01
코스타리카	66.07.29	71.07.04
볼리비아	71.09.07	72.01.19
온두라스	70.12.15	74.04.01
우루과이	71.05.14	74.09.13
파 나 마	74.06.03	75.01.17
파라과이	73.06.28	75.07.31
콜롬비아	67.07.27	76.07.14
과테말라	78.05.11	78.09.18
수리남	78.11.18	81.02.05
바베이도스	81.09.18	82.02.02
자메이카	81.10.10	82.02.02
칠 레	83.12.07	84.09.21
에쿠아도르	85.05.14	86.06.18
페 루	83.12.06	88.09.14
아이티	84.07.26	85.03.13
베네수엘라	94.11.17	95.03.10

출전: 외교통상부, <외교통상업무 참고자료>, 2008. p.159

○ 또 라틴아메리카의 주요국인 멕시코, 아르헨티나, 칠레, 브라질과는 문화공동위원회를 주기적으로 열어서 양국 간 문화교류 문제를 협의하기도 함. 문화공동위원회는 문화협정이 체결되고 발효된 이후에 문화협정 상의 규정이나 양국 간의 별도 합의에 따라 문화외교국장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간 공동위원회임. 대체로 2-3년 마다 양국이 교대로 문화공동위 회의를 개최하고 문화교류 협력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며 그 결과를 문화교류 시행계획서로 약정하고 시행함. 2008년 10월 현재 개최 실적은 아래와 같음.

<표 4-5> 라틴 아메리카 지역의 문화교류 실적 표

국가	개최실적
멕시코	4차: 2006.6.23, 서울
아르헨티나	2차: 2007.7.6, 부에노스아이레스
칠레	1차: 1999.9.7, 산티아고
브라질	1차: 2006.9.26, 서울

○ 외교통상부 산하의 한국국제교류재단은 다 방면에서 문화교류의 창구가 되고 있음. 재단은 한국학 진흥, 문화교류, 인사교류, 그리고 각종 포럼과 영상미디어와 출판까지 광범한 영역에서 대외교류 업무를 총괄하고 있음. 공공외교에서 문화외교(cultural diplomacy)와 교류외교(exchange diplomacy)에 해당하는 부분을 맡고 있음.

○ 문화관광체육부의 문화예술 기구들도 다양한 문화외교의 기능을 전담하고 있고, 산하의 한국문화원도 해외 현지에서 한국의 문화를 소개하고 전파하는 해외거점(framework post)로 중대한 기능을 하고 있음.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유일한 한국문화원(Centro Cultural Coreano)이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에 2006년 11월에 개원하였음. 문화원은 한국어 강좌, 각종 문화와 예술의 소개, 문화 콘텐츠의 보급 등에 주력하고 있음.

○ 외교통상부 산하 기구인 재외동포재단 역시 한상대회 등의 사업을 통해 한-라틴아메리카 교류의 창구가 되고 있음. 특히 교민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재외동포 제2세와 제3세의 정체성 교육을 활성화하여 이들이 현지에서 한국과의 교류의 창구가 되었으면 바람. 또 한국학의 세계화를 위해서 각종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는 한국학 중앙연구원의 한국문화교류센터도 나름대로 많은 사업을 펼치고 있고, 각 대학교의 한국학 관련 연구소들도 나름대로 기능을 한다고 말할 수 있음.

2) 비정부 차원

○ 정부 차원 이외에 교민사회, 현지 여행객, 현지 투자기업들도 문화교류의 중요한 채널이 됨. 문화교류는 미디어를 통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채널은 대면 접촉임. 그런 점에서 교민사회, 여행객, 그리고 진출기업과 상품 브랜드도 좋

은 자원이 될 수 있음. 하지만 아직까지 라틴아메리카의 현지 교민사회는 4-5만 명 규모의 브라질, 2만 명에 못 미치는 아르헨티나, 멕시코, 1만 명 규모의 과테말라를 제외한다면 비교적 소수에 가까움. 유럽 이민사회이니만큼 아시아 출신 교민은 비교적 작은 규모이지만, 일본이나 중국의 교민사회 규모에 비해도 대단히 작음.

○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경우는 의류상가 중심으로 한인촌이 발전하여 그 나름대로 정체성을 현지인들에게 심어주고 있음. 상파울루에는 리틀 도쿄가 있고, 중국인 집단거주촌이 급팽창하고 있지만 봉헤치로 중심으로 포진해 있는 한국인 교민 사회의 인지도도 높은 편임. 역시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온세와 백구번 거리를 중심으로 발전한 아르헨티나 한인 사회도 의류산업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 또 여행객과 진출 기업 수도 대단히 작은 규모이지만 수출상품의 브랜드 이미지만큼은 라틴아메리카 인들에게 대단히 강렬하게 인식되어 있음.

<표 4-6> 대면 접촉의 기회

	교민의 규모	여행자 규모	투자기업 수
브라질(상파울루 총영사관)	45,000-50,000	5,000-6,000	50-60
파라과이	5,803	-	2
아르헨티나	19,171	-	17
칠레	1,858	1,757	11
페루	622	7,000(추정)	5
베네수엘라	150	800	2
우루과이	130	120	7
에콰도르	850	-	7
멕시코	14,571	8,000	95
과테말라	11,000	252	200
엘살바도르	290	2,211(2004)	18
도미니카 공화국	450	2,226	24
코스타리카	476(2003)	-	2

출전: 임종석, <현장의 소리를 듣는다: 외교통상부 113개 재외공관 다큐 설문조사 보고>, 2006년 정기국회 정책자료집3. 2005,

* 모든 통계치는 특별한 표시가 없으면 2005년 10월 현재 수치이다.

3) 몇 가지 사례

○ 사례의 필요성

- 필자는 2000년 3월부터 2001년 2월까지 멕시코에 머물면서 문화교류의 다양한 현장을 직접 경험한 바 있고, 2005년부터는 국제교류재단의 한국학 지원 관련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교류 사업에 관여한 바가 있음. 또 관련 인사들로부터 교류 사업에 얹힌 많은 이야기를 들은 바 있어 이를 바탕으로 문화교류 사업에 얹힌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함. 일반적으로 중남미 현지와 관련자들에게서 통용되는 이야기이므로 거론되는 사람은 가능하면 익명으로 처리함.

○ 문인 간 교류

- 문인들의 시와 소설을 외국어로 번역하여 해외에 홍보하는 사업도 시작된 지 오래됨. 저명한 시인들의 시집이 스페인어로 번역되어 현지에 홍보되기도 함. 시집이 출판되면 현지에서 시낭송회를 여는 경우가 있음. 대부분의 경우 국내의 저명 시인이라고 하더라도 스페인어로 번역하면 가독성이 떨어지므로, 현지의 유명 출판사에서 출간하기 어려움. 그래서 출판비용을 우리가 전액 부담하는 형식으로, 적당한 대학 출판부에서 내기 십상임. 하지만 여기서 출간되는 것은 서점 판매용은 아님. 대부분 비매품으로 배포되는 경우가 많음. 이런 방식의 출판은 가능하면 지양해야만 함. 오히려 한국 시인들의 품격을 떨어트릴 뿐임

- 시낭송회의 경우도 문제가 많다. 대사관, 현지 문화계 인사, 그리고 유학생들이 동원되어 진행됨. 하지만 한국 문인치고 현지어 구사는 물론 영어, 프랑스어로 현지 문인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음. 결국 통역이 나서 의사소통이 이뤄짐. 멕시코나 남미의 문인들은 프랑스어나 영어에 능통한 경우가 많음. 이들은 모두 외국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고 구미 문예계의 동향과 작품에 대해서도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음. 양국 문인 사이의 대화는 거의 일방적인 모놀로그로 끝남. 같이 공유하고 있는 세계관, 인문학적 지식의 격차, 무엇보다 통역이란 매개를 통한 불편함에 현지 문인들이나 지식인들은 곧 실망함. 심지어 시 낭송회에서 태극기를 흔들 사람까지 있어서 때때로 낭패감마저 느낌. 대부분 현지 지식인들은 민족주의 감정의 오용에 대해서 극도로 경계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국수주의”)를 심어줄 수도 있음. 또 이 사회도 홀로코스트나 박해를 피해온

이민들이 많은 사회란 점을 잘 이해해야만 함. 특히 문인과 지식인들의 경우 유대인 출신이 많음.

- 한국 문인들의 경우 현지 문학이나 종교와 세계관에 거의 배경적 지식이 없으므로 질문도 너무 초보적임. 저명한 평론가가 멕시코에 방문해서 한 질문 가운데 이런 것도 있었음. “멕시코에도 신화 이야기가 존재하니까?” 이런 식의 질문이 나오면 통역자도 황당해 짐. 결국 우리의 실력과 세계화 수준을 반영하는 이야기일 터인데, 이런 식으로는 라틴아메리카에서 우리가 대화(dialogue) 형 문화교류를 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어려움.

- 일본의 경우 라틴아메리카 문인교류에서 알려진 대표적인 문인은 오에 겐자부로임. 일본 문학은 가와바타 야스나리 이래 오래 전에 다양하게 스페인어로 번역되어 있었기에 라틴아메리카 작가들은 일본풍에 대해 약간 경이로운 시선으로 접근함. 오에는 노벨문학상을 받은 작가로서 가르시아 마르케스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음. 두 사람은 모두 프랑스어에 능통함. 마르케스는 언론사의 파리 특파원 생활을 한 적이 있고, 오에는 동경대학 프랑스문학과 출신임. 오에는 라틴아메리카를 자주 방문하며 강연을 하고, 현지 지식인 사회에서 환영을 받음. 언어의 소통도 문제가 없지만, 서구 문학을 공부한 그는 라틴아메리카 지식인의 세계를 잘 이해하고 있어 대화에서 공감을 일으키기 때문임.

○ 예술 공연 교류

- 2000년 필자의 멕시코 체류 중에 제2 도시 과달라하라에서 국악 공연 팀이 와서 공연을 하였음. 과달라하라는 두 번째로 큰 도시이기도 하고, 멕시코의 중산층은 이국적인 문화를 즐기는 경향이 있기에 그 날 데고야도 극장에 관객은 거의 찼던 것으로 기억함. 티켓을 무료로 배포하였겠지만 유서 깊은 극장에 나름대로 의미 있는 공연을 하였음. 공연 예술 전통은 멕시코가 훨씬 오래 되었음. 이들은 19세기 말엽 토스카니니가 활동했던 시절에 유럽의 명문 오케스트라나 오페라단을 직접 접할 수 있었음. 유럽 시즌이 끝나면 공연단은 대서양을 건너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의 대도시에서 공연 일정을 소화하곤 했음. 그런 전통이 있기에 멕시코 자체의 오케스트라와 민속발레단의 수준도 이미 잘 알려져 있음. 중앙정부는 오랫동안 국민음악의 창달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그런 연유로 대도시에는 공연예술을 즐기는 애호가 층이 일정하게 형성되어 있음.

- 그렇기에 중상류층 애호가들이 공연예술에 대해 내리는 평가는 나름대로 까다로움. 그런 의미에서 면밀히 준비할 필요가 있고 현지 사정을 고려하여 곡목이나 아이টে를 정할 필요가 있음. 원주민 문화의 유산이 남아 있는 멕시코나 페루 같은 곳에서는 아시아 음악에서 무엇인가 동질적인 요소를 찾으려고 함. 특히 안데스의 음악 전통이 잘 보존되어 있는 페루, 칠레(부분적으로 아르헨티나)의 경우 한국 음악의 소개는 나름대로 시선을 끌지 모름. 하지만 그것이 대금 연주나 간단한 실내악의 악기편성이라면 그렇게 참신하다는 느낌을 주지 못할 것임. 안데스 음악의 연주도 케나, 핑키요, 안타라, 에르케, 삼포냐와 같은 관악기가 발달해 있고 우수에 젖은 야라비(yaravi)와 와이노(wayno)를 연주하면 우리 귀에도 낯설지 않은 분위기를 연출하기 때문임.

- 이런 경우라면 우리 악기를 가지고 야라비와 와이노를 편곡하여 연주를 하면 청중들에게 훨씬 큰 공감을 일으킬 것임. 심지어 아르헨티나의 탱고 음악도 우리의 전통악기로 퓨전 스타일로 연주한다면 훨씬 교감의 폭은 넓어질 것임. 실제로 ‘사계’가 해금과 가야금으로 연주하는 피아졸라의 ‘망각’(oblivion)은 독특한 분위기를 연출하는데, 이런 방식의 공연이 서로 상이한 귀를 가진 청중들에게 쉽게 교감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임. 공연예술도 우리 것이 좋으니 들으라는 식의 일방적인 독백(monologue) 스타일로 제시되기 보다는 대화(dialogue) 내지 퓨전 스타일로 제시하면 훨씬 효과가 크리라 생각함.

4. 한국학 진흥 사업: 몇 가지 사례

1) 콜맥스의 한국학 프로그램

○ 라틴아메리카에 한국학을 전파하는 사업에 관심을 지닌 것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임.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등이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주목한 나라들이었고, 특히 고등교육기관에 한국어 교육과 한국학 강의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처음 설계됨. 필자는 2000년 전후로 이 지역에 연구차 방문하면서 몇몇 나라의 교류 실상을 직접 목격하였고, 또 한국학을 어떻게 심을 수 있는 지 여러 분과 토론을 나누기도 했음.

○ 2000년에 멕시코에 1년간 거주하면서 과달라하라와 멕시코시티에서 6개월씩

거주하면서 한국 연구의 실상을 목격하게 되었음. 안타깝지만 한국에서 오래 거주하고 대학에서 강의를 한 멕시코 교수들도 한국어를 거의 배우지 않았음. 한국 전문가라고 신문에 글을 쓰는 사람도 정보량은 빈약할 수밖에 없었음. 이런 와중에 멕시코의 교수양성 고등교육 기관이라 할 수 있는 엘 콜레히오 데 메히코(Colegio de Mexico: 이하 ‘콜멕스’)에 한국학 과정이 생겼음. 대학교 내 ‘아시아-아프리카 연구소’ 내에 한국학과가 설치된 것임. 대학 측은 전임교수로 한국인 출신 언어학자를 총원하였고, 여기에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지원하는 계약교수 1명이 추가되었음. 참으로 고무적인 시절이었음.

○ 콜멕스는 1930년대 스페인 내전 이후 망명한 스페인 공화주의 지식인들이 힘을 합쳐 만들어 멕시코 사회에 기증한 유서 깊은 대학임. 이미 1960년대에 일본 국제교류기금(Japan Foundation)이 1백만 달러를 기증한 바 있는 명문 대학원임. 콜멕스는 대학원 석박사 과정만이 있는 대학원 대학임. 외교관 양성 프로그램에만 소수의 학부생들이 있음. 모두 장학금을 받고 생활비의 일부를 보조받기에 아주 우수한 극소수 학생들에게만 문이 열려있음. 이곳의 교육과 훈련은 고되기로 유명함. 입학자의 1/4 정도만 학위를 받고 나간다고 할 정도로 철저하게 트레이닝을 시킴. 그래서 교수와 학생들의 자부심도 대단함.

○ 하지만 처음부터 한국학과 분위기는 활성화되지 않았음. 5-6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 훈련, 그리고 문학과 역사 중심으로 인문학의 기초를 다지는 방향으로 교육이 시작되었지만, 학생들은 학업에 그렇게 흥미를 느끼는 것 같지 않았음. 한국어는 배우는 데 많은 시간이 들었고, 또 문학과 역사도 전공자가 가르치지 않았기에 재미가 있을 수 없었음. 아쉽게도 교수 두 사람 모두 스페인 언어 전공자, 라틴아메리카 문학 전공자였음. 처음부터 이 프로그램의 지원을 둘러싸고 학교당국, 대사관(문정관), 교수들, 국제교류재단 사이의 관계가 삐걱거렸음. 이 학교에 계속 지원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가 관건이었음. 필자가 멕시코시티에 있던 2000년 당시 국제교류재단 이사장이 직접 학교당국에 방문하여 현장의 사정을 청취하기도 하였음. 그 당시 지원은 이듬해까지 연장되었으나, 그 이후에는 끊어졌다고 나중에 들었음.

○ 국제교류재단으로서는 참으로 좋은 기회를 잘 살리지 못한 아쉬운 감이 있었음. 일단 콜멕스는 중남미를 대표하는 고등교육기관으로 지식인 사회에 영향력이 큰 기관이었기에 어떤 방식으로든 끈을 유지하고 있어야만 했음. 콜멕스도 스페인

어 전공자를 전임교수로 뽑은 것도 실수였음. 멕시코 나아가 라틴아메리카 내부의 한국학 수요는 우선 한국과의 경제, 외교, 문화 교류 분야에 몰려 있기 때문에 이 분야의 전문가를 육성하는 것이 시급했음. 이미 상당한 연륜을 갖는 중국, 일본 연구처럼 곧 바로 심화 프로그램으로 발전하기 힘들었기에 단계별 계획이 선행되어야만 했음. 그렇다면 한국 현대사, 정치와 외교, 경제발전, 문화와 사회 등이 학생들의 시선을 끌 법 했을 것임. 그렇지만 대부분 교과목은 한국어, 역사 개황, 한국 문학사, 시가문학 등으로 채워졌음. 가끔 사회 관련 과목도 개설되었지만, 외부의 비전문가 교수가 가르치거나, 한국학과 전임교수가 가르쳤기에 학생들에게 그렇게 지적으로 자극적이 강좌가 되지 못했을 것임.

○ 필자가 보기에 가장 큰 문제는 학생들의 관심사와 교수내용의 괴리였음. 아무리 우수하고 인내력이 있는 학생들일지라도 교과내용이 흥미가 없으면 다른 곳으로 옮기기 마련임. 같은 연구소 내 일본학과, 중국학과 프로그램은 탄탄함. 물론 연륜의 차이가 있지만 이 과에는 나름대로 실력이 있는 역사학자, 사회과학 전공자들이 다수 있었음. 이런 와중에 교수와 문정관의 사이도 매끄럽지 못했고, 한국국제교류재단에서도 계속 지원하는 것을 재검토할 정도로 갈등이 심했음. 이 시점에서 현지 사정을 잘 아는 전문가나 자문위원이 나름대로 보고서를 내어 프로그램의 수정을 요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계속 지원 여부를 판단했더라면 지금보다 훨씬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함.

○ 결국 담당교수는 실적 부실로 학교에서 나왔고, 한국학과는 해체되고 다른 과에 통합되었음. 대신 멕시코 출신으로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를 취득한 한 학자가 한국학 담당교수로 3년 전에 총원됨. 콜멕스 측도 한국학의 출발이 사회과학 쪽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점을 뒤늦게 깨달은 것임. 한국학 프로그램이 잘 진행되었더라면 10년 이상을 넘겨서 제대로 된 프로그램으로 안착되었을 것인데 이 점이 참으로 안타까움. 여기 출신들은 멕시코와 중미, 카리브 곳곳에서 동아시아 내지 한국을 가르치는 교수로 총원되거나, 현지 한국대기업의 중견사원이나 임직원으로 취직할 수도 있었을 것임.

2) 남미의 한국학 지원 프로그램

○ 라틴아메리카의 한국학자 전체회의는 2004년부터 국제교류재단의 지원으로 시작된 바 있음. 제1차 회의는 아르헨티나의 카롤리나 메라 교수의 주관으로 부에

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되었고, 제2차 회의는 2005년에 후안 호세 라미레스 보니아 교수의 주관으로 국립멕시코자치대학에서 개최됨. 제3차 회의는 2007년 엔리케 교수와 마시에로 교수의 주관으로 상파울루 소재의 가톨릭대학(PUC)에서 개최됨. 제4차 회의는 2009년 칠레 대학교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함.

○ 라틴아메리카 내부에 한국학 연구자를 아우르는 학회가 활성화되는 것은 비교적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함. 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아직도 가야할 길이 멀다는 것도 금방 드러남. 브라질의 예를 살펴보기로 함. 상파울루 대학교에는 한국어 1, 2 과목이 선택과목으로 개설되어 있음. 이는 국제교류재단이 지원하는 프로그램임. 상파울루대학교의 동양어대학에서 한국어 전공을 설립할 계획은 있다고 들었지만, 아직까지 실행되지 않았음. 또 2007년에 브라질의 한국학 연구회가 임윤정 박사와 안토니오 메네즈 교수를 공동대표로 상파울루 대학교의 학생과 교수들을 중심으로 설립되었음. 동년 5월에 제1회 한국학 포럼을 개최하였고, 2007년 남미 한국학 포럼에서 같이 참여한 바 있음.

○ 이런 사정은 이웃 나라 아르헨티나와 칠레의 경우도 비슷하다. 대체로 연구자들은 어문학 전공자, 역사 전공자, 그리고 일부의 사회과학 전공자가 섞여 있지만 아직까지 한국에 대한 본격적 연구를 해 본 경험이 거의 없는 초보적 연구자들임. 가끔 중견의 학자들도 있지만 관심을 표명할 뿐 정작 연구에 뛰어들지는 않음.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한국 역사서의 번역 작업도 진행되지 않았음. 여기서는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현대사>(Korea's Place in the Sun: A Modern History)가 스페인어로 (아르헨티나에서) 번역되어 널리 읽히고 있음. 교류재단에서 지원하는 연구과제도 천편일률적임. 남북관계, 한국의 발전, 양국 관계 등을 다루지만 전문성과 수월성은 전혀 느껴지지 않음. 가끔 중국 문제와 뒤섞어서 한국에서 꼭 지원할 필요가 있을까 의심스러운 것들도 있음.

○ 국제교류재단은 칠레의 경우 칠레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와 칠레가톨릭대학교 두 군데를 지원한 바 있었음. 하지만 전자는 매너리즘과 관료주의에 의해 연구자 개인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변질되었고, 후자는 다행히도 학교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자리를 잡아서 칠레에서 한국을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음. 전자의 경우라면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후자로 집중해서 지원해 주는 게 나은 방안임. 중국 내지 일본 전공자가 한국학 프로그램의 수혜자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이들은 금전적 유인이 없다면 결코 한국 문제에 천착하고픈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

임.

○ 그나마 다행인 것은 라틴아메리카의 한학 역량을 키우기 위해 미국 대학과 연계시키는 프로그램이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의해 진행되고 있음. 한국학중앙연구원은 UCLA의 한국학연구센터에 120만 달러를 지원하여, 동 센터로 하여금 라틴아메리카 우수 대학교들과 함께 한국학 연구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시키고 있음. 주로 겨울 학기 동안 남미며, 학생들로 하여금 UCLA에 초청하고, 남미 전문가로 하여금 강의의 기회를 부여하며, 또 UCLA 교수가 남미 대학에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연구과제 중에는 “한인의 미주 이민”과 같은 흥미로운 주제도 있어서 지역별 비교연구도 가능하고, 연구역량도 한 단계 높이는 기능을 하리라 믿음.

○ 필자가 생각하는 라틴아메리카의 한국학 연구자의 문제점은 아래와 같음. 첫째, 한국어 자료를 읽고 해석하는 수준의 현지 연구자가 아직은 없음. 그렇다가 보니 영문 자료를 재탕하거나 시사적 주제, 이민사회 연구 등에 고착되는 경향이 있음. 이런 수준에 계속 머물면 한국학 전반으로 주제의 다양화와 내용의 심화가 이뤄지지 않음.

○ 둘째, 한국학 프로그램이 언어교육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지만, 우선 학생들의 관심을 이끌 수 있는 사회과학 주제 개발과 교육이 시급한 실정임. 한국어를 배우겠다는 강력한 동기유발의 기회를 먼저 만들어 주어야 한국학 학습도 불이 붙을 것임. 그런 점에서 사회과학 주제의 개발에서 출발하여 인문학적 주제로 나아가는 것이 훨씬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함. 브라질의 상파울루 대학교, 가톨릭 대학교, 리우 브랑쿠 대학교와 같은 명문대에서는 영어로 강의를 해도 될 정도로 국제화되어 있음. 이럴 경우 한국에서 정기적으로 교수를 파견하여 3주 내지 4주 집중강의를 해서 한국학 붐을 일으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임.

○ 셋째, 연구주제의 설정에 어려움을 겪고, 연구역량에 한계가 있다면 이들에게 연구를 그냥 맡길 것이 아니라 국내 대학(의 연구소)의 파트너를 한두 명 지정해주고 멘토링을 하는 것도 필요함. 그럴 경우 연구주제의 설정, 연구의 수준도 모두 향상되리라 믿음.

5. 개선방안

1) 스페인어권 문화외교와 해외거점의 다변화

○ 히스패닉 문화는 크게 세 갈래로 발전함. 흔히 ‘세 개의 히스패닉성’(Las tres hispanidades)이라 불리는 세 갈래는 원류에 해당하는 스페인 문화, 라틴아메리카에 전파된 문화, 그리고 북미에 점차 증가하는 히스패닉 문화로 대별됨. 우리의 라틴아메리카 문화외교는 미국 내 히스패닉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고, 또 스페인은 유럽 문화 틀 속에서 다룸. 하지만 인구조사에 따르면 현재 미국 내에서 4천 5백만명의 스페인어 상용인구가 존재하고 있음. 여기에 불법체류자 1천 2백만명을 더한다면 거의 6천만 명에 육박하는 인구가 스페인어를 사용하고 있는 셈임. 미국은 스페인어 최대 사용국가인 멕시코를 뒤이어 두 번째 상용 국가가 되었음. 2050년에 이르면 미국 내 상용인구가 1억 3천 2백만 명이 된다고 하니까 제1위 국가가 될 것임(Ruiz Mantilla 2008). 여하튼 이 세 개의 문화권은 언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 장르를 관통하며 긴밀히 결합되어 있음. 특히 미국과 라틴아메리카 사이에는 오랫동안 초국경(trans-border) 문화가 형성되어 다채로운 경험을 하고 있음.

○ 오늘날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인구수는 3억 9천 2백만 명에 이름. 이는 중국어(만다린) 8억 3천 5백만, 영어 4억 7천만, 그리고 힌두어 4억에 뒤이은 네 번째 언어임. 제5위의 언어인 러시아어 사용인구가 2억 8천 8백만 명이니 거의 1억 이상이 많은 것임. 하지만 우리에게 아직 스페인어권에 대한 통합적인 문화외교의 청사진이 없는 실정임.

○ 현재 우리나라는 2006년 이래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에 한국문화원을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음. 이 지역에 문화원을 설치했다는 점은 획기적인 일이긴 해도 아르헨티나의 문화원은 한계가 많음. 일단 인구가 2억에 해당하는 브라질 지역에 가깝긴 해도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인해 쉽게 접근하기 힘들고, 스페인어 최대사용국가인 멕시코와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소통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현재 아르헨티나의 국세가 많이 악화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것의 효능성은 생각보다 떨어진다고 할 것임.

○ 그런 점에서 스페인어권의 해외거점이 하나 내지 둘 정도 더 필요하다는 생각임. 첫 번째 시급한 것은 미국과 멕시코, 그리고 중미와 카리브를 아우르는 북미권 포스트임. 멕시코 인구 1억 명과 미국이 스페인어 상용자 6천만 명 그리고 중미와 카리브 지역의 다양한 문화와 교감을 할 포스트가 필요함. 이 지역은 결코 부에

노스아이레스에서 커버할 수 없음. 만약 이 포스트를 설치한다면 그 위치는 멕시코 시티가 적절함. 또 우리에게 멕시코가 중남미 최대의 교역국이자 대규모의 흑자를 가져다주는 나라일 뿐 아니라 문화적으로 가장 풍부한 내용을 지닌 문화강대국이기 때문임. 멕시코는 음악, 건축, 조형예술, 박물관 등이 발달한 문화강대국 중의 하나임. 한국과 멕시코의 문화 협력은 양국 모두에게 큰 이점이 있음.

○ 인구 2억의 브라질에도 한국문화원을 설치할 필요가 있음. 최근 들어서 한국과 브라질의 경제교역은 급속히 늘어나고 있고, 각종 경제협력의 전망이 밝음. 특히 에너지 분야에서 취약한 한국은 브라질과 협력할 분야가 많이 있음. 브라질 역시 문화적으로 강대국이며 문화외교에 뛰어난 실력을 지니고 있음. 브라질은 작곡가 빌라-로부스, 건축가 오스카 니메이에르와 같은 세계적인 거장을 낳은 나라임. 한-브라질 수교 50주년을 맞이하는 2009년에 대승적 차원에서 상파울루 문화원 프로젝트도 한번 고려해봄직 함.

2) 조정기능의 강화와 전문가 집단의 활용

○ 우리나라의 문화외교는 외교통상부와 문화관광부의 산하 기구들이 주로 맡고 있음. 서울시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한국국제교류재단이나 문화부 산하의 각종 예술 관련 단체들의 기여도가 압도적으로 높을 것임. 이제 학술교류나 문화교류도 현지 사정에 밝은 전문가들이 청사진을 만들고, 단계적으로 프로그램을 성숙시켜 나가는데 재원과 역량을 집중시켜 나가야 할 것임. 특히 한국학 프로그램, 번역 프로그램도 그냥 우리 것을 내팔치는 식으로 운영할 것이 아니라, 전략적인 차원에서 어떤 방식으로 육성할 것인지 고민을 해야 함. 앞서서도 지적했듯이 한국어 교수에 집중하면서 한국학으로 유도하는 채널은 만들어주지 않을 경우 중국에는 한국어 수강자들도 모두 떨어져 나가 버리기 때문임.

○ 최근에 들어서는 국제교류재단에서도 이런 문제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음. 지역별로 전문가들을 자문위원으로 영입하여 현지 사정에 알맞은 지원책을 모색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하지만 지역별로 한국학을 양성하는 장기적 플랜이 있어야 하고 그런 계획이 세워지면 일관성이 있게 추진할 조정자(coordinator)도 있어야 함. 그렇지 않으면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프로그램이 춤을 추게 됨. 한국학 육성은 한국학 전공자만의 노하우로는 이뤄질 수 없음. 현지 학계 사정을 잘 아는 지역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고, 양자가 잘 협력할 때 중장기적으로 성공할 수 있음.

3) 상호이해에 이르는 주제와 소재 발굴

○ 오늘날 문화교류는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는 문화를 바깥에 외화하는 과정이기도 하고, 또 타 문화와 대면하면서 자신의 문화를 풍요롭게 하는 잡종화(hybridization)의 기회가 되기도 함. 그런 면에서 문화교류는 독백에서 출발하여 대화로 나아감. 대화의 단계를 넘어서면 잡종화를 통해 새로운 것이 탄생함. 라틴아메리카 문화는 잡종화의 놀라운 보고임. ‘경이로운 아메리카’는 오랫동안 구미인들의 상상력을 자극했고, 예술적 영감을 불러 일으켰음. 유럽인들은 녹색의 에덴 동산이 브라질에 있다고 믿었고, 브라질 사람들은 예수가 벨렝에서 태어났다고 믿음. 초현실주의자 앙드레 브르통은 멕시코란 나라 자체가 ‘초현실주의’라고 말했음.

○ 우리에게도 라틴아메리카는 거대한 모험의 장임. 그런 점에서 Korea Meets Latin America란 슬로건 아래 문화적 공감을 일으킬 수 있는 교류 프로그램을 중장기적으로 기획하여 실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임. 필자가 생각하는 프로그램은 우리 고유의 것을 그대로 재현하여 발신할 것이 아니라 퓨전 형으로 편성하여 그들의 예술적 감성을 자극하는 것임.. 또 양국에 비슷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공연예술 분야가 있다면 이 둘을 결합하여 함께 공연하면서 비교하는 것도 흥미로울 것임. 과거의 음악보다는 현대적인 음악의 교류가 늘어나야 한다고 믿음. 전통음악 그 자체는 하나의 스테레오타입으로서 한국을 표상함. ‘다이내믹 코리아’의 예술은 보다 현대적인 양식을 입고 재탄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함. 상대방의 문화도 마찬가지임. 스테레오타입에서 건져내야만 온전히 현대적인 것과 만날 수 있기 때문임. 이런 과정에서 우리 예술문화도 한껏 풍성해지리라 믿음. 필자의 머리에 떠오르는 것들을 예시하면 아래와 같음.

– 국악연주로 듣는 피아졸라: 가야금, 해금이 어우러지면 향수어린 음악이 되기 때문에 탱고음악의 우수(melancholy)에 접근하기 쉬움. 남미인들에 한국 음악의 정수를 전달할 뿐 아니라, 우리도 탱고 음악을 한층 더 가까이 들을 수 있음.

– 국악연주로 듣는 안데스 음악(아라비와 와이노): 두 음악 모두 관악기 중심의 악기편성으로 오음계 멜로디를 연주하므로 재미있는 퓨전 음악이 탄생할 가능성이 있음. 이런 방식으로 안데스 음악을 편곡한다면 남미 청중들에게서 새로운 감흥을 선사할 수 있음.

– 한국 가곡과 멕시코 칸시온의 밤: 20세기 초엽의 한국 가곡과 멕시코의 칸시

온은 이상하게도 낭만주의 가곡으로서 유사성이 큼. 비록 멕시코의 멜로디가 좀 더 화려하고 리듬도 경쾌하지만 양국의 노래는 번안해서 부르면 양국 국민들에게 모두 어필할 수 있음. ‘라 팔로마’나 ‘제비’ 같은 노래가 한국에서 대중적으로 널리 불렸던 것을 연상해보면 이해가 될 것임. 20세기 초엽의 멕시코 음악도 우리와 비슷한 낭만주의 정조에 한(恨)이 뒤섞여 있음.

- 난타 류의 공연: 아프리카 흑인이 들어갔던 대서양 연변 국가들(브라질, 콜롬비아 등)에서는 타악기 연주가 발달하여 있기 때문에 사물놀이로는 큰 흥미를 주지 못함. 이를 좀 더 현대적으로 각색한 난타 류의 공연이라면 그들에게 매우 독특한 감흥을 줄 것임. 브라질의 아프리카 타악기 연주자(예컨대 Nana Vasconcelos)와 한국의 무속음악을 결합하는 것도 색다른 감흥을 줄 것임.

- 고추의 여정(Pilgrim Food Chile or Pepper): 한국의 김치, 고추장 등 고추를 이용한 음식의 여정을 한국-멕시코 양국이 기획하여 국제음식제전을 기획함. 고추의 원산지는 멕시코임. 고추의 종류는 수없이 많고, 그것을 이용하는 방식도 동남아, 한국, 멕시코, 미국 등 지역마다 다양함. 멕시코 사람은 사과에 고춧가루를 뿌리고, 한국 사람은 고추를 고추장에 찍어 먹음. 더운 지방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아주 매운 고추를 간장에 조금 넣어 미각을 자극함. 미국 사람들은 타바스코 소스만 즐길 뿐임. 고추 음식 기획전을 통해 자연스레 김치와 고추장을 국제화하고, 또 할라피뇨의 맛을 우리 국민들에게 선사하면 서로 도움이 될 것임.

4) 문화외교 전문가 양성과 외국기관의 벤치마킹

○ 라틴아메리카의 현지 공관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문화외교에 대한 관심은 대단히 낮은 것으로 나옴. 공관 직원들이 영사, 정무, 경제 관련 업무 등에 과도한 시간을 소비하므로 문화외교에 관심을 질 수가 없음.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한국의 브랜드를 소비하게 만들고, 또 그들에게 우리들을 이해시키는 최선의 방식은 문화적 코드를 공유하는 것임. 아직까지 한국 사회 전반에 문화외교에 대한 인식이 낮고 타 문화에 대한 감수성도 낮은 편임. 특히 제3세계 지역의 문화 전문가는 찾기도 힘들.

○ 하지만 프랑스와 같은 문화외교 모범국가의 전범도 있음. 프랑스의 라틴아메리카 외교를 보면 문화외교가 중심축의 하나라고 할 정도로 많은 재원을 소비함. 프랑스 외교부 예산 전체의 1/3이 문화외교에 투입된다고 함. 문화외교를 담당하는 기구도 대단히 다양하다. 국제협력개발총국(DGCIID), 알리앙스 프랑세즈, 쿼튀르프

랑스(Culturefrance: 구 AFAA: L'Association Francaise d'Action Artistique), 에뒤 프랑스(Edufrance), 라디오 프랑스 앵테르나쇼날(RFI), Maisons des Amerique Latine, 라틴아메리카 주요 도시마다 개설되어 있는 프랑스 문화원 덕분에 라틴아메리카에서 프랑스의 인기는 여전함.

○ 계몽주의 시대와 프랑스 혁명기부터 자유, 평등, 박애의 이념을 전파했고, 가까이 있는 기독교민주당의 이념적 기초가 된 바 있는 자크 마리탱이란 사상가를 배출한 프랑스였기에 라틴아메리카 인들에게 프랑스적인 것은 여전히 선망의 대상임. 알리앙스 프랑세즈는 1880년대부터 대륙의 각 도시에 세워지기 시작했음. 프랑스는 그만큼 문화적 유산도 풍부하지만 앞에서 보았듯이 전문가 양성과 제도 유지에 많은 돈을 쓰고 있음. 물론 이 분야의 중복 투자에 대해 논란이 끊이지 않음. G-8의 다른 국가들의 문화외교와 달리 외교부의 통제가 강한 “관리된 공식문화”로 자리를 잡아서 오늘날 효능성이 떨어진다는 비판(Lawrence 2008: 22)도 있음. 하지만 선진적 문화외교의 전범으로서 벤치마킹을 할 부분이 많음.

○ 무엇보다 지역전문가와 문화 연구자들을 많이 길러야 함. 문화홍보를 담당하는 사람은 문화예술 종사자로서 언어를 훈련받은 사람이어야 함. 라틴아메리카에서 노벨상을 받은 옥타비오 파스, 네루다 모두 문화외교의 첨병에 있었던 사람들임. 멕시코의 파스가 인도 대사를 지냈고, 칠레의 시인 파블로 네루다가 직업외교관으로 프랑스 대사까지 지낸 사람이란 점은 사람들은 잊음. 그들이 문학상을 받았던 배경에는 작품성도 있지만, 탁월한 문화외교의 역량도 무시하지 못함. 국가는 유능한 문화예술인 일수록 외국에 많이 내보내 많은 경험을 쌓게 하고 그들이 국가에 더 큰 기여를 하게끔 만들어야 함.

제 5장 권역별 연구: 러시아·중앙아시아 권역

Ⅰ.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의 국제관계

1. 서구의 먼 이웃

○ 한국이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국가와 문화교류의 정치적 조건을 위해 가장 고려해야 할 요소가 이들 국가의 지정학적 조건임.

○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지역은 지정학적으로 다른 구 공산권 국가에 비해 서구와의 연결성이 낮음.

○ 이러한 지정학적 조건은 이 지역의 정치제도 발전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음.

○ 서유럽 및 미국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는 중앙 및 남동 유럽의 구 공산권 국가들과 달리, 이 지역 국가에서는 민주주의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음.

– 폴란드 헝가리 등은 서유럽과 밀접한 인적 문화적 교류와 함께 EU에 가입이라는 국가발전 전략에 힘입어 서구식 민주주의를 상당정도 수립했음.

– EU가 가입의 조건으로 민주정체 수립을 엄격히 적용했고 서유럽에 인접한 구 공산권 국가 엘리트는 좌우를 막론하고 EU가입이 국가의 번영과 발전을 위한 지름길이라는 동의.

– 이 결과 슬로바키아와 루마니아의 권위주의 통치자마저도 선거제도를 존중했음.

– 이와 함께 보다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더라도 동유럽의 국가들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위한 훨씬 우호적인 역사적 조건을 지니고 있음.

– 유럽의 외곽에 존재한 발칸 국가의 경우도 미국과 유럽의 직접적 관심의 대상이었다(Way 2006).

○ 이와 달리 우크라이나와 발틱 국가를 제외하고 구소련국가 중 어떠한 국가도 유럽연합이 제시하는 민주정체 조건에 직면하거나 발칸에서 보여준 서구의 거대규

모의 군사적 활동을 경험하지 않았음.

○ 러시아를 비롯한 중앙아시아의 국가들은 서유럽과의 밀접한 접촉이 어렵고, 제도, 국가정체성, 경제제도 등에서 서구적 기준에서 멀어져 있음.

○ 종교적으로 러시아의 그리스 정교, 중앙아시아의 무슬림은 유럽과 문화적 이질성을 더욱 강화하고 있음.

○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유럽의 OSCE(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에 받아들여졌지만 이 지역에 대한 유럽의 관심은 전적으로 에너지 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는 것임.

○ 최근 이 지역에 대한 서구, 특히 미국의 관심은 아프가니스탄의 이슬람 무장 세력을 축출하기 위한 군사작전이 시작되면서 강화되고 있음.

○ 중앙아시아에서 급진적 이슬람 세력의 성장을 막기 위해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미국의 관심은 정치적 경제적 안정성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음.

○ 클린턴 정부의 경우 Nato's Partnership for Peace and the Central Asian Economic Community(CAEC)과 같은 다자적 제도를 통해 이를 달성코자 함.

○ 미국 내 중앙아시아 정책에 대한 논쟁으로 다자적 접근에 반대하면서 우즈베키스탄을 지역हे게모니국가로 부상시키는 방안이 제안됨.

○ 하지만 테러와의 전쟁을 정점을 지나면서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관심과 영향력은 쇠퇴.

2. 러시아의 부상

○ 러시아 정책담당자들은 소련의 붕괴 직후 중앙아시아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독립국가연합(CIS)에 의거해서 다변적 지역협력체를 구축하여 자신의 영향력을 유지 강화하려 했음.

○ 하지만 이러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노력을 기울일 여력을 옐친의 러시아는 지니지 못했음.

- 옐친의 러시아는 혼란과 실패의 연속.

- 의회와의 힘겨운 권력투쟁에서 승리한 옐친은 일관된 시장개혁을 추진하기 보다는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익집단에게 다양한 이권을 양보하는 정책을 추진.

- 이 결과 러시아의 산업 활동은 저조했고, 러시아의 국가재정은 파탄(한병진 2005).

○ 이러한 국내정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러시아는 1990년대 줄곧 자신의 전통적 영향권 내 국가들과의 관계에 소홀.

○ 옐친은 CIS라는 제도적 끈을 이용해서 자신의 영향력을 유지하려 하지만 국내정치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이러한 노력들은 수포(Brill Olcott 2005).

- 옐친 정부에서 눈에 띄는 노력은 집권 말기 러시아의 부호 베레조프스키를 CIS의 행정비서로 임명하는 정도.

- 이 역시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CIS는 껍데기뿐인 조직으로 남았음.

○ 잠시 후 논의하겠지만 러시아의 다변적 제도 구축은 중앙아시아 국가의 국가 전략과도 상충.

○ 중앙아시아 각국은 자신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다른 국가와 쌍무적 외교관계를 수립하면서 러시아의 노력은 별 다른 성과를 얻지 못함.

○ 하지만 러시아는 가스과 석유 관련 산업기반을 통해 중앙아시아 국가에 대한 영향력의 끈을 유지할 수 있었음.

-러시아 가스수송관 독점회사는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투르메니스탄의 가스 운송에 높은 대가를 요구.

○ 중앙아시아에 산재된 러시아인 역시 러시아 정부가 이 지역에 개입할 주요한 이유.

○ 10여년 진행된 러시아의 쇠락은 푸틴의 집권을 전후하여 반전.

– 푸틴은 올리가히와 조건부 협동을 통해 시장경제 질서를 안정화시키고 국가 재정을 정비.

– 이와 때를 같이 하여 세계석유시장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러시아 경제는 빠르게 회복.

– 이를 배경으로 푸틴은 기존에 중앙권위에 심각히 도전했던 지방 정치 엘리트를 성공적으로 통제하면서 무분별한 지방분권화에 제동을 가함.

– 국내 정치 및 경제의 안정화로 인해 푸틴에 대한 국민적 지지는 확고해지면서 크레믈린은 권위주의화 함(Jack 2005).

○ 이러한 국내 정치 경제의 변화와 함께 러시아는 적극적으로 주변 지역에 대해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

○ 러시아의 경제력과 천연자원을 이용한 압박과 함께 이전과 차원이 다른 군사 개입마저도 주저하지 않음.

○ 최근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한 일련의 사건들, 우크라이나와의 가스분쟁, 그루지야의 무력침공, 키르기즈스탄의 재정지원 등은 주변국가에 대한 러시아의 적극적 개입의지를 보여줌.

○ 특히 중앙아시아에서 러시아는 미국 등과 각축을 벌임.

– 9/11 사태 이후 미국은 중앙아시아에 대한 전략적 거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고 러시아는 당시 분위기 하에서 어쩔 수 없이 미국의 움직임을 용인했음.

– 하지만 푸틴정부가 러시아 국내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면서 중앙아시아 정부에 대한 보다 강도 높은 개입정책을 구사.

– 예를 들어 미국이 군사적 거점으로 이용코자 한 키르기즈스탄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해 러시아는 미국의 의도를 좌절시켰음.

○ 미국이 우즈베키스탄을 테러와의 전쟁에 이용하는 와중에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 지고 있음.

– 미국의 군사기구에 인접한 지역에 제한적이거나 러시아 공군기지가 신설되고 양국은 2005년 9월 대테러 합동 군사훈련마저 실행함.

– 우즈베키스탄의 대통령 카미로프의 딸이 러시아 주재 대사관에 고문으로 상

주하고 있다는 사실이 양국의 관계 증진을 상징적으로 보여줌.

○ 러시아의 국내경제가 회복되면서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국가의 경제적 유대 역시 깊어지고 있음.

– 러시아는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즈스탄 정부와 공동경제구역을 형성할 것에 2003년 합의.

–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은 가스합작회사를 2002년 설립.

– 러시아 국영 전기회사는 2004년 수력발전소 건설에 대해 키르기즈스탄 정부와 합의.

– 만약 이 수력발전소에 대한 러시아의 통제권이 일정 정도 부여된다면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의 수자원에 대한 전략적 영향력을 얻게 됨. -이 양국은 키르기즈스탄을 관통하는 이 지역 하천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임(Brill Olcott 2005, 192-6).

3. 중앙아시아의 외교노선: 세력균형을 통한 이익 추구

○ 이 지역에서 한국 문화외교의 전략과 실효성을 검토하기 위해 중앙아시아 국가의 외교노선의 특징을 이해할 필요가 있음.

○ 중앙아시아는 편승의 전략이 아닌 세력균형의 전략을 펼침.

– 앞서 언급했듯이 동유럽의 탈공산 국가와 달리 뚜렷한 대외 정책노선이 부재함. -동유럽 국가들이 유럽연합에 편승하는 전략과 달리 세력균형을 적절히 이용하면서 다양한 국가와 양자관계를 형성하여 대내외적으로 정치적 자율성과 협상력을 제고하고자 함.

– 스스로 지역 강국의 반열에 오를 능력이 없는 중앙아시아 국가의 집권세력에 주변 강대국 사이에 위치한 지정학적 위치와 이를 이용한 세력균형 외교노선은 권력 유지에 상당히 효과적임.

– 이러한 이들 국가의 외교노선으로 인해 지역 국가들과 주변 강대국 사이에 다양하고 복잡한 합종연횡이 발생.

○ 중앙아시아 국가는 서구 민주주의 국가와 깊이 관계를 형성하는 것에 조심스러움.

– 중앙아시아내 국가는 안정성 정도에는 차이가 있으나 모두 권위주의 정권에

속함.

- 따라서 이들은 미국과의 깊은 연계가 자국의 민주화와 정권변동을 초래할 것을 우려.

- 예를 들어 소로스가 이끄는 재단은 공공연히 중앙아시아 국가의 민주화를 주창하며 활동해 왔음.

- 우즈베키스탄은 미국이 야당 정치세력을 지지하는 데 반발하여 미군의 철군을 종용했음.

- 2005년 말 우즈베키스탄 하나바드 기지의 미군이 완전히 철수했음.

○ 중앙아시아는 무슬림 국가이지만 중동과의 거리는 갈수록 멀어지고 있음.

○ 무슬림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아시아 국가는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에 협조하면서 중동 국가와 정치적 입장을 달리함.

○ 미국과 유럽에 종속될 경우 발생할 정치적 위험을 걱정하는 중앙아시아 국가에게 다시금 부상하고 있는 강국 러시아는 이들 국가에겐 새로운 기회임.

○ 특히 지역 권위주의 통치자의 허약한 권력기반과 경제적 빈곤으로 인해 외부의 강력한 후원자의 지원은 독재자에게 필수 항목인데, 러시아의 천연자원과 경제적 지원은 이들을 유인하기에 충분함.

○ 그러나 러시아에 전적으로 의존할 경우 러시아의 제국적 정책에 속수무책일 수 있다는 두려움을 지님.

○ 이들은 터키와 서방의 균형자적 조력에 기대를 지니고 있음.

- 특히 터키의 역할이 주목됨.

-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은 소위 중앙아시아 터키 모형제로 불림.

- 1991년 소련의 붕괴 이후 터키는 이들 독립 국가를 자신의 영향권 하에 두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펼쳤음.

○ 하지만 터키의 범 터키 연합의 꿈은 일찍 그 막을 내렸음.

- 터키는 이들 신생 터키민족 공화국들을 통솔할 능력을 결여하고 있음.

- 터키의 후원자 노릇은 터키의 기대와 달리 신생독립국가의 독재자에게 환영받지 못했음.

- 우즈베키스탄의 독재자 카리모프는 터키의 정치적 간섭을 우려하여 터키에서 공부하고 있던 자국 학생 모두를 철수시킴.

○ 이러한 갈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터키 오공화국과 터키의 인적 물적 교류는 진행형임(Fuller 2008).

○ 아제르바이잔은 언어적으로 문화적으로 터키와 매우 밀접.

- 터키는 아제르바이잔에 학교와 대학을 설립하고, 군사학교와 군사교육을 제공하고 에너지 파이프라인을 건설함.

- 아제르바이잔과 터키는 에너지 파이프라인을 통해 경제적으로 밀접히 결합되어 있음.

- 이와 함께 바쿠와 이스탄불을 철도로 연결하는 협상이 진행 중임.
- 아제르바이잔이 이란과 2001년 석유 탐사권과 관련된 분쟁을 겪을 때 터키는 아제르바이잔에 군사적 지원을 약속하면서 이란은 한발 물러섬.

○ 하지만 아제르바이잔은 터키에만 전적으로 의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르메니아와 영토분쟁에서 확인.

- 아르메니아에게 영토를 잃은 아제르바이잔은 터키와 연합하여 아르메니아에 대한 봉쇄조치를 단행.

- 하지만 유럽의 압력에 굴복하면서 터키는 아르메니아와 외교관계를 복원.

- 이러한 사태를 목도하면서 아제르바이잔은 러시아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낌.

○ 중앙아시아 지역 국가들이 참여하는 상하이협력기구(SCO)를 주도하는 중국 역시 이 지역의 주요 행위자임.

- 중국은 에너지 자원 문제와 이슬람 근본주의 등으로 이 지역에 관심을 지니고 있음.

- 최근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러시아에 에너지 산업을 전적으로 의존하기보다 중국과의 합작을 모색하고 있음.

- 최근 중국석유공사와 우즈네프찌가스사는 연간 300억㎥의 가스를 중국으로 공급하기 위한 530km의 파이프라인 건설에 합의했음(주우즈베키스탄 한국대사관).

○ 여기에 더해 우즈베키스탄은 최근 나토와의 협의를 통해 보다 나토군의 주둔을 보다 광범위하게 허용하고 있음.

○ 소결

- 중앙아시아의 경우 러시아, 중국, 터키, 미국 유럽 등이 각축을 벌이고 있음
- 중앙아시아 국가는 이들을 이용하여 세력균형정책을 구사하면서 국내정치적 안정과 대외정책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 중임.

4. 중앙아시아의 지역 현안

○ 신생독립국가로 이루어진 중앙아시아는 다양한 지역 현안을 지니고 있음.

○ 대부분의 지역 현안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허약한 통치능력을 지닌 약한 국가이고 경제체제 전환에 실패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임.

○ 허약한 통치능력, 경제적 빈곤, 권위주적 통치로 인해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급진적 이슬람 운동에 취약함.

○ 이들은 또한 지역을 관통하는 하천을 둘러싼 분쟁 등 지역 내 협력 수준이 아직 미비함.

○ 약한 국가의 허약한 국경 수비 능력으로 인해 마약 및 무기 밀매, 난민의 무분별한 이동 등의 문제가 발생함.

- 마약, 무기, 전쟁난민 등이 느슨한 국경선을 통해 자유롭게 이동한다는 점.
- 소련이 무너진 이후 이들 지역 국가들은 국경선에 대한 공식적인 경계에 합의하고 있지만, 이들 국가들은 자신의 국경선을 방어할 능력을 제대로 지니고 있지 못함.
- 20,000명 이상의 러시아 군이 타지키스탄의 남부 국경선을 방어하고 있음.
-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즈스탄의 국경에는 중국으로부터 넘어온 물품들로 가득한 암시장이 형성되어있음.

○ 현재 중앙아시아의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강력한 대통령이 정치적 물리적 이

유로 권좌에서 물러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혼란임.

- 국가제도가 허약한 상태에서 중앙아시아 국가의 버팀목은 강력한 대통령의 권위주의 통치력임.

-이 버팀목이 흔들릴 경우 중앙아시아는 급격히 정치적 혼란의 소용돌이에 휩싸일 수 있음.

<표 5-1>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정치적 지표

	자국영토의 안보	효율적 경제체제	민주화 정도	합계
카자흐스탄	1	1	0	2
키르기즈스탄	0.5	0	0.5	1
투르크메니스탄	0.5	0.5	0	1
우즈베키스탄	0.5	0.5	0	1
타지키스탄	0.5	0	0	0.5

출처: Andrei Tsygankov, "Modern at last? Variety of weak states in the post-Soviet world," *Communist and Post-Communist Studies* Vol. 40, 2007.)

5. 중앙아시아 국가의 문화와 문화정책

1) 중앙아시아 국가의 문화

○ 중앙아시아는 이슬람권에 동화되어 무슬림화됨.

○ 아랍 군에 정복되어 이슬람으로 개종됨.

○ 러시아 제국이 16세기 이후 이 지역으로 팽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슬람이 강화됨.

○ 소련의 종교말살정책에도 불구하고 중앙아시아국가는 이슬람의 정체성을 유지함.

○ 즉 종교적으로 러시아와 중앙아시아는 뚜렷이 분리됨

2) 최근 중앙아시아 국가의 문화정책

○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소련으로부터 독립 후 모국어를 국가의 공식 언어로 선포.

○ 아직까지 모국어가 러시아어를 완전히 대체하지 못하고 있음.

○ 각 국은 자신의 민족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언어 문화정책을 제시.

○ 카자흐스탄

- 1997년 카자흐스탄으로 헌법으로 카자흐어를 유일한 국어로 선포.
- 국가 공무원은 카자흐어를 알아야함.
- 러시아어 사용자의 공용어 요구를 무시함.
- 카자흐어를 통한 민족차별정책
- 수도 이전을 통해 거주 러시아인의 정치적 세력의 약화를 도모

○ 키르기즈스탄

- 1996년 헌법을 통해 키르기즈어를 국어로 채택
- 러시아어 사용자의 해외이주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러시아어의 지위를 강화하는 법률적 조치를 마련함
 - 하지만 러시아어를 키르기즈어와 동등하게 대우코자 하는 법률안 부결
 - 1998년 대통령은 국어에 대한 국가위원회를 설치하여 모국어 발전과 교육을 도모함.

○ 우즈베키스탄

- 우즈벱어를 국가공용어로 규정함
- 국가공무원이 되기 위해 우즈벱어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함
- 러시아어 신문의 발행을 중단시킴

II.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의 국내 상황 및 한국과의 교류 현황

1. 러시아

1) 러시아 정치와 경제

○ 동서로 넓게 펼쳐진 러시아는 현재 석유가격의 고공행진 등에 힘입어 1990년대 초 피폐한 경제를 극복하고 강대국의 위상과 역할을 수행코자 하고 있음.

○ 지난겨울 금융위기로 인해 세계경제가 위축되면서 러시아 경제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석유가격의 회복과 함께 러시아 경제는 빠르게 회복하고 있음.

○ 2000년 이전의 러시아 경제의 어려움

- 1991년 고르바초프의 소련이 무너진 이후 러시아 초대 대통령 엘친은 과감한 시장개혁을 통해 공산주의 유산으로부터 탈출을 시도했음.

- 하지만 그의 이러한 노력은 초반부터 강력한 이익집단의 집단적 저항에 부딪히면서 실패함.

- 대통령과 의회의 이중권력 상태가 1993년 신헌법이 탄생하기까지 지속되면서 크레믈린은 전통적 공산경제 엘리트, 신흥경제 엘리트, 지방정치엘리트 등에 다양한 정치적 경제적 양보를 하게 됨.

- 특히 신흥경제 엘리트는 정치적으로 허약한 엘친으로부터 거대한 경제적 이득을 확보하면서 올리가히로 부상함(한병진 2005).

- 특히 이들의 부상에 결정적 계기가 된 것이 바로 1995년 현금사유화임.

- 현금사유화를 통해 기존 러시아 산업의 최고 기업들이 하나둘씩 사유화됨.

- 시장개혁의 실패로 인해 러시아 국내 정치 경제는 극심한 혼돈과 쇠퇴를 경험함.

○ 이러한 사태전개는 푸틴의 등장과 함께 반전된다.

- 푸틴은 올리가히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중앙권력을 정비하고 국가재정을 건실히 함.

- 이와 함께 러시아 중앙정부에 도전적인 지방정치엘리트를 선거법 개정, 통합 러시아당의 조직을 통해 강하게 통제함.

- 2004년 3월 푸틴에 대한 두 번째 선거에서 러시아 국민들은 푸틴에게 표를 몰아주었음.

- 71%의 지지로 재선된 푸틴은 기존 러시아 엘리트를 압박하여 다양한 정치적 경제적 양보를 얻어내고 있음.

○ 2008년 러시아 대선을 통해 푸틴의 후계자로 지명된 통합러시아당의 메드베데프가 새로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음.

– 메드베데프에 대한 지지율은 70%로 아주 높음.

– 이는 푸틴에 대한 정치적 지지를 의미함.

– 총리로 자리를 옮긴 푸틴과 푸틴의 후계자로 지명된 메드베데프의 이원 집정부제가 상당정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대통령 예비선거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는 2007년 총선에서 64%의 득표율을 앞세우면서 315석이라는 압도적 의석을 확보했음.

– 이는 헤게모니 정당질서가 러시아에서 자리 잡았음을 의미함.

2) 한국과 러시아의 경제 교류

○ 러시아 신흥시장은 한국 제조품의 주요 수출 창구.

○ 또한 러시아의 풍부한 천연자원 등 러시아로부터의 수입 역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음.

○ 러시아는 공산주의 유산으로 인해 경공업 분야가 매우 취약함.

○ 사실 이러한 취약성을 파고들어 한국의 삼성과 LG는 러시아 내 휴대폰 에어컨 등에서 상당한 시장 점유율을 과시하고 있음.

○ 특히 1998년 모라토리엄과 함께 외국 기업이 철수 했지만 삼성과 LG등 한국의 대기업은 현지에 남아 시장점유율을 크게 신장시키고 있음.

○ 러시아에 대한 한국 기업의 수출입은 급속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 러시아가 금융위기를 경험한 1997년 1998년 1999년을 제외하고 수출입총액은 연 50% 정도 확장되고 있음.

– 한-러 교역액은 2008년의 경우 수출 97억불 수입 83억불로 총 180억불 상당의 교역량을 기록하고 있음.

– 특히 한국의 LG와 삼성의 공격적인 투자는 러시아 시장에서 해외 경쟁기업을 제치고 시장점유율을 크게 신장시키면서 경쟁적 우위를 확고히 하고 있음(김석

환 2009)

3) 러시아의 한국문화 수용성

- 러시아의 정치문화는 서유럽과 매우 다른 발전 경로를 취했음.
 - 서유럽의 봉건 역사에서 귀족이 왕권에 반대하면서 정치적 자유주의를 확고히 함.
 - 반면 러시아는 이반뇌제가 귀족과의 권력 투쟁에서 완전히 승리하면서 귀족은 국가에 예속됨.
 - 토지는 국유화되고 귀족은 국가에 복무하면서 자신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음. 이는 정치적 자유주의의 발전을 위한 기초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의미함.
 - 이후 러시아 지식인을 포함 한 엘리트에게 최대의 정치적 과제는 인민에 의한 정부가 아닌 인민을 위한 정부를 건설하는 것이었음.
 - 이렇듯 러시아의 정치문화는 서유럽에 가깝기 보다는 아시아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음.

○ 특히 러시아는 1991년 서구식 자유주의 개혁이 재앙에 가까운 정치적 경제적 결과를 가져오면서 자신의 유라시아적 정체성에 대해 새로운 관심을 표방하고 있음.

○ 옐친 초기 과도한 친서방적 제도개혁이 실패하면서 러시아의 유라시아적 전통을 재정립코자 지식인들과 정치인들의 작업이 진행되고 있음.

○ 러시아는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임.

○ 법에 의거한 비인격적 문제해결이 아니라 면식과 친소관계가 사회적 갈등의 해결기제임.

○ 이러한 사회문화적 조건은 한국 문화에 대한 수용성이 양호하다는 점을 의미함.

4) 문화교류 현황

○ 러시아 중앙아시아 국가 중 유일하게 러시아에 한국문화원이 설치되어 있음.

- 이를 반영하듯 러시아와 한국의 문화교류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 1992년 한-러 간에 공식적인 문화교류 협정이 체결되었음.
- 현재까지 러시아의 각종 발레단과 교향악단이 한국에서 공연했음. 이는 한국의 러시아 문화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함.
- 2004년 서울이 “모스크바의 날” 모스크바가 “서울의 날”을 지정하고 다양한 문화행사를 펼침.

○ 하지만 러시아 정부가 평가하듯이 러시아의 예술 공연은 한국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해, 러시아에서 한국예술 공연은 미비한 실정임(주한 러시아 대사관).

2. 카자흐스탄

1) 개관

○ 카자흐스탄은 유럽과 중국을 연결하는 실크로드에 위치한 국가로서 석유자원이 풍부함.

○ 러시아와도 길게 국경을 인접하고 있음.

○ 석유자원이 풍부하다는 것은 여러 가지 제도적 함의를 가진다.

- 무엇보다 풍부한 석유자원으로 인해 국가 내 엘리트의 권위주의적 지배는 안정됨.

- 석유자원을 통해 쉽게 통치자원을 확보하여 국가의 사회통치 및 억압능력을 배양할 수 있음.

○ 중앙아시아 국가의 일반적 특징으로 강한 지역주의를 들 수 있다. 지역을 중심으로 엘리트가 형성되었음.

- 이는 소비에트 유산에 기인한 바가 큼.

- 소비에트체제에서 각각의 소비에트 공화국은 oblast로 구분되어 있음.

- 중앙아시아의 경우, 소비에트 정부는 의도적으로 행정적 영토적 경계를 정치적 총원, 중앙의 경제적 정치적 자원의 분배의 기본 단위로 사용했음.

- 모스크바는 공화국 내 정치적 통제를 유지하기 위해 각 공화국 내 지역 간 경쟁을 부추겼음.

- 사실상 지역 간 갈등이 다른 대체 갈등선인 종교나 부족 등의 갈등선을 대체했음.

- 부족 내 후원자 수혜자 관계는 지역 내 지도자와 지방행정단위의 관계로 변형되었음.

○ 하지만 이러한 경쟁적 엘리트의 갈등을 카자흐스탄의 대통령 나자르바예프는 성공적으로 억압하면서 정권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음.

- 소련연방 당시 카자흐스탄 지역공화국 총서기장 출신인 나자르바예프는 소련 붕괴 이후 자신의 권력기반을 확대함.

- 개인 족벌체제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있음.

○ 카자흐스탄은 러시아와 강한 경제적 유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음.

- 카자흐스탄은 인종적으로 가깝고 지리적으로 인접한 터키와 상당한 정도의 무역거래가 있음.

- 하지만 카자흐스탄은 러시아와 독점적으로 석유거래를 하고 있음. 이로 인해 카자흐스탄 석유수송에 대한 터키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의 협상 Baku-Tbilisi-Ceyhan을 연결하는 석유수송 파이프라인 협상은 좌초했음.

2) 카자흐스탄과 한국의 교류

○ 현재 아스타나에 한국 대사관이 상주하고 있고 영사(비상시)가 업무를 관장하고 있음.

○ 알마티에 대사관 분관이 있음.

○ 다수의 고려인과 높은 경제적 가치를 반영하듯 타 중앙아시아 국가에 비해 한국의 정부기구가 나름 정비되어 있음.

○ 한국 교육원, 한국 석유공사, KOTRA, 광업진흥공사가 주재하고 있음.

○ 외곽단체로 한인회와 고려인 협회가 조직되어 있음.

○ LG 전자, 삼성전자, 대우전자, 삼성물산, SK 에너지, LG상사 등 한국 대기업의 주재상사가 상주하고 있음(주카자흐스탄 한국대사관).

○ 한국과 문화교류 협정이 체결되어 있음.

3. 우즈베키스탄

1) 우즈베키스탄의 정치와 외교: 다양한 양자적 관계추구

○ 우즈베키스탄은 현재 절차적 민주주의가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음.

– 예를 들어 2004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친대통령 당들만이 등록이 허용되었고, 진성 야당의 선거참여는 거부되었음.

– 대중매체는 정부의 강력한 통제 하에 있음.

– 카리모프 대통령은 1995년 국민의 절대적 지지를 등에 업고 재선된 후 2002년 국민투표를 통해 헌법을 수정하여 7년 연임을 달성했음.

○ 1999년 이후 우즈베키스탄의 이슬람 운동(Islamic Movement of Uzbekistan IMU)은 카리모프 정부를 전복하기 위한 군사적 행동을 감행했음.

– 이들은 정부의 실정에 반대하고 만연한 부패를 척결코자 정치운동을 일으킴. 하지만 이들의 노력은 정부의 물리적 탄압을 불러일으킴.

– 이러한 상황 전개 속에서 중도적 이슬람주의자들 역시 급진세력으로 쏠리면서 급진 이슬람의 세가 확장되고 있음.

– 모든 정치적 결사가 금지된 가운데 정부에 반대하는 세력들은 이슬람 사원을 중심으로 집단행동을 하면서 급진 이슬람세력과 권위주의 정부로 양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Jones Luong and Weinthal 2002).

○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다양한 양자적 외교관계를 통해 국익을 추구하는 외교 노선을 취하고 있음.

– 초기 터키 정부와 협력관계를 유지했지만 터키에 지역헤게모니를 상실할 것을 우려하여 이후 터키 정부와 거리를 두었음.

– 중앙아시아에 대한 영향력을 제고코자 하는 터키를 잠재적 도전자로 인식하고 있음. 9/11 테러 이후 미국과 우호관계를 증진했음. 우즈베키스탄은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는 아프카니스탄과 국경을 맞대고 있음. 2000년대 초 알카이

다와 탈레반과의 전쟁을 위해 부시행정부는 아프카니스탄의 카리모프와 전략적 거래를 했음.

- 우즈베키스탄은 지역 국가 중 교통체계가 잘 완비되어 있고 공군기지를 완비하고 있어 미군 주둔과 항공기 기지 역할을 수행했음.

- 이 대가로 2001년 미국은 25만 불을 지불하여 우즈베키스탄의 무기구입을 지원했음.

- 장기적으로 우즈베키스탄의 경제문제를 해결해 주는 데에 합의가 이루어졌음.

- 그러나 2005년말을 기점으로 하여 미국과의 우호관계는 식기 시작했음.

○ 미국의 내정 간섭을 우려하면서 카리모프는 자국의 안전을 러시아에 기대고 있음.

- 앞서 언급했듯이 러시아에 제한적이나 공군기지를 허용해주었고 합동 군사훈련도 실행했음.

○ 이와 함께 중국과 나토와도 양자적 협력관계를 증진시키고 있음.

2) 한국과의 교류

○ 한국은 우즈베키스탄에 다양한 유무상지원을 제공하고 있음.

- 2007년까지 총 1억 7백만 불의 무상원조가 한국으로부터 제공되었음.

- 한국이 지원한 41개국 중 8위에 이르는 양임.

- 한국의 지원은 통신망구축, 직업교육, 도서관 건립, 태권도등 국내초청 연수, 전문 인력 파견 등임.

○ 한국과 문화교류협정이 체결되어 있음.

○ 양국 간의 경제 교역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그 증가속도가 빨라지고 있음.

- 2007년 한국의 총수출액은 7억7천8백만 불에 이른다. 무역거래 뿐만 아니라 한국의 직접투자 역시 상당액에 이룸.

- 사실상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의 투자액이 아시아 국가 중 1위임. - 주된 투자부문은 제조업 분야이며, 총 누계 액이 2007년까지 961.8백만 달러임.

4. 키르기즈스탄

○ 키르기즈스탄은 5백 사십만의 인구 중 68%가 키르기인이며, 다음으로 우즈베키스탄(14%)과 러시아(12%) 출신자들임.

○ 전체 인구의 75%가 무슬림.

○ 최근 톨립혁명을 경험했음.

– 톨립혁명은 수만 명의 군중이 도시에 운집하면서 아카예프 권위주의 정권을 무너뜨린 사건.

– 이는 키르기즈스탄의 국가권력의 허약성을 여실히 보여줌. 소위 민주화세력이 강해서가 아니라 국가의 기본적 억압능력이 약해서 톨립혁명이 발생.

– 키르기즈스탄 정부는 억압자원을 축적할 자원이 부족했음.

– 예를 들어 키르기스탄 경찰은 자신이 직접 제복과 경찰순찰차의 연료를 구매해할 정도임.

– 이 결과, 남부 키르기즈스탄의 경찰이 톨립혁명 당시 군중과 약속을 맺고 이들이 지방정부 센터를 공격할 때 수수방관했음(Jones Lugong and Weintal 2002).

○ 키르기즈스탄은 우즈베키스탄 등과 달리 공산정권이 붕괴한 뒤 대규모 사유화를 단행했음.

– 이는 지배자의 통치능력을 더욱 악화시켰음. 사유화를 단행함으로 해서 국가재정의 안정적 확보수단이 사라졌지만, 시장경제의 이점은 발생하고 있지 않음.

○ 키르기즈스탄은 특별히 터키와 많은 교류를 진행하고 있으며 강한 우호선린 관계를 보이고 있음.

– 터키는 이 지역에 우수한 고등학교를 설립했고 군사훈련을 제공하고 있음

– 1000명 이상의 키르기즈스탄 출신 학생이 터키대학에서 학업을 수행하고 있음.

5. 타지키스탄

○ 이 나라 역시 정권의 분류상 권위주의에 속함.

○ 구 공산권의 붕괴 후 대규모 사유화를 피하면서 국가통제 경제의 기본 틀을 유지하고 있음.

○ 타지키스탄은 한국의 자원외교에서 주요한 관심의 대상임.

– 알루미늄, 면화, 금, 은, 석탄, 우라늄 등 다양한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음.

– 한국은 주로 승용차, 기계류, 전자제품 등 총 천4백만 불을 2006년 당시 수출하였음.

– 아직 두 한국 업체만이 이 지역에 진출.

○ 한국정부는 이 지역에 19993년부터 2007년간 총 천140여만 달러 상당의 무상원조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물자지원, 연수생 초청 등의 형태로 무상원조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2008년 2월에 한국대사관이 개설되었고 주중국 대사관이 겸임하고 있음.

6. 트루크미에니스탄

○ 천연가스가 국가재정의 주원천임.

○ 2006년까지 투르크메니스탄의 지도자는 니야조프였고 현재 Gurbanguly Berdimukhamedov가 통치하고 있음.

○ 현재 이 지역의 가스 파이프라인이 어디로 갈 것인가를 두고 러시아, 미국, 유럽연합, 이란, 터키 중국이 경합을 벌이고 있음.

– 워싱턴과 유럽연합은 기술적으로 어렵지만 카스피안을 통과해서 아제르바이잔과 터키를 경유하는 파이프라인 건설을 설득하고 있음.

– 이란은 이 지역 가스가 이란을 경유하여 터키를 통해 서방에 수출되기를 희망하면서 러시아와 충돌하고 있음.

– 중국은 트루크미에니스탄과 맺은 가스 공급협정에 기대를 걸고 있음.

7. 아제르바이잔

○ 아제르바이잔의 90%가 아제리인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들은 거의 대부분 무슬림임. 아제리어 거의 75% 정도가 터키어와 흡사하여 터키인과의 의사소통이 어렵지 않음.

○ 아제르바이잔은 구소련 공화국 중 안정적인 권위주의 국가에 속함.

– 안정적 권위주의의 기초에는 흑해의 풍부한 석유가 있음.

– 소련시절 이 지역 공산당 서기장이었던 알리에프는 1993년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으로 석유자산을 통제하면서 정치질서를 확립하고 1998년 손쉽게 재선에 성공함.

– 이후 건강이 악화되면서 자신의 권력을 아들 일함 알리에프로 성공적으로 넘겼음.

– 정치적 반대세력은 정치적 도전에 실패했음.

– 2005년 총선에서도 집권당은 정치적 성공을 이어감.

8. 아르메니아

○ 아르메니아는 97%가 아르메니아인.

○ 역사적으로 아르메니아인은 터키와 불행한 역사를 지니고 있다.

○ 아르메니아에서 공산권 붕괴 후 가장 주목할 만한 역사적 사건은 나고르노-카라박 지역을 둘러싼 아제르바이잔과의 전쟁.

– 이 전쟁에서 아제르바이잔 영토의 20%를 획득. 이 전쟁을 통해 당시 집권세력은 위신과 통치능력을 제고할 수 있었음.

○ 1996년 대통령 선거 이후 발생한 시위를 퇴역군인 조직이 진압했고 이후 2003, 2004에도 이들의 주도적 역할로 부정선거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를 진압했음. 이들은 2008년 아르메니아 수도의 계엄령에도 적극 참여(Way 2008).

○ 하지만 수차례의 대규모 정치적 시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르메니아의 정치적 장래는 불확실하다고 할 수 있음.

○ 특히 엘리트의 응집성이 약함.

Ⅲ. 러시아 중앙아시아에 대한 문화외교의 전략적 방침

1. 러시아

○ 러시아는 아시아와 유럽을 걸쳐있다는 지리적 특성과 함께 그들 스스로 유럽과 다른 정체성을 구축하기 위해 유라시아주의를 표방함.

○ 서구 편향적 체제전환 노력이 실패로 막을 내리면서 러시아는 자신의 독자적 정체성과 제도를 구축코자 하면서 유라시아주의에 새롭게 주목하고 있음.

○ 중앙아시아국가에서와 마찬가지로 한국은 러시아에게 매력적인 교류대상국임.

– 러시아는 고도의 과학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당장 시장화 할 수 있는 기술력이 부족함.

– 한국은 이러한 러시아 필요성에 부응할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상호의존에서 발생하는 정치적 비용이 낮은 나라임.

– 따라서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교류노력을 매우 환영할 것임.

○ 앞서 분석했듯이 푸틴이 러시아를 정비한 이후 러시아 정부는 세계정치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음.

○ 미국의 일방주의 세계질서에 대해 불만을 노골화하면서 다양한 국가와 다변적 양자적 협력관계를 증진코자 노력함.

○ 이러한 러시아의 정부의 외교노선은 한국 문화관광부의 문화교류 노력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됨.

○ 민간 문화단체의 교류를 넘어 보다 적극적으로 정부간 정책조정을 통한 문화교류가 가능함.

1) 당정 고위관료와의 협조

- 러시아의 경우 현재 헤게모니 정당질서로 재편되고 있음.
 - 이는 다시 말해 집권당인 통합러시아당이 상당 기간 정권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함.
 - 야당이 좌우 정당으로 분열되어 있음
 - 선거경쟁에서 집권당은 유리한 전략적 위치를 점하고 있음.
 - 석유가격의 고공행진, 석유산업의 재국유화 등으로 안정적 국가재정 운용 및 경제생활 개선으로 러시아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유지하고 있음.
 - 이러한 이유로 인해 중앙 및 지방 정치엘리트는 집권당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이들은 현상유지에 강한 이해를 보이고 있음. 러시아는 집권당의 승승장구가 예상됨.
 - 푸틴이 총리로 취임한 데서 알 수 있듯이 러시아 권력엘리트의 인적 변동은 당분간 없을 것으로 예상됨.

- 이러한 정치상황과 함께 러시아 정부의 정책결정의 비공식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음.
 - 법적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고위직 인사의 자의적 권한이 상당함.

- 따라서 현재 문화정책을 담당하는 정책엘리트와 장기적 관점에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이들과의 사적 관계를 형성할 경우 다양한 정책적 혜택을 얻어 낼 수 있을 것임.

2) 대기업과의 긴밀한 협조

- 러시아 시민에 보다 쉽게 접근하기 위해 러시아 시장에서 달성한 한국 대기업의 성공에 편승할 필요가 있음.

- 국내정치 경제가 안정화되면서 러시아 정부는 다양한 경제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이는 러시아 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한 한국 대기업에 희소식이라 할 수 있음.

○ 앞서 언급했듯이 러시아 신흥시장에 대한 한국 대기업의 침투속도는 상당히 빠르고 타국 기업과의 경쟁에서 앞서고 있음.

-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듯 모스크바 크레믈린 주위에 눈에 띄는 입간판이 바로 LG와 삼성의 전자제품과 휴대폰 광고임.

- 2008년 1월 금융위기로 대러시아 교역이 주춤했지만 석유가격이 다시 상승하면서 러시아 경제의 전망은 단기적으로 밝다고 할 수 있음.

- 러시아 시장에 대한 한국 기업의 성공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 러시아 신흥시장에서 한국 대기업의 성공을 국가이미지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해야 함.

○ 필자의 개인적 경험에 따르면 러시아 동유럽 소비자가 한국 대기업을 한국과 연관시키지 못하는 경우를 발견했음. 한국 제품에 대한 우호적 반응을 한국의 이미지로 연결시키는 노력이 필요함.

○ 이들 한국 대기업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하여 이들을 통한 한국문화를 홍보한다면 효과적으로 다양한 계급 계층에게 접근할 수 있을 것임.

2. 중앙아시아

○ 이 지역 국가는 무슬림 국가이지만 권력엘리트의 종교적 편향성은 매우 약함.

○ 정치엘리트는 다양한 국가와 양자적 관계를 통해 자국과 집권세력을 이익을 도모하고 있음.

○ 이러한 외교노선은 한국 문화를 전파하고 문화교류를 용이하게 하는 국제정치적 조건임.

○ 키르기즈스탄과 타지키스탄과 달리 일정한 국력을 보유한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은 이러한 외교노선을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이들 국가에게 한국과 같은 강소국가와의 협력은 매력적이지 않을 수 없음.

- 자신들이 부족한 기술과 자본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양자적 관계에서 우려되는 종속성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임.

- 중앙아시아 국가의 입장에서 한국을 제외하고 이러한 조건을 갖춘 국가를 발견하기 어려움.

- 이를 반영하듯 중앙아시아의 지역 강국인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과 한국이 현재 밀접한 경제 교류를 진행하고 있음.

○ 러시아에 보다 경도된 카자흐스탄과 달리 우즈베키스탄은 다양한 양자적 관계를 수립코자 하기 때문에 한국의 접근성은 더욱 용이함.

○ 잠재적 지역강국의 면모를 갖춘 우즈베키스탄을 문화교류의 교두보로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아직 중앙아시아 지역에 지역 국가를 포괄하는 다변적 국제기구의 발달 정도가 미흡하지만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인종적 종교적으로 매우 유사함.

○ 따라서 이들 지역 사이의 문화의 전파속도는 신속할 것으로 예상됨.

- 이는 집중과 선택의 전략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을 의미.

○ 우즈베키스탄에 집중하여 한국의 문화를 알릴 경우 다른 지역에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이를 위해 앞서 살펴보았듯이 한국은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다양한 유무상 원조를 지속할 필요가 있음.

- 여기서 인적교류를 통해 문화교류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대규모 학생들을 유치하여 한국에서 대학교육을 받게 함으로써 한국문화를 차세대 엘리트에게 심어 줄 수 있음.

3.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에 대한 독자적 접근 필요

○ 그 이유는 중앙아시아 국가가 구소련의 구성공화국이지만 지배엘리트는 강력한 민족주의 정책과 탈러시아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기 때문.

○ 모든 중앙아시아 국가 토착어를 공용어로 채택하면서 문화정책에서 탈러시아

화를 적극적으로 추진.

- 카자흐스탄은 언어정책을 통해 러시아 엘리트층을 토착엘리트층으로 대체코자 함.
- 키르기즈 대통령은 1998년 1월 키르기즈 공화국 국어의 추가적인 발전에 관한 법령 21조를 발표하고 국어에 대한 국가위원회를 구성함.
- 우즈베키스탄은 우즈베크어를 국가공식어로 지정하고 라틴어를 통한 문자화 추진. 국민자격 요건으로 우즈베크어 구사력 요구. 러시아어 방송국 및 언론사 폐쇄.
- 트루크메니스탄 역시 트루크멘어를 공용어로 제정하고 문자개혁을 통해 키릴 알파벳에서 라틴 알파벳으로 교체 중.

○ 따라서 비용을 고려하여 기존 러시아 문화원을 통해 중앙아시아 국가에 접근하는 전략은 효과적이지 않음.

○ 한국문화 정책을 수행할 독자적 기구를 중앙아시아 지역 거점 국가에 설립할 필요가 있음.

IV. 결론

○ 러시아는 서구중심의 세계질서에 편승하기를 거부하고 있음

○ 중앙아시아국가는 세력균형 외교정책을 통해 집권세력의 이익을 증진코자 함.

○ 이러한 대외정책 노선은 한국과 한국문화에 대한 이들 정부의 수용성을 높이는 조건임.

○ 강소국가로서 한국은 이들 국가의 대외정책 노선과 국내발전 및 통치전략에 잘 부합함.

- 서구 선진국에 필적할 기술력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한국과의 상호의존이 이들 국가에게 구조적 취약성을 유발하지 않기 때문임.

○ 이들의 이러한 이해관계로 인해 한국의 정부간 문화교류에 적극적으로 응할 것으로 예상됨.

○ 민간교류를 넘어 문화교류와 관련 정부간 정책조정을 모색할 경우 소기의 성과를 예상할 수 있음.

제 6장 권역별 연구: 아시아 권역

아시아권 국제문화교류 전략 수립에 관한 연구

1. 서론

○ 오늘날 국제사회는 문화를 중심으로 한 국가 간 교류와 협력 사례들 급증

– 교통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세계화의 확산과 국가 경계의 약화는 단순히 정부 차원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의 다양한 행위자들 사이의 국경을 초월한 문화교류 활성화(Piper and Uhlin 2004, 3).

– 국제관계는 이미 1990년대부터 본격화된 탈냉전과 함께 군사·안보적 이슈로부터 경제적 이슈, 그리고 정보·기술과 문화 콘텐츠가 국가 간 우위를 결정하는 국가경쟁력의 주요한 기반 형성

– 국가 간 다양한 문화교류를 통한 이해와 협력의 방안들이 전략적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모색

○ 한편 국제관계의 새로운 흐름에 맞추어 한국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하여 외교통상부, 교육과학기술부 등의 산하 기관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국제문화교류 사업을 추진

– 한국의 국제문화교류 사업을 주도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우 산하 문화예술국, 문화콘텐츠산업실, 관광산업국 등과 한국문화원, 한국문화홍보관 등을 중심으로 전방위적 문화교류사업 추진¹⁾

– 외교통상부의 경우 문화외교국, 개발협력국, 그리고 산하 한국국제교류재단²⁾과 한국국제협력단³⁾ 등을 통해 국제문화교류의 한 몫을 담당

– 한국 정부가 국제문화교류를 활성화하는 정책적 노력 이면에는 국제평화와 협력에 이바지한다는 대외적 목표 이외에도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인식과 국가적 위상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국가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장기적 목적과 전략 내재

1)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Http://www.mcst.go.kr](http://www.mcst.go.kr) (검색일: 2009.06.30).

2) 한국국제교류재단의 경우 해외 한국학 진흥사업과 문화교류, 인사교류, 출판 및 영상사업 등을 통해 세계 여러 국가들과 다양한 인적 교류와 문화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국제교류재단 홈페이지. [Http://www.kf.or.kr](http://www.kf.or.kr) (검색일: 2009.07.15).

3) 한국국제협력단(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의 경우 국제문화교류를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해외 저개발 국가들과의 개발협력 및 지원을 담당하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과 해외봉사단 활동 등을 통해 다양한 인적 교류와 문화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국제협력단 홈페이지. [Http://www.koica.go.kr](http://www.koica.go.kr) (검색일: 2009.07.15).

○ 그러나 그 동안 한국 정부에 의해 추진되어 온 국제문화교류 사업은 거시적 차원에서 정책적 방향을 제대로 수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시적 차원에서 일정한 정책적 한계와 문제점 표출

- 국가 간 문화교류를 위한 각종 사업들이 문화교류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온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외교를 담당하는 외교통상부로 이원화되어 일관적이고 종합적인 국제문화교류를 추진하는데 어려움 발생

-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국제문화교류는 대체로 국가 간 수교기념 행사나 상대국의 요청에 의한 수동적 문화교류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 또한 해당 지역이나 국가에 대한 면밀한 사전조사나 기초적 정보도 없이 단기간으로 추진되어 온 일부 문화교류 행사는 오히려 상대 국가의 문화적 상이성에 기인하는 역효과나 반감 초래

-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문화시설이나 전통문화 공연 중심의 획일적·일방적 프로그램 기획 등은 지역적 특성에 부합하지 못하는 정책 결과 초래

○ 그렇다면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제문화교류의 현황과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것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 이 연구는 동북아, 동남아, 남아시아, 그리고 대양주를 포괄하는 아시아권 국가들에 대한 한국 정부의 국제문화교류 현황과 정책들을 살펴보고, 제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점검

- 특히 이 연구는 국제문화교류 차원에서 아시아권 국가들과 보다 활발한 문화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 각 지역별·국가별 특성을 고려한 문화교류 사업의 정책적 방향을 제안

II. 아시아권의 국제문화교류 현황과 정책

1. 동북아 지역의 국제문화교류 현황과 정책

○ 동북아 지역은 국제문화교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집중적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전략적 요충지이자, 정책적으로 국제문화교류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가장 어려움이 많은 지역

- 현실적으로 동북아 지역을 하나로 묶는 코드는 바로 문화이며, 이것은 동북아

국가들이 지니는 한자, 유교, 불교(종교) 등의 문화적 유사성에서 유래

-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북아 지역은 아직도 상호 군사·안보적 불신과 경쟁이 팽배하고 경제적 경쟁과 더불어 과거 역사와 민족주의에 기인하는 국가 간 갈등요인 상존 (Kim and Lee 2006, 87-91)

<표 6-1> 동북아 국가별 재외국민 통계 현황 (2005년 ~ 2009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전년 대비
대만	3,454	3,454	3,166	3,166	3,158	-0.3%
몽골	-	-	-	-	2,323	0%
일본	901,284	901,284	629,236	597,992	912,655	52.6%
중국	2,439,395	2,439,395	2,761,954	2,764,990	2,336,771	-15.5%
합 계	3,344,133	3,344,133	3,394,356	3,366,148	3,254,907	-3.3%

출처: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Http://www.mofat.go.kr](http://www.mofat.go.kr) (검색일: 2009.07.15).

○ <표 6-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북아 지역은 중국과 일본을 비롯하여 한국의 재외국민들이 가장 많이 진출해 있는 지역

- 지역적 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 중국과 일본 간 한국의 재외국민 진출이 다소 차이를 나타내지만, 이들 국가들은 한국과의 인적 교류를 통한 문화적 접촉이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

- 이에 따라 동북아 지역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중국(베이징, 상하이)과 일본(도쿄, 오사카)에 각각 4개의 한국문화원을 개설하고, 베이징과 도쿄에 각각 한국문화홍보관을 설치·운영⁴⁾

○ 중국은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광활한 영토를 지니고 있으며, 13억 4천만여 명에 달하는 세계 최대의 인구 보유⁵⁾

- 한국과 중국은 과거 역사 속에서 빈번한 문화교류가 이루어져 왔으며, 중국은 한국에게 있어서 반드시 극복해야 할 국제문화교류의 핵심 국가

- 그러나 중국은 역사·문화적 관점에서 중화주의(中華主義)로 뭉쳐진 국가이며, 철저한 자문화 중심주의를 견지(Kim and Lee 2006, 80)

4)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Http://www.mcst.go.kr/usr/culture/index.jsp](http://www.mcst.go.kr/usr/culture/index.jsp) (검색일: 2009.06.30).

5) CIA Factbook.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 (Search Date: 2009.07.13).

- 이에 따라 한국은 중국의 베이징과 상하이에 2개의 한국문화원을 건립하고 베이징에 한국문화홍보관을 설치·운영⁶⁾

- 특히 지난 2007년 한·중 수교 15주년을 기념하여 ‘2007년 한·중 교류의 해’를 선언하고, 이를 계기로 양국 간 다양한 문화교류 프로그램 추진(문화체육관광부 2008, 198)

- 중국 내 ‘한류’(韓流)의 확산에 따른 다양한 문화보급 사업도 함께 병행

○ 일본의 경우 한국과 ‘가깝고도 먼 이웃’으로 인적 왕래를 통한 문화교류가 가장 빈번한 국가

- 근·현대사에 기인하는 한국 내 일본문화의 유입은 필연적 사실이며, 최근 들어 일본 내 ‘한류’의 확산에 따라 한국 정부의 집중적 문화교류 사업이 필요한 실정

- 그러나 일본은 지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동북아의 문화적 특성을 공유하고 있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역사 속에서 ‘메이지유신’(明治維新)을 통하여 ‘탈아입구’(脫亞入歐)를 선언하고 자민족 중심의 민족주의를 강조(Kim and Lee 2006, 82-83)

- 한국 정부는 1979년 일본의 도쿄에 한국문화원을 개원한 이래 오사카에도 한국문화원 설립하였으며,⁷⁾ 도쿄에 한국문화홍보관을 설치·운영

- 특히 지난 2005년 ‘한·일 우정의 해’를 맞아 한국 정부는 각종 문화교류 공연과 작품전시회 등 문화예술과 산업, 관광, 스포츠 등에 관련된 행사를 일본과 공동으로 개최(문화체육관광부 2008, 198)

○ 그러나 중국과 일본에 대한 국제문화교류 사업은 동북아 3국으로 불리는 이들 국가들 사이의 역사적 굴곡과 경쟁에 기인하여 많은 문제점 노정

- 일제 침략기 과거사에 기인하는 중국과 일본, 한국과 일본 사이의 미묘한 민족주의 감정은 이들 국가들 사이의 문화교류와 협력을 가로막는 가장 큰 문제점

- 중국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동북공정’(東北工程)이나 수시로 표출되는 한·일 민족감정의 대립은 국제문화교류 사업의 효과성 반감

- 특히 이들 사이의 민족주의 감정이 미묘하게 대립되는 시점에 진행되는 문화교류 사업은 정치적 판단이나 영향력에 의해 취소 혹은 축소

6) 駐華 韓國文化院. [Http://china.korean-culture.org/welcome.do](http://china.korean-culture.org/welcome.do) (檢索日: 2009.07.20); 上海 韓國文化院. [Http://shanghai.korean-culture.org/welcome.do](http://shanghai.korean-culture.org/welcome.do) (檢索日: 2009.07.20) 참조.

7) 東京 韓國文化院 Homepage. [Http://www.koreanculture.jp](http://www.koreanculture.jp) (檢索日: 2009.07.20); 大阪 韓國文化院 Homepage. [Http://osaka.korean-culture.org/welcome.do](http://osaka.korean-culture.org/welcome.do) (檢索日: 2009.07.20) 참조.

○ 동북아 지역에서 국제문화교류 사업의 정책적 노력과 투자가 미약한 국가는 대만과 몽골

- 두 국가는 전통적으로 혹은 점진적으로 민간 부문의 교류와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정부의 관심과 정책이 미약

○ 대만의 경우 한국 정부는 1948년 해방과 더불어 현재의 중화민국 정부와 국교를 수립한 이래 전통적 우방국으로서 돈독한 우의를 유지

- 1990년 중국(중화인민공화국)과 수교과정에서 중국 측의 압력으로 1992년 국교 단절

- 이후 양국은 1993년 12월 상호 협상을 통해 대표부 설치 등 일부 외교업무를 재개하였으나, 정상적인 관계로의 복원은 미약⁸⁾

- 1992년 국교가 단절될 당시에 대만 국민들은 오랜 우방국으로서 신의를 저버린 한국에 대해 극심한 배신감 표출

- 다행히 최근 들어 대만의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 증대,⁹⁾ 이에 따른 정부 차원의 정책적 노력은 미약한 수준

○ 몽골은 한국에 대한 기대와 동경이 매우 큰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의 국제문화교류 사업은 미약한 국가

- 과거 13세기 칭기스칸(Chinggis Khan)의 후예로서 세계를 제패했던 몽골은 1924년 사회주의체제 수립 이후 소련과 중국 사이에서 약소국으로 전락

- 현재 156만 km²의 영토 규모에 304만여 명의 인구를 지닌 경제적 후진국¹⁰⁾

- 최근 한국과 몽골 사이의 정상외교에 힘입어 민간 부문의 경제투자과 문화교류 등 상호 협력 증진

- 정부 차원의 지원은 상대적으로 미약한 편이며, 한국인들의 몽골에 대한 이해도 상대적으로 빈약한 수준

- 민간 차원에서 각 기관별로 교류와 협력이 증진되고 있으나, 몽골인들의 한국문화에 대한 기대와 동경을 채워주는 정책적 대안 마련 시급

8) 1993년 12월 한국과 대만 양국 정부는 상호 협상을 통해 주(駐)대만 한국대표부를 타이베이에, 1994년 주한(駐韓) 대만대표부를 서울에 설립하였으며, 2005년 부산에 주한(駐韓) 대만사무처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9) 위키백과사전. <http://ko.wikipedia.org> (검색일: 2009.07.18).

10) CIA Factbook.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 (Search Date: 2009.07.13).

2. 동남아 지역의 국제문화교류 현황과 정책

○ 동남아 지역은 동북아 지역 다음으로 한국인들의 투자와 진출이 가장 심화되어 있는 지역

-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들 국가들에 대한 한국의 재외국민 진출은 해마다 증가되는 추세

- 2008년 한국과 동남아 국가들 사이의 교역량은 902억 달러 규모이며, 2015년까지 1,500억 달러로 늘어날 전망

- 특히 2007년 한·아세안 상품 자유무역협정(FTA)에 뒤이어 서비스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고, 2009년 투자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됨으로써 한국에게 있어서 동남아 지역은 주요한 협력 대상으로 자리매김

- 한국과 동남아 국가들 사이에는 연간 320여만 명의 한국인이 동남아 국가들을 방문하고, 연간 80여만 명의 동남아인들이 한국을 방문하여 인적 교류도 활발하게 진행

-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지난 2006년 동남아 지역의 베트남 하노이에 한국문화원을 개설,¹¹⁾ 태국 방콕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그리고 싱가포르에도 한국문화홍보관 설치·운영¹²⁾

○ 그러나 한국의 동남아 국가들에 대한 인식과 이해 수준은 일천하여 동남아 국가들을 단순히 경제적 후진국 정도로 인식하는 태도 존재

- 일반적으로 동남아 지역은 “다양성 속의 통일”(bhinneka tunggal ika)¹³⁾을 논의하지 않더라도 인종과 종교, 문화 등 사회·문화적 유사성과 다양성이 공존하는 지역(Hill 2007, 3-20)

- 지리적으로는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등의 대륙부 국가들과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동티모르 등의 도서부(해양부) 국가들로 구분

- 종교적으로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등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불교(도교) 신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는 이슬람교 전파, 필리핀과 동티모르는 국민의 대다수가 가톨릭교 신자¹⁴⁾

11) Trung tâm Văn hoá Hàn Quốc tại Việt Nam. [Http://vietnam.korean-culture.org/welcome.do](http://vietnam.korean-culture.org/welcome.do) (Search Date: 2009.07.20) 참조.

12) 문화체육관광부. [Http://www.mcst.go.kr/usr/culture/index.jsp](http://www.mcst.go.kr/usr/culture/index.jsp) (검색일: 2009.06.30).

13) “다양성 속의 통일”이라는 용어는 원래 인도네시아의 국가 이념인 ‘판자실라’(Pancasila)에서 유래된 것이나, 동남아 지역이 지니는 특징을 지칭하는 용어로도 사용되고 있다.

14) 위키백과사전. [Http://ko.wikipedia.org](http://ko.wikipedia.org) (검색일: 2009.07.18).

<표 6-2> 동남아 국가별 재외국민 통계 현황 (2005년 ~ 2009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전년 대비
동티모르	20	20	27	27	52	92.6%
라오스	370	370	450	450	547	21.6%
말레이시아	-	-	-	14,934	14,580	-2.4%
미얀마	869	869	724	724	888	22.7%
베트남	16,576	16,576	53,800	85,678	84,566	-1.3%
브루나이	90	90	99	100	108	8.0%
싱가포르	6,952	6,952	13,393	12,656	13,509	6.7%
인도네시아	23,025	23,025	30,700	30,700	31,760	3.5%
캄보디아	974	974	3,024	3,024	4,772	57.8%
태국	19,500	19,500	25,000	25,000	20,200	-19.2%
필리핀	46,000	46,000	91,477	91,477	115,400	26.2%
합 계	114,376	114,376	218,694	264,770	286,382	8.2%

출처: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Http://www.mofat.go.kr](http://www.mofat.go.kr) (검색일: 2009.07.15).

○ ‘아세안 5’(ASEAN 5):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 1967년 아세안(ASEAN)을 설립한 창설국가로서 한국 정부와는 전통적 수교국이며, 동남아 지역에서도 경제적 지위가 비교적 상위인 국가

- 태국은 전통적 불교국가로서 중국문화의 영향을 받은 대륙부 기질을 표출

- 필리핀은 가톨릭 국가로서 아시아적 문화와 서구적 문화가 공존

-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국가로서 인도로부터 유입된 힌두 문화와 이슬람 문화가 접목된 도서·해양국가의 기질 표출

- 이들 국가들은 한국과 인적 왕래나 교류도 빈번하여 국가별 출입국 순위가 15위 이내¹⁵⁾

○ ‘CLMV’(Cambodia, Laos, Myanmar, and Vietnam)를 포함하는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브루나이, 동티모르

- 아세안 가입의 후발주자로서 브루나이, 동티모르를 제외하고 과거에 사회주의·전체주의 노선을 채택하여 오다가 1980년대 후반부터 사회주의 노선을 탈피하여 외국

15)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지식정보시스템. [Http://www.tour.go.kr/stat/](http://www.tour.go.kr/stat/) (검색일: 2009.07.15).

인 투자와 대외무역 확대를 추진하는 등 경제개방

- 예외적으로 산유국인 브루나이는 경제적으로도 한국보다 우위 점유

- 베트남은 1986년 '더이모이'(Doi Moi) 정책을 통해 최근 가장 빠른 경제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

- 캄보디아는 1993년 체제변동 이후 과거 역사에 대한 강한 자부심과 함께 앙코르 왕국의 옛 영화를 기약

- 미얀마는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천연자원에 기인하여 성장 잠재력이 가장 큰 국가로 평가

- 라오스 또한 막대한 산림자원과 수자원으로 개발과 보존이 필요한 국가(국가정보원 2008)

- 동티모르 역시 그들이 지닌 천연가스 매장량으로 국제적 이목이 집중된 국가로서 한국의 평화유지군(PKO)이 파견되어 활동한 바 있어서 한국과도 친밀한 유대관계 형성

○ 동남아 국가들에 대한 한국의 국제문화교류는 다양한 인적 왕래와 민간 부문의 교류·협력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부문의 정책적 노력을 필요로 하는 실정

- 동남아 지역은 동북아 지역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정책적 노력이나 지원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미약한 수준

- 동남아 국가들의 문화적 다양성과 보편성, 특수성과 공통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국가별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일방적인 문화교류 정책은 또 다른 문제점 유발

- 한국인들의 동남아 국가들에 대한 몰이해는 동남아 국가들은 단순히 경제적 후진국이라는 인식 아래 동남아 현지 관광이나 한국 내 동남아들에 대한 태도에서 그들의 문화와 인권을 무시하는 또 다른 문제점 표출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동남아 문화를 한국 내에 알리는 쌍방향적 문화교류의 필요성 증대

○ 지난 2009년 5월 31일 제주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정상회담의 최고경영자 회의(CEO Summit)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기조연설 내용¹⁶⁾

- 아세안 국가들과 ① 무역·투자의 확대, ② 문화·관광 교류의 확대, 그리고 ③ 녹색성장 분야의 협력 확대 주장

16) 청와대. [Http://www.president.go.kr/kr/president/speech/speech_list.php](http://www.president.go.kr/kr/president/speech/speech_list.php) (검색일: 2009.07.13).

- 한국과 아세안은 그 동안 양적으로 성장한 경제관계를 발판으로 경제영역에서 ‘실질적인 비즈니스 공동체’를 형성해야 할 시기

- 그 동안 꾸준히 지속되어 온 해외봉사단 활동과 더불어 2009년 3월 한·아세안 센터(Korea-ASEAN Center) 설립을 계기로 한국과 동남아 국가들 사이의 문화·관광 및 인적 교류의 활성화 주도

- 한국과 아세안이 승승(win-win)할 수 있는 분야로서 다양한 환경산업을 개발·육성하는데 협력함으로써 녹색성장을 통한 지속적인 발전 추진

○ 2009년 6월 1일 이루어진 아세안 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패널연설 내용

- 한국 정부는 이미 2009년 3월 대(對) 아세안 관계 강화를 중시축으로 하는 ‘신아시아 외교’ 구상을 통해 대(對) 아시아 기여 증대, 맞춤형 경제협력, 기후 변화 등 범세계적 이슈에 대한 공동 대응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천명

- 2015년까지 대(對) 아세안 공적개발원조(ODA)를 두 배로 늘려 4억 달러 규모로 증액하고, 한·아세안 협력기금을 2010년 이후 500만 달러 규모로 늘려 그 중 200만 달러를 문화·인적 교류에 집중 투입

- 한국 정부는 2012년 완공을 목표로 건설 중인 ‘아시아 문화전당’을 통해 문화·예술 창작자 간 교류를 확대하고, 방송 프로그램 등 문화콘텐츠 교류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

- 아세안 국가들의 우수한 학생들을 한국에 유치할 수 있는 ‘글로벌 코리아 스칼라십’(Global Korea Scholarship)을 확대하여 향후 200명 이상의 동남아 유학생들을 유치

3. 남아시아 지역의 국제문화교류 현황과 정책

○ 인도,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네팔, 부탄, 몰디브 등을 포함하는 남아시아 지역은 한국에 있어서 비교적 생소한 지역

- 남아시아는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SAARC: South Asian Association for Regional Cooperation)을 구성하고, 2006년 1월부터 ‘남아시아 자유무역지대’(SAFTA: South Asian Free Trade Area)를 결성

- 남아시아는 부탄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이 과거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다가 1947년부터 1965년 사이에 독립

- 세계에서 가장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들 중 하나로 13억 이상의 인구가 거주하

여 아시아 인구의 3분의 1, 세계 인구의 5분의 1이 살고 있는 지역¹⁷⁾

<표 6-3> 남아시아 국가별 재외국민 통계 현황 (2005년 ~ 2009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전년 대비
네팔	-	-	-	353	374	5.9%
몰디브	11	11	8	8	18	125%
방글라데시	1,067	1,067	1,053	1,053	1,046	-0.7%
부탄	-	-	-	-	7	0%
스리랑카	577	577	865	865	854	-1.3%
아프가니스탄	346	346	420	420	159	-62.1%
인도	4,471	4,471	8,271	7,375	8,337	13.0%
파키스탄	361	361	449	449	529	17.8%
합 계	6,833	6,833	11,066	10,523	11,324	7.6%

출처: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Http://www.mofat.go.kr](http://www.mofat.go.kr) (검색일: 2009.07.15).

○ 한국의 남아시아 진출은 <표 6-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른 아시아 지역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

- 지난 2001년 9·11 테러의 발생 이후 미국의 요청에 따라 2002년 의료지원부대가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된 것을 시작으로 공병부대 파병을 통한 평화유지군 활동 전개

- 2004년 인도네시아 아체(Aceh) 지역에서 발생한 ‘쓰나미’(tsunami: 지진해일)에 의해 인도 동남부 해안과 스리랑카, 몰디브 등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되어 한국의 구호활동과 지원 사업 전개

- 남아시아 지역의 경우 현재 한국의 문화를 홍보하기 위한 한국문화원이 개설된 국가는 없으나, 인도 뉴델리에 한국문화홍보관 설치·운영¹⁸⁾

○ 2007년 아프가니스탄에서 발생한 기독교 선교단의 피랍·피살사건은 남아시아 이슬람 국가들에 대한 문화적 몰이해가 빚어낸 참극

- 남아시아 지역의 국가들에 대한 한국 정부와 민간 부문의 정보와 지식은 일천하여 지난 2004년 이라크에서 발생한 김선일 피살사건에 뒤이어 정부의 여러 가지 후속조치가 단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참극 발생

17) 위키백과사전. [Http://ko.wikipedia.org](http://ko.wikipedia.org) (검색일: 2009.07.18).

18) 문화체육관광부. [Http://www.mcst.go.kr/usr/culture/index.jsp](http://www.mcst.go.kr/usr/culture/index.jsp) (검색일: 2009.06.30).

- 한국의 일부 종교단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공격적 선교 활동과 경쟁은 비록 그것이 인도적 차원의 봉사활동이었다고 하더라도 상대 국가의 문화적·종교적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 처사로 국제사회의 비판(*The Times* 2007.07.21; *New York Times* 2007.07.21; 2007.07.27)

- 한국 정부 또한 테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인의 선교 및 자선활동을 사전에 충분히 금지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이들 지역의 정세나 문화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는 비판(국민일보 2007.07.26).

○ 결과적으로 한국은 아직까지도 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나 문화적 차원의 국제교류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

- 그러나 이들 지역의 국가들은 그들이 지니고 있는 인적 자원이나 시장성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인적 교류와 국제문화교류를 늘려 나가야 할 지역

- 최근 들어 이들 지역의 국민들이 일자리를 찾아 한국으로 대량 유입됨으로써 새로운 문제점이 발생, 이에 대한 사전 준비와 정책적 고려 필요

4. 대양주 지역의 국제문화교류 현황과 정책

○ ‘오세아니아’(Oceania)로 불리는 대양주는 마이크로네시아(Micronesia), 폴리네시아(Polynesia), 멜라네시아(Melanesia) 등으로 지리적 구분

- 호주와 뉴질랜드를 비롯하여 나우르, 마셜 군도, 마이크로네시아, 미국령 사모아, 바누아투, 사모아 군도, 솔로몬 군도, 쿡 군도, 키리바시, 토켈라우 군도, 통가, 투발루, 파푸아뉴기니, 팔라우, 피지 등 크고 작은 도서·군도 국가들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

- 대양주 국가들은 남태평양 지역의 토착 원주민 문화와 식민지배에 따른 서구문화가 복합적으로 결합된 독특한 문화 양식 표출

- 특히 호주나 뉴질랜드의 경우 비교적 넓은 영토에 비해 인구수가 희박하여 투자를 전제로 한 이민유치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표 6-4> 대양주 국가별 재외국민 통계 현황 (2005년 ~ 2009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전년 대비
뉴질랜드	31,500	31,500	32,972	32,972	30,792	-6.6%
마셜 군도	-	-	-	34	34	0%
마이크로네시아	35	35	25	25	25	0%
바누아투	19	19	32	32	46	43.8%
솔로몬 제도	-	-	-	-	42	0%
키리바시	-	-	-	-	1	0%
통가	64	64	65	46	46	0%
파푸아뉴기니	200	200	226	226	222	-1.8%
팔라우	103	103	105	105	113	7.6%
피지	1,057	1,057	1,012	951	950	-0.1%
호주	84,316	84,316	95,297	105,558	125,669	19.1%
합 계	117,294	117,294	129,734	139,949	158,120	13.0%

출처: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Http://www.mofat.go.kr](http://www.mofat.go.kr) (검색일: 2009.07.15).

○ 대양주 국가들에 대한 한국인들의 진출은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호주나 뉴질랜드로 집중

- 원래 한국과 대양주 국가들 사이의 빈번한 왕래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호주와 뉴질랜드는 과거 유엔군의 일원으로 1950년 한국전쟁에 참전
- 근래 들어 해외 이민과 영어 열풍이 불면서 한국의 많은 이민자들과 유학생들이 호주나 뉴질랜드 등지로 몰리는 실정
- 대양주 지역의 경우 한국문화원이 개설된 국가는 없으나, 대양주 국가들 중 가장 많은 교민이 살고 있는 호주 시드니에 한국문화홍보관 개설·운영¹⁹⁾

○ 호주와 뉴질랜드의 경우 한국 교민들이 많이 진출해 있다는 사실 이외에도 정책적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상호 간 인적 교류와 문화교류를 늘려 나가야 할 필요성 증대

- 특히 한국 교민들의 진출이 꾸준하게 증가되고 있는 호주의 경우 현지 대학을 중심으로 한국학 연구가 활성화, 한국에 대한 관심도 점증
- 대양주 지역에 대한 상징적 차원으로 현재의 한국문화홍보관을 한국문화원으로 승격하여 운영할 필요성 증대
- 뉴질랜드 또한 한국전쟁 참전을 비롯하여 최근 들어 영어 학습을 위한 한국 유

19) 문화체육관광부. [Http://www.mcst.go.kr/usr/culture/index.jsp](http://www.mcst.go.kr/usr/culture/index.jsp) (검색일: 2009.06.30).

학생들과 관광객들이 늘어나고 있어 관심과 관리가 필요한 국가

III. 한국과 아시아권 국제문화교류의 문제점과 정책적 제언

1. 한국과 아시아권 국제문화교류의 문제점

○ 한국의 문화외교 정책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문화를 외교적 수단이 아닌 대화와 소통 그 자체로 인식, 한국문화의 홍보와 보급은 물론 상대 국가의 문화를 이해하려는 쌍방향적 문화교류 정책으로 발전

- 1990년대부터 한국의 외교정책 노선은 점진적으로 군사·안보 중심으로부터 경제·문화 중심으로 선회

- 2000년대 들어 2002년 한·일 월드컵 공동개최 등 한국의 국가적 위상이 국제적으로 신장되면서부터 국가 간 문화교류도 보다 활성화

- 한국의 국제문화교류에 있어서 핵심 지역인 아시아 지역의 경우 지리적 근접성은 물론 정치·외교 관계나 경제협력, 그리고 아시아 공통의 문화적 친화성에 기인하여 국가 간 문화교류가 더욱 확대

- 그러나 한국의 국제문화교류와 문화외교 정책은 그 동안의 양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미시적인 차원에서 현실적으로 크고 작은 문제점 발생

1) 한국의 국제문화교류 정책의 한계

○ 한국의 국제문화교류는 특정 지역이나 국가에 대한 정책적 편중성 유발

○ 지리적 근접성이나 이동의 편의성에 기인하여 동북아 지역에서 가장 한국의 가까운 이웃인 중국·일본과의 활발한 문화교류는 불가피

- 그러나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제문화교류 정책의 지역적 편중성은 지리적 근접성이나 문화적 친화성 이외에도 정치적 논리나 경제적 이해관계 등이 배제될 수 없는 이유로 작용

- 예를 들어 지난 노무현 정부는 한국 외교정책 노선을 ‘동북아 중심’²⁰⁾으로 설정

20) 노무현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참여정부가 추진해야 할 중장기 국정과제 중 하나로 ‘동북아 경제중심국가론’과 ‘동북아 물류중심기지론’에 기반을 둔 ‘동북아 중심’ 개념을 제시하였으며, 대통령 산하 직속의 ‘동북아시아위원회’를 만들어 각종 정부정책에 관여하였다. ‘동북아 중심’이란 동북아공동체를 건설함에 있어서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여 “평화와 번

하고 국가 간 문화교류를 외교적 수단으로 활용한 정책적 오류와 지역적 편중성 초래 (김명섭·이동운 2005, 3)

- 중국과 일본에 편중된 한국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문화교류 사업은 한국과 이들 국가들 사이의 과거사 문제와 민족감정 등에 기인하여 상호 관계가 악화됨에 따라 관련 정책 전반의 정책적 실효성 저하

<표 6-5> 아시아·대양주 한국문화원 및 문화홍보관 개설 현황 (2009년 현재)

	아시아주	대양주
한국문화원	5 (베이징, 상하이, 도쿄, 오사카, 하노이)	0
한국문화홍보관	6 (베이징, 도쿄, 방콕, 자카르타, 싱가포르, 뉴델리)	1 (시드니)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Http://www.mcst.go.kr](http://www.mcst.go.kr) (검색일: 2009.06.30).

○ <표 6-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의 문화홍보기관은 중국과 일본에 집중

- 아시아·대양주 지역에서 한국문화원은 중국의 베이징과 상하이, 일본의 도쿄와 오사카, 그리고 베트남 하노이 등 다섯 도시에만 설립

- 그 하위의 한국문화홍보관은 동북아 지역의 중국과 일본, 동남아 지역의 태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서아시아 지역의 인도, 대양주 지역의 호주 등 여섯 국가에 개설²¹⁾

- 외교통상부 산하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운영하는 해외사무소는 중국 베이징과 일본 도쿄, 그리고 베트남 하노이에 개설되어 해외교류 업무 담당

- 한국의 국제문화교류와 관련된 문화홍보기관이 중국과 일본에 집중되어 있는 이유는 그 만큼 이들 국가와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

- 그러나 한국문화를 필요로 하는 수요 차원에서 한국의 국제문화교류는 특정 국가에만 지나치게 밀집되어 있는 경향

- 실제로 중국과 일본의 경우 한국문화원과 문화홍보관, 그리고 한국국제교류재단의 해외사무소가 모두 개설

- 베트남 또한 한국문화원과 한국국제교류재단의 해외사무소가 설치되어 일부 중복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바, 아시아·대양주 지역의 한국문화에 대한 수요에 따라 전반적인 조정 필요

영의 동북아시대”를 열어간다는 논리이며, 동북아 경제중심전략을 통해 국가발전을 꾀하자는 적극적인 정책 개념이다.

21) 한국문화원은 한국문화 강좌, 강연, 전통공연, 전시행사, 한국어 보급, 도서관 운영, 『한국문화』 홍보자료 발간, 한국영화제 개최 등을 통해 한국문화의 독창성과 우수성을 현지 사회에 알리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08, 193).

2) 전문성과 체계적 접근의 문제

○ 한국의 국제문화교류는 장기적 차원에서 체계적인 접근과 전문성 부족

○ 국제문화교류 및 문화외교의 담당 업무와 사업의 중복성

- 한국의 국제문화교류 혹은 문화외교와 관련된 업무는 외교통상부(한국국제교류재단), 문화체육관광부(해외문화홍보원,²²⁾ 예술지원경영센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국립국제교육원, 재외한국교육원) 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지방국제화 교류재단), 민간기관이 각기 독자적으로 추진(조부근 2009, 79-80)

- 이들 기관들이 추진하고 있는 국제문화교류 사업들은 각 주체 간 기획 의도나 업무상 중복성으로 말미암아 다양성 저하

-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역할 분담과 업무 조정의 필요성 증대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 그리고 정부와 민간기관 차원에서 중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문화교류 사업들의 총괄적 정리 요망

- 여러 정부 부처와 유관기관으로 분산되어 진행되고 있는 업무를 하나로 단일화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의 확립 필요²³⁾

○ 국제문화교류를 증진시키기 위해 정치·경제적 고려에 따른 단기적 행사나 계기성 사업을 지양하고, 보다 장기적 차원에서 국가 간 문화교류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체계적인 접근 요망

- 예를 들어 문화체육관광부는 기존의 계기성 문화교류 사업을 지원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문화를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사업을 총괄·조정할 수 있는 정책적 방향 채택

- 특히 계기성 예술행사 지원에서 공연, 전시, 문화콘텐츠, 체육, 관광 등을 상호 연계·강화하고, 외국과의 협력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적 변화 추진(문화체육관광부 2008, 192)

22) 2005년 7월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기존의 국정홍보처와 문화관광부에서 분리·운영되었던 해외문화홍보원을 문화관광부에서 통합 운영하고, 그 명칭도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에 관한 직제'를 개편하여 한국문화원으로 일원화하였다(문화체육관광부 2008, 192).

23) 예를 들어 해외 한국학 진흥을 위한 국제문화교류 및 지원사업은 외교통상부의 한국국제교류재단과 교육과학기술부 한국연구재단(한국학술진흥재단)의 위탁을 받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중적으로 담당하고 있어 업무 및 지원사업의 중복성이 표출되고 있다.

-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 변화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외교통상부나 교육과 학기술부 등 정부의 타 부처 간 업무나 사업들을 일괄적으로 정리하고 조정할 수 있는 권한과 업무체계의 보완 필요

- 정부 내 모든 부처와 유관기관들의 국제문화교류 사업들을 포괄적으로 종합하여 기획·조정·관리·감독할 수 있는 업무시스템의 필요성 증대

○ 국제문화교류 사업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지역전문가 활용의 필요성

- 국제문화교류의 장기적 기획력과 사업 추진의 효과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문화·예술 부문이나 외교 업무의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해당 국가나 지역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여 정책과 사업을 준비할 수 있는 전문성 보완

- 현실적으로 한국의 국제문화교류는 현지 국가나 지역에 대한 이해나 정보 부족으로 투자나 노력 대비 효과성이 크게 떨어지는 사례들 발생

- 예를 들어 동남아나 남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단순히 그들이 경제적 후진국이라는 인식 때문에 그들의 문화 또한 저급한 것으로 치부하는 일부의 그릇된 태도가 오히려 한국의 국가 이미지 실추와 저항감 유발

- 현지 국가나 지역의 정치·경제적 현황과 문화를 이해하지 못한 일방적인 문화교류 사업은 외세의 오랜 침입과 식민지배로 배타적 민족주의 감정이 강한 아시아 국가들에서 많은 문제점 유발

3) 전반적인 정책적 준비 및 지원 규모의 부족

○ 한국의 국제문화교류는 선진국들과 비교하여 정책적 차원에서의 지원이나 사업이 양적·질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

- <표 6-6>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8년 10월 현재 한국이 문화협정을 체결한 아시아·대양주 국가는 동북아 3개국, 동남아 7개국, 남아시아 6개국, 그리고 대양주 1개국 등 총 17개국²⁴⁾

- 아시아·대양주 지역에서 양국 간 별도 합의에 따라 양국 간 문화교류와 협력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문화공동위원회’가 개설된 국가도 중국, 일본, 호주, 인도, 싱가포르, 베트남, 몽골, 파키스탄 등 8개국에 불과

- 이것은 아시아·대양주 국가들이 모두 34개국임을 감안할 때 아직도 절반에 불과한 숫자여서 부족한 형편

24) 대만의 경우 1965년 5월 한국과 대만 사이의 문화협정이 체결된 바 있으나, 중국과의 수교가 이루어진 이후 양국 간 국교가 단절되면서 폐기되었다. 또한 홍콩의 경우 2004년 문화교류와 관련된 별도의 양해각서가 체결된 바 있다.

- 현실적으로 동남아나 남아시아 등 한국문화에 대한 지적 호기심이나 동경이 심화된 일부 국가들에도 한국문화원이나 문화홍보관 부재

<표 6-6> 한국의 문화협정 체결 현황 (2008년 10월 현재)

		체결국가	소 계
아 시 아 주	동북아	일본(1965.06.22), 몽골(1991.03.25), 중국(1994.03.28), [홍콩(2004.08.24) 양해각서]	3[1]
	동남아	말레이시아(1965.09.30), 필리핀(1970.08.08), 베트남(1994.08.30), 싱가포르(1995.08.16), 인도네시아(2000.11.26), 태국(2004.08.25), 캄보디아(2006.07.31)	7
	남아시아	인도(1974.08.12), 스리랑카(1978.01.20), 방글라데시(1979.06.14), 몰디브(1984.10.31), 파키스탄(1985.05.09), 네팔(2005.03.30)	6
대양주		호주(1971.05.11)	1
총 계			17[1]

출처: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Http://www.mofat.go.kr](http://www.mofat.go.kr) (검색일: 2009.07.15).

○ 국제문화교류에 지원되는 국가 자원 및 정부 재정 부족

- 문화협정 체결이나 문화공동위원회의 설치는 외교관계에 있어서 해당 국가와의 상대성 존재
- 한국문화원 및 문화홍보관 개설 또한 한국의 국력이나 상대 국가와의 교류관계 등이 직·간접적으로 영향
- 그러나 동남아나 남아시아, 대양주의 일부 국가들의 경우 재외국민의 규모나 경제적 고려 이외에도 한국과의 전통적인 외교관계나 정치·경제적 중요성 등에 비추어 거시적 차원에서 집중적인 투자와 정책적 지원 필요
- 한국이 아시아·대양주 지역에서 체결한 수교국 숫자나 상호 교류관계를 고려할 때, 장기적 차원에서 문화협정 체결이나 한국문화원 혹은 문화홍보관 개설을 보다 확대시켜 나가야 할 필요성 증대

4) 국제문화교류 정책의 콘텐츠 부족의 문제

- 한국의 국제문화교류는 그 동안 양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질적인 차원에서 문화 콘텐츠 개발의 취약성 내재

- 한국이 그 동안 추진하여 온 국제문화교류의 내용적 측면을 평가해 보면, 대부분의 사업들이 한국의 전통문화나 ‘한류’와 관련된 공연·예술 부문에 집중되어 보다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의 콘텐츠 개발과 소재 확장 필요(조부근 2009, 82)

- 일부 분야에 집중된 한국문화의 홍보와 ‘한류’ 일변도의 공연·예술은 한국문화의 대중적 선호도와 상업적 입지를 확보하는데 도움

-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한국문화가 지니고 있는 다양성을 축소·왜곡시키고 다른 분야의 문화콘텐츠 개발 제약

- 실제로 국제문화교류를 추진함에 있어서 전통문화가 지니는 민족적 정체성이나 일상의 대중문화가 지니는 상업적 피해 발생

- 지나치게 민족성을 강조한 문화교류나 과도한 상업주의에 물든 대중문화의 홍보는 자칫 상대 국가로 하여금 경계심과 거부감 양산

○ 한류 열풍에 대응하는 반한류(反韓流), 혐한류(嫌韓流), 항한류(抗韓流) 발생

- 한국 영화와 TV 드라마, 그리고 한국 가요 등으로 대표되는 ‘한류’ 열풍은 이미 아시아는 물론 중동, 유럽 일부, 중남미 국가들까지 확산(이동윤·안민아 2007, 105)

- 그러나 한국 대중문화의 확산은 이미 상업화된 관행과 정부 주도의 국가개입주의, 그리고 한국문화의 우월성만을 강조하는 자문화 중심주의 등으로 상대 국가의 민족주의적 저항과 거부감 유발

- 반한류 분위기는 과거 역사적 관계에 입각하여 민족주의 정서가 강한 중국과 일본 등에서 보다 첨예하게 발생

- 경제적으로 낙후한 동남아 지역에서도 한류 확산에 대응하는 역풍 유발

- 한국의 문화·예술이 마치 전통문화나 한류에 국한되어 한국문화의 전부인 양 홍보되는 문화교류사업 지양

- 다양한 문화적 소재와 콘텐츠를 개발하는 문제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

5) 쌍방향적 국제문화교류와 문화적 다양성 문제

○ 한국의 국제문화교류는 문화적 다양성 차원에서 한국문화 중심의 일방적인 교류 방식을 탈피하고 보다 다양한 쌍방향적 문화교류의 확충 필요

- 한국의 국제문화교류는 과거 한국의 국가 이미지 개선과 한국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하는 목적에 충실하여 상대 국가의 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하는데 인색하였다는 평가

- 동남아나 남아시아 등 일부 지역과 국가들에서 행해지는 한국 관광객들의 추태

나 종교인들의 과도한 선교활동이 많은 문제점 유발

- 상대 국가의 문화에 대해 배타적 태도를 지닌 문화교류나 문화주권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문화적 국수주의에 빠질 우려(김정수 2006, 186)

- 동남아나 남아시아 등 일부 경제적 후진국들의 문화에 대해 한국인들이 지니고 있는 이유 없는 멸시나 무시하는 태도는 한국의 국제문화교류 확산과 활성화를 어렵게 만드는 가장 큰 제약요인으로 등장

○ 국제문화교류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도 문화의 다양성 문제는 중요한 공공의제로 등장

- 세계화의 파급효과라고 해석되는 외국인 노동자나 국제결혼을 통한 결혼이주자의 증가는 한국에 있어서도 쌍방향적 문화교류나 다문화정책의 필요성 급증(이종열 외 2008, 77)

- 한국인들의 문화적 인식은 서구 선진국들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호의적이고 관대한 반면, 아시아권의 경제적 후진국들의 문화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강한 배타심 표출

- 이러한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한 계몽과 교육정책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

-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다문화정책은 바로 국제문화교류에 있어서도 쌍방향적 문화교류 정책과 연결, 이에 대한 포괄적 계획과 추진 필요

2. 아시아권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정책적 제언

○ 그렇다면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국제문화교류, 특히 아시아권 국가들과의 문화교류에서 나타나는 제반 문제점을 해결하고, 이들 국가들과 문화교류를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은 무엇인가?

○ 한국의 국제문화교류는 각 지역과 국가에 부응하는 보다 체계적 정책과 전략 수립 요망

- 아시아·대양주 지역에서 주로 동북아 지역의 중국과 일본에 치중되어 있는 문화교류 정책을 지양하고, 다른 지역에 대한 정책적 지원 제고

- 이들 지역과 국가들의 문화적 특성에 맞는 맞춤형 문화교류정책의 지역적 확산 전략 요망

- 그 동안 한국의 국제문화교류는 거시적 차원에서 한국의 전통문화 공연과 ‘한

류'로 대표되는 대중문화의 확산에 집중, 특히 문화적 민족주의 색채가 강한 중국과 일본에 편중

- 이러한 동북아 편중성은 중국과 일본의 민족주의 감정을 자극함으로써 역효과 초래, 동남아나 남아시아, 대양주 국가들에 대한 문화교류 사업이 상대적으로 활성화 되지 못한 결과 유발

<표 6-7> 아시아·대양주 재외국민 통계 현황 (2005년 ~ 2009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전년 대비
아시아주	3,465,343	3,465,343	3,624,116	3,641,441	3,552,613	-2.4%
동북아	3,344,134	3,344,134	3,394,356	3,366,148	3,254,907	-3.3%
동남아	114,376	114,376	218,694	264,770	286,382	8.2%
남아시아	6,833	6,833	11,066	10,523	11,324	7.6%
대양주	117,294	117,294	129,734	139,949	158,120	13.0%
합 계	3,582,637	3,582,637	3,753,850	3,781,390	3,710,733	-1.9%

출처: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Http://www.mofat.go.kr](http://www.mofat.go.kr) (검색일: 2009.07.15).

○ 아시아·대양주 국가들의 재외국민 숫자를 고려하되, 한국문화에 대한 수요를 함께 고려

- <표 6-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시아·대양주 국가들에 사는 한국의 재외국민은 동북아, 특히 중국과 일본이 절대적 우위 차지

- 그러나 이들 국가들의 재외국민은 역내 정치·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

- 오히려 동남아와 남아시아, 그리고 대양주 국가들의 재외국민 숫자가 점차 증가되는 추세

- <표 6-8>과 <표 6-9>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의 숫자는 일본과 중국이 1, 2위를 경쟁

- 그러나 동남아와 남아시아, 대양주 등 다른 지역과 국가들의 방문자 숫자도 점진적으로 증가

- 중국이나 일본 이외에도 동남아나 남아시아, 대양주 국가들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과 문화적 욕구 점증

- 이들 지역과 국가들의 수요에 맞는 한국문화의 홍보와 국제문화교류가 확대될 시점

<표 6-8> 아시아·대양주 국가별 입국자 현황 (2005년 ~ 2008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합 계	구성비
전 체	6,022,752 명	6,155,046 명	6,448,240 명	6,890,841 명	25,516,879 명	100.0%
아시아주	4,441,752 명	4,551,345 명	4,683,231 명	5,018,219 명	18,694,547 명	73.3%
일본	2,440,138 명	2,338,921 명	2,235,963 명	2,378,102 명	9,393,124명	36.8%
중국	710,243명	896,969명	1,068,925 명	1,167,891 명	3,844,028명	15.1%
대만	351,438명	338,162명	335,224명	320,244명	1,345,068명	5.3%
홍콩	166,206명	142,786명	140,138명	160,325명	609,455명	2.4%
몽골	23,939명	32,223명	39,484명	42,577명	138,223명	0.5%
동북아 소계	3,691,964 명	3,749,061 명	3,819,734 명	4,069,139 명	15,329,898 명	60.0%
필리핀	222,655명	248,262명	263,799명	276,710명	1,011,426명	4.0%
태국	112,724명	128,555명	146,792명	160,687명	548,758명	2.2%
말레이시아	96,583명	89,854명	83,049명	83,754명	353,240명	1.4%
싱가포르	81,751명	88,386명	93,951명	95,960명	360,048명	1.4%
인도네시아	62,294명	62,869명	67,450명	81,001명	253,614명	1.1%
베트남	45,455명	46,077명	60,262명	76,402명	228,196명	0.9%
미얀마	33,745명	40,758명	42,271명	50,636명	161,410명	0.7%
동남아 소계	655,207명	704,761명	757,574명	825,150	9,942,692명	11.5%
인도	58,560명	62,531명	68,276명	73,130명	262,497명	1.0%
스리랑카	10,463명	8,336명	8,364명	13,959명	41,122명	0.2%
파키스탄	8,152명	7,560명	7,642명	9,690명	33,044명	0.1%
방글라데시	5,742명	6,948명	5,875명	7,202명	25,767명	0.1%
서남아 소계	82,917명	85,375명	90,157명	103,981명	362,430명	1.4%
아시아주 기타	11,664명	12,148명	14,766명	19,949명	58,527명	0.2%
대양주	85,200명	91,516명	107,829명	127,569명	412,114명	1.6%
호주	63,463명	68,328명	80,528명	96,138명	308,457명	1.2%
뉴질랜드	16,419명	17,502명	21,083명	24,435명	79,439명	0.3%
키리바시	2,491명	2,350명	1,696명	2,170명	8,707명	0.03%
피지	1,528명	2,205명	3,029명	3,678명	10,440명	0.04%
대양주 기타	1,299명	1,131명	1,493명	1,148명	5,071명	0.02%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지식정보시스템. [Http://www.tour.go.kr/stat/](http://www.tour.go.kr/stat/) (검색일: 2009.07.15).

<표 6-9> 국가 순위별 출입국 현황 (2005년 ~ 2008년)

순 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입국	출국	입국	출국	입국	입국
01	일본	중국	일본	중국	일본	일본
02	중국	일본	중국	일본	중국	중국
03	미국	미국	미국	미상	미국	미국
04	대만	태국	대만	태국	대만	대만
05	필리핀	필리핀	필리핀	미국	필리핀	필리핀
06	홍콩	홍콩	러시아(연방)	필리핀	태국	태국
07	러시아(연방)	베트남	홍콩	홍콩	러시아(연방)	홍콩
08	태국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홍콩	러시아(연방)
09	말레이시아	호주	캐나다	싱가포르	캐나다	캐나다
10	캐나다	대만	말레이시아	호주	싱가포르	호주
11	싱가포르	독일	싱가포르	대만	독일	싱가포르
12	독일	캐나다	독일	독일	말레이시아	독일
13	영국	인도네시아	영국	캐나다	호주	영국
14	호주	영국	호주	영국	영국	말레이시아
15	인도네시아	괌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인도	인도네시아
16	인도	말레이시아	인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17	베트남	프랑스	프랑스	괌	베트남	인도
18	프랑스	뉴질랜드	베트남	프랑스	프랑스	프랑스
19	미얀마	북마리아나	미얀마	북마리아나	미얀마	미얀마
20	몽골	러시아(연방)	몽골	뉴질랜드	몽골	몽골

* 2007년부터 신고자유제로 내국인 출국지의 현황 파악 불가능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지식정보시스템. [Http://www.tour.go.kr/stat/](http://www.tour.go.kr/stat/) (검색일: 2009.07.15).

○ 동남아나 남아시아, 대양주 국가들에 대한 문화교류는 그들 지역과 국가들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문화교류정책 필요

- 예를 들어 동남아 지역을 중국문화의 아류 정도로 인식하여 한국문화 중심의 일방적인 문화교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지양²⁵⁾

- 힌두문화와 이슬람문화가 충돌하고 있는 남아시아 지역에서 인도 등 특정 국가에만 편중된 문화교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회피

25) 예를 들어 동남아 지역은 문화적으로 남아시아 지역의 인도 문명과 동북아 지역의 중국 문명이 교차하는 중간 지역을 형성함으로써 양대 문명을 통합한 독특한 문화권을 형성하고 있으며, 또한 태국을 제외한 동남아 국가들은 대부분 19세기부터 제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미국 등 서구 열강에 의한 식민지 지배를 받음으로써 서구적 문화가 함께 공존하는 지역이기도 하다(Hill 2002, 2, 10).

- 대양주 국가들의 경우에도 식민지 지배에 의한 서구식 문화와 더불어 각기 토착적인 원주민 문화가 공존하므로 국제문화교류에 있어서 조심스러운 접근 요망

- 아시아·대양주 국가들의 경우 그들 지역과 국가들이 지니고 있는 종교적·인종적 편재와 과거 식민지 경험에 기인하는 외세문화에 대한 배타심을 두루 고려하여 지역·국가별 특성에 맞는 접근방법 개발

○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국제문화교류 사업은 보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체계적인 접근과 통합적인 기획 요망

○ 국제문화교류를 총괄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권한 강화

- 한국 정부가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국제문화교류는 아직도 해외홍보 기능이 지나치게 분산·중복되어 있어 관련 기관들 사이의 유기적 협조체제 부족- 장기적인 정책과 전략에 입각한 사업 계획 및 활동이 빈약한 것으로 평가(염성원·오경수 2003, 106)

- 현재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국제문화교류 및 문화외교 사업은 외교통상부 산하 한국국제교류재단²⁶⁾과 한국국제협력단,²⁷⁾ 문화체육관광부의 해외문화홍보원, 교육과학기술부의 국립국제교육원²⁸⁾과 재외한국교육원²⁹⁾ 등이 분산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중복성 표출

26) 한국국제교류재단의 경우 산하 문화예술교류부의 문화교류 사업을 통해 문화외교협력 차원에서 그 동안 교류가 미진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문화홍보사업을 추진하고, 수교 기념과 주빈국 행사, 한국의 해 혹은 한국 주간 등의 행사를 중심으로 계기성 문화행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현지 정부 및 문화예술단체의 초청공연도 지원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한국의 우수문화예술 해외 소개 및 다문화예술 사업과 한국어 및 한국학 보급사업을 함께 병행하고 있다. 한국국제교류재단 홈페이지. [Http://www.kf.or.kr](http://www.kf.or.kr) (검색일: 2009.07.15).

27) 한국국제협력단의 해외봉사단 활동은 연간 1,300 여명의 봉사단원들이 세계 30여 개국에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특히 아시아 지역의 경우 동북아 지역의 중국, 몽골을 비롯하여 동남아 지역의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인도네시아, 필리핀, 그리고 서아시아 지역의 네팔,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등 개발도상국이 주요 대상 국가들이다. 또한 이들의 주요 활동은 기술보급과 의료지원, 교육 등 다양한 형태로 나누어지지만, 한글교육과 한국문화 전수 등 부수적인 차원에서 문화교류 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한국국제협력단 홈페이지. [Http://www.koica.go.kr](http://www.koica.go.kr) (검색일: 2009.07.15).

28) 국립국제교육원은 2008년 국제교육진흥원으로부터 명칭이 개편되었으며, 주로 정부 초청 외국인장학생, 외국정부 초청장학생, 학생 및 교원 국제교류, 한국정부 국비유학생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국립국제교육원 홈페이지. [Http://www.niied.go.kr](http://www.niied.go.kr) (검색일: 2009.07.23).

29)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국제협력국 재외동포교육과에 속한 재외한국교육원은 1977년 '재외국민의 교육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설립되었는데, 주요 활동은 일반교육, 재외교육기관 지원, 학술교류 및 한국학 지원, 유학생 지도관리 등이며, 홍보활동 차원에서 주재국과의 친선을 도모하기 위한 문화행사도 지원하고 있다. 1963년 일본 센다이(仙臺), 삿포로(札幌) 등 10개 도시에서 문을 연 한교교육문화센터가 효시가 된 한국교육원은 1980년대 서구 지역을 비롯하여 한국교민이 진출한 국가별 수요에 따라 설치가 확대되고 있다. [Http://kr.dictionary.search.yahoo.com](http://kr.dictionary.search.yahoo.com) (검색일: 2009.07.23).

- 국제문화교류의 기획과 추진 주체, 그리고 재정 분담 등이 불분명하여 상호 중복되거나 사업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갈등 상황이 종종 발생

- 이러한 문제점들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관리시스템의 확립 요망

○ 중복성을 탈피하고 통합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모범적인 사례로서 ‘코리아센터’(Korea Center) 제시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원의 운영과 연계하여 다양한 한국문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개념으로 2006년부터 코리아센터 설립을 본격적으로 추진

- 이것은 기존의 재외 한국문화원을 확대·개편하여 관광공사, 콘텐츠진흥원 등을 해당 국가의 동일한 장소에 입주시키고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 서비스를 하나로 연계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

- 코리아센터는 전통·민족문화, 문화산업, 관광콘텐츠의 창작 활성화와 경쟁력 확보, 효율적 해외진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관련 기관들 사이의 네트워크 구축을 시도함으로써 국제문화교류 사업의 역량을 제고(문화체육관광부 2008, 194-5)

- 이에 따라 2006년 9월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 우선적으로 코리아센터를 설립, 2007년 3월에는 중국 베이징, 같은 해 7월에는 상하이에 코리아센터 개원

○ 정부 차원에서 국제문화교류를 주관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 문화체육관광부의 코리아센터와 같은 국제문화교류 사업의 통합시스템은 중앙 정부 차원에서도 각 부처의 관련기관 및 해외파견 부서 등을 하나의 공간으로 통합하여 유기적 협조체제와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

- 한국의 문화교류 사업을 이용하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소비자적 입장을 고려하더라도 하나의 공간에서 한국문화와 관련된 모든 것을 접할 수 있는 공간적 통합은 필수적

- 부수적으로 해외지역의 공간적 통합시스템은 각 부처마다 국제문화교류를 위해 해외 지역에 파견되어 있는 관련 기관의 건물임대비나 인건비 등을 절감하고, 국제문화교류 업무를 담당하는 각 부처 공무원들 사이의 유기적 협력관계 형성에 효과적

<표 6-10>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지역별 지원 실적 (2001 ~ 2007년)

지역명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아시아	국가수	30	29	27	30	31	28	17
	금액(\$)	25,293	29,560	50,188	62,221	69,115	71,950	88,380
	비율(%)	46.83	47.62	40.45	35.01	32.91	37.19	32.71
중남미	국가수	31	32	31	32	32	30	12
	금액(\$)	3,098	7,635	6,725	8,625	12,004	13,957	35,639
	비율(%)	5.74	12.30	5.42	4.85	5.72	7.21	13.19
동구 및 CIS	국가수	24	24	22	23	20	14	5
	금액(\$)	5,859	4,822	5,043	6,438	9,325	6,971	7,523
	비율(%)	10.85	7.77	4.06	3.63	4.44	3.60	2.78
중동	국가수	11	12	10	13	9	8	5
	금액(\$)	535	1,294	42,162	69,219	77,978	54,714	58,475
	비율(%)	0.99	2.08	33.98	38.95	37.13	28.28	21.64
아프리카	국가수	42	45	40	40	46	38	20
	금액(\$)	4,609	9,171	8,031	14,152	15,722	23,430	42,368
	비율(%)	8.53	14.78	6.47	7.96	7.49	12.11	15.68
미분류	금액(\$)	9,281	9,080	10,928	16,138	17,758	21,247	26,791
	비율(%)	17.18	14.63	8.81	9.08	8.46	10.98	9.91
국제기구	기구수	15	8	10	10	20	14	20
	금액(\$)	5,335	509	1,010	906	8,113	1,220	11,041
	비율(%)	9.88	0.82	0.81	0.51	3.86	0.63	4.09
총 계	국가수	138	142	130	138	138	118	59
	기구수	15	8	10	10	20	14	20
	금액(\$)	69,718	77,664	147,900	203,408	215,120	184,881	251,086

출처: 한국국제협력단 2008, 115.

○ 국제문화교류와 공적개발원조(ODA)를 유기적으로 결합한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확충

- 아시아 지역은 전체 인구에서 세 명 중 두 명이 극빈층에 속하며, 문화적으로도 다양한 인종과 종교, 역사가 혼재(KOICA 2008, 19)

- 한국 정부는 지난 2000년 유엔(UN)이 ‘새천년 개발목표’(MDG: Millenium Development Goals)를 선언한 이래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여 신흥공여국으로서 다양한 개발원조 사업 추진(손혁상·최정호 2008, 139)

- <표 6-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많은 액수가 아시아 지역에 집중적으로 지원

- 공적개발원조는 인도적 차원에서 경제적으로 낙후된 개발도상국들을 지원하는 선의의 목적 이외에도 해당 국가에 대한 한국의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여 정치·경제적으로 상호 협력체제 공고화

- 경제적 패권을 목적으로 아시아 지역에 공적개발원조를 집중하여 자원을 확보하고 수출시장을 확대하는 등 지나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한 일본 사례에 주의(손혁상·최정호 2008, 138)

- 정치·경제적 이익을 위한 수단이 아닌 문화적 차원에서 상호 교류를 통한 이해와 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문화교류 프로그램 개발

- <표 6-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아시아·대양주 국가들 중에서도 한국의 공적개발원조가 집중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동남아 국가들과 문화교류를 확대하여 상호 교류와 협력 체제를 공고히 하는 방법 제언

<표 6-11> 한국의 공적개발원조 아시아·대양주 지원 실적 (2001년 ~ 2007년)

단위: 백만원

지 역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동북아	금액	4,905	4,099	5,505	6,026	5,721	5,516	7,293
	비율(%)	15.02	11.08	9.20	8.46	8.08	8.02	8.88
동남아	금액	17,057	20,404	22,926	38,497	39,314	45,206	45,561
	비율(%)	52.24	55.17	38.33	54.05	55.53	65.76	55.48
서남아	금액	9,859	11,563	30,508	25,794	24,949	16,559	27,613
	비율(%)	30.20	31.26	51.00	36.22	35.24	24.09	33.62
대양주	금액	828	920	880	906	811	1,468	1,656
	비율(%)	2.54	2.49	1.47	1.27	1.15	2.14	2.02
합 계	금액	32,649	36,986	59,819	71,223	70,795	68,749	82,123
	비율(%)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출처: 한국국제협력단 2008, 117-119 참조.

○ 국제문화교류 사업의 기획과 준비과정에서 지역전문가를 참여시켜 전문성 제고

- 현재 아시아·대양주 지역에 개설되어 있는 한국문화원은 동북아 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동남아나 남아시아, 대양주 국가들로부터 문화적 홀대라는 현지 주민 및 전문가들의 비판

- 동남아 지역에도 베트남 하노이에 한국문화원이 개설되었지만, 베트남 자체는 지역적으로 동남아에 속해 있으면서도 동북아적 문화를 보다 많이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

- 지금 현재 한국과의 정치·경제적 교류가 왕성하게 진행되고 있는 동남아 지역의 경우 지역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대륙부와 해양부(도서부)를 구분 짓는 양대 문화권의 태국과 인도네시아 정도에 한국문화원 개설

- 남아시아 역시 현재 인도 뉴델리에 한국문화홍보관이 설치되어 있으나, 힌두 문화권인 인도 이외에 이슬람 문화권을 대표할 수 있는 국가에 한국문화홍보관 개설

○ 국제문화교류를 추진함에 있어서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적 지원이나 해외 시설 기관 확충

- 정부 차원에서 ‘선택과 집중’에 따라 문화교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국제적 역량 강화

- 중국이나 일본 등 동북아뿐만 아니라 보다 확대된 차원에서 한국문화원과 문화홍보관을 다른 지역과 국가들로도 확충

- 지역적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 주요 국가들에 대한 집중적인 교류나 협력 강화

- 동남아 지역의 경우 아세안(ASEAN) 내에서 정치적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태국과 인도네시아 등에 대한 전략적 접근 요망

- 남아시아 지역의 경우 종교적으로 인도와 더불어 파키스탄도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주요 국가

- 대양주 지역의 경우 호주와 더불어 한국인들과 인적 교류가 잦은 뉴질랜드도 문화교류가 강화될 국가로 지목

○ 한국 정부의 재정적 능력과 역량 강화가 필수적

- 한국문화원 및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각종 시설물과 사업들은 국가의 재정적 능력과 직결³⁰⁾

- 한국문화원이나 문화홍보관의 개설을 위해 보다 장기적인 기획과 재정 확충 요망

- 해외 국가들의 코리아타운이나 한국인 거리 등은 단기간 내 커다란 투자 없이 한국문화를 홍보하고 문화교류를 증진시킬 수 있는 효과적 공간

- 최근 아시아·대양주 국가들의 코리아타운에서 현지 주민들과 문화적 접촉에 따른 크고 작은 갈등 발생³¹⁾

30) 아시아 지역에서 일본이 국제문화교류를 위해 투자하는 재정적 지원과 비교하여 한국의 재정적 지원은 상대적으로 크게 빈약할 수밖에 없으며, 최근 들어서는 중국의 문화적 접근도 엄청난 물량공세 차원으로 전환되고 있다. 예를 들어 지난 2008년 치러한 한·태 수교 50주년 기념행사는 ‘코리아 페스티벌 2008’을 통해 한류 스타들을 동원하는 등 성대하게 치러졌으나, “2007년 일본과 태국 사이의 수교 120주년 기념행사와 견주어 기간과 규모 면에서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태국 대학생들의 평가이다(태국 쥘라롱껀대학교 대학생들과의 면담 2009.06.19).

31) 중국의 베이징 ‘왕징’(望京) 지역에는 약 6만 명의 한국인들이 거주하는 코리아타운이 조성되어 있으며, 이들과 중국인들 사이의 문화적 교류와 접촉이 빈번해지다 보니 크고 작은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코리아타운이나 한국인 거리를 활용한 각종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방안 모색

(4) 보다 다양한 문화교류 프로그램과 문화 콘텐츠 개발

○ 전통·민족문화나 한류 중심의 대중문화 공연을 지양하고, 다양한 분야의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

- 한국의 국제문화교류는 아직도 교류사업의 주요 내용이 전통·민족문화나 ‘한류’ 중심의 대중문화 등 특정 부문에 편중되어 기획

- 그 동안 다양하게 개발된 문화 콘텐츠들이 국제문화교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것은 관행적으로 프로그램이 기획되거나 단기간 내 정책적 효과나 경제적 이득을 얻으려는 문화적 상업주의 때문

- 예를 들어 국제문화교류 행사에 전통문화 소개와 한류 스타들을 동원한 대중문화 공연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식의 진부한 프로그램은 아시아 지역의 많은 국가들에서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잃게 만드는 결과 초래³²⁾

- 한류 열풍이 지니는 대중적 흡인력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보다 폭넓은 문화교류를 위해 다양한 문화 콘텐츠 개발과 고품격의 문화교류 프로그램이 기획되어야 할 시점(조부근 2009, 81-82)

○ 한국의 국제문화교류에 부정적 이미지를 부여하고 있는 해외 언론에 대한 보다 적극적 접근과 개선의 노력 추진(염성원·오경수 2003, 99)

- 지난 김대중 정부 이래 한류를 중심으로 한 정부의 문화산업 육성과 지원은 특정 문화·예술 부문의 과대성장과 다른 부문과의 불균형 초래

- 정부 주도의 문화산업 지원과 개발은 해외 언론으로부터 비판의 대상

- 한류 문화를 문화산업으로 지원하기 보다는 문화 그 자체를 통한 교류와 소통의 방법으로 인식하고, 한국의 문화·예술 부문이 고르게 성장하고 자생력을 지닐 수 있도록 유도

- ‘문화산업으로서의 한류’가 아닌 ‘문화교류로서의 한류’로 정책적 시각의 변동 요망(이동윤·안민아 2007, 120)

- 한류 문화에 대한 해외 언론의 부정적 시각을 개선할 수 있는 홍보 프로그램을

갈등요인들이 발생하고 있다(강진석 2007).

32) 실제로 지난 2008년 10월 중 치러진 한·태 수교 50주년 기념행사에는 양국 아이돌 스타와 한류 스타들을 동원한 공연을 중심으로 한복 패션쇼와 국악공연이 주류를 형성하였다.

개발하되, 특히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운영하는 해외인사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해외 언론인들을 초청하고 인식의 변화 유도

○ 아시아·대양주 저개발 국가들과의 문화교류를 추진함에 있어서 다문화정책과 연계된 쌍방향적 문화교류와 소통 확대

○ 한국문화의 수요와 공적개발원조에 연계된 경제적 후진국들에 대한 쌍방향적 문화교류 추진

- 한국문화에 대한 실질적 수요는 경제적 선진국이 아니라 한국의 경제성장이나 정치적 민주화를 동경하는 후진국들

- 한국문화를 일방적으로 이들 국가들에게 전수하고 보급하려는 태도를 버리고 그들 국가와 눈높이를 맞추어 상호 교류와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쌍방향적 문화교류 추구

- 예를 들어 한국은 공적개발원조를 해마다 증액하여 경제적 후진국들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 확대

- 한국국제협력단의 아시아 지역사업은 경제, 외교, 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한국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고려하여 아세안(ASEAN) 국가들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되, 개발수요가 큰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과 서남아의 최빈국인 방글라데시와 스리랑카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³³⁾

- 지난 2009년 6월 1일 개최된 한·아세안 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아세안 국가들과의 경제적 협력과 지원을 보다 확충시켜 나갈 것이며, 2015년까지 7천 명의 아세안 연수생들을 초청하고, 한국에서는 1만 명의 해외봉사단을 아세안 지역으로 파견할 것을 공언³⁴⁾

○ 한국학이나 한국어 교육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문 영역에서 장학제도와 펠로우십 운영

- 한국의 해외 유학생 초청 및 지원사업의 대부분이 한국어 및 한국학 교육과 연관되어 진행

<표 6-12> 해외 한국학 교직 및 교원고용 지원, 객원교수 파견 현황 (2008년 현재)

33) 한국국제협력단 홈페이지. <http://www.koica.go.kr> (검색일: 2009.07.15).

34) 청와대 홈페이지. <http://www.president.go.kr> (검색일: 2009.07.13).

		미주	유럽	대양주	아시아주	중동	아프리카
교수직 설치	국가수	3개국	7개국	2개국	1개국	-	-
	대학수	44개교	14개교	7개교	1개교	-	-
	교원수	67명	15명	10명	1명	-	-
교원고용 지원	국가수	1개국	3개국	1개국	1개국	1개국	-
	대학수	2개교	3개교	1개교	1개교	1개교	-
	교원수	2명	3명	1명	1명	1명	-
객원교수 파견	국가수	1개국	5개국	-	6개국	-	1개국
	대학수	1개교	6개교	-	10개교	-	1개교
	교원수	1명	6명	-	11명	-	1명

출처: 한국국제교류재단. [Http://www.kf.or.kr](http://www.kf.or.kr) (검색일: 2009.07.15);

한국국제교류재단 2008, 7.

<표 6-13> 지역별 한국어 펠로우십 지원 현황 (2005년 ~ 2008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합 계
북미	5	4	3	4	5	4	4	5	34
중남미	1	0	0	1	0	1	2	4	9
아시아	13	22	30	23	37	45	44	47	261
유럽	34	33	39	46	38	46	38	44	318
아프리카	0	0	0	0	1	3	6	8	18
중동	1	2	0	1	1	7	5	7	24
대양주	0	3	0	1	1	0	2	1	8
총 계	54	64	72	76	83	106	101	116	672

출처: 한국국제교류재단 홈페이지. [Http://www.kf.or.kr](http://www.kf.or.kr) (검색일: 2009.07.15).

- 해외 지역의 한국학 설치나 한국학 지원은 <표 6-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꾸준히 증가
- 해외지역 유학생들에 대한 한국어 펠로우십 지원도 <표 6-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시아와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점진적 확대
- 서구 유럽의 장학생들의 경우 한국어 및 한국학을 지역연구 차원에서 학문적으로 접근
- 그러나 아시아 저개발 국가들의 유학생들은 한국학이나 한국어뿐만 아니라 실

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용적인 학문 분야의 펠로우십 요망

- 특히 이들 저개발 국가들의 유학생들은 공학, 의학, 농·생물학, 그리고 국제관계학 등에 대한 관심이 높으며, 이에 대한 장학제도나 펠로우십 지원프로그램의 확장 요망³⁵⁾

○ 국제문화교류를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다문화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확대

- 유엔 개발프로그램(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의 ‘인력 개발보고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문화의 다양성은 국제관계뿐만 아니라 국내적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제로 등장(이종열 외 2008, 77)

- 국내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나 결혼이주자 급증에 따라 이들과의 문화적 접촉이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상황에서 배타적 민족주의를 상쇄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는 다문화정책을 다각적으로 모색

- 예를 들어 현행의 다문화 가정에 대한 한국화 교육과 더불어 한국인 배우자들에 대한 다문화 교육을 함께 추진(일부 지자체들의 경우 이미 수행)

- 국가 간 문화교류를 확충하여 장기적인 차원에서 문화교류가 단지 국제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도 이해와 협력, 대화와 소통의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추진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민간 부문에서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국제문화교류 사업들을 통합적으로 점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네트워크 확립

○ 지방정부와 민간 부문의 국제문화교류와 문화외교 증대

- 국제문화교류는 국가나 중앙정부 중심의 외교활동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에서 국가 간 혹은 해외지역 간 교류와 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외교활동 증대

- 이들의 국제문화교류는 과거 수동적이고 형식적인 친선교류 형식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인 방식의 지방외교로 발전(장세길 2008)

- 예를 들어 광주광역시는 1996년 중국 광저우(廣州) 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다양한 교류·협력사업 추진(오성동 2007, 132)

- 부산광역시의 경우 2009년 초 후쿠오카 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한편,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 시와도 교류협정 체결

- 이러한 국제교류사업은 단지 광역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그 하위의 지방자치단체

35) 신라대학교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들과의 면담 (면담일: 2009.07.17).

나 대학 등 교육기관 차원에서도 활성화되어 다양한 국제교류 프로그램 운영³⁶⁾

- 민간 부문의 국제문화교류도 해마다 더욱 증가하여 상호 방문과 체험, 문화교류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³⁷⁾

○ 지방정부 및 민간 부문의 국제문화교류를 점검하고 보조·관리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 시스템 개발

- 지방정부나 민간 부문에서 단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문화교류 프로그램들은 체계적 접근이나 기획력 부족, 그리고 전문성의 미비 등으로 말미암아 문화교류의 본원적 목적을 상실하고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우려

- 특히 지방정부 차원에서 정책적 목적에 따라 운영되는 국제문화교류 사업들은 대부분 단순한 교류협정 체결이나 단기적 문화교류 행사 등 과시를 위한 성과성 사업으로 그치고 있어 문제점 유발

- 민간 부문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부 문화교류 사업 또한 단기적 프로그램이나 상업적 목적이 가미된 행사도 있어 자칫 한국의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존재

-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 혹은 민간 부문의 각종 국제문화교류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적 관리나 공조를 할 수 있는 종합적인 관리시스템과 네트워크 형성 추진

- 이러한 관리시스템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나 민간 부문을 관리·감독하는 목적이 아니라 국제문화교류를 추진함에 있어 부족한 사항을 미리 점검해 주고 자문 및 보조해 줄 수 있는 행정서비스 개념으로 제도화 의미

- 지방정부나 민간 부문 역시 중앙정부와의 협력체제 아래 보다 효과적인 문화교류가 지속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태도 배양

IV. 결 론

36)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중구청의 경우 2003년부터 청소년수련관 차원에서 고교생들이 참여하여 일본의 고교 방문 및 홈스테이, 각종 테마 프로그램 등을 수행하는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최지영 2005, 110-111). 또한 부산의 신라대학교는 2009년 6월 부산광역시와 협력하여 캄보디아 프놈펜의 빠나삿뜨라대학교(Pannasastra University)에 학국학 교육센터를 개설하고 한국어 강사를 파견하였다.

37) 예를 들어 연중 기획되는 대한민국국제청소년영화제는 특별 프로그램으로 한·중·일 3개국의 청소년들이 한 자리에 모여 출품작의 시사회를 갖고, 상호 교류와 토론을 벌이는 영상문화포럼을 개최하고 있다(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 2005).

○ 오늘날 국제관계 속에서 국경을 초월한 세계화의 확산은 필연적인 현상

- 다양한 주체와 행위자들 사이의 국제문화교류가 활발하게 추진, 굳이 국가나 중앙정부 차원이 아니더라도 지방정부나 민간 영역에서 다양한 문화교류 사업 전개

- 이것은 이들 국민들 사이의 문화적 이해와 협력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며, 대화와 소통을 통해 상호 문화적 다양성을 이해할 수 있는 첨경

○ 국제관계의 변화에 부응하여 한국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하여 외교통상부, 교육기술과학부 등 정부 부처와 산하 기관들을 통해 다양한 국제문화교류 사업 추진

- 아시아·대양주 지역을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는 한국의 국제문화교류는 중국과 일본 등 동북아 지역을 중심으로 점차 동남아나 남아시아, 그리고 대양주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

- 국제문화교류에 있어서 한국 정부는 국제평화와 협력에 이바지한다는 대외적 목표를 성실히 이행하면서도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국가 이미지와 위상을 제고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

○ 그러나 한국 정부에 의해 추진된 국제문화교류는 거시적 차원의 정책적 목표를 성실히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시적 차원에서 일정한 한계와 문제점을 노정

- 아시아·대양주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한국의 국제문화교류는 중국과 일본 등 동북아 지역에 집중된 정책적 편중성 초래

- 국제문화교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체계적 접근이나 전문성이 부족한 문제점 발생

- 한국의 국제문화교류는 선진국들의 그것과 비교하여 정부 차원의 재정적 지원이나 문화교류의 양적·질적 수준이 아직도 미약

- 문화교류의 내용적 측면에서도 일부 전통문화나 한류 중심의 대중문화 공연에 편중된 프로그램 기획으로 문화 콘텐츠 개발의 필요성 증대

○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

- 특정 지역이나 특정 국가로 편중된 국제문화교류 사업의 효율적 분배 및 전문성이 가미된 체계적 관리프로그램 개발

- 특히 각 지역과 국가별 문화적 특성에 맞는 맞춤형 문화교류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

- 보다 장기적 차원에서 국가 간 문화교류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체계적인 통합 관리시스템 운영

- 국제문화교류를 추진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 확충

- 전통문화나 한류 열풍을 중심으로 한 문화교류의 내용적 측면을 보완하여 다양한 문화 콘텐츠 개발

- 한국만의 일방적인 문화교류 사업에서 벗어나 문화적 다양성을 이해할 수 있는 쌍방향적 문화교류 사업 추진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민간 부문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인적 교류나 문화교류를 총괄적으로 파악하고 지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시스템 확립

○ 결론적으로 한국의 국제문화교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국가 간 문화교류를 문화외교의 수단적 개념으로 이해하기 보다는 국가 간 대화와 소통의 방법으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

- 문화는 정책이나 산업이 아니라 소통의 방법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

- 그 동안 한국 정부가 추진하여 온 정책 중심의 국제문화교류로부터 보다 장기적 차원에서 국가 간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문화교류 태도

- 아시아·대양주 국가들과의 문화교류는 중국과 일본 등 주변 강대국 중심의 정책적 방향에서 벗어나 경제적 후진국들에 대한 교류와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문화적 다양성을 이해할 수 있는 쌍방향적 문화교류 추진

제 7장 종합분석:

한국의 문화교류정책의 다변화 추구전략을 위한 비교분석

제1절 기존 문화교류정책의 한계와 쟁점들

1. 기존 문화정책의 한계

1) 정책적 한계

- 기존의 문화교류는 대체로 수교기념 행사 혹은 상대국의 요청에 의한 수동적 교류의 특성을 지녔음
-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글로벌 문화정책의 부재로 권역별 불균형적인 정책이거나 소수 국가에 집중하는 문제점이 반복되고 있음
- 상호지속적이고 효율적인 권역별 문화전략과 정책의 필요성과 상호보완적이고 복합적인 요소들을 결합한 다각적이고 능동적인 전략과 기준 제시의 필요성
- 국가 간 문화교류를 위한 각종 사업들이 문화교류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온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외교를 담당하는 외교통상부로 이원화되어 일관적이고 종합적인 국제문화교류를 추진하는데 한계
-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문화시설이나 전통문화 공연 중심의 획일적·일방적 프로그램 기획 등은 지역적 특성에 부합하지 못하는 정책 결과 초래
- 정례화 된 문화사업, 연례 포럼, 국내의 중동문화원 그리고 현지의 한국문화원 개원 등의 사업이 자리를 잡게 되면 상대방의 호혜적인 조치를 적극 요구함으로써 문화 교류의 양방향에 대한 문제 제기의 필요성
- 장기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비전과 방향 설정에 대한 근시안적 접근으로 인한 정책의 중복성과 전시성의 한계
- 경제적 이해관계나 정치적 이유로 인한 문화교류정책의 후순위성에 대한 정책개발과 국가적 지원의 한계
- 문화정책에 지나친 중앙 집중과 문화교류 대상에 대한 지나친 일반화와 특정 지역 집중화의 한계는 문화교류정책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국가나 강대국 중심이 아닌 지역 중심성에 뚜렷한 한계로 작동.

2) 환경과 상황의 한계

- 해당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역사적 수준에서의 새로운 기반과 전략의 필요성 대두
- 해당 지역이나 국가에 대한 면밀한 사전조사나 기초적 정보도 없이 단기적으로 추진되어 온 일부 문화교류 행사는 오히려 상대 국가의 문화적 상이성에 기인하는 역효과나 반감 초래
- 문화적 특성만큼은 경제적이고 정치적 이해관계나 내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천편일률적인 영어 중심의 접근이라는 한계를 분명하게 노정시킴.
- 해당 당사국의 언어적 소양이나 기본 지식 없이는 문화교류 정책 자체의 한계를 수반할 수밖에 없음.
- 인력의 절대적 부족과 전문가 양성의 원론적 문제 역시 문화교류정책이 다변화되고 효율적이지 못한 근본적인 한계로 볼 수 있음.
- 문화교류정책을 총괄하는 담당부서의 통폐합 문제 역시 오래 전부터 거론되어 온 한계인데, 문화에 대한 상대적 비중의 증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담 부서나 통합기구의 설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문화교류정책과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함.
- 정치적 필요, 경제적 이해관계, 외교적 이해관계 등에 의해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상황과 조건에 따른 문화교류 방향과 기조는 문화와 함께 동시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여건과 환경의 변화가 수반되었다는 인식이 필요함.

2. 문화교류정책 수립과정에서의 고려 사항

1) 고려 대상과 요소

- 종교 : 개별 국가들마다 종교적 차이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문화적인 측면이 가장 강조되어야 할 정책이나 교류는 종교에 대한 분명하고 정확한 선이해에 기반하여야 함.
- 인종 : 종교만큼 인종에 대한 신중한 분석과 확인이 선행되어야 함. 이는 인종에 따라 인류문화적인 분류와 문명적 특징들이 확연하게 구분되기 때문에, 인종 분류와 정확한 분석 등은 문화교류정책의 근거 있는 기준과 지표를 제공할 수 있음.
- 언어 : 한국의 입장에서 세계화 시대에 강조되는 언어는 당연히 영어일 것이

지만, 적어도 지역 차원이나 개별 국가들에 대한 문화적 접근만큼은 영어가 아닌 해당 국가의 언어에 의해 시작하는 것이 필요함.

- 정치 구조 : 세계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유민주주의체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비록 사회주의 국가들이라 할지라도 정치구조나 체제의 근간은 자유주의 경제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임. 그러나 정치구조나 국가의 기본이념들이 한국의 정치이념이나 내용 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나는 국가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분명하고 사전적인 이해가 수반되어야 함.

- 사회문화적 특성 : 국가에 따른 관습과 풍습은 그 나라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의 하나임. 인사하는 방식이나 사회적 가치와 전통에 대한 대상과 생각은 국가에 따라 많은 편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일반적인 규범이나 도덕적 관념에 따라 외국 사회를 이해하려는 편견과 오만은 버려야할 기준의 하나임. 결국 우리의 눈과 생각으로 다른 나라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습관을 버리고 상대방의 눈과 생각을 통해 이해하려는 인식의 전환이야말로 문화교류를 위한 초석이 될 것임.

2) 변화하는 문화교류정책의 기반과 요소

- 문화교류 접근법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함.

- 경제우선주의적 시각을 뛰어넘어 ‘문화적 거리’를 좁히려는 진정한 노력과 새로운 방법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함.

- 경제적 이해관계는 관보다는 민간 기업이 중심이 되고, 문화적 차원의 교류와 내용은 기업보다는 관이 주도하고 기타 민간 기업과 사회단체 등이 두시받침 하는 방식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해당 지역의 전문가나 담당 인력의 균형적 수급과 활용 방법에 대한 적극적인 고려가 필요.

- 현지의 정세와 문화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고 문화교류만을 담당하는 전문가 제도를 도입하면서, 문화를 정책적 기반으로 고려해야할 필요성이 존재함.

- 친한 인사들이나 친한파 양성 등에 대한 대책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반한파나 반한 인사들의 등장 원인 등을 파악하여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불식시키는 양차원적인 노력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려.

- 지나친 종교적 요소를 통한 개입 방식에 대한 고려의 필요성.

- 현지의 경제적 상황과 진출 기업과의 적절한 관계와 상황에 대한 고려의 필요성 존재.

제2절 권역별 문화교류정책 수립과 효과

1. 권역별 문화교류정책의 필요성

- 권역별 또는 국가별로 한국과의 정치, 경제 및 문화교류의 현황에 따른 중요성과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에 따라 각 권역/국가의 문화적 특성, 한국문화의 수용성, 차별화된 프로그램 구성방향 등을 분석하는 일이 필요함.
- 관광 외에도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등의 다각적인 차원에서의 상호 교류를 정책의 기조로 채택함과 동시에 소수에 집중된 국가 중심 전략에서 문화와 민족 등을 고려한 새로운 권역의 설정과 그에 적절한 전략과 정책의 필요
- 문화원 개설뿐만이 아니라 보다 정확하고 세부적인 권역별 기반연구를 통한 맞춤형 교류정책을 도출하고 획일적인 정책적 접근이 아니 차별화되고 특화된 정책과 내용을 통해 문화교류정책의 지속성 담보
- 다양한 주체와 행위자들 사이의 국제문화교류가 활발하게 추진, 굳이 국가나 중앙정부 차원이 아니더라도 지방정부나 민간 영역에서 다양한 문화교류 사업 전개
- 이것은 이들 국민들 사이의 문화적 이해와 협력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며, 대화와 소통을 통해 상호 문화적 다양성을 이해할 수 있는 첨경
- 글로벌 문화교류정책과 한류 정책 확산의 접목
- 국제관계의 변화에 부응하여 한국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하여 외교통상부, 교육기술과학부 등 정부 부처와 산하 기관들을 통해 다양한 국제문화교류 사업 추진
- 국제문화교류에 있어서 한국 정부는 국제평화와 협력에 이바지한다는 대외적 목표를 성실히 이행하면서도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국가 이미지와 위상을 제고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
- 국제문화교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체계적 접근이나 전문성이 부족한 문제점 발생함으로써 일부 전통문화나 한류 중심의 대중문화 공연에 편중된 프로그램 기획으로 다양성과 한국적 내용을 담을 수 있는 문화 콘텐츠 개발의 필요성 증대
- 정부 차원의 재정적 지원이나 문화교류의 양적·질적 수준이 아직도 미약
- 국가와 국가, 혹은 주요 국가 중심의 문화교류정책의 전반적인 인식 전환이 필요하며, 그 단위는 지방과 지역이 중심이 되는 정책적 전환이 필요함.

2. 권역별 문화교류정책의 효과

- 특정 지역이나 특정 국가로 편중된 국제문화교류 사업의 효율적 재배치와 정책의 방향성 정립에서의 일관성과 통일성 보장을 위한 최저한의 구조조정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음.
- 주요 국가들의 편중성을 배제하면서, 최근 새롭게 재편되고 있는 세계정치질서의 흐름에서 보아도 권역별 구성에 의한 문화교류정책의 방향 설정은 G-20와 같은 세계경제협의체 형태에 비추어 보아도 충분한 정책적 함의가 있음.
- 보다 장기적 차원에서 문화교류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체계적인 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광역적인 지역 구분이 필요한데, 권역별 문화교류정책의 출발은 이러한 통합시스템 구축에 일정한 효율성과 조직의 필요성을 부각시킬 것임.
- 국제문화교류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 확충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문화교류정책의 질적 향상이 기대됨.
- 전통문화나 한류 열풍을 중심으로 한 문화교류의 내용적 측면을 권역에 맞게 보완하여 권역에 따른 문화교류정책의 통일성 위에 다양한 문화 콘텐츠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음.
- 한국만의 일방적인 문화교류 사업에서 벗어나 문화적 다양성을 이해할 수 있는 쌍방향적 문화교류 사업 추진 가능성.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민간 부문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인적 교류나 문화교류를 총괄적으로 파악하고 지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시스템을 확립함으로써 장기적인 측면에서 문화교류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음.

제3절 한국의 문화교류정책 다변화에 대한 제언

1. 문화교류 정책 수립을 위한 의견

1) 지역 단위 문화교류 정책의 필요성

- 유럽연합의 경우 국가 단위 문화교류는 더 이상 커다란 의미를 상실해가고 있으며, 다른 권역들 역시 국가 단위보다는 인종이나 문화 혹은 지방행정구역 중심의 구조적 조정에 따른 재구성이 필요함.

- 개별 국가 차원의 문화교류 정책보다는 지역(Region) 단위의 적극적인 문화 교류 정책 수립이 필요하며, 지역의 의미는 행정자치단위를 의미할 수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도 단위 혹은 광역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음.

- 유럽연합의 경우 지역개발정책이나 사회기금 등의 운영 단위를 지역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실제로 지방정치와 행정의 중심은 국가가 아닌 지방과 지역이기 때문에 지방을 거점으로 하여 한국의 지방 행정자치단체와 직접적인 문화교류의 필요성과 유용성이 존재.

- 문화교류 정책의 대상을 프랑스, 혹은 독일 등의 국가 단위가 아닌 독일의 작센 지방, 프랑스의 노르드 칼레 지방, 이탈리아의 피엔몬테 등과 같이 지방 단위의 행정구역을 묶어서 공통된 문화적 매개 수단을 통한 동시적이고 일관된 정책 수립의 필요성.

- 예를 들면 충북 영동 지역의 포도와 와인 산업 중흥을 위해, 유럽의 주요 와인 생산 국가들과의 문화교류 협력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에 따라 와인과 그에 걸맞는 축제 등을 묶어서 지역 대 지역의 문화교류정책을 수립할 수 있음.

- 그러나 서구 선진 국가들과 남아시아나 아프리카 등의 저개발 국가들과의 문화교류정책 수립에서 지역 단위 전개는 다소 무리수와 여러 한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권역별 문화교류 정책은 두 가지 수준에서 전개되는 것이 바람직함.

- 유럽과 미국, 러시아, 일본, 중국 등의 대규모 국가와 선진 지역은 지역 단위의 접근이 바람직하고, 기타 저개발 국가들이나 국가 간 교역이나 교류 자체가 미미한 국가들의 경우에는 국가 단위로 접근하는 방식을 채택할 것.

2) 각 권역별 문화교류정책의 기준과 내용

- 정부 내 혹은 범정부적 담당부처 신설 혹은 정비

- 국내 유관기관의 협력 강화

- 정부의 부처 신설 및 정비와 더불어 국내 중동 관련 유관기관 간 협력도 보다 긴밀히 추진되어야 함. 이런 점에서 Umbrella 기관으로서 KAS가 출범한 것은 긍정적인 현상임. KAS를 정점으로 민간단체들의 유기적인 협력이 추진되어야 함.

- 양방향 교류 유도의 유도

- 정례화 된 문화사업, 연례 포럼, 국내의 권역별 문화원 그리고 현지의 한국문화원 개원 등의 사업이 자리를 잡게 되면 상대방의 호혜적인 조치를 적극 요구함으로써 한 방향이 아님 양방향의 문화교류사업.

- 대외의존형 경제구조를 가진 우리로서는 한국의 이미지를 전세계에 최대한

알려야 하는 시대적, 경제적 과제를 가지고 있음. 한국의 국익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음. 또한 테러 피해가 발생하는 중동 지역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문화적 교류를 통한 정신문화적 근접성을 제고해야 함.

- 최근 양측 간의 문화교류가 양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으나, 한국의 일방적인 문화적 접근인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경제우선주의적 시각을 뛰어넘어 문화적으로 상호이해하려는 진정한 노력이 결실을 거두어야 중동권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보임. 그동안 서방과 긴밀한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문화적 교류를 수행해 온 중동 측 입장으로는 한국에 대한 중요성을 아직 크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을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함.

- 대중동 문화교류에 있어서 그동안 접근법적 그리고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존재해 왔음. 문화충돌론적 담론이 상당히 팽배되어 있는 상황임. 또한 기독교적 사고방식으로 중동과 이슬람권을 하나의 적대세력으로 인식하려는 경향도 있음. 문화교류 관련 모든 사업이 보다 효과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이 같은 접근법적 그리고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함. 문화교류에 대한 논의는 그동안 계속 있어왔지만 이 같은 환경적 요소 때문에 실질적인 열매를 맺지 못해왔음. 포괄적이고 진정한 상호이해와 교류를 위해 이제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임.

3) 스페인어권이나 중앙아시아권 문화외교와 같은 해외거점의 다변화

- 히스패닉 문화는 크게 세 갈래로 발전함. 흔히 ‘세 개의 히스패닉성’(Las tres hispanidades)이라 불리는 세 갈래는 원류에 해당하는 스페인 문화, 라틴아메리카에 전파된 문화, 그리고 북미에 점차 증가하는 히스패닉 문화로 대별됨. 우리의 라틴아메리카 문화외교는 미국 내 히스패닉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고, 또 스페인은 유럽 문화 틀 속에서 다룸. 하지만 인구조사에 따르면 현재 미국 내에서 4천 5백만명의 스페인어 상용인구가 존재하고 있음. 여기에 불법체류자 1천 2백만명을 더한다면 거의 6천만 명에 육박하는 인구가 스페인어를 사용하고 있는 셈임. 미국은 스페인어 최대 사용국가인 멕시코를 뒤이어 두 번째 상용 국가가 되었음. 2050년에 이르면 미국 내 상용인구가 1억 3천 2백만 명이 된다고 하니까 제1위 국가가 될 것임(Ruiz Mantilla 2008). 여하튼 이 세 개의 문화권은 언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 장르를 관통하며 긴밀히 결합되어 있음. 특히 미국과 라틴아메리카 사이에는 오랫동안 초국경(trans-border) 문화가 형성되어 다채로운 경험을 하고 있음.

- 조정기능의 강화와 전문가 집단의 활용

- 우리나라의 문화외교는 외교통상부와 문화관광부의 산하 기구들이 주로 맡고 있음. 서울시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한국국제교류재단이나 문화부 산하의 각종 예술 관련 단체들의 기여도가 압도적으로 높을 것임. 이제 학술 교류나 문화교류도 현지 사정에 밝은 전문가들이 청사진을 만들고, 단계적으로 프로그램을 성숙시켜 나가는데 자원과 역량을 집중시켜 나가야 할 것임. 특히 한국학 프로그램, 번역 프로그램도 그냥 우리 것을 내팔치는 식으로 운영할 것이 아니라, 전략적인 차원에서 어떤 방식으로 육성할 것인지 고민을 해야 함.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한국어 교수에 집중하면서 한국학으로 유도하는 채널은 만들어주지 않을 경우 중국에는 한국어 수강자들도 모두 떨어져 나가 버리기 때문임.

- 최근에 들어서는 국제교류재단에서도 이런 문제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음. 지역별로 전문가들을 자문위원으로 영입하여 현지 사정에 알맞은 지원책을 모색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하지만 지역별로 한국학을 양성하는 장기적 플랜이 있어야 하고 그런 계획이 세워지면 일관성이 있게 추진할 조정자(coordinator)도 있어야 함. 그렇지 않으면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프로그램이 춤을 추게 됨. 한국학 육성은 한국학 전공자만의 노하우로는 이뤄질 수 없음. 현지 학계 사정을 잘 아는 지역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고, 양자가 잘 협력할 때 중장기적으로 성공할 수 있음.

- 상호이해에 이르는 주제와 소재 발굴

- 오늘날 문화교류는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는 문화를 바깥에 외화하는 과정이기도 하고, 또 타 문화와 대면하면서 자신의 문화를 풍요롭게 하는 잡종화(hybridization)의 기회가 되기도 함. 그런 면에서 문화교류는 독백에서 출발하여 대화로 나아감. 대화의 단계를 넘어서면 잡종화를 통해 새로운 것이 탄생함. 라틴아메리카 문화는 잡종화의 놀라운 보고임.

- 무엇보다 지역전문가와 문화 연구자들을 많이 길러야 함. 문화홍보를 담당하는 사람은 문화예술 종사자로서 언어를 훈련받은 사람이어야 함. 라틴아메리카에서 노벨상을 받은 옥타비오 파스, 네루다 모두 문화외교의 첨병에 있었던 사람들임. 멕시코의 파스가 인도 대사를 지냈고, 칠레의 시인 파블로 네루다가 직업외교관으로 프랑스 대사까지 지낸 사람이란 점은 사람들은 잊음. 그들이 문학상을 받았던 배경에는 작품성도 있지만, 탁월한 문화외교의 역량도 무시하지 못함. 국가는 유능한 문화예술인 일수록 외국에 많이 내보내 많은 경험을 쌓게 하고 그들이 국가에 더 큰 기여를 하게끔 만들어야 함.

- 러시아의 경우 당정 고위관료와의 협조가 매우 중요한 요소일 수 있음. 이러한 정치상황과 함께 러시아 정부의 정책결정의 비공식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음. 법적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고위직 인사의 자의적 권한이 상당함.

따라서 현재 문화정책을 담당하는 정책엘리트와 장기적 관점에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 대기업과의 긴밀한 협조. 러시아 시민에 보다 쉽게 접근하기 위해 러시아 시장에서 달성한 한국 대기업의 성공에 편승할 필요가 있음. 이들 한국 대기업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하여 이들을 통한 한국문화를 홍보한다면 효과적으로 다양한 계층에게 접근할 수 있을 것임.

-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에 대한 독자적 접근 필요. 한국문화 정책을 수행할 독자적 기구를 중앙아시아 지역 거점 국가에 설립할 필요가 있음.

4) 전문성과 체계적 접근의 문제

- 한국의 국제문화교류는 장기적 차원에서 체계적인 접근과 전문성 부족
- 국제문화교류 및 문화외교의 담당 업무와 사업의 중복성
- 한국의 국제문화교류 혹은 문화외교와 관련된 업무는 외교통상부(한국국제교류재단), 문화체육관광부(해외문화홍보원,³⁸⁾ 예술지원경영센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국립국제교육원, 재외한국교육원) 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지방국제화 교류재단), 민간기관이 각기 독자적으로 추진(조부근 2009, 79-80)

-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역할 분담과 업무 조정의 필요성 증대

- 국제문화교류를 증진시키기 위해 정치·경제적 고려에 따른 단기적 행사나 계기성 사업을 지양하고, 보다 장기적 차원에서 국가 간 문화교류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체계적인 접근 요망

- 예를 들어 문화체육관광부는 기존의 계기성 문화교류 사업을 지원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문화를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사업을 총괄·조정할 수 있는 정책적 방향 채택

-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 변화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외교통상부나 교육과학기술부 등 정부의 타 부처 간 업무나 사업들을 일괄적으로 정리하고 조정할 수 있는 권한과 업무체계의 보완 필요

- 국제문화교류 사업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지역전문가 활용의 필요성

- 국제문화교류의 장기적 기획력과 사업 추진의 효과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문화·

38) 2005년 7월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기존의 국정홍보처와 문화관광부에서 분리·운영되었던 해외문화홍보원을 문화관광부에서 통합 운영하고, 그 명칭도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에 관한 직제'를 개편하여 한국문화원으로 일원화하였다(문화체육관광부 2008, 192).

예술 부문이나 외교 업무의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해당 국가나 지역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여 정책과 사업을 준비할 수 있는 전문성 보완

- 현실적으로 한국의 국제문화교류는 현지 국가나 지역에 대한 이해나 정보 부족으로 투자나 노력 대비 효과성이 크게 떨어지는 사례들 발생

5) 전반적인 정책적 준비 및 지원 규모의 부족

- 한국의 국제문화교류는 선진국들과 비교하여 정책적 차원에서의 지원이나 사업이 양적·질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

- 현실적으로 동남아나 남아시아 등 한국문화에 대한 지적 호기심이나 동경이 심화된 일부 국가들에도 한국문화원이나 문화홍보관 부재

- 국제문화교류에 지원되는 국가 재원 및 정부 재정 부족. 문화협정 체결이나 문화공동위원회의 설치에 외교관계에 있어서 해당 국가와의 상대성 존재

- 한국과의 전통적인 외교관계나 정치·경제적 중요성 등에 비추어 거시적 차원에서 집중적인 투자와 정책적 지원 필요

6) 국제문화교류 정책의 콘텐츠 부족의 문제

- 한국의 국제문화교류는 그 동안 양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질적인 차원에서 문화 콘텐츠 개발의 취약성 내재

- 한국이 그 동안 추진하여 온 국제문화교류의 내용적 측면을 평가해 보면, 대부분의 사업들이 한국의 전통문화나 ‘한류’와 관련된 공연·예술 부문에 집중되어 보다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의 콘텐츠 개발과 소재 확장 필요(조부근 2009, 82)

- 실제로 국제문화교류를 추진함에 있어서 전통문화가 지니는 민족적 정체성이나 일상의 대중문화가 지니는 상업적 폐해 발생

- 지나치게 민족성을 강조한 문화교류나 과도한 상업주의에 물든 대중문화의 홍보는 자칫 상대 국가로 하여금 경계심과 거부감 양산

- 한류 열풍에 대응하는 반한류(反韓流), 혐한류(嫌韓流), 항한류(抗韓流) 발생

- 한국의 문화·예술이 마치 전통문화나 한류에 국한되어 한국문화의 전부인 양 홍보되는 문화교류사업 지양. 다양한 문화적 소재와 콘텐츠를 개발하는 문제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

7) 쌍방향적 국제문화교류와 문화적 다양성 문제

- 한국의 국제문화교류는 문화적 다양성 차원에서 한국문화 중심의 일방적인 교류 방식을 탈피하고 보다 다양한 쌍방향적 문화교류의 확충 필요
- 한국의 국제문화교류는 과거 한국의 국가 이미지 개선과 한국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하는 목적에 충실하여 상대 국가의 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하는데 인색하였다는 평가
- 상대 국가의 문화에 대해 배타적 태도를 지닌 문화교류나 문화주권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문화적 국수주의에 빠질 우려(김정수 2006, 186)
- 국제문화교류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도 문화의 다양성 문제는 중요한 공공의제로 등장
- 세계화의 파급효과라고 해석되는 외국인 노동자나 국제결혼을 통한 결혼이주자의 증가는 한국에 있어서도 쌍방향적 문화교류나 다문화정책의 필요성 급증(이종열 외 2008, 77)
- 한국인들의 문화적 인식은 서구 선진국들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호의적이고 관대한 반면, 아시아권의 경제적 후진국들의 문화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강한 배타심 표출
- 이러한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한 계몽과 교육정책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
-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다문화정책은 바로 국제문화교류에 있어서도 쌍방향적 문화교류 정책과 연결, 이에 대한 포괄적 계획과 추진 필요

2. 문화교류 정책에 대한 제언

1) 축제를 통한 지방정부 차원의 문화적 교류와 협력의 필요성

- 유럽이나 아프리카의 경우 많은 국가들에서 현재 일정한 프로그램에 의해 진행되는 다양하고 독특한 축제는 한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많은 축제들과 연결시킬 수 있을만한 문화적인 공통의 유대감이 존재.
- 축제를 통한 문화교류와 유대의 강화는 단순한 이벤트의 교환이나 상호방문의 의미를 뛰어 넘을 수 있는 새로운 지평을 확장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이를 위해 필요한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선결 과제임.
- 첫째, 한국의 지방 축제나 지역 단위 축제의 고유성과 역사적 전통의 복원이 가장 시급한 문제임. 현재 지방자치단체나 지역의 축제는 상업성이 치중한 나머지

지역을 내세울만한 특징이나 역사적 배경이 전무한 편임. 이는 상대 지역과의 문화 교류에서 치명적인 약점으로 대두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의 문화 교류에 어려움이 존재하게 됨.

- 둘째, 축제의 의미에 대한 분명한 정의와 사업에 대한 장기적이고 연속성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 필요성이 존재. 한국의 경우 대개의 축제는 프로그램의 연속성이 없는 편이고,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지속성을 유지하기 힘든 구조이며, 자치단체장의 교체나 정치권력의 변화에 따라 지나치게 유동적이라는 문제가 존재함. 이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지역 단위의 여하한의 문화적 지속적인 교류 자체의 어려움이 상존.

- 셋째, 지역 중심의 문화교류 정책 전문가와 부서의 육성이 시급한 과제임. 중앙 정부와의 업무 중복이나 행정의 비효율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 정부에서는 커다란 수준에서 거시적인 정책을 제언하고 입안하는 역할에 한정하고, 지방 정부에서 보다 세부적이고 세밀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진행시킴으로써 문화교류 정책의 일률적이고 일반화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화교류 정책의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을 정책적 이원화와 효율성을 추구하자는 의미임.

- 넷째, 문화교류 정책에 대한 보다 일관성 있고 정책적 함의를 추구하기 위한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대학의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할 필요성이 존재함. 전문가 양성과 함께 문화를 담당할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측면에서도 고려할 수 있는 요소임.

2) 권역별 세부 방안 제언

- 상징물을 세우자!

- 중동을 아무리 돌아다녀도 한국을 상징할 만한 것들이 없음. 물론 이란 수도 테헤란에 한국 거리와 한국 공원이 있지만 규모면에서 일본과 중국의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음.

- 문화 사업을 정례화하자!

- 현재 대부분 중동 각국과 한국 간의 친선협회가 활동하고 있음. 이 국가별 친선단체를 통해 연례 문화공연을 격년제로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만함. 각 친선협회의 재정적 부담은 KAS나 기업의 후원으로 지원하는 방안임. 더불어 KAS를 축으로 하는 'Korea Caravan' 활동을 정례화 해야 함.

- 번역된 자료를 공급하자!

- 한국 드라마 및 문학작품의 지속적인 번역과 공급 사업을 추진해야 함. 아직

도 문화적 수준이 비교적 낮은 중동지역에는 현지어로 번역된 문화콘텐츠의 수요가 지극히 높음.

- 번역 사업의 중요성은 아직도 중동 국가의 대다수는 상당히 높은 문맹률을 기록하고 있음. 더불어 영어 등 서양 언어로 문화컨텐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경우 중동 전체 인구의 약 5% 정도만이 접할 수 있는 상황임.

- 최대 경쟁력은 태권도다!

- 경제와 선진기술도 있지만 더욱 한국을 명확히 인식시키는 것은 단연 태권도임. 한국의 정신과 예절 그리고 도를 가르치는 태권도는 현지에서 대를 이어 친한 파를 양성할 수 있는 최대 무기라고 할 수 있음. 이집트의 태권도 도장에 다니고 있는 대부분 현지인 어린이들의 부모는 한국인에게 태권도를 배운 사람들임.

- 제3세계의 경우 메달 유망종목으로서 태권도의 인기는 상당히 높음. 그러나 한 때 정치적인 배경에 의한 사범 파견이 주가 되었지만 현재는 그 맥을 찾기 어려운 상황임. 코이카에서 지원하는 일부 사범이 활동하고 있는 상황임. 때문에 일부 중동국가에서 태권도 사범 파견을 요청하고 있으나 실현되지 않고 있음.

- 선교단체를 활용하자!

- 선교활동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만함. 현지의 활동을 선교보다는 장기적인 차원의 선교라는 접근법으로 일단 인도적 구호활동, 교육 활동, 기타 문화 활동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임.

- ‘코리아 센터’를 만들자!

- 문화원 등 중동 현지에의 한국 문화전파 시설을 설립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임.

- 결과적으로 문화원 보다는 다목적 그리고 다기능의 성격을 가진 ‘코리아 센터’를 건립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고 효과적일 것이라고 판단됨.

- 결국 코리아센터는 한국의 IT를 중심으로 한 기술, 의료 및 교육 서비스, 문화 자료실 및 홍보관 등의 역할을 하면서 현지인들이 사업차 혹은 문화적 갈증 해소를 위해 방문하는 시설이 될 것으로 예상됨.

-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자!

- 현재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그 규모가 미약한 중동 진출 한국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필수적임. 제한된 정부 예산에 의존한 한-중동 협력 확대 방안에는 현실적으로 큰 어려움이 있음.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문화투자’ 캠페인을 시작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수주액의 1% 문화투자’하기 혹은 ‘수주액의 0.1% 문화기금 조성하기’ 등의 사업을 구체화하여 협력을 구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만함.

3) 아시아권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정책적 제언

- 이들 지역과 국가들의 문화적 특성에 맞는 맞춤형 문화교류정책의 지역적 확산 전략 요망

- 그 동안 한국의 국제문화교류는 거시적 차원에서 한국의 전통문화 공연과 ‘한류’로 대표되는 대중문화의 확산에 집중, 특히 문화적 민족주의 색채가 강한 중국과 일본에 편중

- 이러한 동북아 편중성은 중국과 일본의 민족주의 감정을 자극함으로써 역효과 초래, 동남아나 남아시아, 대양주 국가들에 대한 문화교류 사업이 상대적으로 활성화 되지 못한 결과 유발

- 아시아·대양주 국가들의 재외국민 숫자를 고려하되, 한국문화에 대한 수요를 함께 고려

- 동남아나 남아시아, 대양주 국가들에 대한 문화교류는 그들 지역과 국가들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문화교류정책 필요. - 예를 들어 동남아 지역을 중국문화의 아류 정도로 인식하여 한국문화 중심의 일방적인 문화교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지양

- 힌두문화와 이슬람문화가 충돌하고 있는 남아시아 지역에서 인도 등 특정 국가에만 편중된 문화교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회피

- 대양주 국가들의 경우에도 식민지 지배에 의한 서구식 문화와 더불어 각기 토착적인 원주민 문화가 공존하므로 국제문화교류에 있어서 조심스러운 접근 요망

- 아시아·대양주 국가들의 경우 그들 지역과 국가들이 지니고 있는 종교적·인종적 편재와 과거 식민지 경험에 기인하는 외세문화에 대한 배타심을 두루 고려하여 지역별·국가별 특성에 맞는 접근방법 개발

- 국제문화교류를 총괄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권한 강화. 한국 정부가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국제문화교류는 아직도 해외홍보 기능이 지나치게 분산·중복되어 있어 관련 기관들 사이의 유기적 협조체제 부족- 장기적인 정책과 전략에 입각한 사업 계획 및 활동이 빈약한 것으로 평가(염성원·오경수 2003, 106)

- 현재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국제문화교류 및 문화외교 사업은 외교통상부 산하 한국국제교류재단과 한국국제협력단, 문화체육관광부의 해외문화홍보원, 교육과학기술부의 국립국제교육원³⁹⁾과 재외한국교육원 등이 분산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중복성 표출

39) 국립국제교육원은 2008년 국제교육진흥원으로부터 명칭이 개편되었으며, 주로 정부 초청 외국인장학생, 외국정부 초청장학생, 학생 및 교원 국제교류, 한국정부 국비유학생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국립국제교육원 홈페이지. <http://www.niied.go.kr> (검색일: 2009.07.23).

- 국제문화교류의 기획과 추진 주체, 그리고 재정 분담 등이 불분명하여 상호 중복되거나 사업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갈등 상황이 종종 발생. 이러한 문제점들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관리시스템의 확립 요망

- 중복성을 탈피하고 통합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모범적인 사례로서 ‘코리아센터’(Korea Center) 제시.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원의 운영과 연계하여 다양한 한국문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개념으로 2006년부터 코리아센터 설립을 본격적으로 추진

- 이것은 기존의 재외 한국문화원을 확대·개편하여 관광공사, 콘텐츠진흥원 등을 해당 국가의 동일한 장소에 입주시키고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 서비스를 하나로 연계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

- 정부 차원에서 국제문화교류를 주관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부수적으로 해외지역의 공간적 통합시스템은 각 부처마다 국제문화교류를 위해 해외 지역에 파견되어 있는 관련 기관의 건물임대비나 인건비 등을 절감하고, 국제문화교류 업무를 담당하는 각 부처 공무원들 사이의 유기적 협력관계 형성에 효과적

- 국제문화교류와 공적개발원조(ODA)를 유기적으로 결합한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확충. 경제적 패권을 목적으로 아시아 지역에 공적개발원조를 집중하여 자원을 확보하고 수출시장을 확대하는 등 지나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한 일본 사례에 주의 (손혁상·최정호 2008, 138)

- 정치·경제적 이익을 위한 수단이 아닌 문화적 차원에서 상호 교류를 통한 이해와 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문화교류 프로그램 개발

- 국제문화교류 사업의 기획과 준비과정에서 지역전문가를 참여시켜 전문성 제고

- 국제문화교류를 추진함에 있어서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적 지원이나 해외 시설 기관 확충. 동남아 지역의 경우 아세안(ASEAN) 내에서 정치적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태국과 인도네시아 등에 대한 전략적 접근 요망. 남아시아 지역의 경우 종교적으로 인도와 더불어 파키스탄도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주요 국가. 대양주 지역의 경우 호주와 더불어 한국인들과 인적 교류가 잦은 뉴질랜드도 문화교류가 강화될 국가로 지목

- 한국 정부의 재정적 능력과 역량 강화가 필수적. 한국문화원 및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각종 시설물과 사업들은 국가의 재정적 능력과 직결

4) 보다 다양한 문화교류 프로그램과 문화 콘텐츠 개발

- 한국의 국제문화교류에 부정적 이미지를 부여하고 있는 해외 언론에 대한 보다 적극적 접근과 개선의 노력 추진(염성원·오경수 2003, 99)

- 한류 문화에 대한 해외 언론의 부정적 시각을 개선할 수 있는 홍보 프로그램을 개발하되, 특히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운영하는 해외인사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해외 언론인들을 초청하고 인식의 변화 유도
- 아시아·대양주 저개발 국가들과의 문화교류를 추진함에 있어서 다문화정책과 연계된 쌍방향적 문화교류와 소통 확대
- 한국문화의 수요와 공적개발원조에 연계된 경제적 후진국들에 대한 쌍방향적 문화교류 추진
- 한국학이나 한국어 교육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문 영역에서 장학제도와 펠로우십 운영. 한국의 해외 유학생 초청 및 지원사업의 대부분이 한국어 및 한국학 교육과 연관되어 진행
- 국제교류사업은 단지 광역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그 하위의 지방자치단체나 대학 등 교육기관 차원에서도 활성화되어 다양한 국제교류 프로그램 운영. 민간 부문의 국제문화교류도 해마다 더욱 증가하여 상호 방문과 체험, 문화교류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참고문헌>

- 강진석. 2007. “베이징 ‘왕징’(望京) 코리안 타운 지역의 한·중 이문화 갈등요소와 해소방안 연구.” 『국제지역연구』 제11권 1호, pp. 3-32.
- 국가정보원. 2008. 『동남아 사회·문화 바로알기: 베트남·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 편』. 서울: 국가정보원.
- 국립국제교육원 홈페이지. [Http://www.niied.go.kr](http://www.niied.go.kr) (검색일: 2009.07.23).
- 『국민일보』 2007.07.26.
- 김원호, 2009. “한국의 대중남미 외교,” 정은숙 편, <한국의 대개도국 외교: 과거, 현재, 미래>, 한울.
- 외교통상부, 2008. <외교통상업무 참고자료>
- 이성형, 2009. <라틴아메리카의 문화적 민족주의>, 길.
- 임종석, <현장의 소리를 듣는다: 외교통상부 113개 재외공관 다큐 설문조사 보고>, 2006년 정기국회 정책자료집3. 2005,
- 한국국제교류재단, <한-브라질 포럼 제4차 회의 보고서>, 2009. 3.
- 김석환. 2009. “글로벌 금융위기하 러시아의 대응과 시사점.” 『e-KIET 산업경제정보』 427호.
- 한병진 2005. "국가권력의 역동성과 러시아의 시장개혁." 『한국정치학회보』 39집 2호: 103-122.
- 김명섭·이동윤. 2005. “동북아공동체의 이상과 현실: 문화적 대안의 모색.” 『한국과 국제정치』 제21권 2호, pp. 1-30.
- 김정수. 2006. “문화행정의 이념적 딜레마.” 『한국공공관리학보』 제20권 1호, pp. 175-191.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정보센터. 1996. 『1996 뉴질랜드 편람』.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문화체육관광부. 2008. 『2007 문화정책백서』.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지식정보시스템. [Http://www.tour.go.kr/stat/](http://www.tour.go.kr/stat/) (검색일: 2009.07.15).
-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Http://www.mcst.go.kr](http://www.mcst.go.kr) (검색일: 2009.06.30).
- 손혁상·최정호. 2008. “한국의 대 아세안(ASEAN) 공적개발원조(ODA)정책: ‘경제협력’과 ‘개발협력의 이중주.” 『동남아시아연구』 제18권 2호, pp. 137-171.
- 염성원·오경수. 2003. “한국의 국가이미지 제고활동 현황과 인식에 관한 연구.” 『홍보학연구』 제7권 2호, pp. 98-142.

- 오성동. 2007. “한·중 지방정부 간 국제교류의 새로운 패러다임: 경제·문화분야 협력방안을 중심으로.” 『경영사학』 제22집 1호, pp. 131-156.
- 외교통상부 국가정보 DB. [Http://countryinfo.mofat.go.kr](http://countryinfo.mofat.go.kr) (검색일: 2009.07.19).
-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Http://www.mofat.go.kr](http://www.mofat.go.kr) (검색일: 2009.07.15).
- 위키페디아 백과사전. [Http://ko.wikipedia.org](http://ko.wikipedia.org) (검색일: 2009.07.18).
- 이동윤·안민아. 2007. “동아시아에서 한류의 확산과 문제점: 문화와 민족주의를 중심으로,” 『세계지역연구논총』 제25집 1호, pp. 99-126.
- 이종열·황정원·노지영. 2008. “다문화정책의 거버넌스 접근: 인천광역시 사례를 중심으로.” 2008년도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회의 발표논문집, pp. 77-95.
- 장세길. 2008. “친선교류에서 지방외교로: 전라북도 사례로 본 지방외교의 형성과 변화.” 『사회과학연구』 제16집 1호, pp. 462-495.
- 재외한국교육원 검색결과. [Http://kr.dictionary.search.yahoo.com](http://kr.dictionary.search.yahoo.com) (검색일: 2009.07.23).
- 조부근. 2009. “한국 문화외교의 명암.” 한국학술연구원 편. 『한국의 공공외교 활성화 방안』. 서울: 한국학술연구원, pp. 69-94.
- 청와대 홈페이지. [Http://www.president.go.kr](http://www.president.go.kr) (검색일: 2009.07.13).
- 최지영. 2005. “국제교류 프로그램의 변화 가능성.” 『청소년 문화포럼』 제12호, pp. 110-121.
- 한국국제교류재단. 2008. 『2008 연차보고서』. 서울: 한국국제교류재단.
- 한국국제교류재단 홈페이지. [Http://www.kf.or.kr](http://www.kf.or.kr) (검색일: 2009.07.15).
- 한국국제협력단. 2008. 『2007 KOICA 대외무상원조실적통계』.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 한국국제협력단 홈페이지. [Http://www.koica.go.kr](http://www.koica.go.kr) (검색일: 2009.07.15).
- 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 2005. “영화를 통한 청소년 국제교류: 동아시아 청소년 영상문화포럼.” 『청소년 문화포럼』 제12호, pp. 80-109.
- 上海 韓國文化院. [Http://shanghai.korean-culture.org/welcome.do](http://shanghai.korean-culture.org/welcome.do) (檢索日: 2009.07.20).
- 驻华 韩国文化院. [Http://china.korean-culture.org/welcome.do](http://china.korean-culture.org/welcome.do) (檢索日: 2009.07.20).
- 東京 韓國文化院. [Http://www.koreanculture.jp](http://www.koreanculture.jp) (檢索日: 2009.07.20).
- 大阪 韓國文化院. [Http://osaka.korean-culture.org/welcome.do](http://osaka.korean-culture.org/welcome.do) (檢索日: 2009.07.20).
- Trung tâm Văn hoá Hàn Quốc tại Việt Nam. [Http://vietnam.korean-culture.org/welcome.do](http://vietnam.korean-culture.org/welcome.do) (Search Date: 2009.07.20) 참조.

- CIA Factbook.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 (Search Date: 2009.07.13).
- Hill, Ronald. 2002. *Southeast Asia: People, Land and Economy*. Crows Nest, Australia: Allen & Unwin.
- Kim, Myongsub and Dong-Yoon Lee. 2006. "Cultural Alternatives for the Northeast Asian Community: Overcoming Cognitive Obstacles in China, Japan, and South Korea." *East Asian Review*, Vol. 18, No. 1 (Spring), pp. 75-98.
- KOICA. 2008. *KOICA Annual Report 2007: Making a Better World Together*. Seongnam: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 New York Times*, 2007.07.21.
- Piper, Nicola and Anders Uhlin. 2004. "New Perspectives on Transnational Activism." Nicola Piper and Anders Uhlin, eds. *Transnational Activism in Asia: Problems of Power and Democracy*.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pp. 1-25.
- The Times*, 2007.07.21.
- Brill Olcott, Martha. 2005. *Central Asia's Second Chance*. Washington, D.C.: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 Collins, Kathleen. 2004. "The Logic of Clan Politics: Evidence from the Central Asian Trajectories." *World Politics* 56 January.
- Fuller, Graham. 2008 *The New Turkish Republic*. Washington, D.C.: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 Jack, Andrew. 2005. *Inside Putin's Russia: Can There Be Reform without Democrac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Jones Luong, Pauline and Erika Weinthal. 2002. "New Friends, New Fears in Central Asia." *Foreign Affairs* 81(2): 61-70.
- Tsygankov, Andrei. 2007. "Modern at last? Variety of weak states in the post-Soviet world." *Communist and Post-Communist Studies* 40.
- Way, Lucan. 2008. "The Real Causes of the Color Revolutions." *Journal of Democracy* 19(3): 55-69.
- Arrosa Soares, Maria Susana, 2009. "A diplomacia cultural no Mercosul," *Revista Brasileira de Politica Internacional* 51(1).
- Cowan, Jeffrey and Nicholas J. Cull, ed. 2008. *Public Policy in a Changing*

World, Annals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s, 616, March. 특집호.
Cull, Nicholas J. 2008. "Public Diplomacy: Taxonomies and Histories, Annals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s, March.
Lawrence, Claire, 2008. La dimension culturelle de la politique française en Amérique Latine, IEP de Toulouse.

http://www.sciencespo-toulouse.fr/IMG/pdf/LAWRENCE_Claire.pdf 검색일 2009. 7. 15.

Martinez I Coma, Ferran, 2009. "Cuántas Américas Latinas frente al mundo?" Nexos, abril.

<http://www.nexos.com.mx/?P=leerarticulo&Article=314> 검색일 2009. 7.15.

wikipedia, "diplomatie culturelle,"

http://fr.wikipedia.org/wiki/Diplomatie_culturelle 검색일 2009. 7. 10.

L'Etat du monde 2006: Annuaire économique, géopolitique mondial, Paris: La Découverte.

각종 사이트

한국국제교류재단: <http://www.kf.or.kr/>

diplomatie culturelle et scientifique,(프랑스 외무부 문화과학국 사이트)

http://www.diplomatie.gouv.fr/fr/ministere_817/activite-budget_824/rapports-activite_3886/rapport-activite-2005_15029/diplomatie-culturelle-scientifique_15032/index.html

<http://www.southafrica-embassy.or.kr/kr/aboutsa/tourism07.php#7>

(주한남아공대사관 사이트 참고)

<부록>

I. 설문조사용 질문 내용(한글)

1. 해외 각 국가 주재 한국대사관 문화정책 담당자용 설문조사서(한글)

* 현재 주재하고 있는 국가와 한국과의 문화교류 수준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적정하다 2) 보통이다 3) 부족하다 4) 거의 교류가 없는 편이다

* 현재 주재국과 한국 간의 문화교류는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잘 이루어지고 있다 2)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3)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4)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문화교류의 활성화를 위해 현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현재 진행 중인 문화교류 정책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 주재국과의 문화교류정책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 문화교류 정책의 촉진과 활성화를 위해 조언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 올바른 문화교류정책을 위한 해당 주재국에 대한 자료나 통계 등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문 조사에 끝까지 성실하게 응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설문조사용 질문 내용(영문)

Survey on cultural exchange between your country and South Korea

We would like to ask you to answer the following questionnaires. This survey is part of the project titled Strategy for the Facilitation of Cultural Exchange

with Foreign Countries and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in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his project investigates what is lacking in the efforts of the Korean government for cultural exchange with foreign countries and what the government should do in order to improve it. Please consider that your answer would greatly help us to complete our project. Thank you.

* Please state your evaluation of the current level of cultural exchange between your country and South Korea.

* What area of the future cultural exchange program between your country and South Korea will be your focus?

* How many citizens from your country visit Korea annually?

* In your opinion, what parts of cultural exchange with South Korea should be improved?

In your opinion, what methods could be effective to introduce your citizens to Korean culture and what contents of Korean culture should be emphasized to appeal to your citizens

Please state your advice of what policy orientation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take to facilitate culture exchange with your country.